



건축사

1997 **02** vol. 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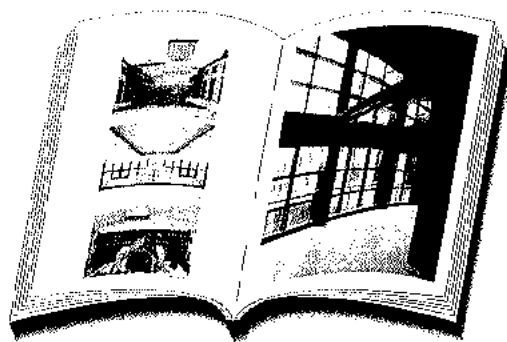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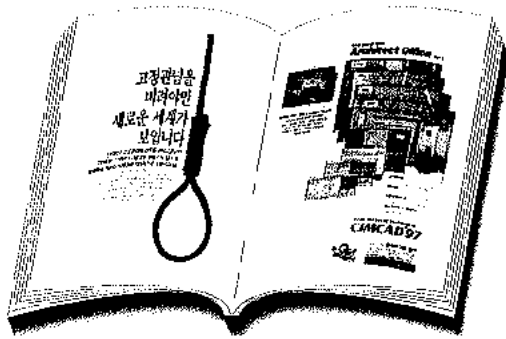
칼럼 **새해 마리에**

작품리뷰 **대구 웨딩 알리앙스**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가 ⑧-이천승(완)**

해외건축 **외국의 건축가 ①-렘 클하이스**





광고문의

대한건축사협회 사업부 : 581-5711~4
(주)이두컴 : 518-6856

원고모집안내

모집내용

수필, 건축기행문, 해외건축
건축관련 연구논문 또는 기타 건축과 관련된 내용의 글
회원작품 (최근 1년 이내 준공된 작품)
계획작품 (현재 계획중이거나 계획으로만 끝난 미실현작품)
작품노트 (작품의 설계과정 소개)

광고지면안내

광고요율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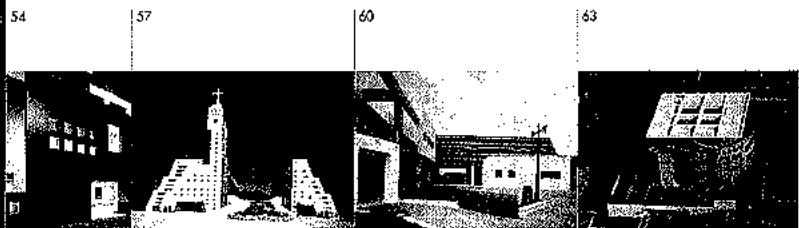
종별(지면)	규격	금액
표지	2 국배판(220cm×300cm)	₩1,200,000
	3 "	₩1,000,000
	4 "	₩2,500,000
표 2대면	"	₩1,200,000
표 3대면	"	₩1,000,000
목차(국문)대면	"	₩1,200,000
목차(영문)대면	"	₩1,000,000
내지	"	₩ 700,000

※ 부가가치세 없음

차례 1997 02 334호



대구 웨딩알리앙스 스케치(이성관 작)



발행인 : 김영수
 편집기획 : 편찬위원회
 편찬위원 : 방철민(위원장), 송효상(부위원장)
 동정근, 심영섭, 양남철
 편집·취재 : 양원석, 정호상, 조한국, 윤태일
 발행처 :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 1965년 10월 23일)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 137-070
 전화 :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 (02)586-8823
 U. D. C : 69/72(054-2) : 0612(519)
 인쇄인 : 이봉수/정문사 (02)266-4555

Publisher : Kim Young-Soo
 Editor : Editorial Committee
 Editorial Member : Bang Chul-Lin, Seung Hchih-Sang, Dong Jung-Geun,
 Shim Young-Sub, Yang Nam-Chul
 Assistant Editor : Business Expansion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 137-070
 Tel : (02)581-5711~4
 Fax : (02)586-8823
 U. D. C : 69/72(054-2) : 0612(519)
 Printer :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칼럼	새해 머리에	윤승중	24
시론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Tum-key)에 대하여	최찬환	26
작품리뷰 / 대구 웨딩 알리앙스			
	작품-대구 웨딩 알리앙스	이성관	32
	대담-어둠속의 빛, 건축의 새로운 지평	임창복	39
	비평-원통과 상자, 건축의 기하학	양상현	47
회원작품			
	노매드	김인철	52
	청주 신흥 성결교회	조구현	56
	제주 관광민속관	김희수	59
	주 스페인 한국대사관	강석원	62
	삼성생명 대구혁신재개발	심우설계	65
	삼성화재 부산사옥	심우설계	68
	오류동 남부교회	김상경	70
계획작품			
	명성교회 교육관	전병직	74
	공존의 패러다임	김희곤	75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가 [Ⅷ-이천승(완)]	권태문	76
해외건축			
	외국의 건축가 [Ⅰ-렘 콜하이스]	성인수	80
전통건축			
	한국전통 주거공간의 마당구성원리(3)	최동호	90
건축기행			
	중국 고건축 기행(4)	김도경	96
기고			
	설계지와 시방서(완)	이중호	102
	기상자료를 이용한 지역별 적정 건축시기 고찰	정광모	107
현상설계			
	과천시립도서관		110
	지질표본관		111
	중랑구 실내체육관		112
	강서구 교통관련 통합청사		114
	광주도시철도 종합사령실		114
	나주상징문		115
해외잡지동향			
			116
통계			
			122
협회·건축계 소식			
			124

Column

On the Beginning of 1997	Yoon Seung-Joong	24
--------------------------	------------------	----

Focus

On Turn-Key Bidding System	Choi Chan-Hwan	26
----------------------------	----------------	----

Review/Taegu Wedding Alliance

Works : Taegu Wedding Alliance	Lee Sung-Kwan	32
--------------------------------	---------------	----

Interview : Light in the Dark

-The New Horizon of Architecture	Yim Chang-Bok	39
----------------------------------	---------------	----

Critique : The Cylinder and the Cube

-Geometry of Architecture	Yang Sang-Hyun	47
---------------------------	----------------	----

Works

Nomad-Multi-Family House	Kim In-Cheul	52
Shinheung Church, Chungju	Cho Gu-Hyun	56
Cheju Folklore Museum	Kim Hee-Soo	59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Madrid	Kang Suk-Won	62
Samsung Life Insurance Co., Ltd. Taegu Building	Samoo Architects & Engineers	65
Samsung Fire & Marine Insurance, Pusan Building	Samoo Architects & Engineers	68
South Oryu-dong Church, Seoul	Kim Sang-Kyung	70

Process Works

Myeongseong Church Education Hall	Jeon Byeong-Jig	74
Paradigm of Coexistence	Kim Hee-Kon	75

Serial

Korean Architect ㉔ - Lee Cheon-Seung(E)	Kwon Tae-Moon	76
---	---------------	----

Overseas Architecture

Architect Overseas ㉔ - Rem Koolhaas	Seong In-Soo	80
-------------------------------------	--------------	----

Traditional Architecture

A Study on the Structural Principle of Madang Based on Korea Traditional Dwelling Space(3)	Choi Dong-Ho	90
---	--------------	----

Architecture Travel

Travels of Chinese Traditional Architecture(4)	Kim Do-Kyung	96
--	--------------	----

Feature

Architect & Specifications(E)	Lee Chung-Ho	102
Report on Optimization of Regional Construction Period Based on Meteorological Data	Chung Kwang-Mo	107

Competition

		110
--	--	-----

Journal Trend

		116
--	--	-----

Statistics

		122
--	--	-----

News

		124
--	--	-----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감살 안내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4-6840 · 강북구건축사회/303-3425 · 강서구건축사회/634-7168 · 관악구건축사회/884-0048 · 강선구건축사회/445-5244 · 구로구건축사회/802-2275 · 노원구건축사회/833-8076 · 등대면구건축사회/923-6213 · 동작구건축사회/815-3025 · 마포구건축사회/333-5251 ·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 · 서초구건축사회/552-6460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853-2832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8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68 · 종로구건축사회/735-0905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7356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860~5

■전라북도건축사회/(031)437-3381~4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8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경기도건축사회/(031)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63-8932 · 광명건축사회/(02)664-5845 · 구미지역건축사회/(0346)53-2337 · 부천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42)755-5445 · 송탄지역건축사회/(0333)666-6153 · 수원지역건축사회/(0331)43-0662 · 시흥지역건축사회/(032)694-4121 · 인천건축사회/(0345)9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3)49-2668 · 양주지역건축사회/(0351)873-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36)635-0545

■강원도건축사회/(0361)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91)41-7371 · 삼척지역건축사회/(0394)31-84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92)33-5081 · 영월지역건축사회/(037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71)43-7230 · 철원지역건축사회/52-3307 · 춘천지역건축사회/54-2442

■충청북도건축사회/(0431)56-2752 · 53-7342

옥천지역건축사회/(0475)33-3502 · 제천지역건축사회/(0443)43-6253 · 충주지역건축사회/(0441)047-3082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공주지역건축사회/(0416)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52)34-3367 · 부여지역건축사회/(0463)3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55)64-8500 · 천안지역건축사회/(0417)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541)32-2755

■전라북도건축사회/(0652)87-6007~8

군산지역건축사회/(0654)452-39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71)33-2000 · 익산시지역건축사회/0653)52-3796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31)72-3340 · 순천지역건축사회/(065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52)33-2000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3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61)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6)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7)434-2541 · 문경지역건축사회/(0581)53-6677 · 심주지역건축사회/(0582)32-5808 · 안동지역건축사회/(0571)57-7464 · 영주지역건축사회/(0572)34-56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36)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5)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52)44-6023

■경상남도건축사회/(0551)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8)635-3432 · 거창지역건축사회/(0598)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25)35-5852 · 밀양지역건축사회/(0527)355-4648 · 삼천포지역건축사회/(0583)33-9779 · 양산시지역건축사회/(0523)84-3050 · 울산지역건축사회/(0522)74-8336 · 진주지역건축사회/(0531)745-6403 · 함무지역건축사회/(0557)645-7420

■제주도건축사회/(064)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62-2223

새해 머리에

On the Beginning of 1997

윤승중 / (주)원도시건축
by Yoon Seung-Joong

1997년을 우리는 매우 불안하고 우울한 상황으로 맞고 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국제화시대의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현재 처해있는 총체적 경제불황을 탈출하기 위한 거국적 힘의 집합이 매우 필요한 때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저력과 합의를 바탕으로 더 일하고, 더 절약하여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며, 이런 여건을 만들어 가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근원적인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이런 인식하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일년간 여러 주체들의 합의과정을 통해 마련한 새 노동법이 지난해 말에 매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강행통과하면서, 결과적으로 전국적인 파국을 맞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비민주적인 방법의 처리가 빌미가 되어 경제살리기를 목표로 개정되었다는 새 노동법의 내용의 옳고 그름보다는 오히려 민주화 투쟁의 명분이 가세되어 지극히 혼돈의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오늘의 상황에서 국가적, 국민적 이익이라는 거시적, 궁극적 가치와 방향이 외면된 채 온갖 주체들은 우선 자신들의 이익과 권리와 명분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가닥이 잡히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습이 되겠지만 이 혼돈의 과정을 겪는 동안 엄청난 손실과 상처들이 후유증으로 남게 될 것이 매우 염려스럽다. 자유경제 체제하에서 여러 주체집단들의 이해는 상충되게 마련이며 발전단계에서의 충돌은 필연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으나 우리가 모두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와 이상을 공유한다면 좀 더 거시적인 상황의 인식과 태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오랜 세월을 대다수가 비민주적인 사회였다고 믿는 체제하에서 살아오는 동안 점차로 정부와 국민, 계층과 계층 사이의 이해와 신뢰를 잃어가게 되었으며, 성장을 지상의 과제로 삼는 능률위주체제의 사회는 자연히 수직적이며 일방통행적인 관료주의적 양상을 심화시켰고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 무수히 있어 왔다. 또한 정부의 도덕성과 정통성에 도전한 오랜 투쟁은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의 대립관계 속에서 깊은 골을 갖게 되었으며, 기성제도권에 대한 거부는 무엇이든 민주운동으로 미화되는 매우 불행한 시대를 살게 되었다. 다수의 힘을 믿는 투지와 이를 저지하려는 공권력의 행사는 아직도 계속되는 악순환이며, 이것은 문명시대라는 현재까지도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공동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향해야 할 사회는 곧 정의로운 사회이다. 민주주의의 이상인 개인의 자유와 평

등이 보장되고 분배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정의로운 사회가 가능해지며 이런 가운데 서로간의 신뢰가 회복되어 갈 것이다.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된대로 진실로 개개인의 인격과 권리가 존중되고, 반대로 개인은 사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의무와 책임을 실천할 때, 정의로운 민주사회가 될 것이며, 사람에 대한, 사회에 대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살아날 것이다.

이것은 모두가 스스로 목소리를 낮추고, 스스로를 변화해야 함을 요구한다.

권리와 요구가 '자율' 될 필요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자유와 평등을 이루려는 노력과 투쟁을 지속해 온 것을 알고 있다. 인간에게 자유와 자아의 실현을 변하지 않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불편으로부터의 자유, 권력과 지배로부터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 획득을 비롯해서, 궁극적으로는 시간, 공간의 제약을 뛰어 넘으려는 인간의 한계로부터 자유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자유에 대한 열망은 20세기를 마감하는 현재에 이르러 엄청난 과학기술의 진보와 산업화를 통한 고도의 물질문명사회를 성취하였고, 이제는 정보화사회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다.

정보사회를 가능케한 컴퓨터와 통신의 네트워크, 초고속 교통수단 등의 고도 과학기술은 지식과 정보의 확산을 통해 다양함과 개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크게 확장한다. 산업사회의 전락인 표준화, 대량생산 대신에 컴퓨터는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라는 프로그램에서 보는 것처럼 개개인의 개성적이고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게 하며, 또 수십개 채널로 제공되는 대화식 TV방송은 선택과 참여라는 정보사회의 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은 산업사회의 산물인 획일적 사회로부터 개인이 크게 자유스러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까지 이상으로 삼고 추구해온 민주주의가 실제로는 다른 요구가 있어도 다수의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는 것을 전제로한 제도이었음에 반해서 정보사회는 다양한 소수의 작은 요구까지도 함께 만족시켜주는 다원화사회 또는 수평적 사회가 되는 것이며, 모든 개인이 존중되고 참여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즉, 반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 자유와 평등의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한발 더 접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자아실현, 자아표현 등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자율성' 이 먼저 전제되고 개인과 공동의 행복이라는 인간특유의 삶의 방식이 지켜지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곧 '자율' 되는 자유인 것이다.

새 시대는 새로운 사고와 의식을 요구한다.

무한 경쟁을 의미하는 오늘의 국제화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강한 제도적 틀과 규제 보다는 개개인의 창의력과 순발력이 더 발휘되는 능동적인 정책으로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건축은 한 시대를 표상하는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창조하는 매우 창의적인 작업이다. 따라서 그 건축이 속하는 자연과 도시와 사회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갖는다. 건축은 인간의 쾌적한 생활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창조적 삶의 장소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건축의 창조적 성취는 규제와 처벌이 강조되는 제도하에서는 매우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오히려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존중되고, 능동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이끌어 내도록 하는 포지티브한 정책이 필요하다.

다만, 창의의 자유를 훌륭히 '자율' 할 수 있도록 의식화되었는지는 함께 자문해 볼 일이다.

1997년을 맞으며 새 시대가 요구하는 정서적지능(EQ)에 더하여 도덕적지능(MQ), 사회성지능(SQ) 등이 새로운 가치척도로 보편화되기를 바라고 싶다.

설계 · 시공일괄입찰방식(Turn-Key)에 대하여

On Turn-Key Bidding System

최찬환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by Choi Chan-Hwan

1. 서 론

UR에 의한 WTO 체제출범, OECD 가입 등으로 국내건설시장이 개방화, 국제화됨으로써 국내도 국내외 건설관련업체간에 치열한 경쟁의 무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우리나라 설계사무소와 건설업체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디자인 개발, 종합적인 관리능력의 배양과 기술력 축적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도 이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써, 또한 건설산업을 고도의 기술산업으로 바꿀 수 있는 기틀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설계 · 시공일괄입찰방식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설계사무소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형공사의 설계수주를 위해서는 턴키제도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

2. 턴키제도의 개념과 유형

1) 개념

중전의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발주해 왔던 전통적인 계약방식에서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계약 · 발주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기획 · 설계와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회사의 계약에 의해 설계시공을 패키지화한 형식으로 일괄된 책임하에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턴키제도를 인식하고 있는데, 여기서 규정한 턴키제도의 정의는 단일건설회사만이 설계 ·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나 ASCE(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ing)의 「턴키방식 건설 계약에 관한 지침서」에서는 '설계 · 시공 일괄회사 또는 시공회사와 A/E(Architect & Engineer) 설계회사의 연합에 의한 단일 계약주체가 시설 기동 시점까지 소요되는 시설의 설계와 시공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턴키제도는 해외건설을 계기로 정부의 주도아래 도입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사하였던 설계시공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는 입찰을 할 때에 당해공사의 실시설계서와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 서류를 만들어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또한 턴키제도의 기본목적은 다양한 설계기법의 개발과 당해 공사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종합관리능력을 키우는 데에 있다. 설계 · 시공 일괄계약방식(Design and Construction)은 설계 · 시공 통합방식(Design Build)과는 차이가 있다. 설계 · 시공일괄계약방식은 설계자와 시공자의 전문성과 협력을 통한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Design Build는 설계조직과 시공 조직을 통합하는 것이다. 설계 · 관리방식(Design Manage)은 PM회사가 전체공사에 대한 업무를 다수의 전문업체에게 하도급하여 수행하게 하고, 자신은 설계 및 관리만을 담당하는 공사관리자(Project Manager)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이다. DM은 설계회사가 중심이 되어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건설업체가 CM을 운영할 수 있다.

2) 유형

설계·시공일괄계약방식(T·K 1)은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기본계획(입찰안내서)과 입찰공고사항에 따라 건설업체(설계업체와 공동입찰 가능)가 기본설계도면과 공사 가격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설계·시공일괄계약방식을 말한다. 실시설계·시공일괄계약방식(T·K 2)은 기본설계서를 발주기관이 작성하는 것이 T·K 1과 다른 점이며 주로 경지정리·도로 등 민원이 발생하기 쉬운 대형공사가 그 대상이 되고 있다.

3. 턴키공사의 도입과 발전

턴키방식의 계약이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70년대 초로서 해외건설이 호황을 맞아 국내 건설업체들이 해외 진출을 하면서 국제적인 계약방식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던 것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고 국내기업들의 국제경쟁력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대형공사나 기술집약적 공사에 설계·시공일괄계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1975년 대형공사에 관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특례규정을 제정하였으며, 1977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삼일항 석유화학 항만공사가 설계·시공일괄계약방식으로 발주되었다. 설계·시공일괄계약제도가 도입·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국내 실정에 적합한 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제도가 개정되어 왔으며, 현재는 1992년 5월 3차 개정으로 대상공사의 범위를 복합공종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공사와 복합공종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으로 예정된 공사중 발주기관의 장이 설계·시공일괄계약으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규정하였으며, 국내 공공분야의 건설공사중에서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건설공사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발주방법을 결정하고 있다. 1990년 이후 1996년 9월까지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심의 내용을 보면, 분야별로는 건축 36%, 토목 34%, 기계·전기 30%의 순으로 나타나고 총건수 2,649건 중 일괄입찰은 213건(8.0%)이며 대안입찰은 89건(3.4%) 기타공사는 2,347건(88.6%)으로 아직 턴키방식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96년에는 전체 건수중 69건(14%)을 턴키방식으로 하였고, 건축분야는 100건중 일괄 15건(15%) 기타공사 85건(85%)로 하였다.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정책에 따라 97년에는 전체건수의 25%정도를 그리고 98년도에는 전체의 40%를 턴키방식으로 발주할 예정으로 있다. 건축분야는 95년도 설계단계별로 보면 전체 65건중(T·K는 24건), 기본설계 44건(T·K는 8건), 실시설계 16건(T·K는 11건) 지침서 5건(T·K는 5건)으로 되었고 건축에서 대안입찰은 전혀없는 것도 특징이

다.(토목분야에만 대안입찰이 있다.) 국내업체의 해외공사의 설계·시공일괄계약 공사수주 실적은 74년도 1건을 시작으로 94년까지 21년간 115개 업체가 169건, 계약금액 177억달러에 달하며 이는 같은 기간중 총계약 건수 1,017건, 계약금액 1,113억달러의 15.9% 수준이다.

4. 외국의 턴키방식

1) 미국

미국은 국제경쟁력을 가진 우수한 건설업체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턴키방식의 프로젝트를 취하는 경우는, 1990년 미국내에 있는 400대 건설회사의 계약고의 56%가 턴키방식이나 혹은 CM방식의 계약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그 중 턴키방식이 76%이며, 나머지 24%가 CM방식이다. 설계시공 일괄입찰계약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은 사업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많은 발주처가 그들의 설계인원을 감하고 기술적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이며, 또한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을 선호하는 발주처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에서 발생한 턴키제도가 산업건설시장에서 병원, 학교, 회관등 다른 건설시장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발주자측에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설계시공의 비용에 대하여 효율적 관리를 하는 CM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CM방식에 의한 공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 일본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건설업체의 설계업의 진출에 대하여 법적으로 승인을 하고 있으며, 또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사회가 보는 시각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자가 건설회사에게 프로젝트에 대하여 타당성조사, 설계, 시공, 감리 등을 맡기는 설계시공일괄계약을 선호하고 있다. 민간공사의 경우 건축업협회 회원 6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수주량의 약 23%가 턴키방식이며, 대규모 건설업체 10개사의 경우 전체수주량의 30~60%를 턴키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어 설계와 시공의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일괄입찰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독일

서독에서는 미국처럼 대형건설공사에서 통용되고 있는 턴키제나 CM방식 등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괄계약방식을 최근에 들어 채택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부에서의 발주기관도 일괄계약방식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있다.

4) 덴마크

덴마크에서는 설계시공일괄도급계약에 대해

여 경쟁입찰제도의 적용한계를 독점규제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대략적 내용은 입찰가격의 객관적인 비교가 안 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응찰자와 임의로 협상이 가능하도록 재량권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경쟁입찰에서 발주자는 최저입찰자와 계약을 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없으며, 또한 시공에 있어서 2개의 입찰자를 확보하여 다른 입찰자와 입찰가격의 안하에 대하여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5) 인도네시아 및 쿠웨이트

공공기관발주공사는 턴키방식이 거의 활용되지 않고 민간발주에는 상당부분 활용되고 있다. 공공공사라도 대형공사에서는 패키지 단위로 분할하여 부분적으로 턴키입찰로 발주한 경우도 있다.

6) 이라크

자국화정책의 일환으로 턴키발주는 지양하고 지명경쟁입찰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공공관서 산하에 시공전담회사를 설치하고 있다.

7) 이란

일괄방식 사용정도는 발주처에 따라 상이하고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공사지연 및 외환부족으로 턴키방식의 공사발주가 증가되고 있다.

8) 사우디아라비아

최근 턴키방식의 프로젝트발주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5. 턴키공사의 장·단점

턴키공사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의 하나인 책임시공문제를 분명히 하고 시설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계약방법으로써 건설관리회사(CM, PM)의 도입으로 설계·시공일괄계약제도를 더욱 확대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의 건설공사 조달방식은 설계 (Design and Engineering), 구매(Procurement) 및 시공 (Construction)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전형적인 시공도급방식, 공사관리위탁방식, 설계·시공일괄도급방식 등 3가지로 구분되며 이 중 설계·시공일괄도급방식은 기술인력이 부족한 발주자를 대신해서 건설산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시공도급방식에 비해 조달기간(설계 및 공사기간)의 단축이 가능하고 계획 및 설계단계에 시공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설계와 시공의 통합수행에 의한 기술력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책임소재가 분명하므로 claim의 발생이 적으며 총액의 범위내에서 실비보수정산방식계약(Cost plus Fee Contracts)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의 비용지출 없이도 시공단계에서 설계변경이 쉬우며 신기술, 신공법 및 다양한 설계기술개발을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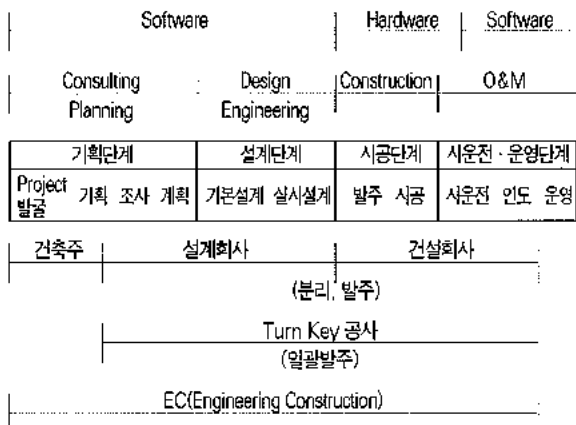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하면 단점으로는 금액산정이 어렵고, 업체가 공사의 품질향상보다는 이윤의 극대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며 공사수주의 한가지 방법으로 설계를 하기 쉽고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발주자는 입찰내역서로 조건만 제시할 뿐 발주자측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진행상황을 잘 파악할 수 없고, 발주자측의 기술자는 전체적인 수행과정에 관한 경험적 및 관련지식습득의 기회가 적으며 설계내용과 총액으로 공사하기 때문에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 등은 허용되지만 시공자의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입찰안내서작성, 기본설계심의, 실시설계심의 등으로 계약절차상의 까다로움과 설계변경의 경직성 등이 발주기관에서 이의 적극적인 활용을 기피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발주자는 턴키공사에 아직 익숙하지 않고 종래의 전통적인 설계후 시공도급방식(기타공사)을 선호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예산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불투명한 공사, 변경이 잦을 우려가 있는 공사 등은 턴키공사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턴키공사는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안정을 받아야 하므로 적정한 공사예산 확보가 어렵고 입찰안내서 작성,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 조달청의 적격심사 및 계약절차 등 발주절차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업무부담이 크며 턴키본래의 취지인 기술력 위주로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고 가격과 PQ점수가 높은 업체가 유리하게 되어, 가격위주의 낙찰자 선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97년부터는 기술점수 50점, 입찰가격 20점, PQ 30점으로 조정하여 기술력의 비중을 높였다. 조달청청에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55억원이상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은 165억원이상의 공사는 국제입찰 하도록 건설시장개방이 본격화 되면 국내업체들은 턴키에 능한 외국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열세라는 문제점이 있다.

6. 턴키방식프로젝트의 수행 기본기능

턴키방식의 프로젝트는 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프로젝트라고도 하는데, 이는 턴키방식에 있어서 설계, 자재구매와 시공의 3대 기본업무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것으로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특히, 각 업무의 상호간에 있어서 통합조정과 관리능력이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턴키방식의 프로젝트는 설계기능을 포함하기 때문에 Design Build 프로젝트 개념과 혼동되기도 하지만, 사실상 넓은 업무영역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설계와 시공의 전문화 업체가 협동하거나 콘소시움을 구성해서 참여하게 된다. <그림1>를 보면 턴키방식의

업무의 영역을 쉽게 알 수가 있다. 이러한 턴키방식의 업무영역에 있어서 각기 업무가 훌륭하게 수행되면 턴키방식의 이점인 책임의 일원화와 공사비 절감 그리고 공기단축 등이 이루어져 경쟁력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바 있는 턴키방식의 기본기능 3가지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업무구분을 하면 <표1>과 같다.



<그림1> 턴키방식 프로젝트의 업무영역

<표1> 턴키제도의 3가지 기본업무

업 무	내 용
설계 (Design/Engineering)	▶ 설계사전업무/부지분석업무 ▶ 계획/기본설계업무 ▶ 실시설계업무
자재구매 (Procurement)	▶ 설계변경업무 ▶ 기술시방검토업무 ▶ 자재견적(관련)업무 ▶ 계약/Claim 업무 ▶ 자재운송관리업무
시공 (Construction)	▶ 품질관리업무 ▶ 원가관리업무 ▶ 공정관리업무

7. 턴키공사의 대상

턴키공사의 분류로는 토목·건축·기계분야로 나누고 토목은 도로, 철도, 상수도시설, 댐, 항만으로 되어 있었으나 공항, 하천, 단지조성, 경지정리 등 4개 세부분야를 추가하였으며, 건축은 공공청사와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기계는 전력 하수(폐수)처리시설, 환경설비, 가스배관망설비, 발전설비 분야로 되어있다. 그리고 연약지반처리 공법, 특수구조물, 특수기술이 필요한 공사와 발주기관이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등은 턴키공사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예외기준으로는 긴급을 요하는 공사 및 연차공사, 국가보안을 요하는 공사, 기계설비의 경우 확장공사, 턴키공사로 발주할 수 없는 불가피한

<표2>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세부심의대상 공사규모

공공청사	▶ 농수산물 유통센터 등 물류시설 35,000㎡이상 ▶ 공공청사(청사, 도서관, 정보통신시설 등) 20,000㎡이상 ▶ 체육, 문화관련시설 50,000㎡이상 ▶ 아파트형공장, 여객터미널, 기타 건축물 등 35,000㎡이상 ▶ 대경간구조 등 특수공법구조물
공동주택	▶ 20층이상 또는 120,000㎡이상 ▶ 신공법 적용 공동주택

사유가 있는 공사로서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공사는 턴키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사에안의 확보, 건설기준과의 부합성, 입찰안내서 작성내용과 범위 등이 매우 중요하다. 입찰방법은 기본설계입찰 후 기본설계점수와 당해공사 수행능력 및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최고득점 입찰자 1인을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하여 실시설계 제출후 심의를 거쳐 적격하다고 판정될 경우 이를 낙찰자로 결정하므로 입찰절차 간소화와 입찰참가자의 설계비 부담경감 및 공사발주소요기간의 단축을 도모하고 있다. 건축분야에서 세부심의 대상공사규모는 <표2>와 같다.

8. 턴키공사의 입찰방법

턴키공사는 일반공사와는 달리 발주기관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설계의 규모, 기능, 규격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입찰안내서)하고 공사에안을 공고(입찰공고)한다. 발주기관의 전문인력이 부족할 경우 입찰안내서 작성을 설계 전문업체에 의뢰하고 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입찰안내서를 기본으로 기본설계도서 및 실시설계도서를 평가하여 설계적격업체를 선정(점수 4위까지) 한다. 턴키공사는 실적공사비개념으로 유사한 공사를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므로 전문성이 미흡한 발주기관은 전문업체에 공사비 산출을 의뢰한다. 공사에안 산출후 사업계획수립, 예산당국과 협의 및 예산반영,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추진계획수립, 입찰공고 및 공사계약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2년이상) 적정한 공사에안 반영이 곤란한 점도 있으나 공사에안 산출은 기본계획을 근거로 하는데 발주기관이 세부사업계획수립, 입찰안내서 작성과정에서 욕심을 부려 상향조정할 수 있고 입찰업체가 설계평가점수를 더 받기 위해 설계수준을 상향하는 문제 및 심의, 자문과정에서 지적사항의 보완문제 등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턴키공사의 수행에 차질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적정공사에안의 확보, 건설기준과의 부합성, 입찰안내서 작성내용과 범위등이 매우 중요하다. 입찰방법은 기본설계입찰후 기본설계점수와 당해공사 수행능력 및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최고득점입찰자 1인을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하여 실시설계제출후 심의를 거쳐 적격하다고 판정될 경우 이를 낙찰자로 결정하므로써 입찰절차간소화

와 입찰참가자의 설계비부담경감 및 공사발주 소요기간의 단축을 도모하고 있다. 97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는 발주자 주관아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위임하였는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주관할 전문공무원의 수가 적고 전문성이 낮을뿐 아니라 심의위원 구성도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효율적 그리고 합리적 운영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것은 연구검토할 문제이다.

9. 건축분야 설계심사 평가 및 배점

지금까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의 건축분야 설계심사평가 및 배점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평가방법

〈표3〉 턴키공사설계평가방법(현행)

	항목	요령
심의위원수	30명(위원당3.3점)	
선정대상위원	원칙적으로 학계, 공공기관위원 특수분야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업계위원 포함	
선정방법	순번에 따라 선정, 미참여위원은 다음심의 우선 선임(위원별 횡수형평)	
배점방법	발주기관이 배점표 작성 위원회 배점 조정	
전문분야별위원수	전문분야별 2인이상 5점미만은 1명가능	
발주기관참여	심의위원으로 참여안함	
위원선정공개	발주기관 통보 및 공개	
발주기관설명	심의시 공사개요, 입찰안내서 위배여부 검토의	
입찰업체설명	심의시 설계개요 및 특성 등 사전설명(시간제한)	
위원채점방법	당해 전문분야 채점	
점수격차	4순위까지 배점의 10% 차등 채점	
채점의견	채점표에 의견제시는 안하고 별지 심의지적사항 제출	
업체채점방법	전문분야별 산술평균점수를 합산 채점	
채점결과발표	심의장소에서 전문분야 및 총점발표	
위원채점결과	비공개	
심의위원질의답변	채점표제출후 합산채점할 동안 별도 시행	
심의지적사항조치	검토없이 심의위원 지적사항 전체를 통보	
심의결과조달청통보	설계점수 우선통보 지적사항은 추후통보	

2) 심사배점

건축분야의 전문분야별 배점과 배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계획(25~35점)

- ① 사전조사사항 ② 단지 및 배치계획,
③ 평면, 입면 및 단지계획 ④ 에너지 절약 및 기타

2. 건축구조(10~20점)

- ① 구조계획 ② 구조안정성, 경제성 및 구조도,
③ 신기술, 공법적용 및 기타

3. 건축시공(10~20점)

- ① 공법선정 ②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계획

4. 기계설비(10~20점)

- ① 설비 시스템 선정 ② 위생, 냉난방 및 소방설비
③ 에너지 절약, 자동제어 설비 및 유지관리

5. 전기설비(10~15점)

- ① 설비시스템 선정 ② 전력, 조명, 약정소방 및 통신설비
③ 에너지 절약, 자동제어설비 및 유지관리
④ 자재선정계획 ⑤ 신기술, 공법적용 및 기타

6. 토목(3~7점)

- ① 사전조사 및 부지조성계획 ② 식재계획
③ 상·하수도계획 ④ 신기술, 공법적용 및 기타

7. 조경(3~7점)

- ① 조경계획 ② 식재계획 ③ 조경시설물계획
④ 신기술, 공법적용 및 기타

10. 턴키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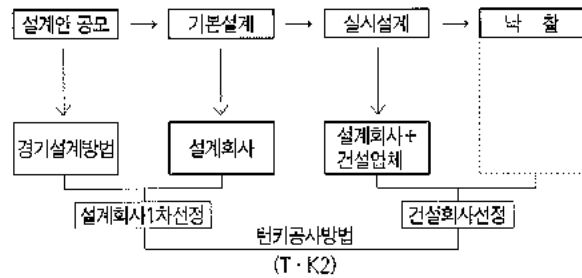
턴키공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SOC등 민자 유치대상사업은 민자유치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원칙적으로 설계·시공일괄방식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발주기관은 시설사업 기본계획서 등의 기본계획까지만 담당한다. 현재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적격심사를 기본설계에 대해서만 심의하고 실시설계는 발주기관 자체설계 자문위원회에 이관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반영하여 심의절차의 간소화와 소요기간단축을 도모하고 있다. 턴키공사의 낙찰자선정에서 설계점수를 높이고(50점) PQ(30점) 및 가격(20점)을 낮추어 저가 입찰가격업체보다 기술력우위업체가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선하였다.(재경원 회계에규중 적격심사기준개정) 또 예산기관에서 턴키대상공사를 계속사업비로 인정하여 주므로써 발주처가 안정적인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계약에 따른 claim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는 계약후 여건변동에 따른 총 공사비 증액을 불허하고 있으나 설계당시 예측 또는 확인 할 수 없었던 사항으로 인한 증액요인을 감안하여 총공사에 산외에 별도예비비(15%수준)의 확보가 필요하며 현행 제한적 최저가(70%)평가방식을 적정공사비를 반영한 평균용찰가 평가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턴키공사에서 대기업에 비해 기술력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중소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체와 공동도급시 가산점부여, 설계보상비(현행1%)

상향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1. 턴키공사의 개선

건축에서는 설계·시공일괄계약방식(T·K 1)이 채택되고 있으나 건설업체가 설계회사와 공동입찰하고 기본설계심의회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조정 등 거의 전분야에 걸쳐 기본설계도서가 작성되므로 설계도서의 양도 많고 설계비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여러업체가 참여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설계안이 너무 적게 제출되어 제한되게 된다. 또 건설업체가 설계업체를 선임하기 때문에 중소설계업체의 참여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경기(현상)설계에서는 작품의 창의성(Design)과 기술력(Engineering)을 중심으로 설계안을 채택하게 되며 제출되는 기본도면도 적기 때문에 여러업체가 응모할 수 있다. 이를 턴키공사에 응용하여 우선 기본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경기(현상)설계방식으로 공모하면 여러설계회사가 참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설계안을 얻을 수 있다. 기본설계를 한 후 턴키공사를 발주하는 T·K 2 방식이 건축에서도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기본설계를 채택하면 일단 설계업체가 선정되므로 실시 설계·시공일괄입찰이 곤란한 점이 있다면 기본설계안을 2개 선정 후 건설업체가 임의로 설계회사를 선임하여 공동으로 입찰하는 방법을 채택하면 된다. 이와같은 방식은 설계의 창의성과 작품성을 널리 공모하는 경기설계의 좋은점과 설계회사와 시공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턴키공사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기본설계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업이윤추구를 극대화하려는 건설업체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으며 공모과정에서 중소설계회사가 참여할 수 있을뿐 아니라 설계비를 공사비와 별도로 분리하고 참여업체에게 보상을 높혀줄 수도 있다.(현행 공사금액의 1%로 2,3,4위 업체를 보상해 줌) 또 발주자가 기본설계안을 하는 과정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고, 기본설계에 준하여 배치, 규모, 형태 등 공사의 개략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뿐 아니라,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설계안을 공모하는 데에는 일단 가장 좋은안을 선정하도록 하고 시공자선정과과정에서 건설가격이나 PQ점수, 기술력 등으로 낙찰할 수 있도록 분리하는 방법이다.

건축은 작품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턴키공사의 경우에도 토목이나 전기, 기계 등의 분야와는 발주방식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설계안을 선정하는 방법과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기술력, 가격, PQ)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설계자와 실시설계자의 분리가 가능하도록 하면 하나의 기본설계를 확정된 후 이에 따라 실시설계를 할 수 있고 기본설계자와 실시설계자가 같아야 한다면 2개



〈그림2〉 턴키공사 개선흐름도

정도의 복수안을 채택한 후 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최종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

12. 결론

정부에서는 건설업체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턴키제도를 활성화시킬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1996년도의 턴키공사는 건수기준으로 전체공사의 14%이었으며, 금년에는 25%로 증가시킬 계획이며, 1998년에는 40%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또 금년 발주공사부터 설계점수를 50점(96년까지 35점)으로 올려 설계점수의 반영을 극대화할 수 있다. 턴키제도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기본설계는 건설교통부에서 관할을 하고 실시설계는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건설업체는 발주관서가 주관하는 가운데 각기 내실있는 업체로 발돋움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턴키제도는 정책적으로 기술개발과 공기업육성으로 인한 공사비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본설계에서 기술 등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 또한 현행의 턴키입찰의 보상이 공사예산의 1%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설계점수가 우수한 업체가 이 금액을 받게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로는 모두가(발주처, 시공, 설계) 턴키제도에 대하여 기피를 하고 있는데, 이 것은 중간과정에 있어서 Monitoring이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심의(중앙)와 실시설계심의(지방)를 분리시행하고 사후평가를 강화시켜야 하며, 기본설계의 지적사항에 있어서 심의위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건축분야는 토목분야와는 특성차이가 있으므로 현상설계방식의 응모에 의해 설계안을 확정된 후 턴키발주를 혼용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따라서 턴키제도의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최대화하여 턴키제도의 특징인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해야 한다.

대구 웨딩 알리안스

Taegu Wedding Alliance

이성관 / (주)한울건축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Sung-Kwan

이 예식장은 서대구의 진입부 죽전 사거리에 위치한다. 이 지역은 장래 주변이 발전 가능성이 많은 곳으로, 한때는 도심 외곽부에 속했던 기존의 공장부지가 도시가 개발됨에 따라 상업 지역으로 점차 용도가 변화해 가는 추세이다. 즉 기존의 대구의 도심이 끝나고 새로운 도심의 시작점이 되는 곳으로, 이 예식장은 새롭게 확장되어지는 신도심의 주상정로의 서단부에 위치함으로써 전체적인 도시 문맥에서 상징적인 잠재력의 의미를 갖는다. 한편 대구는 예식 문화에 있어서 서울 등 타 대도시 에 비해 보다 소비적이고 거대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이 예식장은 이러한 상업화하는 추세속에서 타예식장과 차별화되는 건축적인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였다. 기존의 예식장은 그 용도의 특성상 이용 시간대가 연속되지 않는 단속적인 특징이 있다. 따라서 혼인이 올리는 주일이나 낮, 성수기 계절 등에 비하여 예식이 없는 평일이나 밤, 비성수기에는 건물 자체가 공동화 되어 죽어있는 건물로 인식된다.

이 예식장은 이러한 경직되고 편중된 성격을 탈피하여 항상 살아 있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장소성을 목표로 하여, 기존 예식장의 한정된 기능을 지양하고 장래 호텔 및 상가로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의 변화와 다양화될 쓰임새를 고려, 운영의 활성화와 용도의 변경을 예상하여 계획되었다. 즉 예식이 없는 시간에도 연회와 타용도로의 전용이 가능하도록 고려되어, 각종 다양한 모임 문화의 장이 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야간에는 투명한 타원 볼륨을 통해 발산되는 빛이 야간의 도시 경관에 보다 큰 활력을 주도록 의도하였다. 실제로 현재 호텔에 소속된 각종 연회가 다양화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예식장이 예식의 장소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타용도의 기능을 폭넓게 수용하게 될 것을 말해 준다. 즉 앞으로의 주변 여건이 발전되리라 는 예측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적응력은 예식산업 이후의 수용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상향치를 이룰 것으로 보이며, 이 예식장이 이 지역의 문화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해본다.

건축적인 구성에 있어 전면의 타원의 형태는 교차로에 서의 시각과 동서 남북축에 의한 이동시각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얻어진 결과이며, 이러한 교차 사거리의 증축 및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매스는 가장 코너에 배치하였다. 전면 공지를 최대 확보하고, 주차장 및 녹지 공간을 최대 활용하였다. 예식장이란 프로그램상의 기능의 명료함을 파악하여 주된 예식 기능과 홀 기능, 부대 서비스 기능을 볼륨상 단순명쾌하게 표현하여, 매스의 단순화를 추구하는 구성을 함으로써 예식장의 순수 기능을 강조하였다. 예식장을 외부에서 개방적으로 느끼게 하

도록 의도하였으며, 예식장의 고정 관념을 탈피하고 재료의 대비적 사용으로 슬리드한 부분과 보이드한 부분이 긴장감을 갖게 하는 단순의 마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대비적인 성격의 재료의 사용은 내부에 있어서 의식이 이루어지는 식장은 내향적 공간으로, 이동 대기를 위한 흐름의 공간은 발산적인 공간감을 갖도록 의도된 것이다.

도로변에서 진입할 때 진입부는 투명한 볼륨을 통해 접근되어짐으로써, 내외부 공간의 연결이 자유로우며, 이 홀 공간 너머로 녹지 공간을 배후에 둠으로써 확장된 공간으로의 인지를 의도하였다. 예식장의 주요 요소 중의 하나를 내부의 동선처리라고 볼 때, 이 투명한 볼륨에 일레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둠으로써 기능적인 동선 해결과 함께 예식장의 전체적인 이미지에 동적 요소를 가하는 효과를 주었다. 한편 이러한 투명한 볼륨을 통해 보이는 사람들의 움직이는 모습은 잔치에 모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더 잔치를 흥겹게 느끼게 하는 상승적인 효과를 갖도록 하였다. 투명 공간의 양측 날개에는 예식홀을 둠으로써 기능상 명료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적절한 모듈을 적용함으로써 예식홀의 장래 예측되는 타목적으로의 전용을 가능케 하였다. 하객들과 이용자들의 편안함을 고려한 각실의 배치와 대기실의 적절한 위치 선정이 건축물의 기능적 요소에 충실하고 있다. 6개의 예식실은 획일적인 분위기가 아닌 저마다 차별화되는 독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최상층부인 5층에는 조망이 가능한 식당과 연회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주로 1층에 사무실이 위치하는 기존의 예식장과는 다르게, 예식장을 처음 방문케 되는 고객에게 최대한의 전망이 확보되도록, 6층에 예식 사무실을 위치시켰다. 한편 6층 옥상공간도 각종 행사를 예상하여 옥외 테라스를 두고 다양한 용도로서의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정 공간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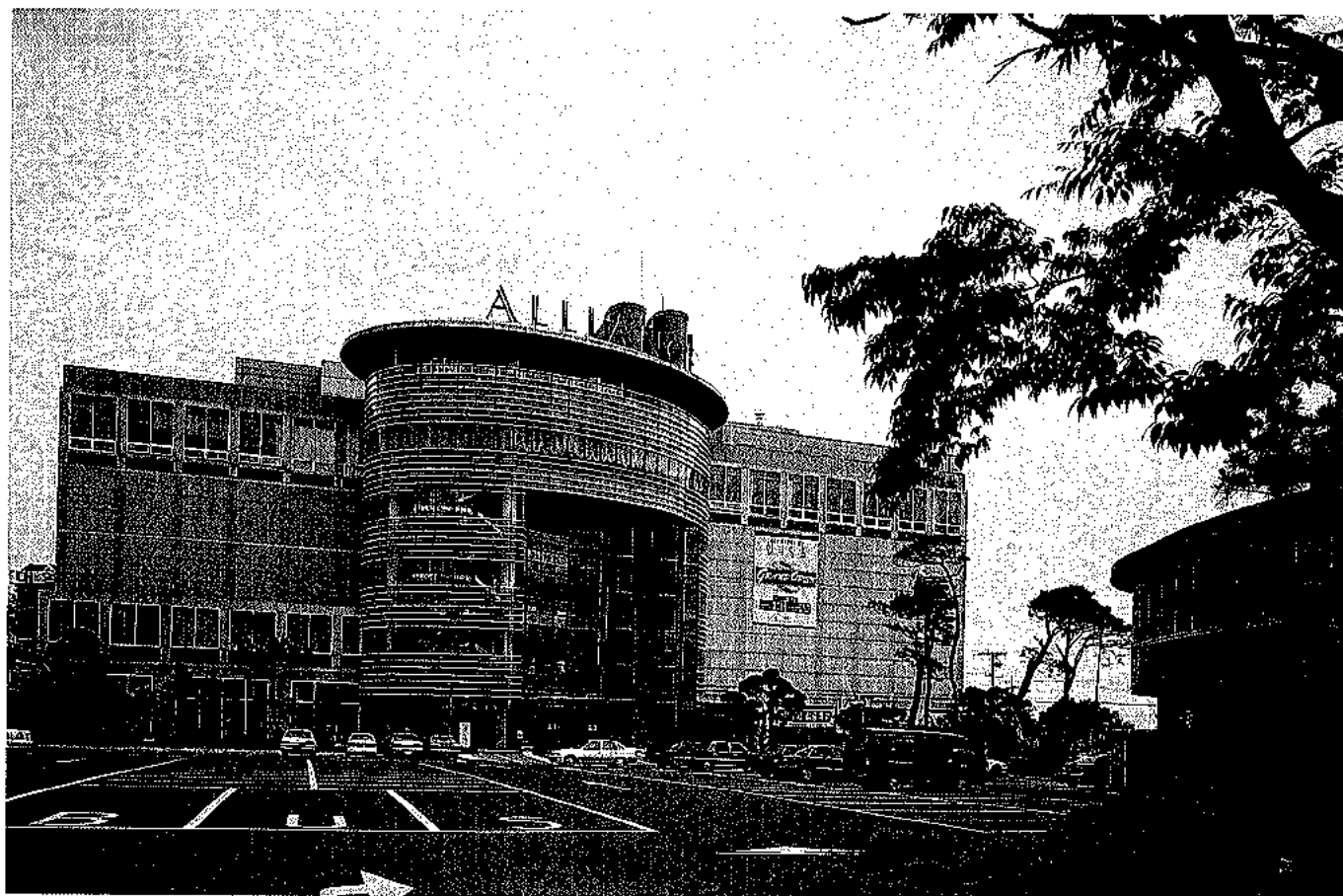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미관지구, 주차장 정비지구
대지면적	10,028.6㎡
건축면적	3,619.7㎡
연면적	16,121.6㎡
규모	지하 3층, 지상 6층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설계	정규백, 양길수, 김영삼, 김현조, 박경웅, 한동식, 김영삼
주요외장재	포천석 버너 및 물갈기, Al-Sheet, 드라이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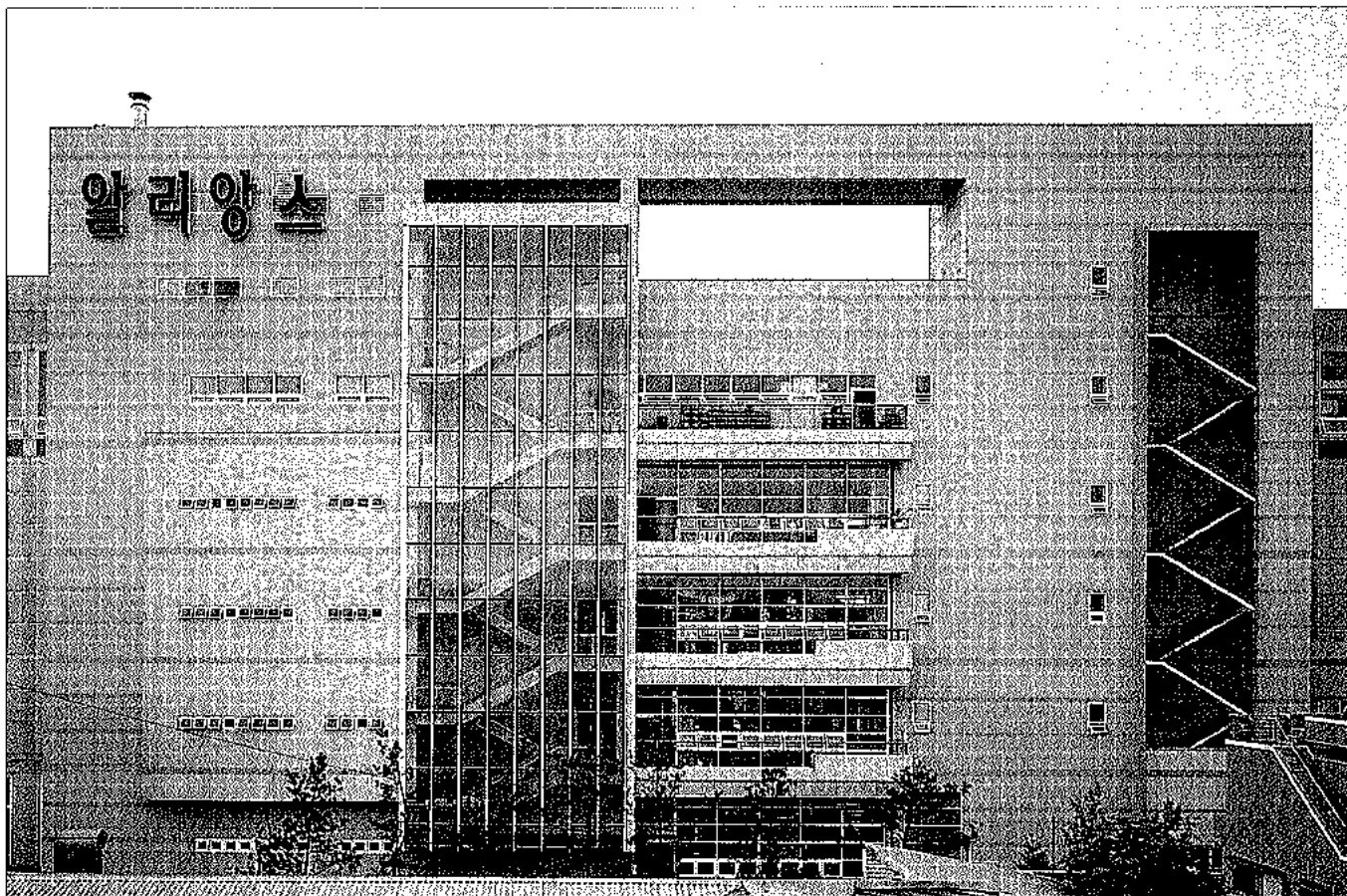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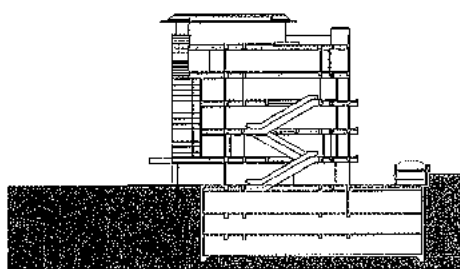
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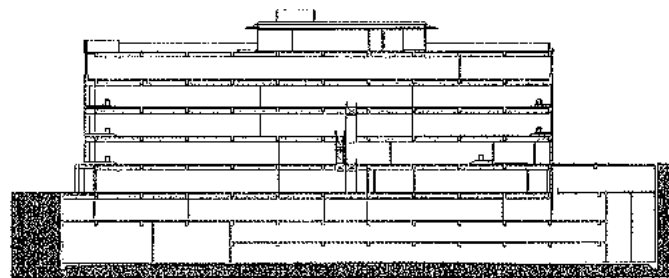
북동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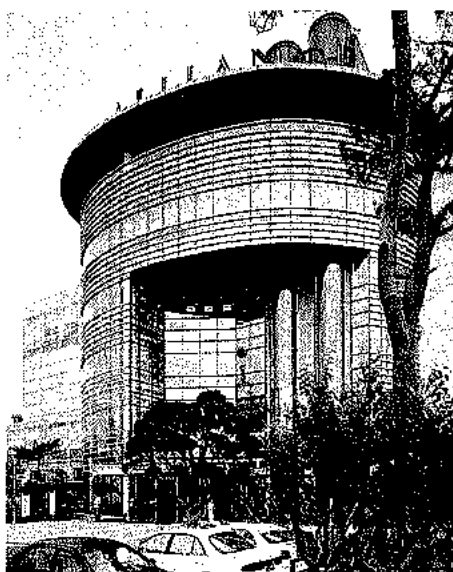
남측 후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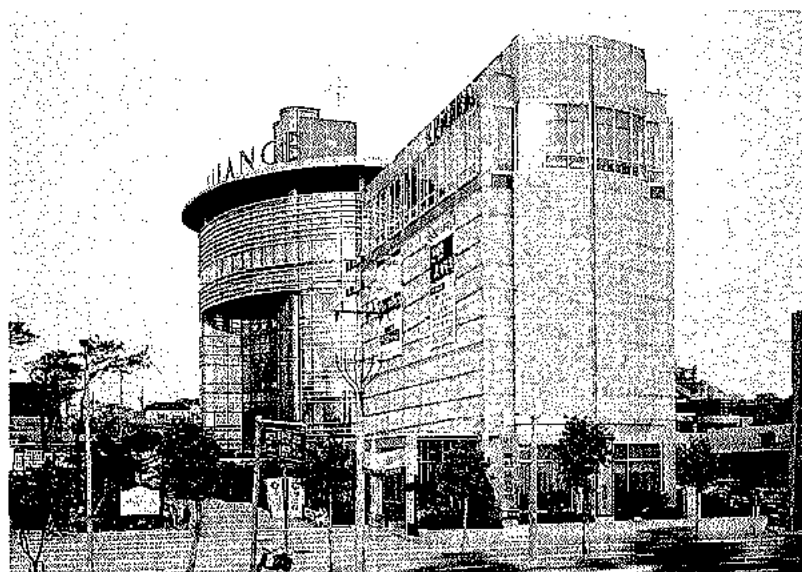
종단면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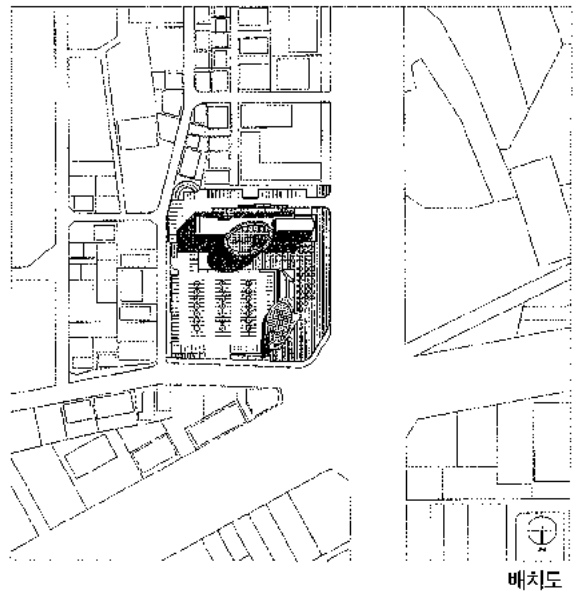
전면부의 투명한 타원 볼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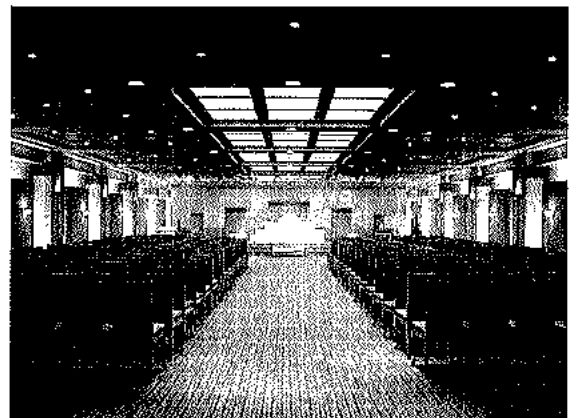
서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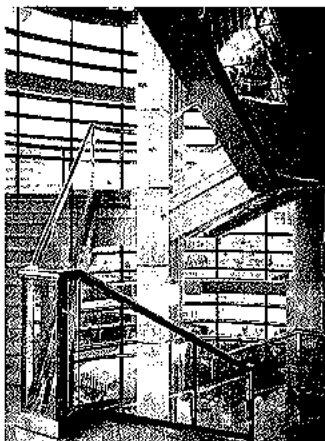
전면부의 투명한 타원 볼륨 야경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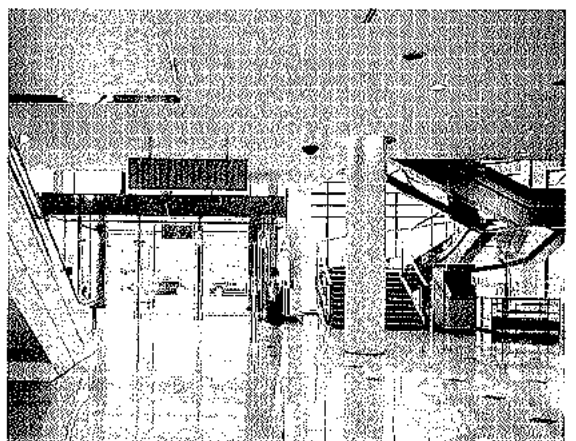
예식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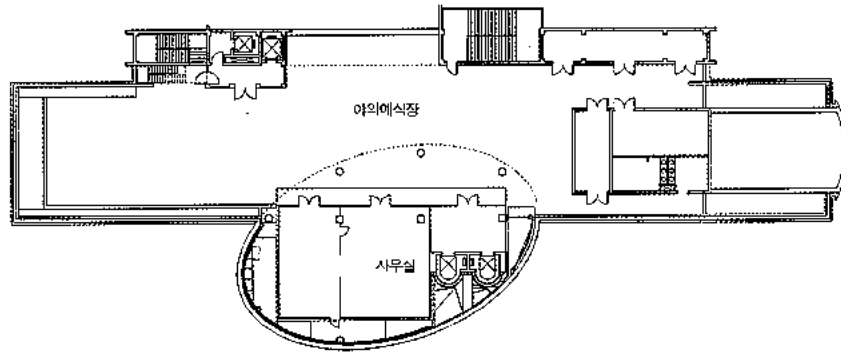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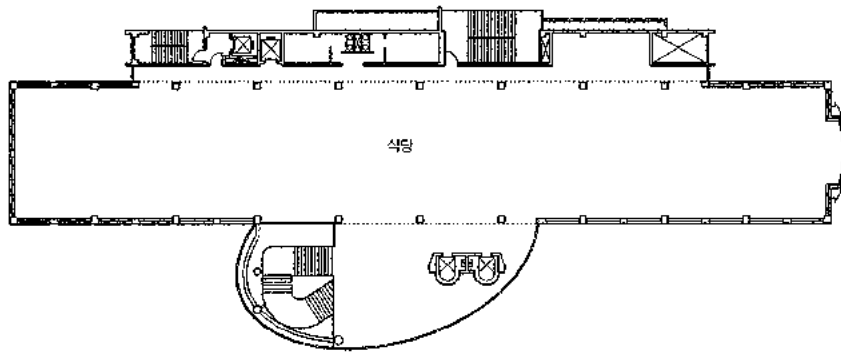
1층 라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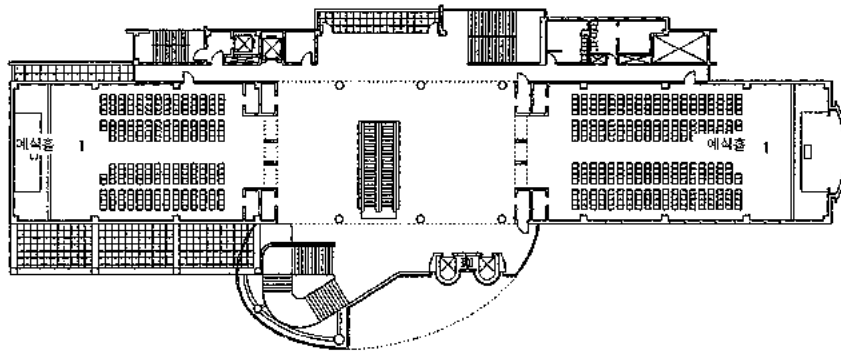
1층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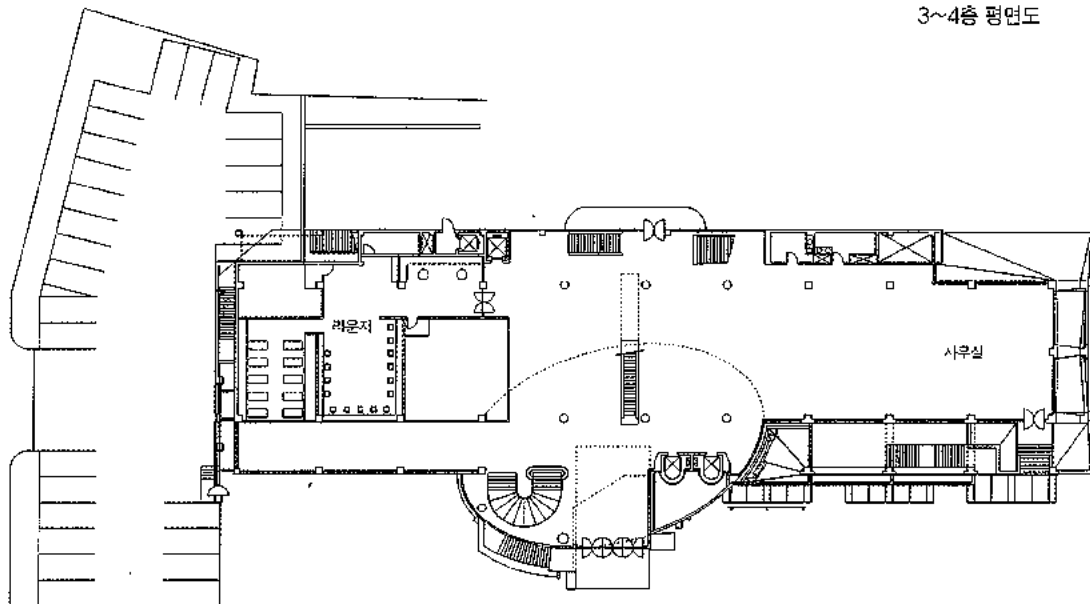
6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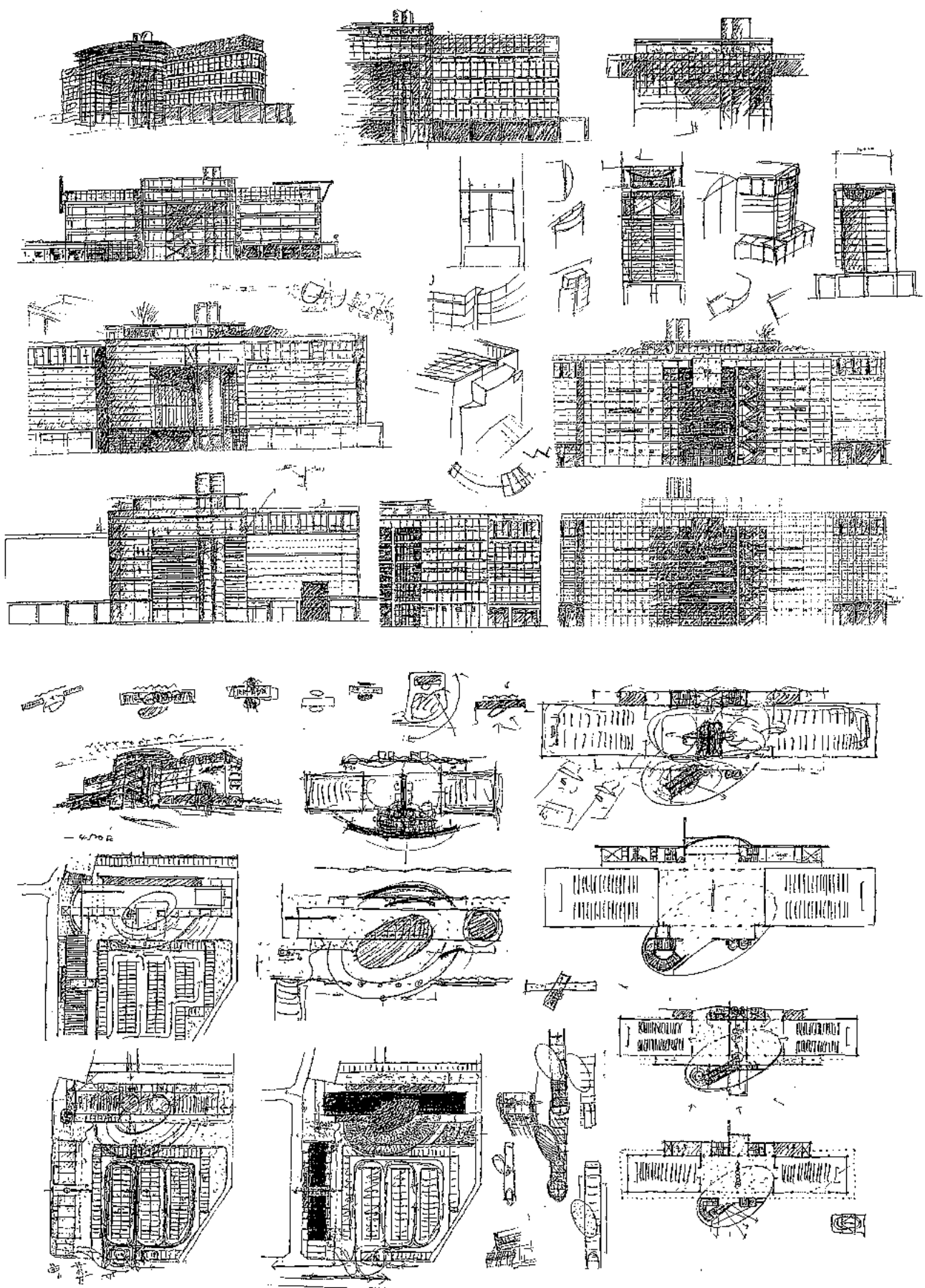
5층 평면도



3~4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스케치

어둠속의 빛-건축의 새로운 지평

Light in the Dark-The New Horizon of Architecture

대담자 / 임창복(성균관대 교수)

일 시 / 1997년 1월 10일 오전

장 소 / 한울건축사사무소



(좌 : 임창복, 우 : 이성관)

임창복 _____ 대구 웨딩알리앙스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선 웨딩알리앙스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작품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성관 _____ 대구 알리앙스는 6개의 예식홀과 연회실을 갖춘, 말 그대로의 예식장 건물입니다. 건물을 배치상으로 봤을 때 대지의 남측면에서 일자형으로 대지의 끝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기능적 이유도 있겠으나 추후 증축을 감안해 안쪽으로 배치된 것이며, 기본 입방형의 매스에 타원형 볼륨이 장축 방향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타원형의 동적인 형태의 속성과 가변고도 투명한 유리의 재질감을 결합하였고, 이러한 외관상으로 솔리드한 매스와 투명한 속성 두 개의 대비적인 효과로 읽히는 결합은 프로그램의 성격 자체를 드러내도록 구성하여, 타원형 유리재료의 공용부분에서는 사람들의 '만남'이나 '흐름'이 이루어지고 본 예식은 솔리드한 매스에서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경건한 예식이 이루어지는 하나하나의 실의 독립성과 끊임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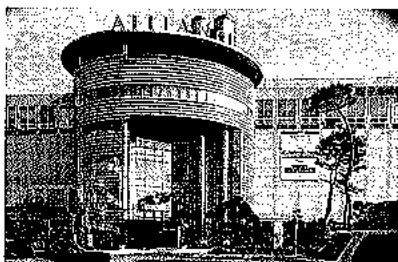
흐르는 사람들을 보여주려 했던 것입니다.

전면의 타원형의 볼륨은 재료상의 대비효과나 void 한 효과만이 아니라, 투명한 유리를 통해 보여지는 동선의 흐름이나 내부에서 일어나는 동적인 성격을 도시의 일부로 끌어들이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투명한 볼륨은 야간시에 그 자체가 도심 속의 조명의 역할을 하며 주변과 소통하게 됩니다.

임창복 _____ 특별히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있어서 관심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이성관 _____ 너무나 당연한 사실로 들릴지 모르나 저는 여기서 출발하였습니다. 즉, 이 건물은 하루중 24시간 내내 '서있다'는 사실과 그 24시간속에는 태양빛이 쬔어진 시간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쓰임의 시간대를 넓히려는 전략과 야경이란 문맥에서 도심 속에서의 역할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기존 예식문화의 전형적인 개념을 상세히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거기에서 새롭게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특히 기존의 예식문화가 낮시간과 주말에 국한되는데 반해서, 주차시설이나 편의시설을 밤까지 연장시켜 밤으로까지 지속되는 건물을 계획하였습니다. 즉 한 건물의 이용



대구 웨딩알리앙스



대구 웨딩알리앙스 모형



대구 웨딩알리앙스 전경

cycle을 생각하여 건물의 형태나 구성 등의 건축의 표현적인 측면만이 아닌 프로그램 자체에까지 많이 고려하였습니다. 즉 도심가로에 코너에 면해있는 위치 등의 입지조건들을 감안해서 도심 야경 속의 건축화된 조명이라는 개념을 설정했고, 야간까지 프로그램을 연장시켜 그것과 더불어 밤의 도시속에 발광체로 기여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도시에 있어 건축은 주어진 전형을 극복하여 그 자체가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실험적 모색이 있어야 하고, 주간이든 야간이든 주위의 환경에 적극적인 제시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임창복 _____ 제 생각으로는 야간에까지 건축의 기능을 연장시키고 야간을 위한 건축의 역할을 염두에 둔 것은 참 흥미로운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시각은 어떻게 보면 일본 오사카에 있는 다카마쓰 신의 기린타워가 도시문학 속에서 기능할 수 있는 건물로써 상당한 주목을 받았던 것처럼, 대구의 도심 한가운데는 아니지만 대구알리앙스를 야간에 등불이 될 수 있는 건물로 만들어낸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창복 _____ 전체 평면을 보면 예식 등 주 기능은 중앙에 배치되었고, 순환동선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들은 그 외부에 위치되어 있는데, 평면을 구성할 때 특별히 의도하신 것인지 궁금하군요.

이성관 _____ 건물 전체의 선형적인 형태는 장래 증축에 여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러한 형태에서 예식이 일어나는 선형의 공간과 그외 동선을 분리한 것은 주어진 프로그램을 해석하고 그것을 풀어내는 가장 유용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즉 예식행위가 일어나는 served space와 그것을 도와주는 servant space같은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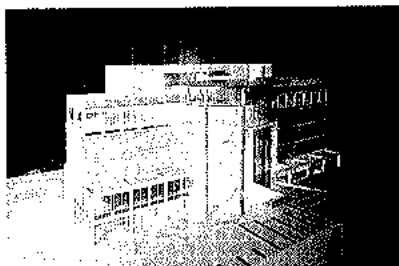
임창복 _____ 사실 우리나라에서 예식문화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착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려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잔치라고 해서 나름대로 하객과 그날의 주인공이 함께 어우러지는 장소가 되었었는데 반해 오늘날에는 각자의 입장이 분리가 된 듯한 형식의 예식장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식장이 어떻게 자리매김 되어져야 하는지 즉, 건축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신랑 신부와 하객과의 관계나 만남에 대한 어떤 고민을 갖고 작품을 하신 것인지 궁금하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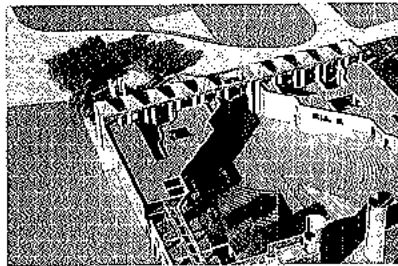
이성관 _____ 우리나라에서 예식의 형식과 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행태는 개별적 행위와 습관이기도 하지만, 사회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하나의 관습이기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축을 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문제를 한참 벗어나서, 건축적 제안을 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기존의 관행을 해석하면서 요구되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건축적으로 더 명쾌한 대안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지역적으로 볼 때 대구의 예식문화가 소비적 성향이 강한 편이고 예식홀도 12개씩이나 있는 대규모 예식장이 있는 지역이기에 기존과 달리 이 곳에서는 가능한 한 예식에 있어 사람들이 기대하는 흥겨움과 함께, 경건함과 격조가 있는 곳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임창복 _____ 보통 예식장하면, 그날의 주인공들은 앞에 나가있고 하객은 마치 공연을 보러온 사람들처럼 앉아 있는 타입의 공간을 떠올리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연극에서의 아래나 타입으로 둘러싸여 진행되더라도 예식 자체엔 지장이 없을 듯 합니다. 우리의 경우 예식공간이 앞뒤로 분리된 것만을 전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건축적 고려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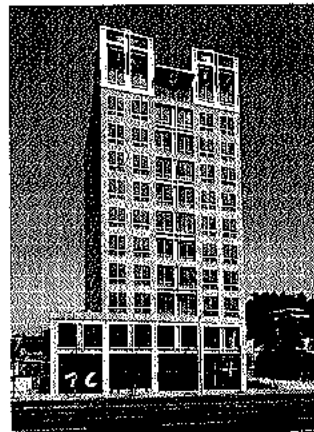
이성관 _____ 저는 예식의 장소는 의식이



대구 웨딩 알리앙스 모형



Fort Landerdale Plaza 모형



부일동동신사옥

이루어지는 공간인 교회 등과 마찬가지로 일방향 축성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같은 집회의 성격을 갖지만 방사형의 평면이 가능한 공연장, 극장 혹은 강당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즉 예식장은 주례-혼인 당사자-하객의 3단계의 영역으로 공간적 깊이감에 따른 일방향성을 갖게 되고 또 이러한 성격은 예식의 형식(혼인 서약, 하객인사) 과도 부합되므로, 전통적인 장방형의 평면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경우 예식홀의 폭과 깊이는 그 규모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필요한 깊이감을 주기 위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임창복 _____ 작품을 보면 장방형과 원형이 결합됨으로써 전체가 변화감이 있고 나름대로 긴장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즉, 원형과 장방형의 조합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작품 속에서 보여집니다. 특히 동국대 현상안이라든지, 강릉종합터미널과 같은 작품에서도 원형과 장방형의 조합에 의한 조형적 접근이 엿보이는데 평소 이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는지요.

이성관 _____ 저는 형태와 재료의 구성에 있어 단조롭지 않고 긴장감과 활력을 주는 대비적인 병치를 즐겨 쓰는 편입니다. 여기서도 형의 장축의 불투명한 부분과 거품같은 투명함을 대비시켰고 형태적으로는 장방형과 타원을, 재료에 있어서는 불투명하면서도 부드러운 재료인 돌과 차고 딱딱한 유리를 대비시켰습니다. 돌과 유리를 사용한 것은 그것들이 현대적인 재료나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었고 이미 말씀드린 프로그램의 해석의 결과 나온 것이며, 여기서는 돌을 구조재로서 읽혀지는 역할이 아닌 마감재로서의 질감 자체만을 채택했기 때문에 가벼운 평탄면의 마감재의 개념으로 표면을 처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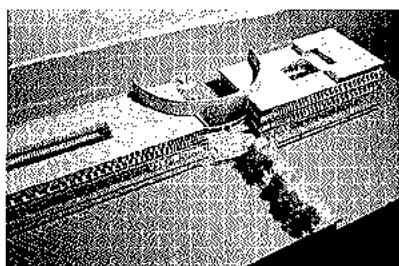
시간에 따라 변하는 현상적인 측면에서의 빛의 방향에 따라서 곡면이 갖는 변화에 대한 관심을 전부터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립건축에 있었을 당시에 담당했던

창원시청사에서도 격자형 박스에서, 중간 좌우측의 입구에 원통형태를 관통시킨 것은 빛이 들어오면 어떤 때는 밝았다가 곧 어두워지는 변화를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완전히 그림자가 진 뒤에는 변화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반면에 타원이라는 것은 빛의 위치에 따라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항상 시계가 움직이듯 서서히 움직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많은 묘미를 느껴왔습니다. 제 작품에서는 원이란게, 빛과 연관해서도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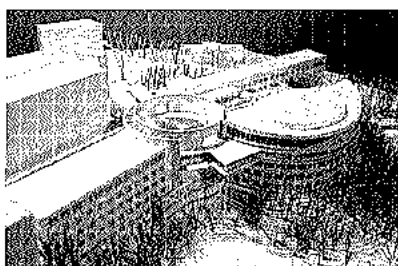
임창복 _____ 특히 나눔에 대한 고뇌의 흔적이 엿보이는데, 그 표피의 나눔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성관 _____ 일단 입면과 재료가 정해지면 결국 현장에서 시공을 해야 합니다. 이때 공업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판재의 사이즈나 중량이라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남게되고 그 과정에서 그 재료의 정해진 크기나 줄눈의 흐름은 디자인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가벼운 경량재의 메탈릭한 부분과 압축재류의 속성을 지닌 돌, 그리고 유리 등은 고유의 물성을 갖고 있으나, 어떻게 쓰이고 표현되느냐에 따라 외피전체 속의 그 역할은 많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피의 읽혀짐에 있어서 중력을 인정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항상 사과는 떨어지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오면서 무게를 느끼게 되는 표면이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현대건축에 와서 그러한 중력의 개념에서 해방되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힘의 흐름을 보여주고 싶어하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불안해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수직적으로 내려가면서 점차 축적되는 듯한 느낌을 표현하고 싶은 것은 저의 성향이지, 과거의 스타일을 다시 구축하려거나 시간을 돌이켜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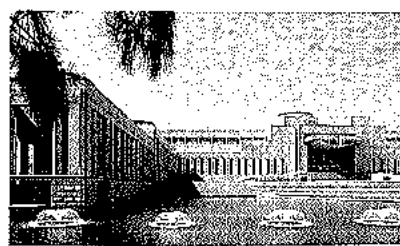
임창복 _____ 어떻게 보면 전쟁기념관은 해



강릉종합터미널 모형



동국대 100주년기념관 현상안 모형



전쟁기념관

방 이후 석재로 된 건축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시면서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으로 보는데 석재의 표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성관 _____ 전쟁기념관에서 작가로써 가졌던 외파의 이미지는 도심에서 바라볼 때 '독지 건너편에 놓인 큰바위의 양피'가 개인적인 이미지였기 때문에 석조가 갖는 무게감이 유달리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석재를 마감재로 덧붙인 가벼운 질감보다는 그 자체에 무게감을 주어서 영속성을 표현하고 싶었으며 구축된 이미지나 깊이감이 힘을 보여주는데 좋다고 보았기 때문에, 제작은 어차피 마감재로 현대 테크놀로지에 의해 이루어지더라도 워낙 짐 자체는 구축적으로 축조된 것으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임창복 _____ 이 소장님의 작품에는 상당히 정리되어진 디테일을 볼수 있는데, 이에 대한 스테디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이성관 _____ 저는 프로그램에 따라 초기의 기본 계획안이 정리되면, 큰 축척의 모델과 스케치의 수정작업 속에서 많은 시간을 디테일의 모색에 사용합니다. 재료의 종류와 입면의 성격에 따른 외관의 효과적인 연출방법을 모색하는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건축의 '빛'을 주고, 완성도를 높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의 건축에 있어 외관은 도시의 가로경관을 형성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비슷한 볼륨의 매스의 건물이라도 디테일의 맛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느껴지는 표정을 갖게 되므로 큰 것에서 작은 것까지 하나하나 신경을 쓰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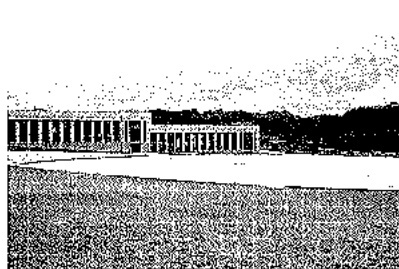
임창복 _____ 소장님의 작품을 보면 초기의 전쟁기념관에서 분당연립주택, 근작 부산방송국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작업들이 재료의 선택과 형태구성에 있어서 작품경향이 서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특정한 성격으로 제한되는 것을 꺼

려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디자인 논리가 있는 것인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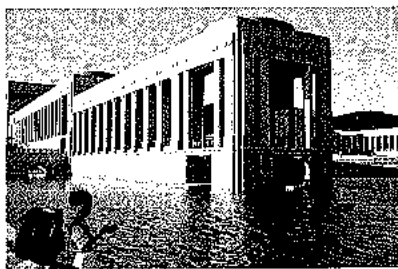
이성관 _____ 저는 한 작업을 시작할 때 항상 새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계획을 발전시킵니다. 이것은 고정된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고 그때 그때 프로젝트의 여건과 상황, 그리고 요구되어지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재료와 공법, 형태에 있어서 현실적인 최적해를 찾으려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은 그 자체의 형태적 완결성뿐만 아니라 준공후 실제로 사람들이 안에서 기능하게 되어야 실제로 건축의 생명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물의 쓰임에 대한 배려를 항상 중시하여 실제적인 관점에서 여러 다양한 어휘의 선택적인 수용을 꺼려하지 않는 편입니다.

임창복 _____ 소장님의 전쟁기념관과 같은 초기의 건물로부터 최근 부산방송국과 부일이동통신 등을 비교해보면 재료의 사용에 있어 돌에서 알루미늄의 사용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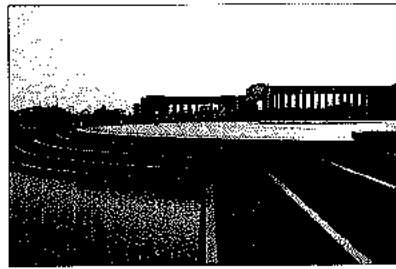
이성관 _____ 방금 전 말씀 드렸듯이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그 해결책이 서로 각기 다르고 여기엔 다양한 재료도 포함됩니다. 항상 여러 재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상황에 맞는 재료를 사용하려 노력합니다만 현실적인 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건물이라도 유지 관리가 되지 않거나 기후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석재, 알루미늄 그리고 유리 등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먼지가 적은 지방에서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드라이버트나 노출 콘크리트 등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만 내구성과 유지 관리 측면이 항상 신경이 쓰입니다. 준공후 찍은 사진이 그 건물의 전부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루미늄의 빈번한 사용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프로젝트 각기의 상황 때문에 쓴 것이며 앞으로 새로운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재료를 쓸까를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쟁기념관



전쟁기념관



전쟁기념관

임창복 평소에 건축의 접근을, 문맥적 상황을 중요시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전쟁 기념관은 문맥적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소에 문맥적 작업에 충실하려고 하는 자세와 전쟁기념관과 같이 새로운 문맥을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성관 저는 말씀하신 문맥적 상황을 도시에서의 물리적인 혹은 시각적인 문맥만이 아니고 사회, 경제,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자의 그 시점에서의 어떤 형식적인 혹은 가치 등의 문맥을 다 통틀어서 말하고 싶고 그래서 그 시점의 총체적인 측면 모두를 합해서 상황이라고 편하게 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가치가 아닌 그 총체적 상황에 어울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건축주의 프로그램 등도 어쩌면 상황에 속할 수 있다고 보며 그 속에서 적합함이나 어울림을 찾는 것이 저의 작업이 아닌가 봅니다. 전쟁기념관에서 제가 했던 것은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을 담는 그릇에 지나지 않으며, 그 안에 무엇이 담겨지고 쓰여지게 되느냐 보다는 어떤 분위기를 만드느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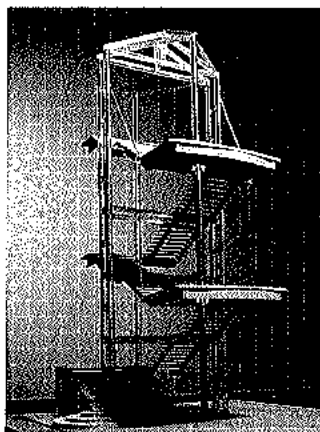
주변이 혼란스럽고 옥자지껄 하면 산만해지고, 더군다나 그런 종류의 건물은 일반 도심내의 건물과는 다르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과 정돈된 여건을 만들어 줘야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더 주변과는 다른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하려 했습니다. 사찰이 도심 근처에 사찰만이 달랑 놓여 있는 것과 산길을 거쳐서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전쟁기념관도 그런 맥락에서 생각했고 그것은 제일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전쟁기념관의 대지는 깊이가 없기 때문에 도시로부터 전시관까지의 전이과정에서 정서적 충격을 주기 위해서 전혀 예기치 못한 스케일과 과정적 공간을 거쳐서, 박물관적인 전시실을 통하게 했습니다. 넓은 바닥이 아무런 수직적 요소가 없이 계획된 이유는 우리 도시 자체가 워낙 밀집되

어 있기 때문에 그와는 상대적으로 넓은 면을 제시했던 것이며, 만약에 사막 같은 곳에 있다면 굉장히 밀집된 오아시스를 제시했을지도 모릅니다. 즉, 사막자체의 고유한 가치가 절대적이지 아니며, 만일 종로 한복판에 사막 한 조각을 위치시키면 하나의 청량한 공백으로 남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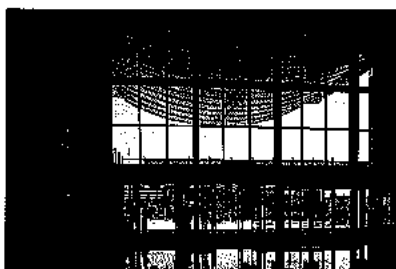
임창복 전쟁기념관의 입구부분 같은 공간을 '마당'이라고 칭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광장이라고 해야할지 평소 생각하고 계신 공간개념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성관 마당과 서구의 광장은 둘다 모두 '쓰임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사람이 모이는 넓이 만큼의 큰 쓰임을 위한 장소, 즉 실용적 공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쟁기념관에서 제안한 것은 비워진 공백의 공간으로 의도되었습니다. 경질의 바닥질감이러든가 크기로 인하여 물론 여러 사람이 여러 용도로 쓸수는 있겠지만 전체구성에서 동적인 성격의 공간이 아니고 빈공간을 홀로 걸을 때 느끼는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충격 효과를 위주로 한 공간이기 때문에 마당이나 광장하고는 성격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마당은 본질적으로 쓰임을 위해 있는 공간이지 쓰임이 없을 때는 현상적으로 비워져 나타날 뿐이며 그 날개 공간의 속성은 실용적인 혹은 세속적인 공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전쟁기념관의 입구부분 공간은 과밀한 도심에서 예기치않게 텅빈 광대한 공간을 접하게 함으로써 정서적 충격을 유발시키는 심리적 효과를 목적으로 도입된 공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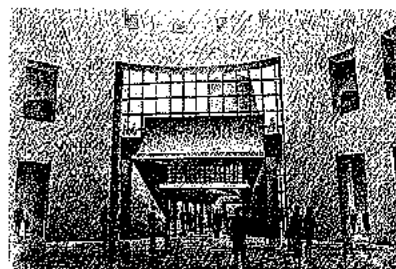
임창복 작품을 하실 때 모델작업이나 스케치 작업중 어느쪽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특히 스케치에 있어 전체 형태에 대한 스케치라기 보다는 부분 스케치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 편인데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인지 궁금하군요.



전쟁기념관 부분 모형



전쟁기념관 내부



전쟁기념관 부분스케치

이성관 모델이나 투시도는 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하나의 도구로써 최종적으로 대지에 건물이 들어서기까지의 과정에 있어 건축가에게 나중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면 둘 다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모델은 수시로 변하는 시각에서 최종결과를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볼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건축가뿐만이 아니라 건축주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수지만 맛을 보여주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투시도나 스케치는 전체적인 것보다는 응고된 하나의 부분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맛을 체크하기에는 유용한 도구라 하겠습니다. 이 모두는 사실성을 보여주는데 있어 중요한 것들이기에 즐겨 사용합니다.

임창복 말씀을 듣고보니 건축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수단으로써 건축 전체 뿐 아니라 부분까지 2차원이 아닌 3차원적 접근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창복 특별히 작품에 영향을 미친 좋아하는 외국건축가가 있으신지요.

이성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사람이기보다는 작품을 보면서 좋은 느낌을 받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좋아하는 작가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너무 많다고도 볼 수 있고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웃음) 표현이 애매한지는 몰라도 작품을 대하면서 좋은 느낌을 받았던 경우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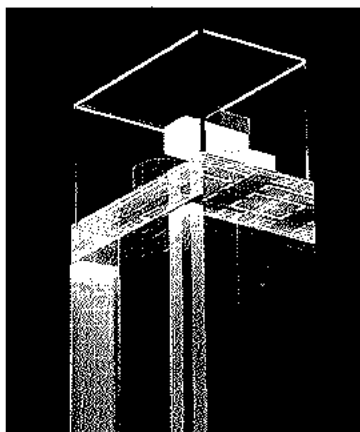
임창복 화제를 돌려, 최근의 건축이라는 것이 지역성과 관련시켜 새로운 모더니티의 추구에 대한 관심이 많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제가 모든 작가들이 추구해야 할 명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건축가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고민하는 주제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성관 지역성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총체적 상황에 다 포함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좁은 의미에서 특정재료나 형태 또는 색채가 사용된 건축을 지역성이 있다고 하여 크게 틀릴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나오는 새로운 재료와 삶의 방식을 생각할 때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건축을 하느냐가 곧 광의의 지역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의 반대편에 지어진 건물이 서울의 그것과 유사하다해도 둘 모두 각기 가진 상황을 해석하고 풀것이라면 그것이 곧 말씀하신 지역성의 해석이라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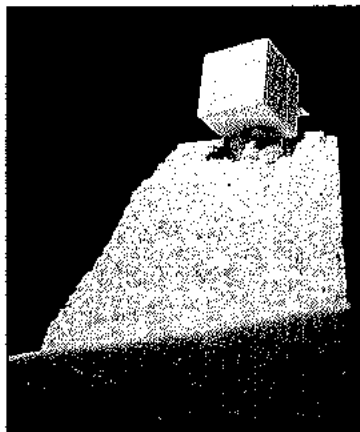
임창복 그렇다면 범위를 조금 좁혀 현대적인 면만으로 국한시켜 본다면 과거 건물의 모티브 - 예를 들면 지붕이라든지 - 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이성관 80년대 초부터 말까지가 소위 건축에서 말하는 협의의 포스트모던의 영향이 강했던 시기로 생각되는데 이때 전통문제나 문화문제, 다시 말해 이미 과거부터 있어왔던 것들을 어떻게든 연관을 맺게함으로써 긍정적 가치를 찾아보겠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마저도 많이 희석되어 버렸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과정에서 지붕이나 마당등의 얘기만 나와도 지붕이나 마당만이 전통이라는 식의 비판이 나오곤 했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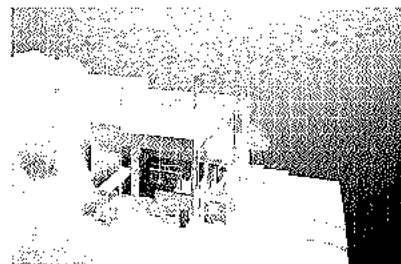
예로 나는 이 건물에서는 지붕의 도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지화해서 현대의 문맥에서 엮어보겠다 라는 등의, 작가가 용기를 갖고 실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이다 실제적이다라는 평가가 아니고 처음부터 옳다 그르다라고 재판을 해 버림으로써 엄두조차 못내본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의 것은 과거에 맞는 조형이고 그에 맞는 재료나 공법이 따로 있고, 오늘날에는 모든 여건이 달라졌는데 이게 왜 재현이 되어야 하느냐, 왜 거기서 모



4·3그룹 전시화-지상 43m의 家像



N.C.C Folly



평창동 주택 모형

티브를 찾아야 하느냐 라면서 연역적으로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작가가 그런 것들을 모티브로 삼는 것을 적어도 일단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느 정도로 그 건물에서 성공적으로 해결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는 식의 평가는 있을지언정 모티브로 정한 것 자체를 따지고 드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모더니즘 역시 더 심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선각자인양 배워와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놓고 왜 우리가 가진 것에 손을 대면 안달을 하는 강박관념을 가지는지 모를 일입니다.

임창복 _____ 현대건축의 흐름속에서 우리 건축가들이 어떤 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덧붙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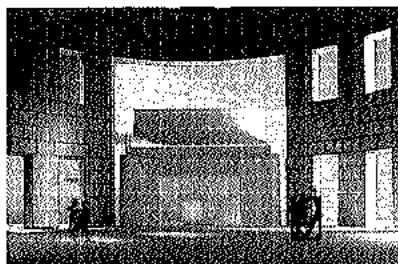
이성관 _____ 우선 과거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 작품들을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당시의 상황논리로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한 흔적들이 분명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다음 세대가 존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적 레벨속에서 과거를 절대 평가하거나 논하기는 곤란하며 특히 우리나라 같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은 나라에서 현재의 관점으로 과거를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선진이니 후진이니 갈라 말하기가 힘든 것이고 다양성의 존재 여부만을 놓고 따져본다면 아직은 우리 건축계가 다양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 등과 비교해 보더라도 아직 우리가 많이 뒤쳐져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뒤쳐져 있는 것들이 과연 교육의 문제이나, 작가 개인의 노력부족이나를 따져보기에 앞서, 35세의 같은 나이의 건축가라 할지라도 국내 건축가의 경력은 건축에 입문한지 10년밖에 안되고 외국은 35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자인화된 환경속에서 태어났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디자인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속성상 디자인은 쥐어짜는 것이 아니고 내면에 배어 있는 것을 표출해 내는 작업이기에 우리도 좋은 건물들을 주변에 하나 둘씩 늘어나가다 보면 이러한 환경속에서 자라나는 한 두세대 후에는 보다 훌륭한 건축가들이 탄생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즉, 디자인을 학문적으로만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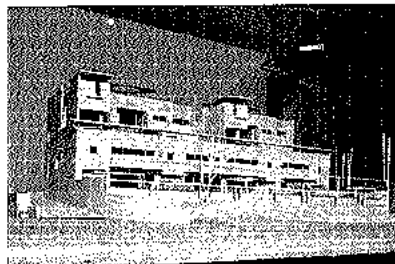
임창복 _____ 국제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건축설계시장이 개방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설계사무소의 경쟁력, 강점, 개선해야 될 점 등에 대해 꼭 작품적 시각이 아니더라도 뉴욕사무소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 사무소와의 현실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성관 _____ 근래 UR이니 어쩌니 하는 현실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외국의 잘된 곳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한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이 취약하고, 또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같은 나이라도 10년 경력과 35년 경력에서 오는 문제점과 열심히 하지 않는 풍토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일 자체가 많아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점차 질을 따지는 추세이고 건축주의 인식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의 것이 좋았다하더라도 재료의 문제 등 한계성을 들어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데 교보빌딩의 경우처럼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되는 것을 보고 건축주들의 인식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욕심이 있고 문화적인 건축주라면 당연히 국내 건축가를 불신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이는 건축주만을 탓할 수만은 없는 것이며 우리 스스로가 책임을 느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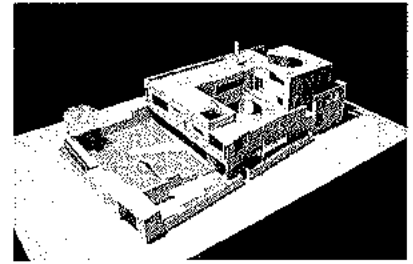
그리고 사무실 조작성에 대해서도 그나마 조직이 모아지지 않고 분산되는 것도 경쟁력 약화의 원인입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사무소를 개설한다거나 사무소간 연합이 안되



전쟁기념관 내부



분당주택전람회 연립주택 모형



분당주택전람회의 주택 모형

므로써 외국이 국가레벨에서 공격을 하면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조직적인 측면도 취약하기 때문에 노후화가 축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대로 조직이 성장했다가도 그 구성원이 하나 둘 빠져나가 개업을 하려들기 때문에 결국 프로페셔널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번 건축을 생각했다면 욕심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조직이 분산되다보니 소규모 사무소는 많은데 중규모 사무소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 탄탄한 조직의 외국사가 포트폴리오나 브로셔를 내보이면서 들어오면 경쟁에서 밀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명도가 떨어지고, 그동안의 호경기로 인건비가 상승한 가운데 외국사와 견주어 대등한 설계비를 요구하다 보니 안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임창복 _____ 최근 대학의 건축학과 커트라인이나 지망생 숫자가 상당히 높은 것만 보더라도 건축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건축 교육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경쟁력을 갖기위해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성관 _____ 입시에서 건축학과에 대한 응시율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현실의 건축분야에서는 이미 하강곡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사실과 같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최고조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는군요(웃음).

열의가 높다는 것은 우리 건축계를 위하여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요즘 학생들은 굳이 학교가 아니더라도 동아리 활동 등 여러 가지 정보채널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또 학생들이 다양한 정보채널을 갖고 있듯이 교수님들도 옛날보다는 훨씬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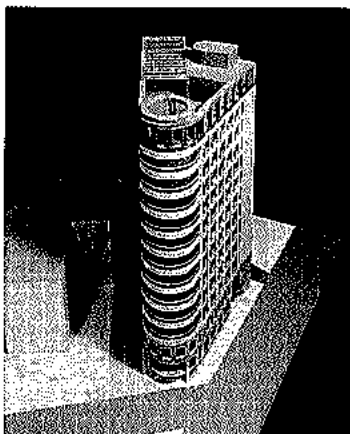
한 조건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내용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학생들이나 졸업한 건축가 지망생들에게 너무 남을 의식해서 화려하게 변신하려 하지말고 장기적으로 끈기있게 열심히 하기를 기대합니다.

건축설계는 단시일내에 천재성이 나오는 것도 아니며 형태만 주무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형태 구성 행위로서의 건축이 아니고 사회적 가치나 동시대의 고민을 함께 담는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이론적으로 배운 건축만이 진짜고 지어진 현재의 도시는 문제점 투성이라고 보는 시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해외 건축잡지에 소개된 건축작품이나 Competition에서 나온 작품에만 익숙해져서 거기에 강박관념을 가져서도 안됩니다. 너무 화려한 것만 잡으려 들지말고 자기가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소중한 것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붙여서 키워나가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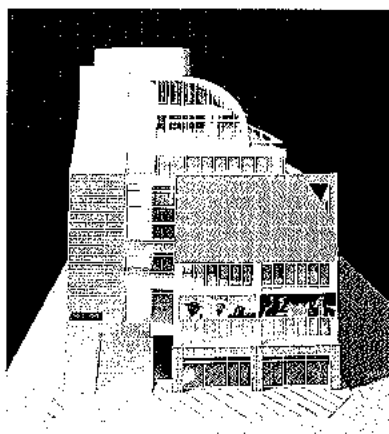
책 한권을 다 읽고 이해할수 있었다고 해서 작가와 동등해 질 수 없듯이 자기 것을 조금씩 키워나갈 때 진정한 자기것, 자기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적능력만 있다면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몸에 배게 풀어내는 것은 하나의 실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작품으로 빛어내는 것은 하나의 실천력이나 미친가치라고 봅니다. 머리속으로는 아무리 좋은 사상이 있어도 형태를 꼬집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이론가일뿐 작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한발한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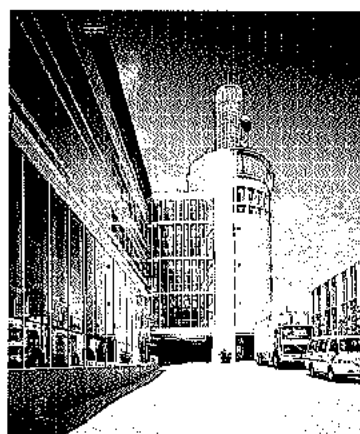
임창복 _____ 그렇겠지요. 장시간 여러 가지 유익하고 재미있는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대구 대성빌딩 모형



의정부 국도빌딩 모형



부산방송국

노매드

Nomad - Multi - Family House

김안철 / 건축사사무소 아르키움

Designed by Kim In-Cheul

하나의 단위 공간에 여럿이 모여 사는 도시의 주거 형식으로 개발된 것이 다가구주택이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세대주택과는 달리 임대형식으로 점유되는 다가구형식은 가장 소규모의 공동주택이다. 학생과 회사원 등의 독신자 또는 맞벌이 신혼부부 등이 단계적인 생활 패턴의 변화과정중에서 어느 기간만을 사는 곳으로 다가구형식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비록 잠시일망정 소유하는 것과 빌리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필요하다면, 여건만 된다면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다는 조건은 현대의 도시가 갖는 속성의 하나일지도 모른다. 전혀 예정되지 않았던 우연의 모임, 닮은 것보다 다른 것이 더 많은 개인들의 집합에서 어떤 모습의 공동체가 만들어 질 것인지 못내 궁금하다.

전통적인 공동체와 현대적인 공동체는 무엇이 다르며 그 중에서도 지극히 개인적일 수밖에 없는 단독 기구의 공동체는 또 어떤 것일지를 헤아리기 힘들다. 도시적인 익명성에 면역이 된 것처럼 그것을 오히려 편하게 즐기려는 현대적 심리와 하나의 공간속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인연이 될 수 있다는 전통적 규범의 갈등속에서 건축이 무엇을 하여야 할지 정말 막막하다. 문을 닫으면 프라이버시가 만들어지고 마당을 만들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그런 단순해법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다양한 메카니즘과 한정된 공간을 만드는 건축과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다. 정해지지도 않은 입주자의 성격들을 앞질러 가상할 수도 없는 일이며, 그 사이에서 일어날 앞으로의 상황을 예상하기는 더욱 불가능한 것이다. 다만 짐작 가능한 것은 제공된 공간에 공감하는 수요자가 그것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것 역시 막연한 것이어서 결국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과 같이 시장형성의 원리에 맡기는 불안함은 여전히 남는다. 대단지 아파트와 같이 어느 정도의 유형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와는 달리 소규모의 공동체 모양을 미리 짐작하기란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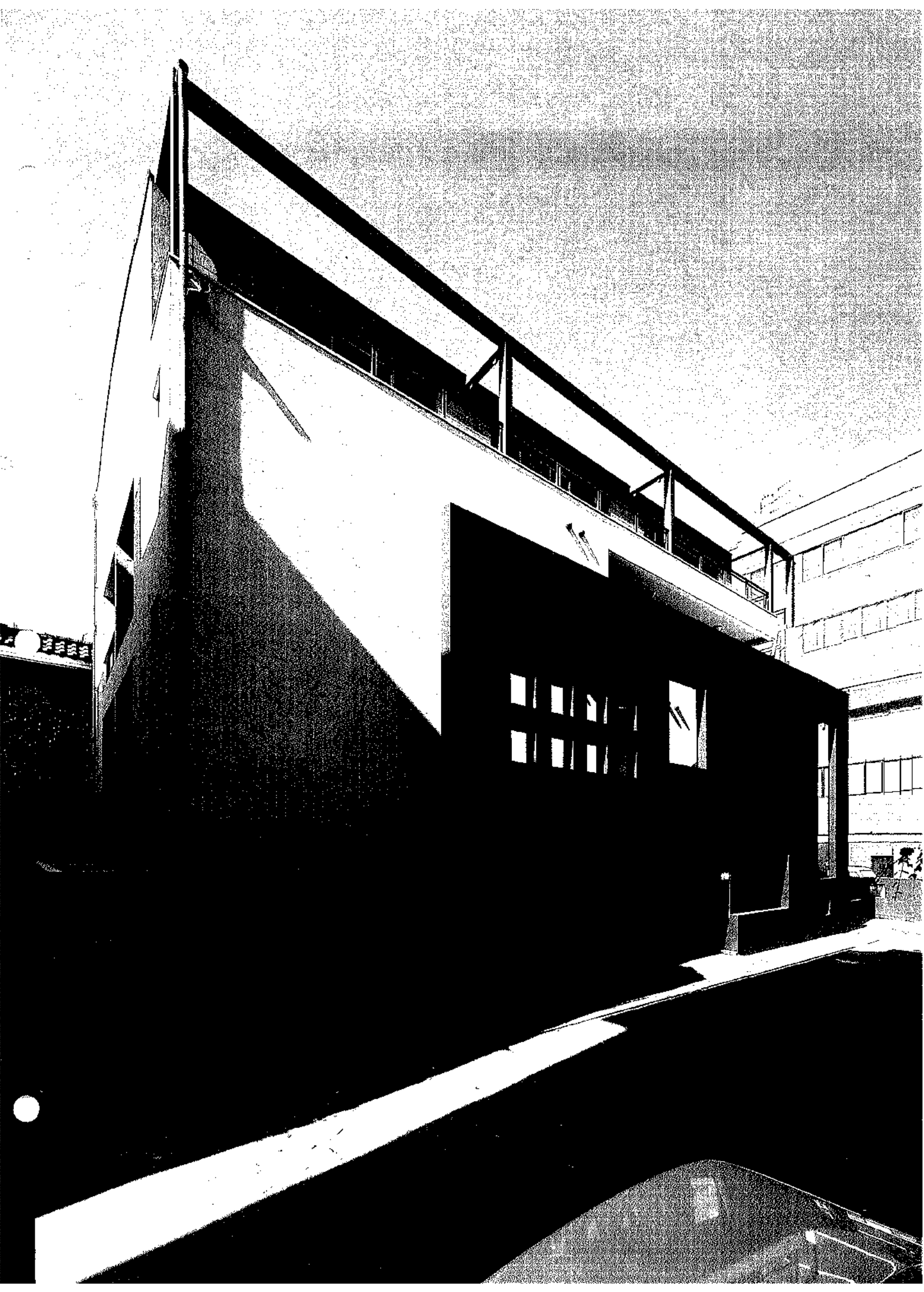
열다섯의 유니트로 이루어진 작은 공동체에 적용된 건축적인 장치는 길뿐이다. 공동의 공간이라든가 시설은 아무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하와 주차장과 4층까지 이어주는 길게 늘어진 계단과 복도가 있을 뿐이다. 유니트들은 길을 따라가며 각각의 입구를 갖게 된다. 최단의 거리로 이루어진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동선이 아니라 늘릴 수 있을 만큼 늘려 놓은 비합리적이고 비기능적인 기다란 길이다.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하고 바람이 불면 추위를 느껴야 하는 보통의 길과 다르지 않다. 예정되지 않았던 모임에 의도적인 장치를 두어 어색해 하는 것보다 길에서 마주칠 자연스러운 우연의 발생을 준비하려는 것이다. 이곳에 거주하는 동안 한번도 이웃과 마주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매일 함께 걸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 우연이 우연으로 끝나거나 그것이 필연으로 마무리되거나 하는 그들에게 맡겨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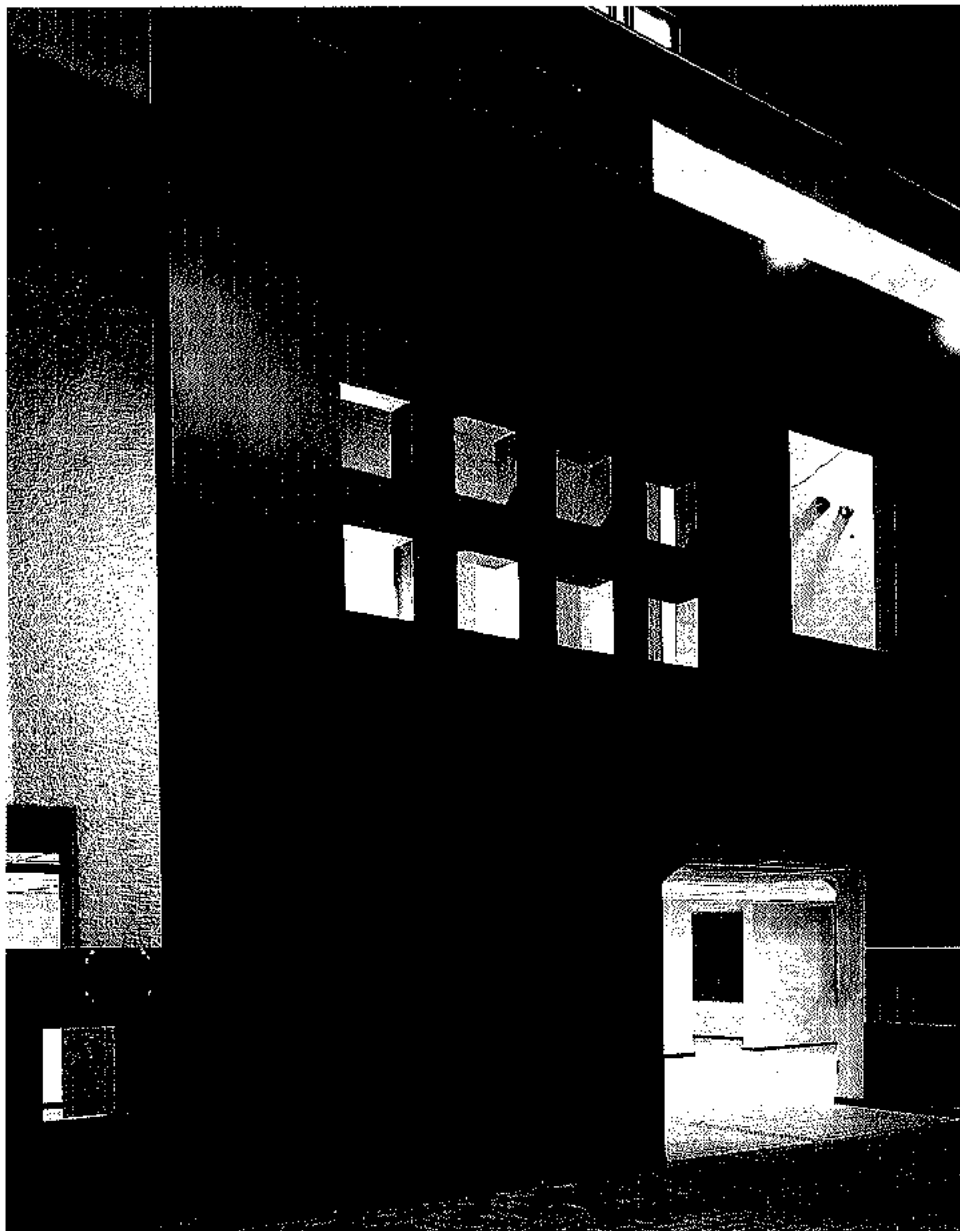
이런 경우에 건축이 할 수 있는 역할이란 장소와 시간과 그로 인한 상황을 제공하는 것, 그것뿐이다. 더 이상 욕심을 낼 수도 없다. 그들이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낼지는 아무도 짐작할 수 없다. 주어진 조건과 역할을 맡은 불특정한 주인공들에 의해 그때 그때 적절한 각본이 만들어지는 것이 오늘의 우리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속도양이지 않은가.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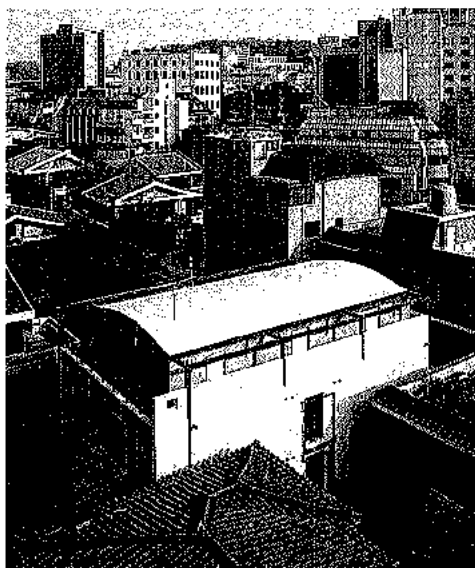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서교동 464-63
지역지구	일반주거 / 주차장 정비
대지면적	276.7㎡(83.7평)
건축면적	165.17㎡(50.0평)
건 폐 율	59.69%(165.17/276.7×100)
연 면 적	654.65㎡(198.0평) (지하층면적: 204.73㎡)
용 적 륜	167.94%(654.65/276.7×100)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1층 주차전용)
주요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용 도	다가구용 단독주택

주요재료	벽 : 외벽 - 드라이비트(T50mm 단열재) 실내 - 아크릴페인트 뽕칠
	지붕 : 우레탄페인트
	창호 : 컬러 알루미늄창
	바닥 : 주차장 - 석재타일 복 도 - 회강석 버너마감 실 내 - 패널히팅워 센스타일
설계담당	원유정
사 진	박영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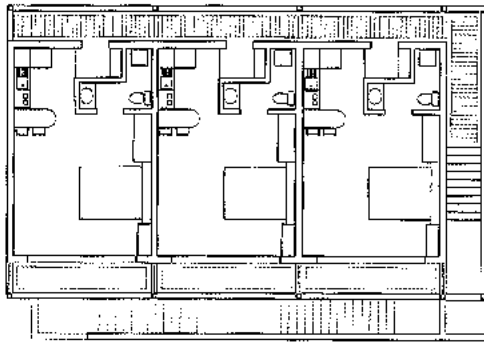
정면의 가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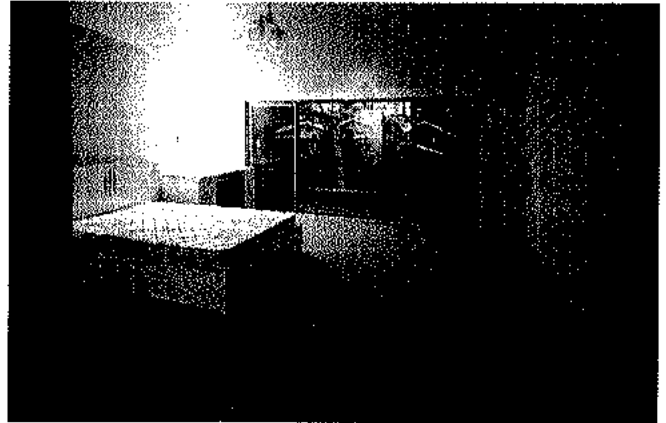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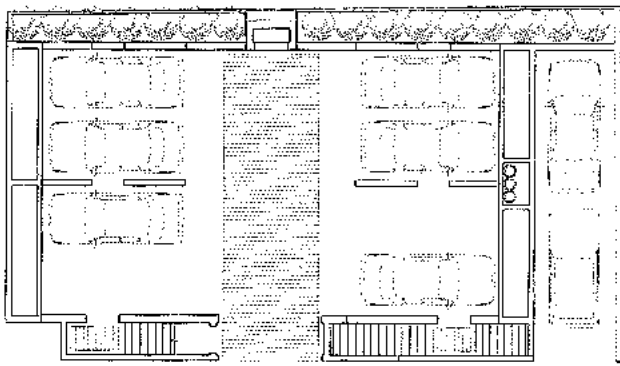
1층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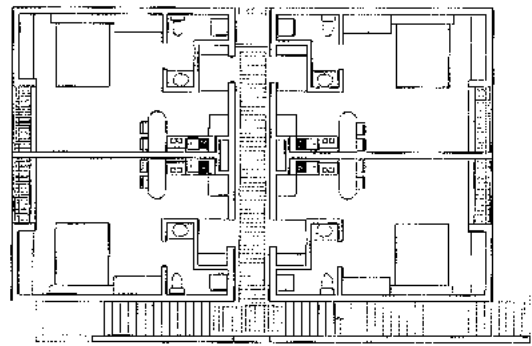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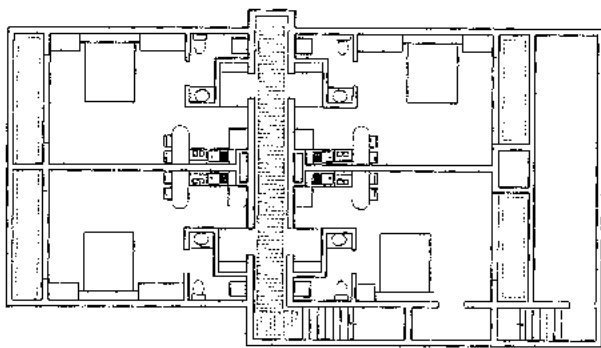
4층 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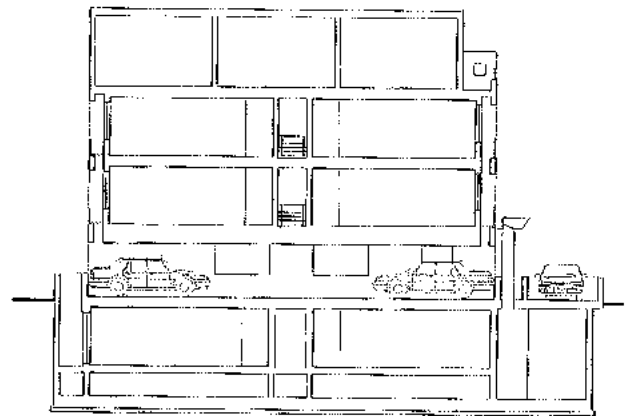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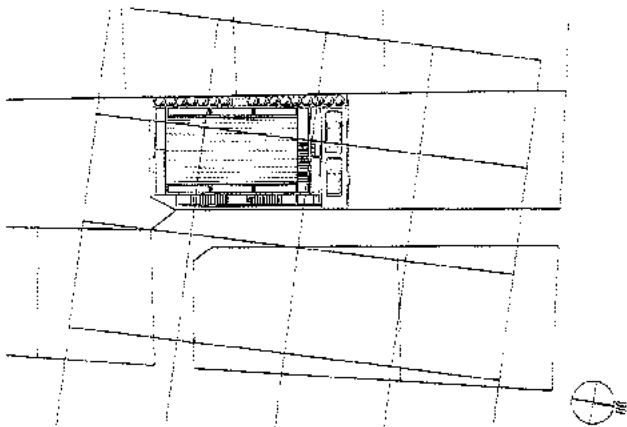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지층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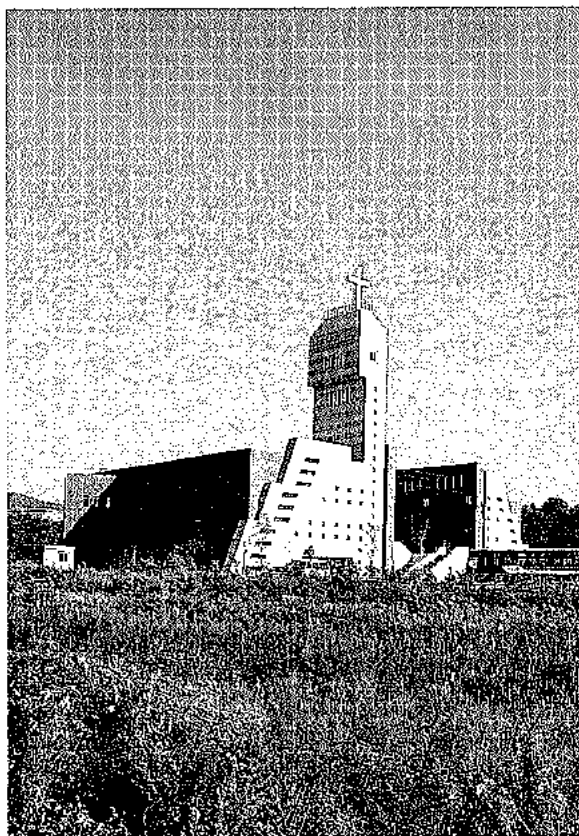
배치도



지하의 드라이 에리어

청주 신흥 성결교회 Shinheung Church, Cheongju

조구현 / 신세대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 Gu-Hyun



이 대지는 청주에서 보는 방향으로 청주의 남측 신흥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개발되지 않은 들판 한가운데 위치한다.

교회라는 커다란 매스(Mass) 하나로 멀리 보이는 아산의 스카이라인을 가로막기에는 너무나 가까운 사골 풍경이기에 교회동과 주거동을 분리시켜 그 가운데 만남의 광장을 두어 그 사이로 멀리 그림같은 아산의 풍경이 마치 액자에 들어있는 그림인양 보이도록 하였다.

좌측에는 매스가 좀 큰 교회동을, 우측에는 식당과 목사, 부목사, 전도사들의 주거공간이 교회동과 대립하여 좀 적은 매스가 교회동의 Mass에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한다. 또한 만남의 광장 지하에는 다목적홀과 교리실을 두어 자동차의 소음을 차단하며 만남의 장소 상부에는 Space Frame을 설치하여 개발되어 있으나 하나의 시원한 공간을 이루게 하였다. 교회동과 주거동의 마주한 큰 벽면은 교회에 들어가기전 엄숙한 분위기를 위하여 필수적이었으며 북측면과 남측면의 경사진 벽면은 멀리 보이는 아산의 경사가 시각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경사면으로하여 아산과의 조화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였다. 또한 재료에서는 자연과의 조화를 위하여 가공적 자연재료인 화강석과 적벽돌을 사용하여 인공재료에서 오는 부담감을 상쇄하도록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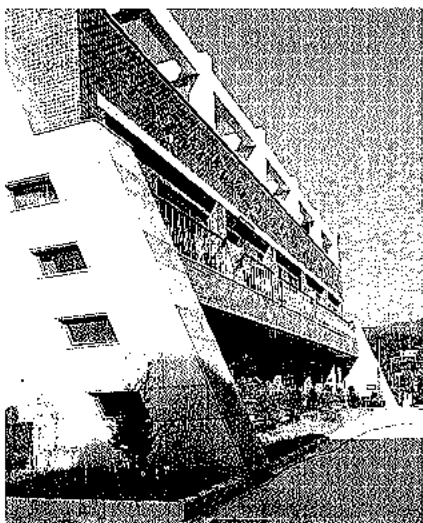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충북 청주시 지북동 136-2
대지면적	5,828㎡(1,764.7평)
건축면적	1,153㎡
연면적	2,327㎡
건폐율	19.55%
용적률	34.07%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프리캐스트
최고높이	28.86m
층고	3.6m
주요용도	종교 시설
외부 마감	화강석+토석벽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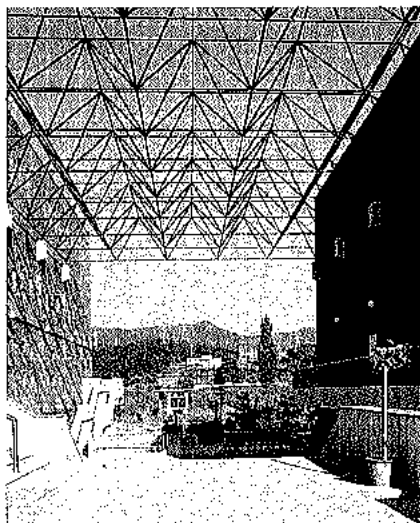
내부 마감	바닥-화강석물갈기 및 비닐췌트 벽-적벽돌 치장쌓기 천정-AL, 패널+TEX류
주차대수	33대
조경면적	1,862.29㎡
설계기간	93년 9월~94년 3월
공사기간	94년 5월~96년 7월
설계담당	최병오, 임선진
기계설비	세연 설비
전기설비	화인 이엔씨
건축주	(재)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
시공	(주)두진공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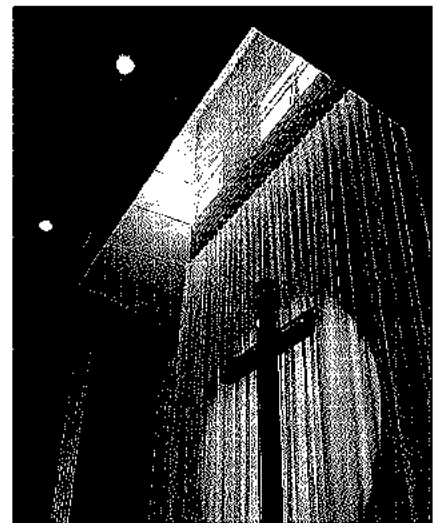
정면에서 본 교회 전경



목사동 측면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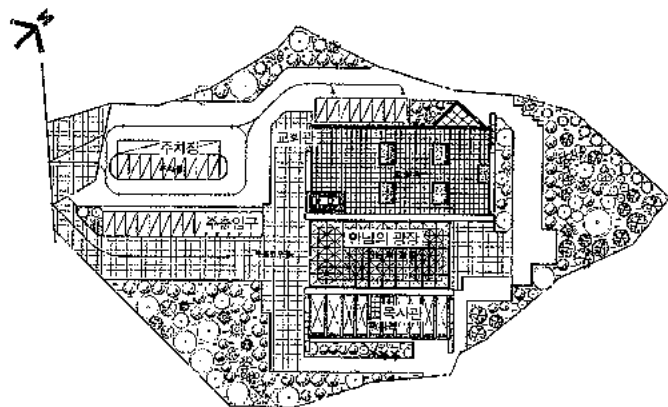
교회동과 목사관 사이의 만남의 광장에서 본
야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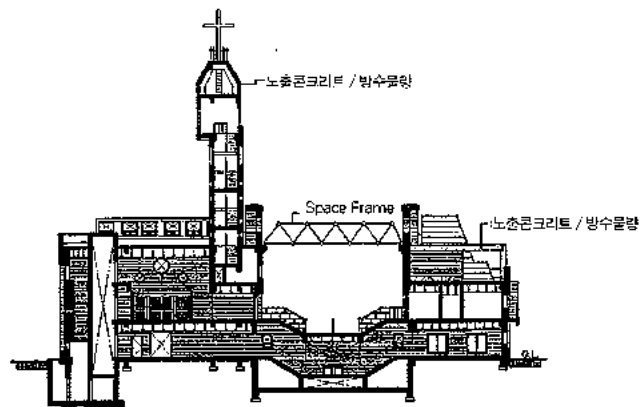
설교대 후면 십자가 상부의 채광 겸 환기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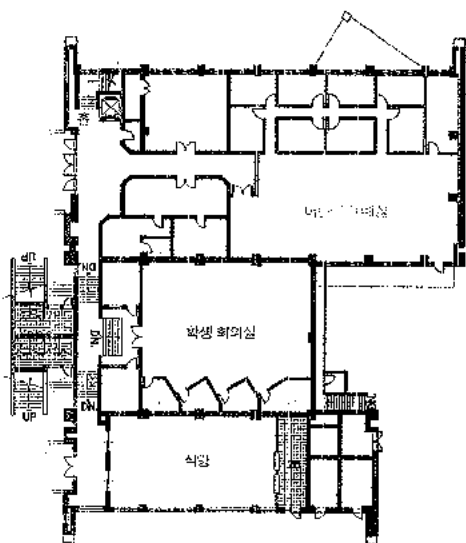
설교단과 성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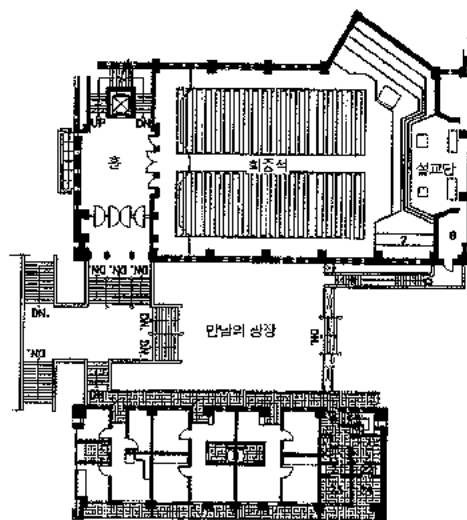
배치도



단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제주 관광민속관 Cheju Folklore Museum

김희수 / (주)현신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Hee-Soo

제주도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또한, 제주도는 여러가지 고유한 전통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제주도 관광 민속관 설계에 있어서 이 두가지 요소를 반영하고자 했다.

관광 민속관이 자리잡고 있는 신산공원내에는 자연사 박물관과 문예회관이 위치하고 있다.

문예회관이 현재를 나타내는 문화예술의 공연장이고, 자연사 박물관은 과거의 유물을 단순히 전시하는 정적인 공간인데 반하여, 관광 민속관은 동적인 형태의 무형문화 유산을 계승·발전시키고, 나아가 세계 관광객에게도 보급·관람케 하여, 과거의 무형 문화 유산이 현재로 이어지고 점차 보급·확산되어 미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래로의 비전을 가진 공연의 장이 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공연형태도 토속음식으로 식사를 하면서 관람케하여 보다 흥겹고 친근한 느낌을 주도록 하였고, 민속궁에도 단순 판매가 아닌 제작과정을 직접 보여주는 제작·전시·판매의 구성을 하였다.

디자인적으로는, 중앙에 공연장을 배치하여 한라산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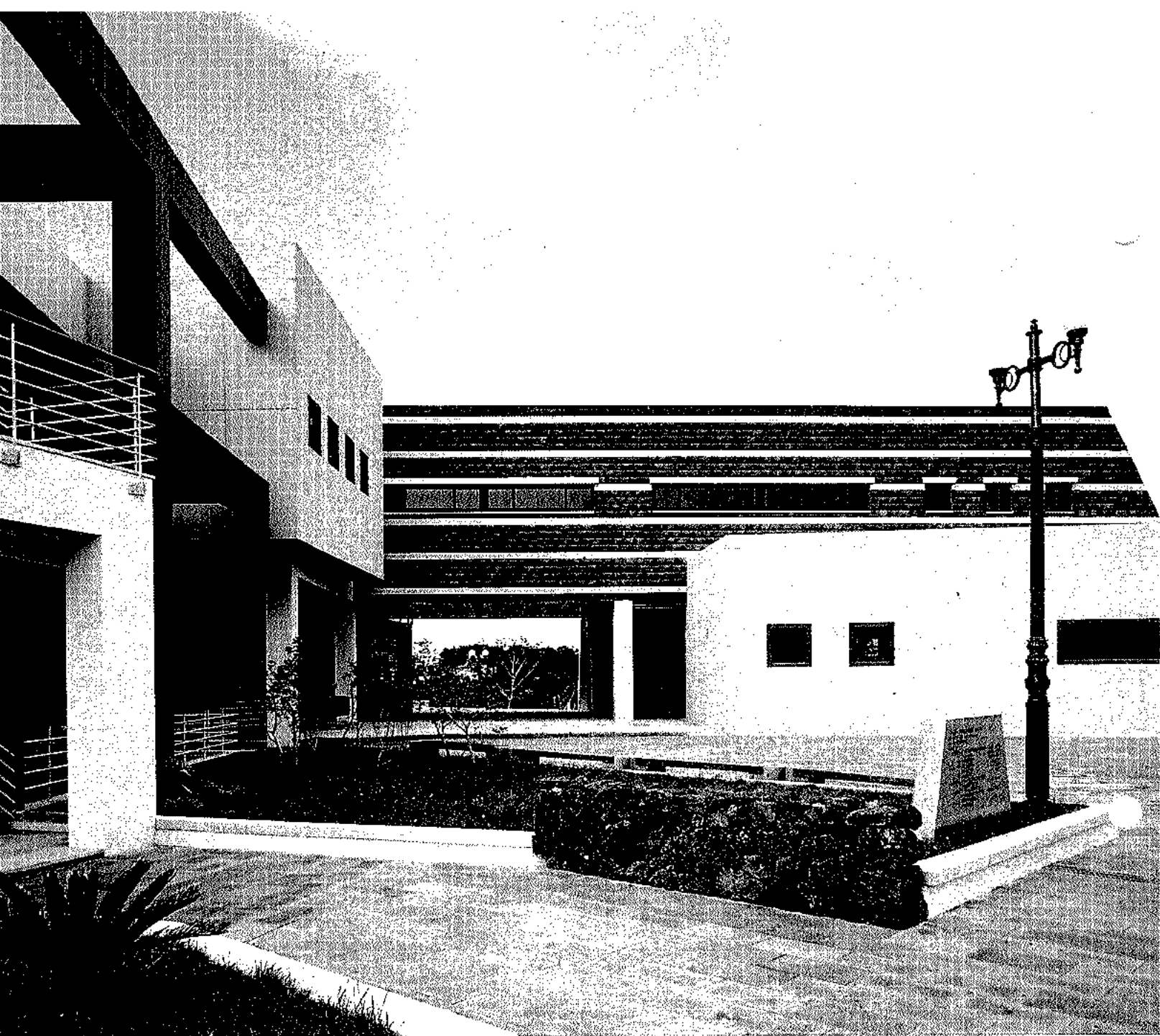
형상화하고, 전시 및 교육시설을 그 주변부에 배치하였는데, 이는 한라산과 조화를 이룬 기생화산의 모습으로, 하나로 화합·승화되는 제주도의 모습을 기원한 것이다.

끝으로, 차후 관광 민속관이 운영의 묘를 거두어, 관광객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에게도 제주 고유의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을 고조시킬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 발전되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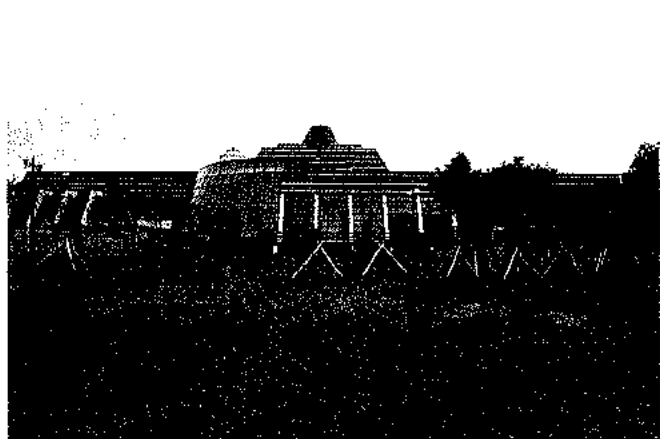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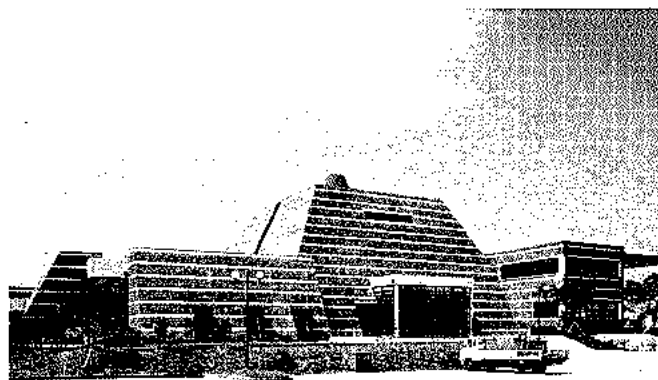
대지위치	제주시 일도 2동 837-20일대	지상총연면적	3,917.51㎡
대지면적	244,550㎡(금회 신청면적 : 14,663㎡)	용 적 륜	11.8%
지역지구	공원지역	주차대수	78대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조경면적	7,178.9㎡
구 조	처라골 철근 콘크리트조	최고높이	22.6m
연 면 적	5,599.27㎡	설계담당	황의만
건축면적	3,463.45㎡	구조설계	태경건축
건 폐 율	5.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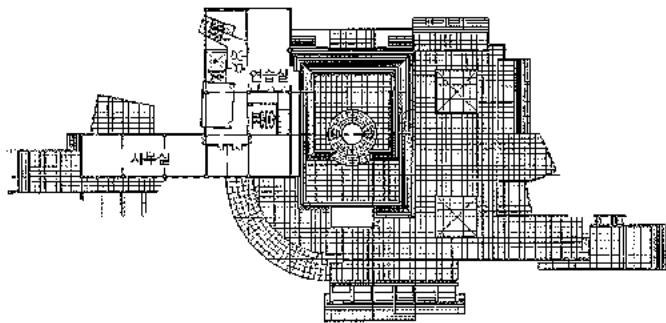
주출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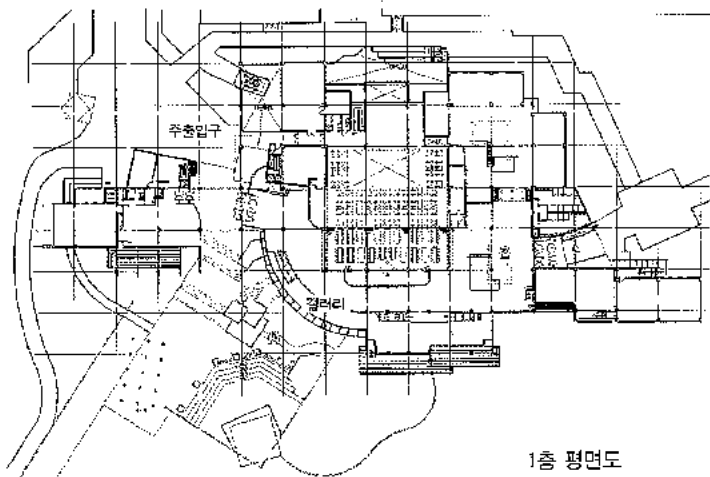
남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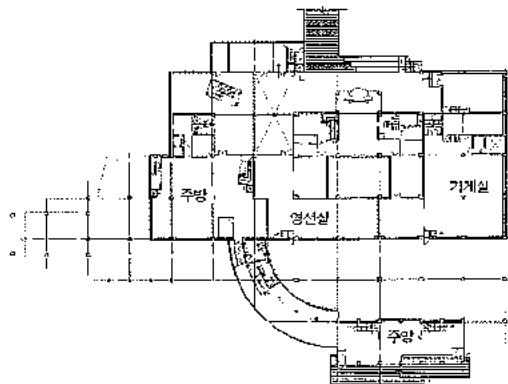
북동측 부출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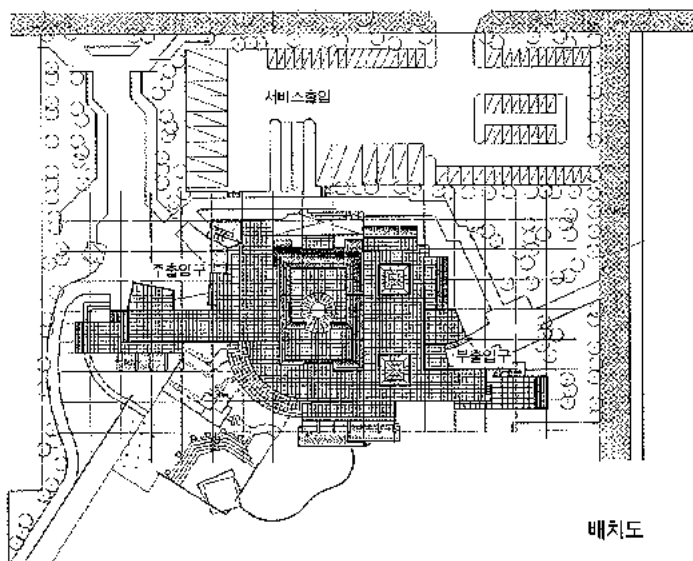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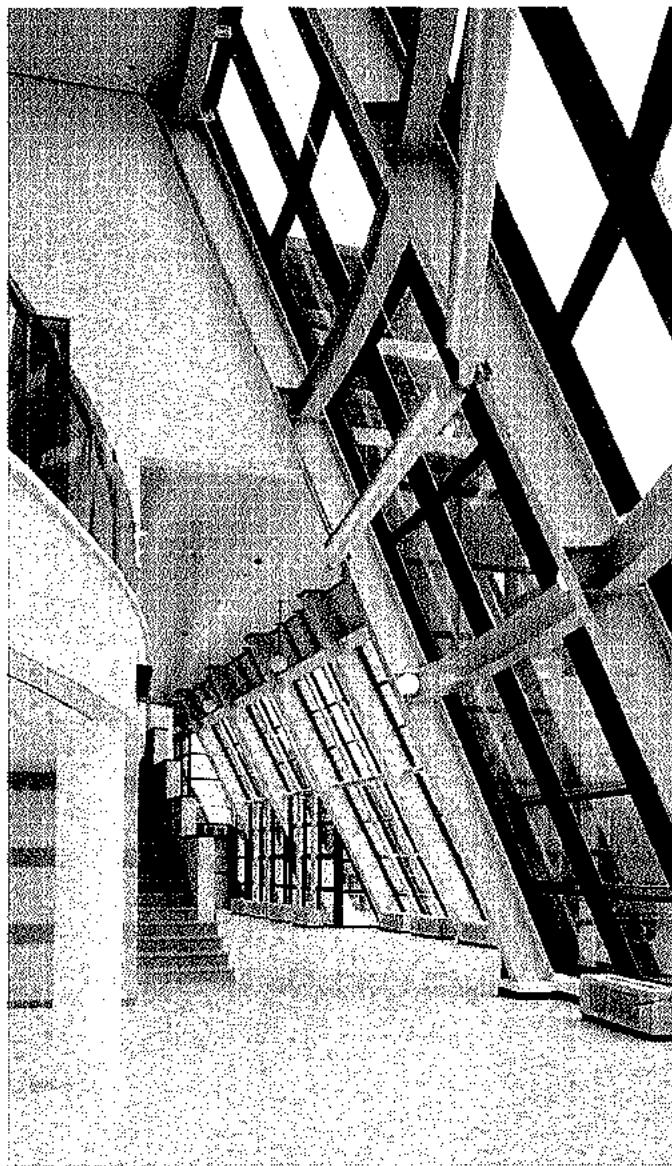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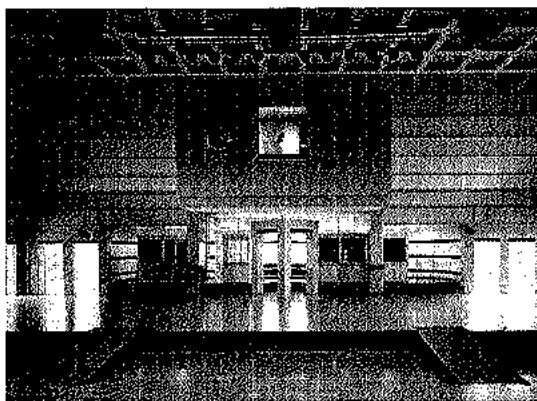
배치도



갤러리



톱라이트



극장 후면

주 스페인 한국대사관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Madrid

강석원 / 구름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ang Suk-Won

마드리드는 더운 지방이다. 여름이 5개월 이상 지속되는 고온건조한 풍토를 가진 도시로서 평면형식에 옛부터 스페인식 중정주거 형식인 파티오(Patio)를 많이 사용하여 왔다. 대사관의 입지는 마드리드시 중심부를 비켜난 곳으로 주변에 저층 벽돌조 건물이 산재해 있으며 대지는 40m 크기의 정방향으로 고저차가 심한 경사지이다. 대지의 전면에 20m 폭의 진입로가 경사져 있고 이 도로는 대지 서쪽의 고속도로와 만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이 고속도로는 대지에 대해 소음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2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대지 건너편 남쪽으로는 도시공원이 계획되고 있다.

건물 배치는 대지 중앙에 배치하도록 하는 이격거리 제한과 건물 규모를 제한하는 건물길이 제한과 30m 원내를 벗어날 수 없게 하는 배치제한이 법적으로 있다.

외부공간은 전면 경비실 앞을 통과한 출입동선이 처음 만나는 공간으로 출입자에 대한 감시기능과 의전절차에 따라 필요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공간성격을 규정한다. 민원인이 출입하는 경비실 오른쪽의 출입로와 민원실 앞의 옥외 대기

휴게공간으로 보안상 대지내 다른 부분과 구분된다. 대지 왼쪽의 외부공간은 휴게공간으로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 곳은 고속도로 쪽으로 차음을 위해 수목을 밀식하여 소음방지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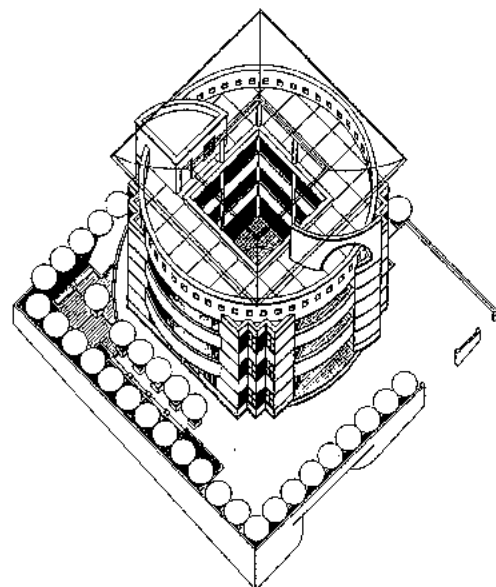
형태구성을 위해 원과 방형의 도형을 사용하고 이것을 이용해 형태를 만들어 나간다. 이것은 기하학적 도형이 아니라 하나의 환으로서의 우리의 순환론적 조화사상을 표현하는 형태 요소이고 또한 방형은 단순화와 규격화의 공간경제원리에 따른 형태구도로 사용했다. 원과 사각은 일체화되면서 형태의 기본이 되고 있다.

12×12m 크기의 중정을 건물 내부에 계획했는데, 이로서 방문객이 현관 로비에 들어서면 달려진 공간으로서의 로비가 아니라 한눈에 중정이 들어오면서 로비와 연장된다. 이 중정은 본 계획에서 통풍 등을 통한 기후환경 개선과 시각적 쾌감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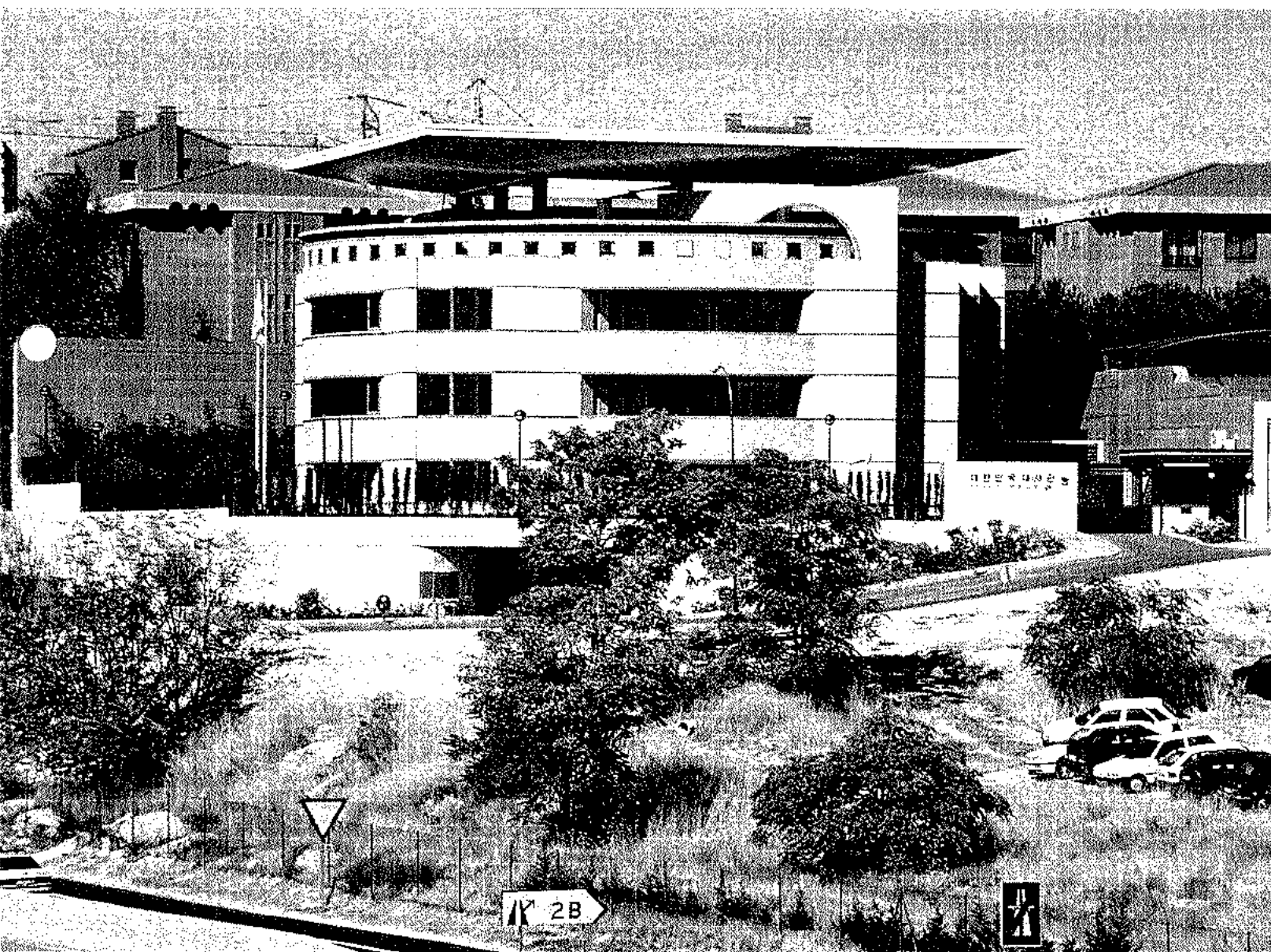
마감재료는 경제적이고 영구성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사후관리성과 교체성을 고려하여 선택했다. 외장은 벽돌과 화강석을 사용했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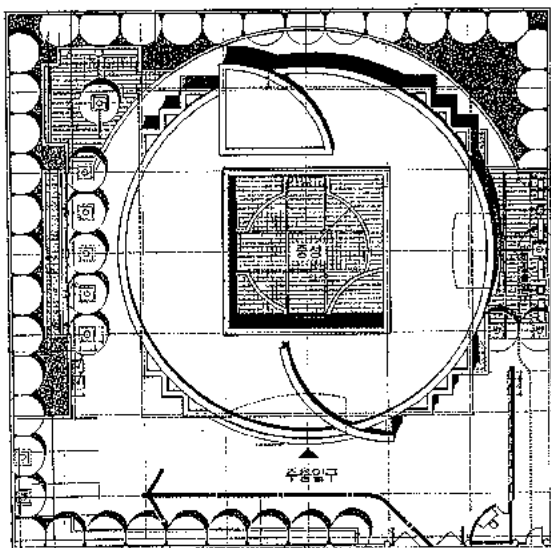
대지위치	C/Gonzalez Amigo No 15 Madrid Spain	구 조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Flat Slab)
대지면적	1,556.72㎡	설 비	팬코일 유닛 방식
건축면적	460.35㎡	주요내장재	화강석/수성 페인트 마감
연 면 적	1,257.65㎡	주요외장재	벽돌/화강석
건 폐 율	29%	건 축 주	주) 스페인 한국 대사관(외무부)
용 적 륜	79%	시 공 자	LG 건설
주차대수	옥외 3, 옥내 17대	설계기간	94.2.18~6.17
조경면적	Open Space외 60%	시공기간	94.10.1~96.8.15
규 모	지하 7층, 지상 3층	계획담당	최병철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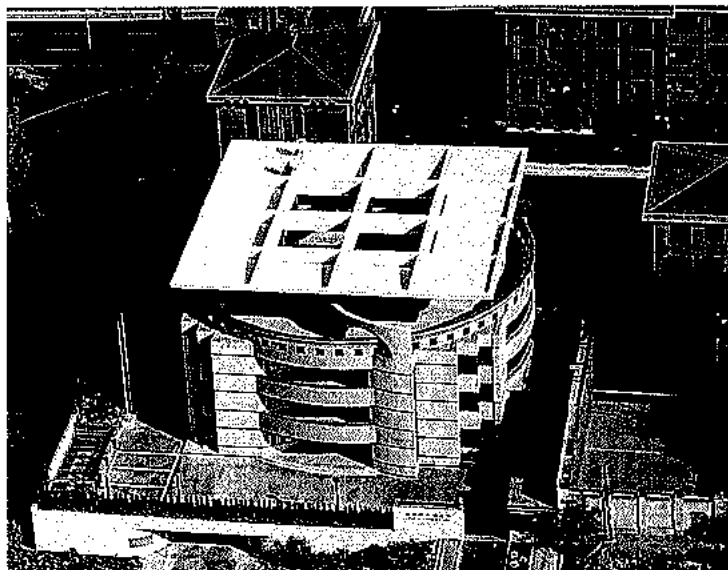
엑스노메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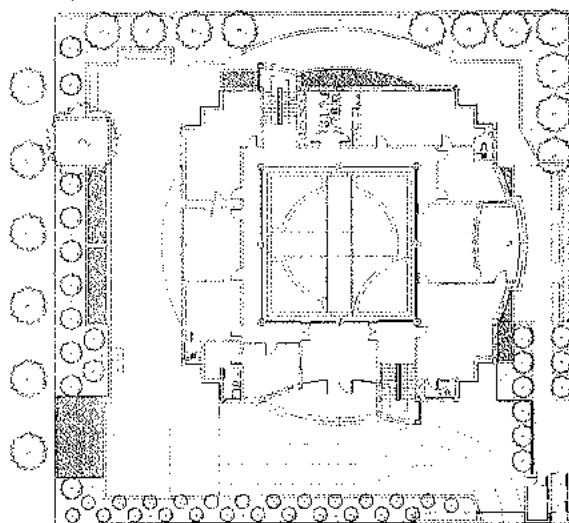
주진입로에서 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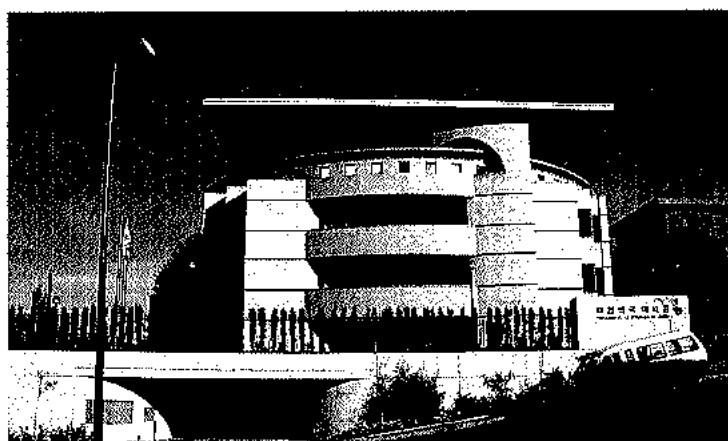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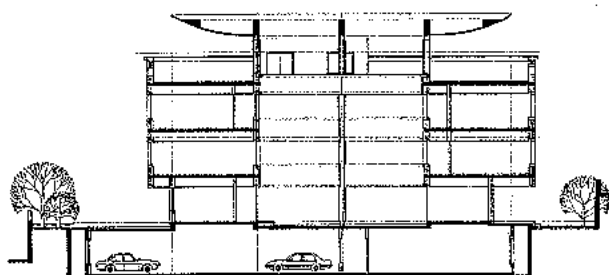
공중에서 내려다 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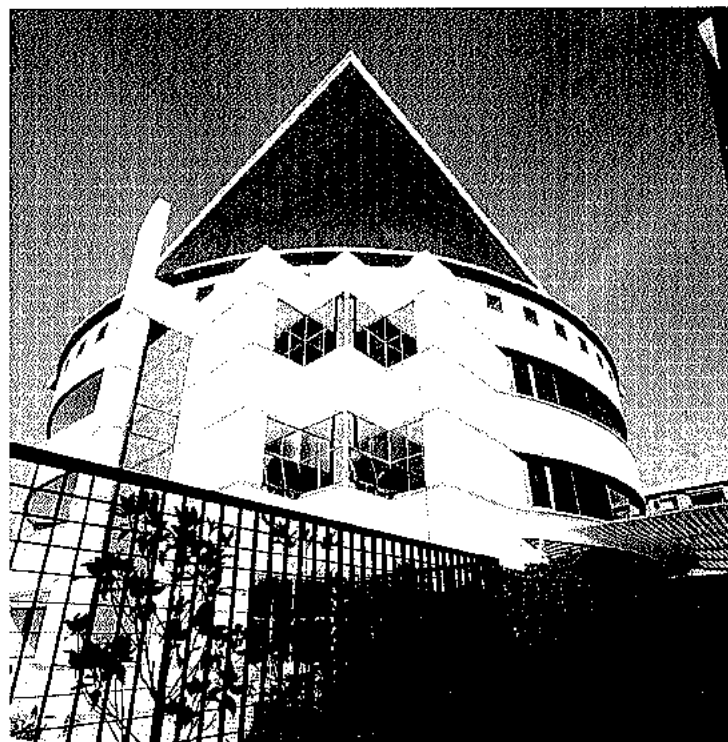
조경배치 및 1층 평면도



점면



횡단면도



외부 벽면 상세

삼성생명 대구덕산재개발

Samsung Life Insurance Co., Ltd. Taegu Building

삼우설계

Designed by Samoo Architects & Engineers

대구의 신흥 중심지인 반월당 사거리에 위치한 지상 24층 지하 7층의 대규모 업무시설로 상업의 중심지이자 과거 시장이었던 지역을 재개발하는 프로젝트이다.

대구에서는 영남일보 사옥 등과 함께 최고층 건물로서 연면적 25,000평 규모의 도심 Landmark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배치계획은 전면도로를 통과하는 지하철, 반월당 사거리 지하공간개발 및 인접 동아백화점과의 연계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또한 사용자의 편의와 고객서비스를 최고로 하는 보험 회사의 성격에 맞추어 지하 1층에는 볼링, 수영장, 각종 근린 생활 시설을 배치하고 지상층 저층부에는 금융 플라자를 설치하였다. 특히 지역주부들을 위한 여성문화센터를 만들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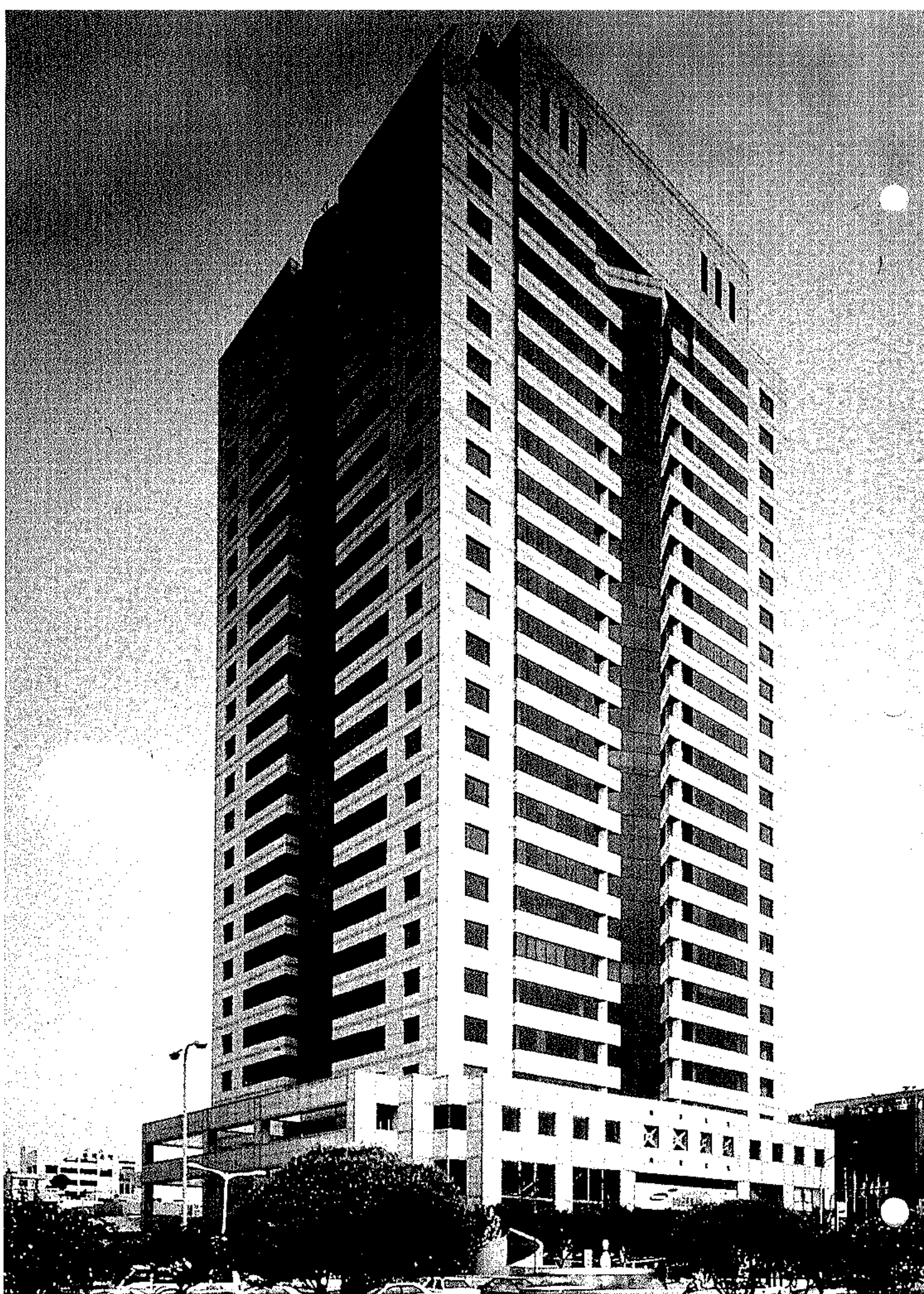
각 사무실 층은 600평 규모로 Center Core를 적용, 가변성있는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화강석과 전면유리로 마감된 외벽은 대구의 상징물로 인식될 수 있는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처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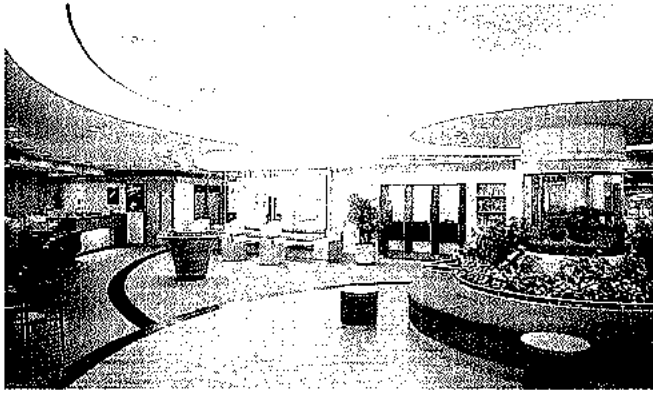
건축 개요

대지위치	대구시 중구 덕산동 111번지
건축주	삼성생명보험(주)
시공	(주)삼성건설
지역지구	1종미관, 재개발, 방화, 고도, 주차장 정비지구
용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6,139.50㎡(1,857평)
건축면적	2,434.25㎡(736평)
연면적	382,672.12㎡(25,008평)
건폐율	39.65%

용적률	783.79%
규모	지하 7층, 지상 24층(PH 1층)
건물고	109.6m
구조	지하 SRC조, 지상 S조
주차대수	965대(옥내 844대, 옥외 21대)
주요마감	외부-화강석(황동석+신북석) THK24Pair Glass Floor-Carpettile Wall-Gypsumboard+Acryl Paint Ceiling-암면흡음 Tex(System Ceil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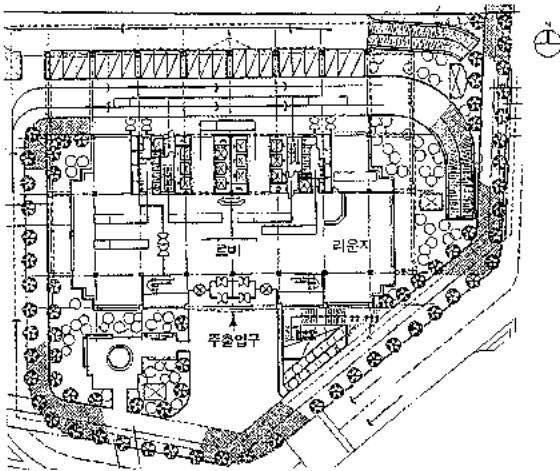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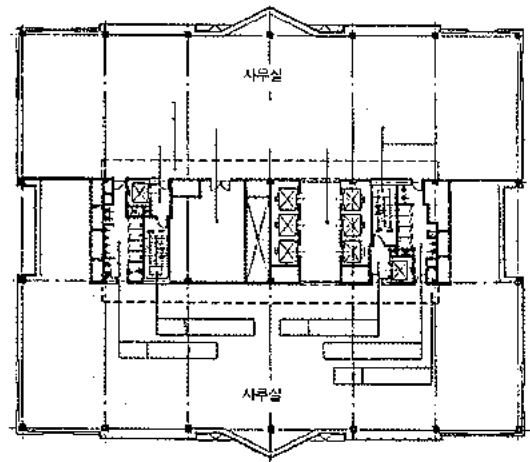
금웅플라자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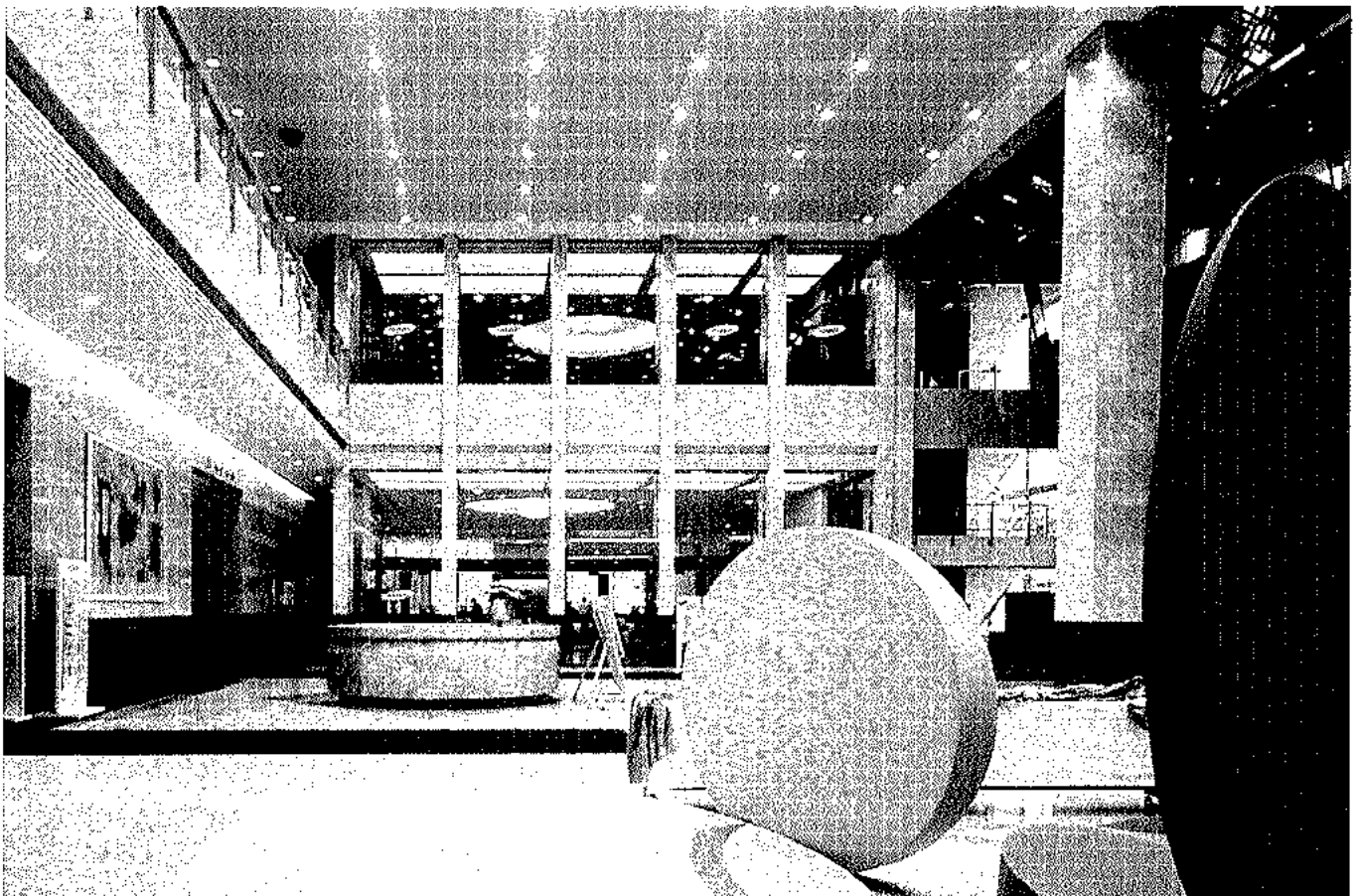
볼링장



1층 평면도



15~22층 평면도



로비

삼성화재 부산사옥

Samsung Fire & Marine Insurance, Pusan Building

삼우설계

Designed by Samoo Architects & Engineers

대지가 부산의 매립지로 해변에서 약 300여 미터 밖에 안되는 가까운 거리였으므로 태평양으로부터 들어오는 배에서도 보일 수 있는 위치라고 판단되어 당시 설계팀의 미팅에서는 바다와 배의 인도자 역할을 하는 등대(Guiding Light)의 이미지가 자주 거론되었다. 이 개념은 결국 최후까지 살아남아 옥탑부위의 투광조명으로 승화되었고 부산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2002년경에는 부산의 야경을 빛내주는 명소가 되리라 생각한 다.

외장재는 금융회사의 이미지답게 안정되고 묵직한 느낌을 주는 석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일찌감치 결론이 나 있었으므로 삼성화재 본사사옥과 같은 New Imperial Red 계열의 화강석을 사용하여 물갈기와 버너구이 마감을 교대로 반복한 Stripe Pattern을 주는 것으로 스테디하였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도심공사의 난점과 공기등의 문제로 인해 당시 파급되고 있던 Top-Down공법을 채택한 설계를 하기로 결정했다. 설계단계에서 시공성을 확보해주는 것은 어느 건물의 설계에서든 필수적인 것이겠지만 Top-Down공법은 설계단계의 가정치들이 공사의 속도와 범위를 결정짓는 중대한 요인이 되므로 기초의 방식, 공사속도 등도 구조설계자 및 시공경험자들과 상의를 거듭했다. Top-Down 공사와 더불어 가장 큰

특이사항은 외벽의 Stone Panel공법의 채용으로 이로 인해 사용석재의 두께를 줄이고 외벽공사의 공정을 단순화함으로써 공기단축을 도모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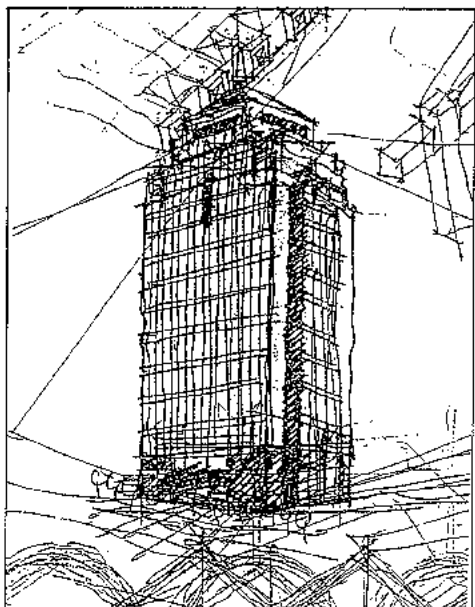
이제 그간의 어려움이 다 지나고 96년 7월에 준공하여 부산역 옆의 초량동에 그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 삼우가 부산에 설계한 오피스 빌딩 3층사-삼성화재 부산사옥, 삼성생명 초량사옥, 범천동 사옥-로써 항도(港都)부산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로 기억되길 기원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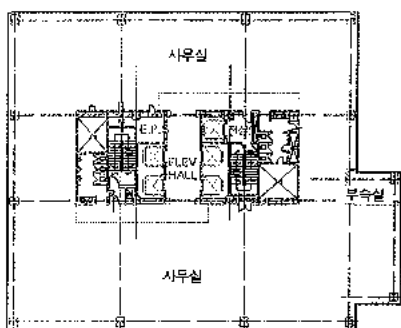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부산시 동구 초량동 1205-14외 6필지
지역·지구	일반 상업, 주차장 정비 지구, 1종미관 지구
주요용도	업무시설+근린생활 시설
대지면적	1,961.8㎡
건축면적	1,234.01㎡
건 폐 율	62.9%
연 면 적	30,385.85㎡
용 적 륜	1,033.14%
조경면적	350.98㎡
최고높이	81.3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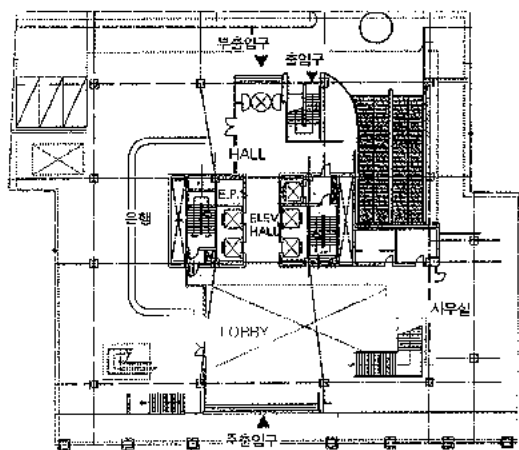
규 모	지하 6층, 지상 19층
구 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설 비	VAV+FCU
주요내장재	화강석 물갈기, 석고보드위 페인트
주요외장재	화강석 물갈기, 버너구이+복층유리
건 축 주	삼성화재 해상 보험(주)
시 공 자	삼성중공업 건설부문
설계기간	'92.9~'93.4
시공기간	'93.5~'96.6
계획담당	오창식, 이승호, 이관섭, 김성호



이미지 스케치



5-14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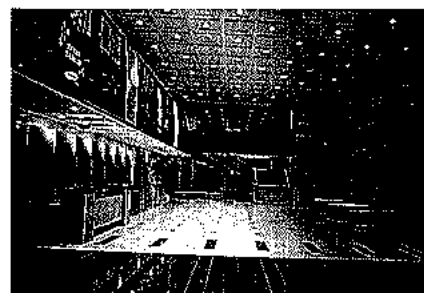
아경



금융플라자



금융플라자



로비

오류동 남부교회

South Oryu-dong Church, Seoul

김상경 / (주)김상경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Sang Kyung

이 교회는 지가가 비교적 높고 대지 면적이 그다지 넓지 않은 도시상황을 고려하여, 주예배공간을 지하1층과 지상1층의 2개층으로 구성하여 지하 예배공간의 채광 및 통풍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외부지상의 전체볼륨을 비교적 작게하여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시도하였다. 지상에는 교육관, 식당, 다목적 집회실 등 교회의 교육 및 부속기능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기존 교육관과 연계된 "열린 도시공간"을 만들어 커뮤니티의 모임장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지하 예배실로 내려가는 아트리움, 선글라스, 출입구 포-치, 최상층의 갤러리과 발코니, 반복되는 경사진 천정 그리고 전면의 커튼월과 유리의 종탑타워 등 비교적 절제되고 단순 명쾌한 형태를 표현하여 도시풍경과 교회건축의 이미지를 동시에 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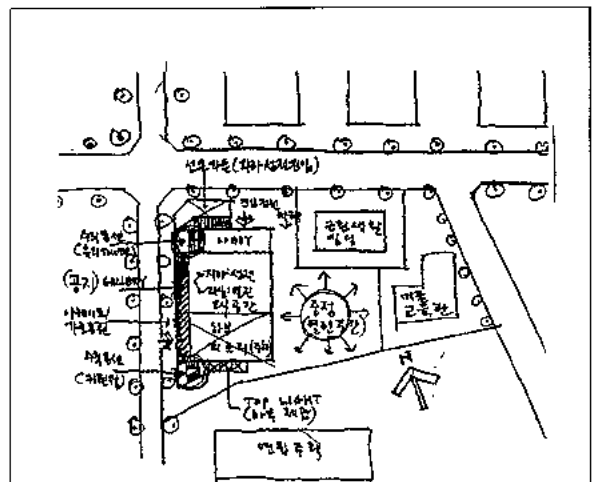
이 모든 건축구상과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이 부지에 새로운 오류동 남부교회를 들어서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이 교회는 그리스도 사랑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온누리를 밝게 비추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많이 드러내는 새로운 도시의 교회건축으로 변화될 것이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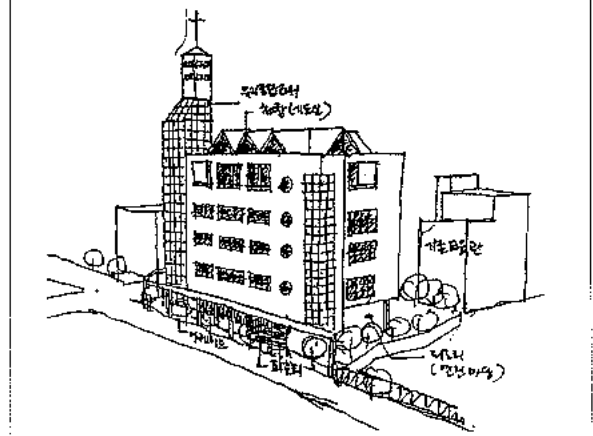
위 치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87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풍치지구
대지면적	787㎡
건축면적	310㎡
연 면 적	1924㎡
건 폐 율	39.49%
용 적 륜	170%
규 모	지하1층, 지상5층
구 조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외부 마감	적벽돌 치장쌓기, 화강석버너구이, 석재쌓칠, 18m 월러복층유리
시공기간	1995. 6~1996. 12
시 공 자	(주)한강건설
사 진	박영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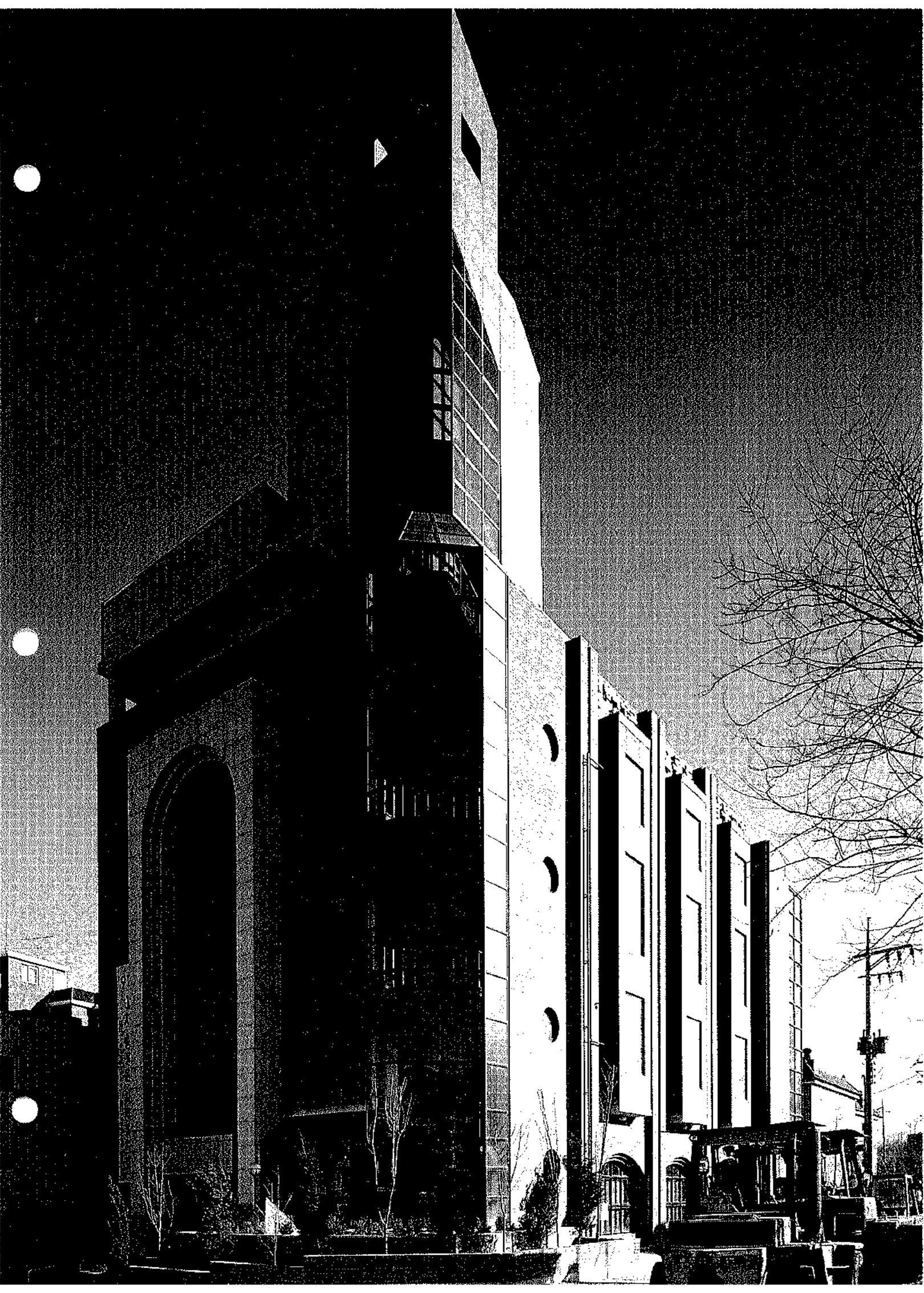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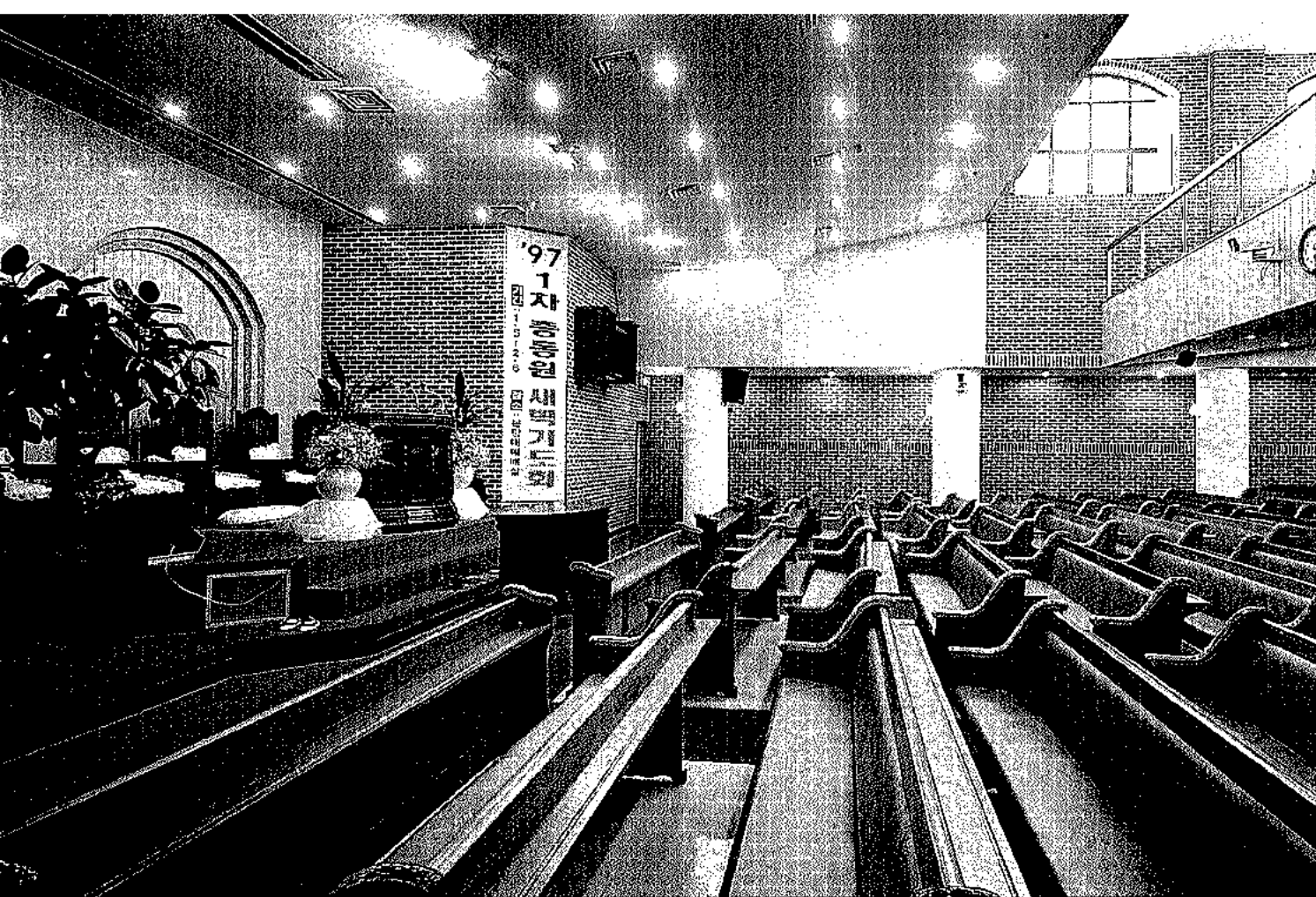


배치개념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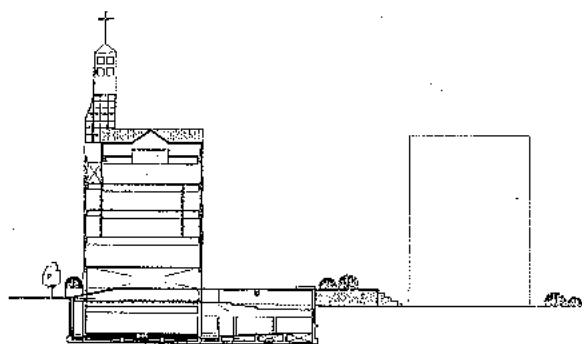


형태구성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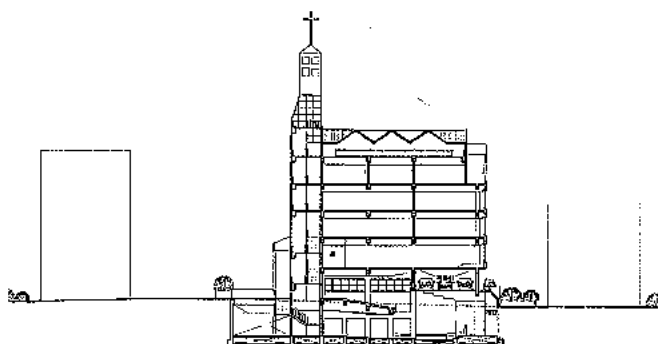




지하1층과 지상1층을 통합한 내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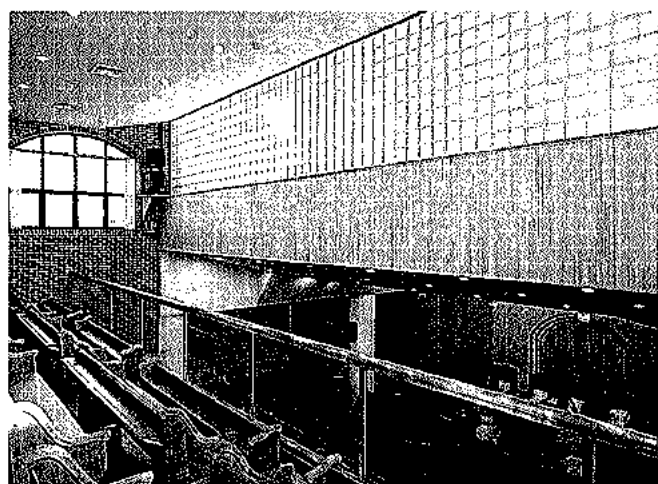
단면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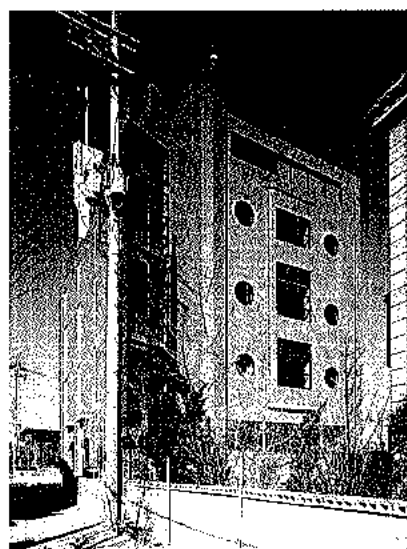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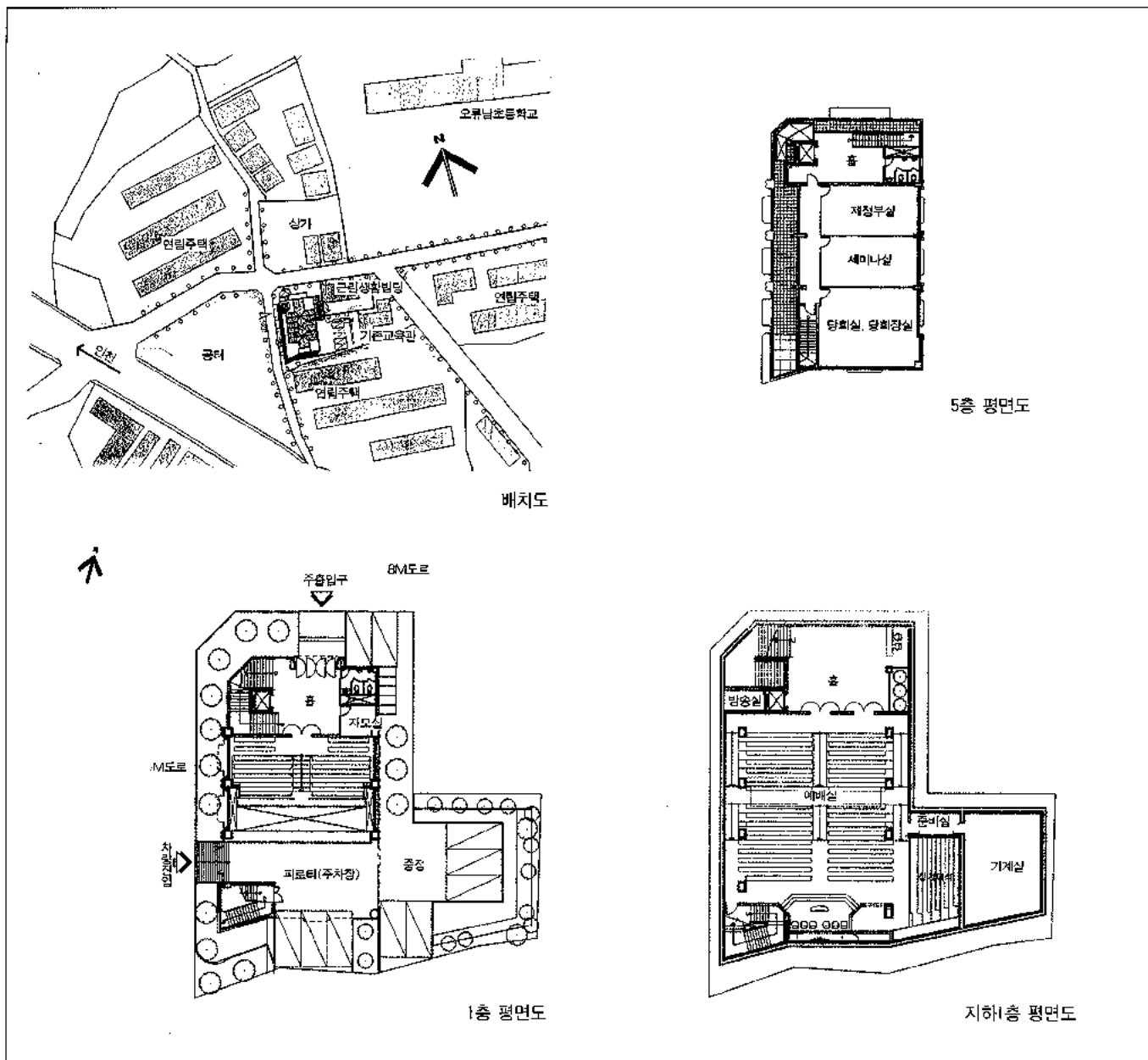
단면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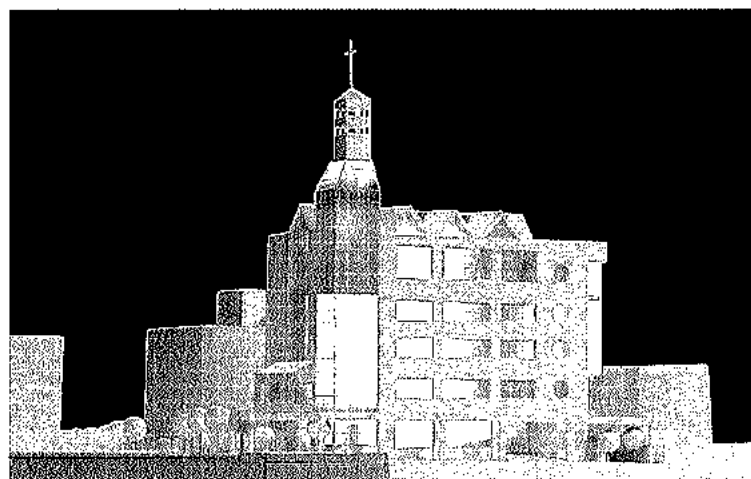
내부 성전



성전 상층부



남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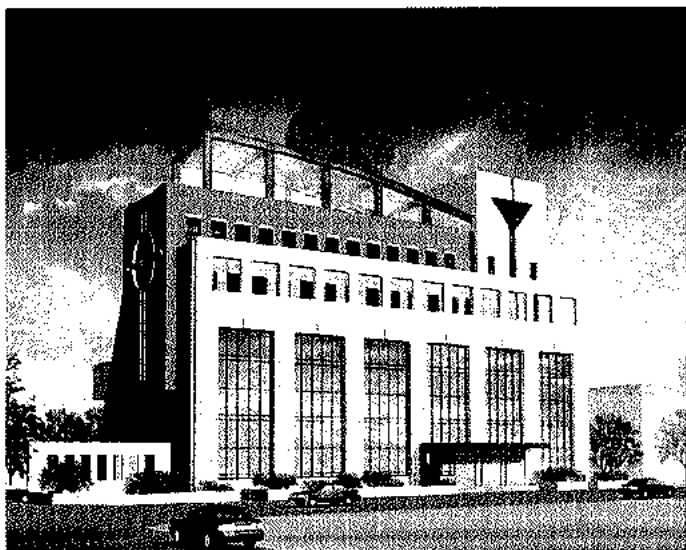


스튜디오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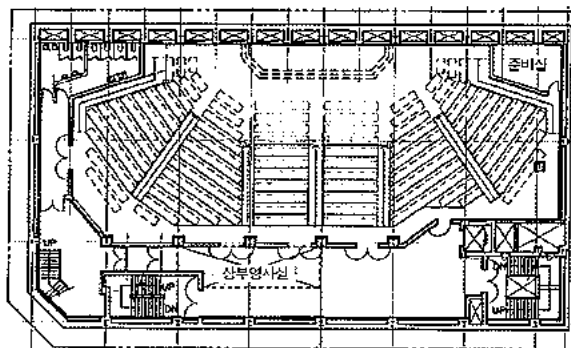
명성교회 교육관

Myeongseong Church Education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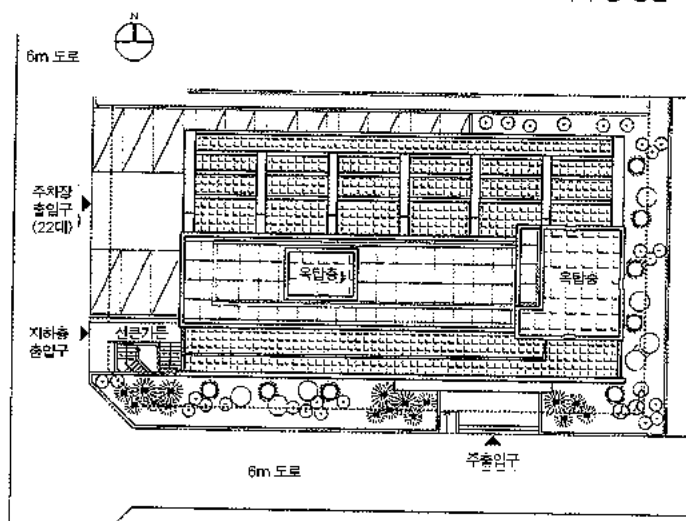
전병직 / (주)코아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Jeon Byeong-Jig



투시도



지하1층 평면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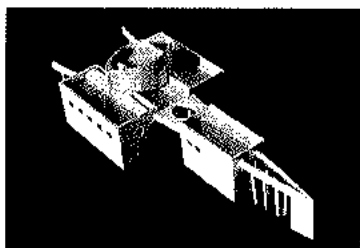
한국의 도시교회의 상황을 보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며, 따라서 그 곳에 적절한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종교적이며 사회적인 섬세한 배려가 요구된다. 이 교육관은 기존 본당과 어울려서 기능적 측면으로는 지역선교의 장으로서 교육 및 선교의 기능을 해결하며, 건축적 측면에서는 본당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새로운 조형적 임태에 대한 욕구가 개념의 시작이었다. 오랜 시간에 걸친 수많은 대안과 스케치 또는 규모조정을 거치며 종교적 의미나 종교적 표현의 양식적 추구만이 과연 교회적(?) 건물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접근에 대한 방법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종교적 해석의 객관적 정립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속에 지역사회속의 적절한 자리매김은 중요한 개념적 issue가 되었으며, 일조권이나 도로사선제한에 의한 약조건의 해결과 2가지 재료의 단순적 대비를 통한 기존 본당과의 관계 재정립은 조형적인 의도로 표현되었다. 설계를 마친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이다. 이제 종교와 사회, 특히 대도시에서 종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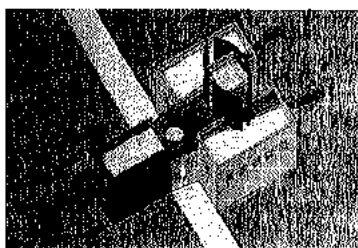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29-4호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용도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1,158.3㎡(350.38평)
건축면적	637.98㎡(192.9평)
연면적	3,982.2㎡(1,204.61평)
건폐율	55.07%(법정 60%)
용적률	175.67%(법정 400%)
규모	지하 2층, 지상 5층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
주차대수	계획 22대(법정 : 21대)

공존의 패러다임 Paradigm of Coexist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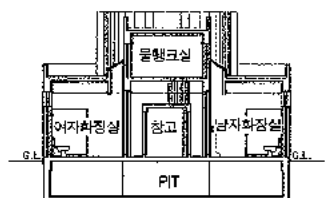
김희곤 / 흥간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Hee+K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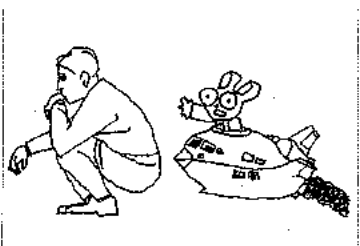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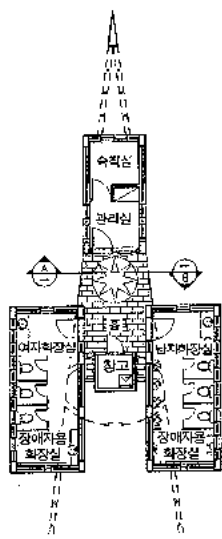
조감도



주단면도



아이디어의 발전단계



1층 평면도

근린공원내에 화장실 및 관리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이므로 우선 기존 화장실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을까하는 의문제기가 계획의 출발점이었다. 철저하게 문제제기가 퍼포먼스로 발전하여 계획정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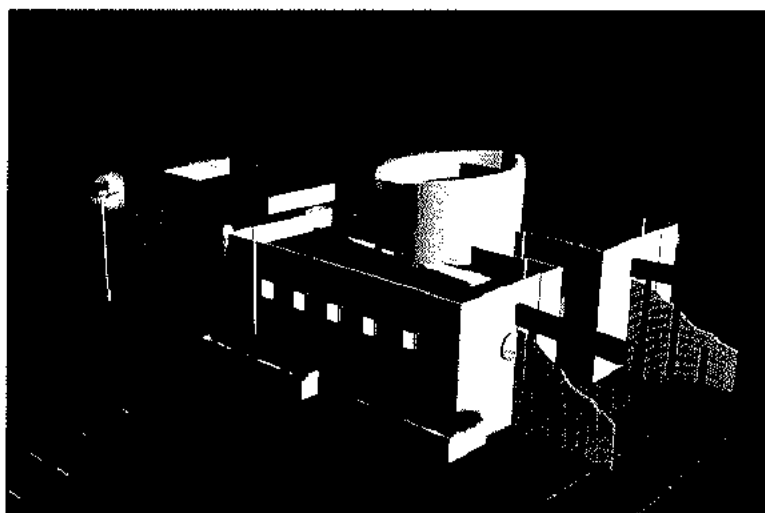
퍼포먼스 -

- 화장실이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가 될 것
- 화장실에 로비개념을 도입할 것
- 화장실 Mass가 조각적이고 놀이타화할 것
- 배설의 기쁨 → 발사 → 로켓의 추진력

건축을 구상하다 재미있는 발상을 형태까지 계속 발전시켜 기능을 실었던 계획이다. 건물 Mass가 기능외에 장식적 조각요소와 재미있는 발상을 도입하여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볼 수 있는 형태적 요소의 사용이 단순한 기능을 넘어서 공원의 조형물과 풀리, 장소적 인식성의 변화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며 부디 시공과정에 변화가 없길 기도한다.

건축개요

위 치	김포사우지구 제1 근린공원내
건 축 주	김포군청
연 면 적	72.24㎡
외부미감	물탈위 페인트 뿔칠
용 도	관리실 및 공중화장실
규 모	1층
구 조	RC조
설계담당	권오상, 원운정, 정재춘



CAD 모델링

한국의 건축가 8 - 이천승(완)

Korean Architect - Lee Cheon-Seung

한국건축계의 리더

권태문 / 공학박사, 건축사

by Kwon Tae-Moon

◇ 연 재 목 차 ◇ (계재월)

1. 이희태
(9503~9505)
2. 김정수
(9506~9508)
3. 김수근
(9509~9512)
4. 장인국
(9601~9605)
5. 박길룡
(9607~9608)
6. 박동진
(9609)
7. 강 윤
(9610~9612)
8. 이천승
—성장배경과 건축활동
—한국건축계의 리더

한국 현대건축의 파ioni어

1930년을 전후한 선생의 건축수학 기간은 유럽의 국제주의 건축이념이 현대건축의 주이론으로 정착되면서 세계화되어 가던 시기로 일본도 그 영향아래 있었다. 당시 한국은 한일합방 후 일제치하에 있었는데 한국의 건축교육 및 실무현황은 현대건축과는 거리가 있는 전근대적 상황이 답습되고 있었다. 고등교육기관은 기술중심의 교육을 벗어나지 못한 경성고등공업학교가 유일하였고 한국인 건축연구소는 경성박길룡건축사무소가 유일한 것이었다. 건축작품은 절충주의적 작품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당시 박길룡사무소에는 미국 건축가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의 풍토주의적 작품이 소개되어서, 건축설계시 한국정서가 깃든 한국적 건축제작에 관심을 가질 정도였다.

선생은 일본의 민족차별과 여유없는 생활 등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서 현대건축을 습득할 수 있는 넓은 곳으로 갈 결심을 하고 일본의 거점 건설사업장인 만주로 직장을 정하였다. 그 직장에서 일본의 명문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건축동료들에게서 현대건축의 이론과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익히면서 10년이라는 짧지않은 기간동안 건축실무에 종사하였다. 이 기간동안 선생은 일본인 동료들도 인정하는 훌륭한 젊은 건축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선생은 당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지전능한 기술자적 건축가가 되기위해 건축의 전문야(계획, 구조, 시공 등)에 대한 새로운 학문을 익히고 건축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민능의 건축가가 되었다.

선생은 만주 대련역 현상설계에 당선한 후 건축의 작가성과 작품성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건축의장의 중요성과 건축창작의 의미를 이해하여서 현대가 요구하는 건축가로 의식전환을 하였다. 그리고 국가의 건설정책 및 도시·지역개발에 필요한 새로운 학문인 도시계획을 실무로 담당하면서 섭렵하여 도시계획 전문가가 되었다. 해방 후 새로운 국가가 된 한국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선생은 건축계를 위해 여러 가지

중요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주요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46년 『도시계획연구회』 개설.

해방 후 한국 국가재건사업의 중요한 정책 중 한 부분이 되는 국민주택의 문화화 및 개량화를 목표로 한 도시문제 및 주택문제를 연구하는 최초의 연구소였다.

둘째, 1950년 『국회 전문위원』 위촉.

새로운 한국의 건설관련법인 건축법, 건축사법 및 도시계획법의 작성을 위촉받아 이를 수행하여 현 건설관련 법령의 기반을 작성하였다.

셋째, 1953년 『종합건축연구소』 개설.

박길룡선생의 작고 후 그 사무소와 연관된 업무를 인수하여 정리하고 경성박길룡건축사무소를 있는 건축사무소로 『종합건축연구소』를 개설하였다. 이 연구소는 한국 국가재건사업과 관련있는 수많은 건축설계를 담당하였으며, 현재 활동중인 우수한 건축가들의 양성소 역할을 하였다.

넷째, 1955년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건축부 심사위원.

대한민국 미술전람회(국전)에 건축부가 설치되도록 정인국교수 등과 협력하였고, 건축이 예술분야임을 사회에 확인시킴은 물론 건축계의 위상을 높였다.

다섯째, 1957년 한국건축작가협회 초대회장. 건축의 예술성을 기치로 하여 작가적 입장을 고수하는 건축가들의 권익보호와 친목을 위한 모임인 한국건축작가협회(현 한국건축가협회)를 창설하였다.

여섯째, 1947년 이후 후진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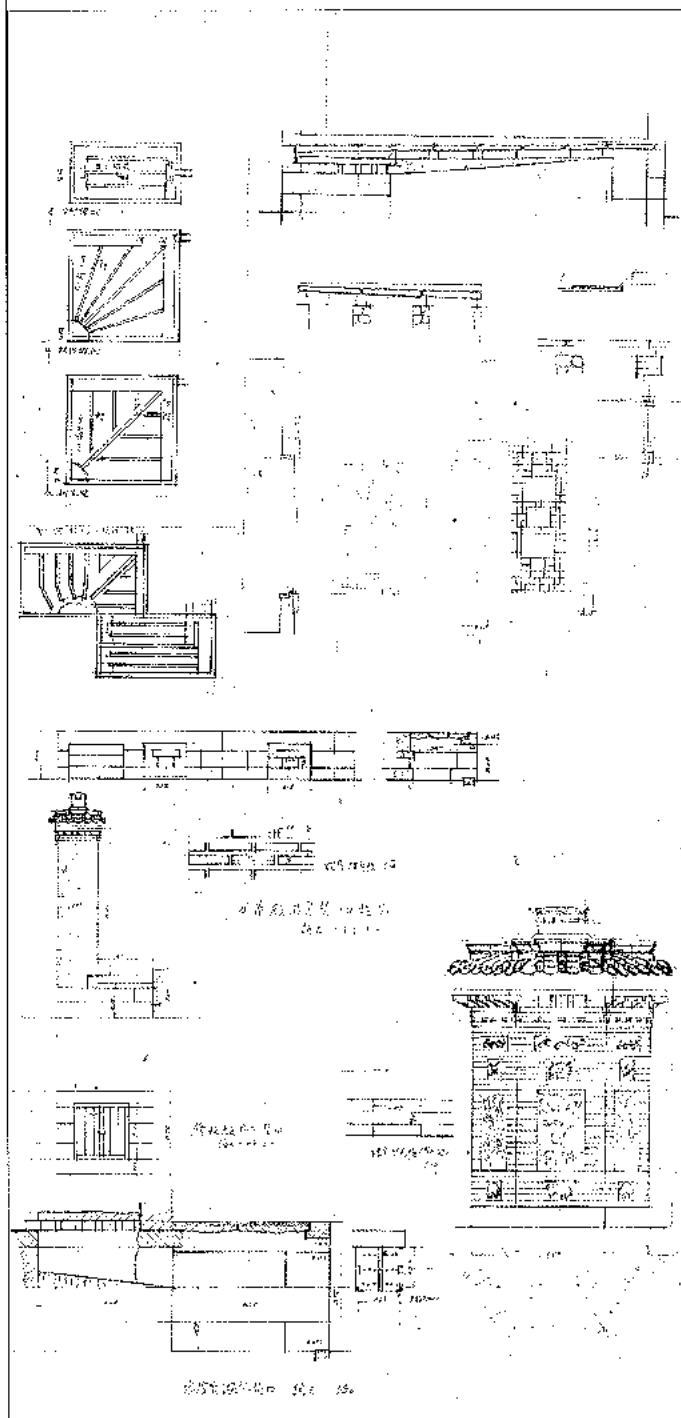
해방 후 건축계의 후진양성을 위해 서울대, 한양대, 홍익대, 이화여대 등에 출강하면서 건축관련 과목, 도시계획 및 주거론 등을 강의하였다. 현재 활동중인 대다수 건축가들이 수강하였다.

다방면으로 당시 한국 건축계를 대표하던 선생의 이와같은 작업들은 새로운 국가건설의 업무 중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었으며 특히 한국 건축계를 위해서는 현대건축의 기반조성에 크게 이바지한 업적들이다. 선생이 수행한 이 폭넓은 건축적 업적들은 선생이 한국 현대건축 정착기의 진정한 개척자(파이오니어)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모더니스트

선생은 투철한 모더니스트였다. 성장기에 전

통적 유교사상을 중시하던 가정교육과 당시 개화되지 못한 사회 분위기 및 기술중심 교육을 받았는데도, 선생의 사고와 행동은 매우 진취적이었다. 선생은 철저하게 새로운 것에는 무조건적 관심을 기울였고, 새로운 것은 꼭 자기 수중에 넣어야 하는 편집성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성향은 어려서부터 잠재된 우월주의적 사고일 수도 있으나 현대사회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현대산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 안목을 가진 선생의 모더니스트적 습성에서 기인된 것이었다.



『도시계획연구회』의 주택운들 개량안 스케치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에서 윤보선 대통령에게 건축작품을 설명하는 선생(좌측에서 2번째가 선생)

영국의 현대화 초기에 생겨난 멋쟁이 주 의인 댄다이즘 신봉자들은 자기의 생활 전체를 바로 예술로 인식하고 자기의 일거수 일투족이 예술로 승화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었는데, 아들과 유사하게 선생은 유독 자기 자신만을 위한 멋쟁이(?) 에고이스트로서, 생활의 모든 면에서 현대적인 것을 즐기는 모더니스트였다. 이러한 선생의 습성은 건축활동에도 표출되는데, 외국여행시 정열적으로 수많은 최신 건축물을 견

학하고 사진을 찍어서, 귀국 후 그 장점을 취하여 국내 작품에 그 특징을 활용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리고 당시 한국사회는 보수적 성향이 잠재되어 있어서 현대건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었었는데, 수많은 건축을 담당해야 하는 관공서가 특히 심하였다. 그러나 선생은 모더니스트로서의 신념과 노력으로 현대건축의 합리주의적 사상을 이들에게 설득하여 정부가 현대건축을 수용하게 하였다. 선생의 모더니스트적 성향은 건축제작에도 표출되는데 새로운 기능, 새로운 구조, 새로운 재료 등에 대한 집중적 관심으로 합리적이고 현대적인 새로운 건축이론을 건축작품에 즉시 반영시켰다. 선생의 이와같은 노력은 한국의 현대건축 정착에 초석이 되었으며, 보수성향이 짙던 당시 사회에 현대건축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낸 개척자적인 모더니스트였다.

건축사상 및 작품성

해방과 더불어 한국 건축계는 현대건축의 태동기를 맞았는데, 당시 국가재건사업의 조속한 성취를 목표로 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현대건축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부족한 상태로, 성숙기에 해당하는 작품 제작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제8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국전) 이승만 대통령 내외 참관기념 사진(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선생)



선생이 스크랩한 현대화된 실내장식과 가구



동아일보 본사 계획안

이 기간에는 현대건축의 이해보다는 현대건축의 생산에 진력할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하였다.

선생은 공학을 토대로한 현대건축의 기술적 이론을 빠르게 흡수하여 경제적 건축을 지향하였으며, 예술과 기술의 복합체적 건축창작에 몰두하였다. 그러나 선생은 한국이 당면한 개국적 상황을 고려하여 항상 『건축의 생산성』을 우위에 두었던 기술자적 건축가였다. 선생의 건축설계 제작방법은 초기단계에 평면과 입면의 분리작업, 즉 기능분석과 평면조직 그리고 외장요소분석과 입면 및 입체구성의 두 부분으로 분리하여 작업하고, 이 두 부분을 하나로 짜맞추는 종합화 작업으로 진행시켰는데, 이것은 하나의 건물을 조속히 설계, 생산하는 방법이었다.

이 제작방법은 각 부분별로 능력이 있는 엘리트들의 전문적인 작업에 의해야만 신속하게 건축설계가 이루어진다는 선생의 독특한 시각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이 설계방법은 일반적인 건축설계방법으로는 무리한 것이었다. 다만 당시의 조속한 건축설계 생산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제작 방법의 하나였다.

선생은 건축가로서 예술성을 표출하는 건축작품의 창출보다는 한국에 현대건축을 정착시키려는 노력, 즉 새로운 양식의 현대건축을 제작, 소개하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선생의 현대건축에 대한 이해는 기술과 예술의 복합체로서 어느 편으로도 치우침이 없는 중용적 대상이고, 경천애인이라는 생활관을 바탕으로한 자연중시사상은 건축을 대지의 용기라고 사고한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의 건축관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선생의 수많은 건축작품들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문적 작업을 담당한 소원들의 개성적 차이와 현대건축을 수용하는 과정적 상황으로 보여진다. 이와같은 현상은 선생의 폭넓은 건축적 사고를 보여주는 것이다. 세종로 네거리변에 있는 동아일보사옥은 건축당시 3층이었는데, 동아방송 개국에 따라 5층으로 증축된 건물이다. 선생은 증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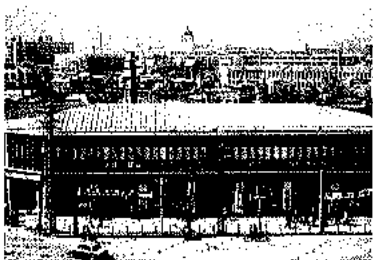
건물인 현 동아일보사옥을 기존의 동아일보가 갖고있던 위치적, 인식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기존건물의 건축적 요소(양식, 디테일 등)를 그대로 복제하여서 그 장소에 그대로 있는 초기의 건물과 같은 인상을 유지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현 세종문화회관 자리에 건축되었던 『우남회관』(시민회관)은 현상설계 당선작이었는데, 건물 전면에 탑을 갖는 비대칭의 외관은 기념건축의 외관으로는 흔하지 않은 특징적인 것이었다. 이 회관은 조형전체에서 보이는 균형잡힌 비례와 질서, 그리고 지하로부터 솟아오른 듯한 힘찬 매스의 처리 등과 석재를 사용한 외부에서 풍기는 장중함과 함께 현대성을 표출하였으며, 경복궁을 배경으로한 세종로거리를 활성화시킨 상징적 건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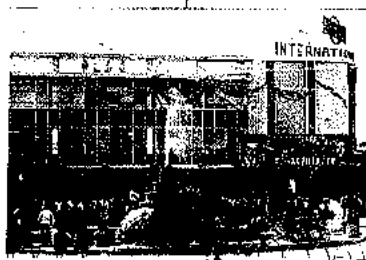
선생의 건축적 사고와 성격을 같이하는 작품은 『국제극장』이었는데, 이 건물은 『르 꼬르뷔제』가 창안한 도미노시스템 이론을 기초로 하여 설계된 것으로, 외부의 독립주와 켄티레버의 구조, 그리고 커튼월로 구성되는 밝고 가벼운 외부형태와, 객석을 스타디움형식으로 구성하여 시원하고 개방적 분위기를 더한 실내 등, 새로운 현대건축의 맛을 보여준 건축작품이었다. 서양의 입체주의적 건축작품에 관심을 보인 선생은 자주 『리처드 노이트라』의 밝고 건강한 건축, 즉 넓은 유리면을 통하여 건물의 외부와 내부공간이 상호관입하는 건축에 관해 애착을 느꼈으나 선생의 작품에서는 시도되지 않았다.

한국 건축계의 리더

선생의 일생을 통한 정열적인 건축활동은 현대건축을 수용해야 하는 한국 건축계는 물론 정부의 국가재건 사업에 크게 이바지하는 업적을 남겼다. 일제치하의 한국 건축계에는 박길룡선생의 『경성박길룡건축사무소』가 개설되어 미약하나마 침체되어 있던 한국 건축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해방 후 한국 건축계는 많은 어려움 속에 좌표설정도 하지 못하고, 건축인 자신들의 활동영역 및 권익보호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루버를 채용한 「신신백화점」



국제극장



우남회관 앞에 선 선생

당시 선생은 정부의 국가재건사업에 직접 관여하여 한국 건설계의 활동을 위한 법령의 작성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것은 한국 건축계에 종사하는 건축인들의 권익증진에 토대를 마련한 계기가 된 것이다. 또 한국건축작가협회를 창설하여 한국의 건축계가 건축학회, 건축사협회, 건축작가협회로 분리되게 하고, 건축인들의 전공특성 및 기호에 따라 협회별로 참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한국 건축계를 정비하는데도 중심역할을 담당하였다.

당시 건축가를 건설기술자로 밖에 인정하지 않던 상황의 한국 문화계에서 대한미국미술전람회(국전) 내에 건축부가 신설되게 하고 건축의 예술적 작품성을 한국사회가 인식하도록 진력하여 한국 건축계의 진로와 비전을 제시하였다.

선생은 종합건축연구소를 개설한 후 현대건축 이론에 기초한 건축설계를 선도하였고, 배출한 후학들을 소원으로 입소시켜 밟아놓은 설계작업을 전개하면서 사회적 지명도, 신뢰도를 쌓아 한국 건축계의 중심으로 자리하였다.

선생은 10년 내외의 기간을 한 주기로 하여 한국 건축계를 이끈 건축계 리더들로는 한국 최초의 건축가 박길룡 - 한국의 현대건축가 이천승 - 한국의 현대건축작가 김중업 - 한국의 국제건축가 김수근으로 이어져 있다고 회고하였으며, 선생 자신이 한국 건축계를 위해 공헌한 많은 역할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새로운 한국의 건설 초기에 쉼사이 없이 한국 건축계를 누비며 한국의 현대건축 정착에 전념하였던 그 열정과 거시적 비전,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은 선생이 전체적인 면에서 한국 현대건축계의 진정한 리더였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외국의 건축가 1 - 렘 콜하아스

Architect Overseas, Rem Koolhaas

렘 콜하아스와 O. M. A의 도시와 건축

성인수 /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by Seong In-Soo

20세기, 한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그 겉에서 우리는 다양한 변화를 보고 있다. 또 그속에서 바쁘게 생활하며 간단하지 않은 경제현실과 세계건축의 시대적 변화와 추세를 관망하는 우리 건축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 이 시대, 어떤 건축가를 소개해야 하는가? 누가 우리에게 왜, 의미있는 건축가인가? 인터넷의 시대, 국가경제와 체제이념의 경계도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쓰레기들이 가득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구촌 곳곳에 있는 건축과 건물을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은 얼마나 황당한 모습인지? 우리 스스로 어떤 자신감을 지닐 수 있을까?

외국 건축가들을 개략 2개월 단위로 연재를 시작하려 한다. 여기에 연재되는 건축가들은 필자가 알고 싶은 또는 원치는 않지만 알아보아야 할 건축가를 대상으로 한다. 즉, 잘 알고 있는 건축가이기 때문에 또는 긍정적인 측면만 있어서, 대상 건축가를 선택하여 서술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 상에서 얻은 자료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를 각주에 밝힌다. 그러나 그 정보는 한 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그 정보에 근거한 필자의 견해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독자들의 의견을 환영한다. 연재에 대한 의견도 좋고 공급해하는 건축가를 제안해도 좋다. 독자 여러분의 기대 정도와 요구수준을 유지하며 계속 보완, 정리하여 10회에 걸쳐 격월로 연재코자 한다. <편집자 주>

◇ 연 재 목 차 ◇

(격월 게재)

1. 렘 콜하아스 Rem Koolhaas
2. 다니엘 리베스킨트 Daniel Libeskind
3. 파올로 솔레리 Paolo Soleri
4. 딜라+스코피디오 Diller+Scofidio
5. 니콜라스 그림쇼 Nicholas Grimshaw
6. 에릭 오웬 모스 Eric Owen Moss
7. 라파엘 모네오 Rafael Moneo
8. 베르나르 푸미 Bernard Tschumi
9. 아키텍토리카 Architectonica
10. 건축 스튜디오 Architecture · Studio



렘 콜하아스/ 사진 출처 : A+U 9408

아라비안 나이트와 1000일 밤의 이야기,
그리고 세헤라자드의 1001일 낮의 이야기

맨해튼에서 최초로 다용도건물을 실현시킨 레
이먼드 후드가,
지냈던 1001 가지 실리주의(實利主義) 이야
기.
오염된 해안에 떠다니며 표류하는
수상수영장의 인명구조원/건축가인 램 콜하
아스

세계 곳곳에서 1001 종류의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미술사가 되고 싶은 건축가 - 램 콜하아스

로테르담, 런던과 맨해튼을 거쳐
드디어 아시아에 정착을 시작하다.

램 콜하아스의 無念¹⁾
"건축이 있는 곳에는, (그것 외에) 가능한 것
은 없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는, 무엇이든 가능하다."

(타임지에 실린 콜하아스의 글)

XXL

타임 지에 실린 글은 근래 콜하아스의 건축적
업무에 관한 상황을 보여준다.

"건축가들은 일반적으로 시무룩한 사람들
이다. 그 이유는 전문가 성격과 예술가적 성격을 공유하고 있지
만 그 어느 쪽에도 완전하게 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
사이 젊은 건축가 지망생들 대부분의 우상인, 네덜란드 태생의
예언가 겸 건축가인 램 콜하아스는 웃고 있다. 캘리포니아 유니
버설 스튜디오에서 벌이는 3조달러 규모의 확장계획을 지휘할
것을 약속해 준 그의 첫 미국 고객인 MCA-Universal 회사가
건축가의 꿈을 든든하게 지원해줄 것을 생각하며, 미소를 띄울
것이다. 왜 콜하아스를 선택했을까?"²⁾

유니버설 영화를 인수한 시그렘사의 대표³⁾
가 미스 반 델 로에에게 뉴욕 시그렘 빌딩을 부탁했던 이의 손
자라는 사실 때문에, 램 콜하아스는 "그의 할아버지 때문일 것
으로 생각한다"고 말한다. 브론프만이 콜하아스를 선택한 것은
많은 방법에서 1954년 그의 할아버지가 미스 반 델 로에를 선
택한 것만큼 정말로 대담한 것이다.

파울로 솔레리의 아코산티에서는 "아콜로지

메이저" 하이퍼 빌딩에 관한 긴급 보도 요청을 인터넷에 올렸
다.⁴⁾ 또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일본 신건축⁵⁾ 특집에 실렸다.

파울로 솔레리와 램 콜하아스 그리고 노부아
까 후루야⁶⁾들은 그들에게 위촉된 '하이퍼 빌딩' (완전환경계획
도시) 계획을 1996년 10월 17일 동경에서 발표하였다. 1000
년 이상의 수명을 지녀야 할 1000미터 높이의 10만명을 수용
하는 세계 최초의 건물디자인을 선보였다. 68개 법인이 1994
년에 결성한 하이퍼 빌딩 연구회⁷⁾는 세사람에게 하이퍼 빌딩
을 기능케 해줄 수 있는 '새로운 개념과 아이디어로 디자인' 해
줄 것을 위임했고 이에 대한 답이었다. 일본 건설성이 연구회
의 운영을 지원하는 장대한 계획을 의문시할 이유는 없지만 미
래 10세기(2001년~3000년)기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계획
을 지금 동경과 방콕 그리고 미국 모하비 사막 위에 건설하려
는 계획의 규모는 장대한 것이다. 여기에 콜하아스의 도시개념
아이디어의 필요는 일본의 미래대응전략으로부터 나올 수 있
었다.

지구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가
능성"의 문제를 제기해 온, 리우회의 이후의 건축계가 추구해
온 과제를 일본은 하이퍼 빌딩으로 그 해답을 구하고 있다. 분
명 '발상의 전환'⁸⁾을 필요로 하는 작업의 담당자로 외국 건축
가로 두사람을 선정한 것이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제자이며 아콜로지⁹⁾
를 끊임없이 연구해온 이탈리아 출신의 솔레리는 미국 아리조
나주 중부에서 건축과 생태학을 결합한 미래공동사회를 '아코
산티'와 '코산티' 프로젝트로 실험, 연구하고 있었다. 일본은
그 동안 솔레리가 추종자나 학생들과 사막에서 미래도시를 건
설하는 작업을 유심히 지켜보았기 때문에, 위촉할 수 있었으리
라.

램 콜하아스는 땅이 저지대라 지하철 사공이
곤란한 태국 방콕의 시가지 강가에 1000미터나 되는 초고층
건물 여러 동에 상부에 몇 개의 기단을 형성하고 강 건너편에
서 사선으로 건너 올라오는 쇼핑용 건물을 기대어 붙였다. 교
통체증을 해결하는 동시에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는 건물을 자
립적으로 세운 경우라 하겠다. 이런 발상과 작업이 램 콜하아
스의 감성인가?

램 콜하아스는 책 「정신착란증의 뉴욕」(1978
년), 「S, M, L, XL」(1995년)로 유명해진 건축가이다. 세계적

1) 無念 : Imagining Nothingness

2) <http://pathfinder.com/~e@h@TUjgcAZvEQYfF/time/magazine/domestic/1996/960408/architecture.html>, TIME Magazine / April 8, 1996 Volume 147, No. 15.

3) Edgar Bronfman Jr.

4) http://www.arcosanti.org/media/10_17_96.html

5) 신건축 1996년 12월호

6) Paolo Soleri, Rem Koolhaas and Nobuki Furuya

7) HBRCC : Hyper Building Research Committee

8) Paradigm Shift

9) Arcology : Architecture + Ecology

10) 삼우설계, 「삼우설계 정립 20주년 기념 유람현대 건축가 초청 국제 심포지엄(1) : 발표자
Rem Koolhaas, 녹화비디오, 1996년 9월 20일, 신라호텔.

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근래 한국에도 방문하여 삼우건축의 “H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¹⁰⁾한 바 있으므로, 우리에게도 선보인 적이 있다. 왜 폭발적으로 렘 콜하이스에게 일을 맡기는 것일까? 1994년 11월 뉴욕 MOMA에서의 콜하이스의 전시는 많은 관심이 모였고 의미있는 찬사를 받았다. 렘 콜하이스가 왜 많은 서구의 젊은 건축가 지망생들이 꿈꾸는 선망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 까닭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에 대한 찬, 반은 어떤 점이 있을까 살펴보기로 하자.

그의 책 「정신화란증의 뉴욕」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뉴욕 이외에 다른 도시와 현대건축에는 어떤 의미와 효과가 있는지? 또 새로운 책 「S, M, L, XL」으로 기존 건축개념에 어떤 충격을 주었고 렘 콜하이스는 이를 통하여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살펴 볼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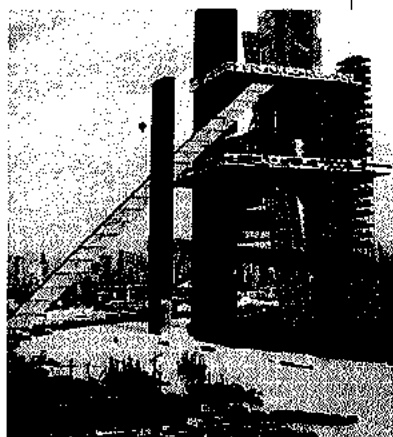
백인 여성노예 “De Blanke Slavin”

콜하이스는 건축가가 되기 이전에 대본을 집필했던 시나리오 작가로서의 초기경력을 언급하고 있다. 콜하이스는 네덜란드 감독 르네 다말더¹¹⁾ 감독이 만든 영화 시나리오 「백인 여성노예」 한편을 썼다. 콜하이스는 현대 유럽에 대하여 비평하기 위하여 “싸구려 속성영화의 이미지를 사용한 풍자”¹²⁾ 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미국 싸구려 누드영화 감독인 루스 마이어의 영화의 대본을 썼는데 이 영화는 제작되지 않았다.¹³⁾

영화 「백인 여성노예」의 촬영감독인 네덜란드 태생의 장 드 봉¹⁴⁾은 영화 「로보캅」, 「토탈 리콜」의 영화감독인 같은 네덜란드 출신의 폴 페어웨이의 영화에 합류한다. 미국으로 건너 온 드 봉은 「다이 하드」¹⁵⁾, 「붉은 10월의 사냥」¹⁶⁾, 「리셀 웨폰 3」¹⁷⁾, 「원초적 본능」¹⁸⁾ 등의 많은 작품에서 촬영을 담당한다. 드 봉은 첫번째 감독작품인 영화 「스피드」(1994년)로 명성을 날리게 되고 현재 「스피드 2」를 준비하고 있다.¹⁹⁾



신건축 표지사진



하이퍼 빌딩(사진 출처 : 신건축 9612)

드 봉이 네덜란드에서 촬영을 담당했던 영화 「백인 여성노예」의 대본을 쓴 사람이 렘 콜하이스였다. 두꺼운 책 「S, M, L, XL」은 건축을 소재로 한 영화(또는 그 대본)처럼 보인다. 더구나 그가 쓴 대본의 제목이나 제작되지 않은 영화의 감독, 또 이 두꺼운 책 곳곳에 실린 누드사진들이 표상하는 것 사이에는 현대문명의 큰 속성중 하나인 섹스의 문제도 당연한 하나의 건축적 요인이라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영화(대본)처럼 보이는 이유는 다양한 시각적 파노라마 위에 건축적 내용과 과제, 자신이 겪은 일과 건축주의 접착을 대사처럼 나열하였고, 보고 들은 일, 겪은 일, 건축물의 사진들이 필름처럼 몽타주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계없는 듯한 사진들, 다른 작품들에 관계될 법한 사진들, 신문광고 등 잡다한 내용을 책 전반에 걸쳐 담고 있다. 무작위성이나 임의성을 가장한 카메라 기법을 동원한 건축적 표현을 하고 있다. 전의 책과는 다른 모습이다. 다양한 시각적 미디어의 활용은 공동편집자의 역할이지만 기본적 원칙은 콜하이스의 것이다.

책 「S, M, L, XL」에 대하여 루키스 모나코는 책의 서평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²⁰⁾

만약 당신이 O. M. A. 작품에 일반적인 흥미가 있다면, 이 책은 좋은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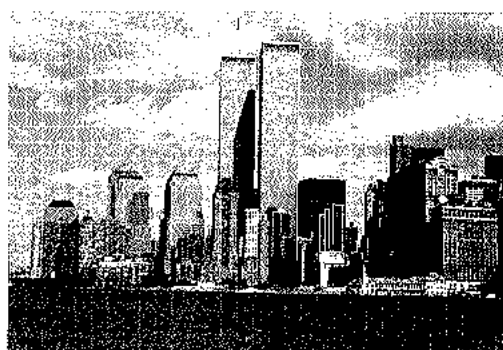
만약 당신이 모든 프로젝트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책은 불완전하다.

만약 당신이 O. M. A.의 작품을 이해하고 싶다면, 이 책은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만약 당신이 O. M. A.의 훌륭한 글을 보고 싶다면, 이 책은 좋은 참고서이다.

만약 당신이 건축을 향한 새로운 접근을 보고 싶다면, 이 책은 주목할 만한 노력을 보여준다.

만약 당신이 O. M. A. 태도에 영향을 받고 싶다면, 이 책은 틀림없이 출발점이다.



맨해튼의 전경

맨해튼

뉴욕주, 뉴욕시와 그 중심인 맨해튼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곳은 브로드웨이와 어프브로드웨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브롱스 동물원, 퀸스 식물원, 스테이튼 섬의 어린이 박물관, 센트럴 파크의 브루클린 음악 아카데미, 세익스피어 공원 및 링컨 센터, 카네기 홀, 자유의 여신상과 배터리 공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월드 트레이드 센터 또는 금융센터 같은 고층건물들과 또 할렘흑인지역 등이 뒤섞인, 세계의 무역 및 정치, 문화 및 출판, 공연, 예술의 중심지로 알려진 도시이다.²¹⁾ 뉴욕 도시는 어떤 매력이 있는가? 뉴욕시장 루돌프 줄리아나²²⁾가 발표한 메시지²³⁾는 뉴욕이 세계의 중심지임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3,000만 명의 관광객과 일일여행자들이 뉴욕시를 방문했으며 개략적으로 120억 달러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추수감사절 명절동안 많은 수의 관광객이 다녀갔고 백화점 Macy의 경우 하루 쇼핑객이 6만 명에 이르는 정도였다.”

뉴욕시 시장은 뉴욕이 제공하는 「월등하게 우수한 문화적 활동의 다양성」을 자랑하고 있다. 언어와 인종이 다양하다는 것이 바로 문화적 다양함을 낳은 것이다. 뉴욕시의 5구역-브롱스, 브루클린, 맨해튼, 퀸스, 스테이튼 섬²⁴⁾으로 이루어진 뉴욕에 대하여 다룬 책 「정신착란증의 뉴욕」은 이중에서 맨해튼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고 있다.

먼저 렘 쿨하아스를 유명하게 만든 「정신착란증의 뉴욕」에 대하여 알아보자.

렘 쿨하아스의 지적은 인디언과 초기 상륙자들 사이에 벌어진 쟁방간의 거레에 대한 무효화 선언이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만한 부분은 고아시아 족인 미국 인디언에 관한 내용이다. 쿨하아스는 맨해튼에서의 인디언과의 토지거래로부터 언급하고 있다.

“1626년 맨해튼 섬을 인디언으로부터 24달러에 사들였다. 그러나 그 거래는 잘못된 것이었다. 그것을 판자는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그들은 그곳에 살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그곳을 방문했을 뿐이다.”

미국의 지명 중에는 그 어원을 정확히 모르는 인디언 용어가 도시나 지명의 어원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미국인들은 침략한 그 땅에서, 새로운 국가의 시작에서부터 인디언의 냄새를 지울 수 없는 운명에 처한 것이다. 이런 운명적 결함으로부터, 즉, 허상을 향한 출발이 미국 고층도시의 특징이라는 인식이 그 역사를 통하여 서술된다. 원주민들은 (인도인이라는 뜻으로) 인디언이 되었으며, …… 실수가 발견되었을 때는 …… 그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증거들은 지워져야 하는 것이다.

맨해튼은 '진보의 극장' 이었고, 맨해튼의 구

성상 특징이 “아만성은 세련된 문명 앞에 항복을 하다”였다고 보았다.²⁵⁾ 렘 쿨하아스는 맨해튼이라는 도시가 건축적 돌연변이들, 유토피아적 단편들, 비합리적 현상들 또는 대중적 환상을 담거나 포기된 계획안으로 이루어진 망상적 건축들로 가득 차 있다고 보았다. ‘굴을 먹는 바’의 모습에서와 같이, 물체로 남아버린 남성만의 공간이 된 다운타운 운동클럽의 경우처럼, 유원지 코니아일랜드의 ‘사랑의 항아리’ 같은 허망한 모습으로부터 도시는 커졌다.²⁶⁾ 또 달리나 르 꼬르뷔제의 아이디어 뿐만 아니라 맨해튼의 햄리트라는 월러스 해리슨의 아이디어도 맨해튼에서 인디언처럼 지워져 갔다는 것이다. 그들이 사용했던 편집광적 비판방법(PCM)이란 꿈, 공포증, 이데오로기, 강박관념 등을 반복과 의지력의 힘만을 그것들이 현실이 될 때까지 실제 대상에 투사하는 것으로 살바도르 달리의 방법을 말한다.

“정신착란증의 뉴욕”(1978년)

‘수영장의 이야기’(1977)를 보면, 렘 쿨하아스의 건축적 상황을 그려볼 수 있다.

이 수상수영장은 40년이라는 오랜 기간의 항해 끝에 맨해튼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역시 획일적인 자세로 수영을 하고 있는 일단의 건축가들, 그들이 보여주는 다른 점이란 방향을 맨해튼으로 부터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을 뿐이지만 그들도 수영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맨해튼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아이러니컬 한 상황을 보여 준다.

소련에서 시작된 기계론적 사고는 구성주의자를 낳았고, 그 뒤에 러시아 모더니스트들과 소련 정권의 알력은 모더니스트들이 소련을 떠나게 만들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벽화예술가 디에고 리베라²⁷⁾는 맨해튼에 새로운 예술을 알리는 수단으로서 초청되어 벽화를 시도하였으나 그가 그렸던 벽화에 일부 등장했던 레닌의 초상화가 사라졌듯이 그의 대중을 위한 그림들은 미국에 잠시 머물렀을 뿐 맞지 않았다.

11) Rene Daalder

12) Fassbinderish allegory 통만드는 사형의 풍자

13) TIME Magazine/ April 8, 1996 Volume 147, No. 15

14) Jan De Bont

15) Die Hard

16) The Hunt for Red October

17) Lethal Weapon 3

18) Basic Instinct

19) <http://www.student.uwa.edu.au/student/predator/jandedbont.html>

20) <http://hotwired.com:80/books/96/20/smbd.html>

21) <http://www.allianceforarts.org/mayors-iniro.html>

22) Rudolph W. Giuliani

23) <http://www.ci.nyc.ny.us/html/om/html/me961201.html>, 1996년12월1일

24) The five boroughs of New York City - the Bronx, Brooklyn, Manhattan, Queens, and Staten Island - are represented by cultural organizations of all kinds.

25) Rem Koolhaas, "Delirious New York, A Retroactive Manifesto for Manhattan,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78) pp. 9-10.

26) Rem Koolhaas, 앞책, pp. 127-132

27) Diego Rivera: Rem Koolhaas著 김원갑역, 「정신착란증의 뉴욕」, 「5번가의 크레올」, 190~197쪽 참조

건축적 돌연변이들'이란 잘못된 건축적 흐름으로서 태어난 건물을 지칭했다. 즉, 마천루와 아르카디아를 꿈꾸며 설정한 중앙공원(센트럴 파크)을 지칭했다. "유토피아적 단편들"이란 근대 건축의 모더니스트들이 지녔던 아이디어가 반영된 것으로 록펠러 센터나 U. N 빌딩을 예로 들었다. 록펠러 센터는 경제적 공황이 시작된 이후 규모를 바꾸었고 게다가 불경기로 노동력과 재료들의 가격이 하락하였다. 후드와 합동건축가들은 아름다움, 실용성, 위엄성 그리고 서비스를 결합하여, '높이 솟은 정원도시'로서 T.V 시대의 도시 허상을 만드는 드림랜드로 자리잡게 되었다.

'비합리적 현상들'이란 라디오 시티 뮤직홀을 예로 들었다. 새로운 크기의 극장에 맞는 적절한 소를 개발한 레온 레오니도프가 기획한 '기절할만한 의식'의 추상적 율동이, 라디오 시티 뮤직홀을 채우고, 과거와의 단절을 초래했다. 대중적 환상을 담거나 포기된 계획안으로 이루어진 과거에 자리잡았던 '망상적 건축'들이 가득하다.

건축이 공공장소를 버린채 도로를 향하여 끝없이 팽창한 것으로 맨해튼에 대한 비판을 했다. 건축적 돌연변이들, 유토피아적 단편들, 비합리적 현상들, 대중적 환상을 담거나 포기된 계획안으로 이루어진 망상적 건축들로 가득차 있다고 보았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켈 콜하아스는 맨해튼의 역사를 거슬러 보았다.

"역사적 모델과 전례들의 목록에서 갑작스럽게 묘사된 공상소설"로서 도시의 시작은 항구 뉴 암스텔담으로부터 시작한다. 맨해튼의 가로체계의 탄생을 예로 들어, 소유하지도 않은 대지를 멋대로 분할하고, 확정적이지 않은 인구를 설정하고, 허상의 건축물을 만들고, 존재하지 않은 행위를 규정한 행위에 대하여 켈 콜하아스는 서구문명에서 가장 용기있는 예언적 행위로 보았다.

최초의 마천루 사례로서 감시전망대인 레팅관 축소와 1853년 뉴욕박람회에서의 런던의 수정궁을 빌어 만든 돔이라는 건축적 형태가 바늘과 돔'이라는 대조적인 건축적

모델로 정착했다. 그 뒤, 산업박람회용 시설물이 재활용되는 사례들이, 코너 아일랜드라는 유원지에 모이고, 유원지가 더욱 보강되고, 고층건물의 인큐베이터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S, M, L, XL

'S, M, L, XL'의 의미는 '초대형도시의 건축을 위한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초대형 사무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용어 'S, M, L, XL'은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상징이자, 기호이다. '소, 중, 대, 특대', (小, 中, 大, 特大)²⁸⁾는 우리가 옷의 사이즈 등으로 흔하게 보는 용어로, 약칭해서 S, M, L, XL, XXL 로 사용하는 기호이다. 이 책에서는 프로젝트의 규모를 분류하는 근거로 설계내용들을 분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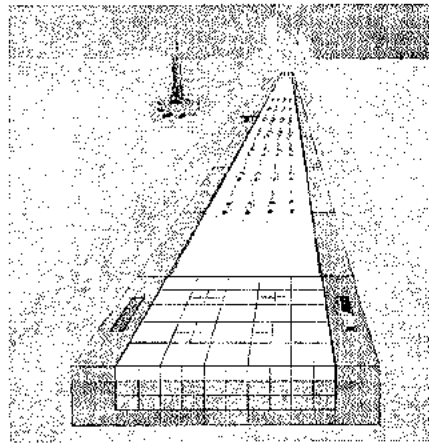
켈 콜하아스는 잘 팔리고 누구나 거론하고 있는, 책 'S, M, L, XL'을 발간했다. 이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다. 독일 잡지 ITEMS 에서 존 타카라는 '이렇게 법석 부리는 놈'에 대하여 사람들이 너무 점잖게 대하고 있다. 우리는 누군가 그에 대하여 비판적인 사람이 필요하다."²⁹⁾고 말했다. 1996년 2월에 MCA와의 계약이 확정될 무렵, 콜하아스는 'S, M, L, XL'이라고 불리는 두껍고 이상한 그의 두 번째 책을 발간했는데 그 이후로 일이 4배나 더 들어 왔다. 사진들, 평면들, 에세이들, 소설, 만화들과 알파벳순으로 된 덧없는 글의 조밀한 그러나 내용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 혼합물인 이 책은 결국 데리다와 MTV로 자라난 세대를 위한 커피탁자를 장식하는 책일 뿐이다.

두께 7.2cm나 되는 이 두꺼운 책을 스스로 '건축을 위한 소설'로 명명했으며, 지난 20년간 콜하아스의 '대도시의 건축을 위한 사무소 (O.M.A)'에서 작업한 작품들로부터 현대도시에 대한 에세이, 선언서, 일기, 요정의 이야기, 여행담, 주기적인 명상을 포함하고 있다.

서문에는 건축에 대한 콜하아스의 기본적 생



맨해튼 및 뉴욕시의 모형



수영장의 이야기(사진 출처 : Charles Jencks, 'The New Moderns', 112쪽.)

각이 담겨있다.

“건축이란 전능한 것과 무기력한 것의 위험스런 혼합물이다. 외형상으로 (건축은) 세계를 형상화하지만, 건축적 사고는 건축가가 고객들-개인이든 기업이든-의 도발에 의존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모든 건축가들의 경력의 기초를 이루는 구조는, 논리체계가 없다는 것 또는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무작위성인데, 그들의 경력은 자신들이 잘 모르는 국가에서, 희미하게 알고 있을 뿐인 주제로 만든, 확립하지 못한 지표를 사용해서, 요구사항을 멋대로 처리한다는 것이다.”³⁰⁾

이 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저자 스스로 서론에서 설명하고 있다. “모든 건축가들의 경력 기초를 이루는 구조는, 논리체계가 없다는 것, 또는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무작위성인데, 그들의 경력은 자신들이 잘 모르는 국가에서, 희미하게 알고 있을 뿐인 주제로 만든, 확립하지 못한 지표를 사용해서, 요구사항을 멋대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건축가가 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콜하아스는 계속 말했어야 할 것이다.

그 대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는 기초로써 건축의 조직적인 위기를 말하는 1,400쪽 분량의 파괴적인 증거에 우리는 직면하게 되었다. 의도적인 비평도 있다고 평가된다.

콜하아스의 배경

실제 건축적 모습보다는 건축이 달성해야 할 것에 대해 말한 콜하아스의 건축적 이론은 학생들로 하여금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선배 건축가들에게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미국 해체주의 건축가 프랑크 게리는 “오늘날 콜하아스는 건축분야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는 도시들에 대한 희망적 존재이다.” 컬럼비아대학 교수 케네스 프랭튼은 말하기를 다른 많은 이론가처럼 렘 콜하아스는 건축을 어떻게 하는지 진정으로 잘 모르고 있다고 말한다. “유럽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명구-더러운 사실주의-가 있는데, 내 생각에 이것이 미국 문학에서 응용되어 왔다고 보이는데, 유럽 사람들에 의하여 건축과 연관해서 채택되고 있다”고 프랭튼은 말한다. “우리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시대에 대한, 시대선언 같은 것으로 동시에 가볍게 타격을 준, 건축을 게임으로 보는 태도를 보인다.”

‘더러운 사실주의’란 용어는 캘리포니아에서 유래한 지나치게 경직된 경제적 사고에 대한 비판으로, 콜하아스가 지난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없었던 네덜란드 국내사정에 대한 비판적 태도에 대한 것으로 책안에 수록된 만화를 통해서도 콜하아스는 증언한다. 이에 비하면 아시아의 국가들은 편안한 면이 있을 것이다. 아직도 그는 재료사용면에 있어서 경제적인

건축을 견지한다. 그것은 그의 몸엔 경제적 원칙인 듯하다.

또한 미국의 여러도시에서 위협적으로 급속히, 몰(Mall)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콜하아스의 뚜렷한 찬성을 비판받아 오고 있다. 콜하아스는 「소, 중, 대, 특대」에서 “파리와 암스테르담을 벗어나 애틀란타에 가서 보라”라고 말한다. “어떤 선입견 없이 바로 가 보라. 나는 그말 밖에 할 말이 없다.” 그의 변호에서, 콜하아스는 무제한적인 도시확산에 비판적이라고 말하지만, 판단하기 전에 도시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렘 콜하아스의 작품이 “대단히 재미있는 작업...과대망상광³¹⁾의 작품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엉뚱한 어프로치들의 집합”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어쨌든, 거대집착증은 도시설계 기술에 관한 한 유익한 특징으로 말할 수 있다. 렘 콜하아스는 현대 도시경관에서 결정적 거장이며 그가 그의 사무소에서 뿐만 아니라 도시의 공론장에서 탁월함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의 직원 및 관련자들 뿐만 아니라, 그의 계획안들을 분명히 관장함으로써, 그의 사무실에서 그의 승인없이 진행되는 일은 하나도 없으며 그는 스스로 자신을 도시의 초석으로서 ... 불가피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³²⁾

현대세계의 도시화에 대한 독특한 시각으로, 명성을 얻은 콜하아스는 현대도시체계에 대하여 영향을 끼쳐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좋은 도시”라는 공통된 의견에 대응해서 도시가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고 대신에 도시에 대한 의견은 바뀌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 그는 지금이 “도시에 대한 100가지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 할 때”³³⁾ 라고 믿고 있다. 콜하아스는 비트루비우스처럼 도시계획에 보고서를 사용한다. 경제에 관한 중요성의 인식과 설계의 기준을 알려주는 추상적 선언을 사용하는 사례가 릴리의 계획과 요코하마 현대도시계획안 같은 곳에서 사용되었다.

근래 이름이 거론되는 건축가들을 이해하자면 1968년 5월의 유럽과 미국의 상황이 다시 거론되어야 한다. 벌어졌던 모든 사회적 생활과 양상의 혁명과 재평가를 향하는 거대한 흐름의 작은 한 부분으로서의 미국 내 반전운동과 함께 세계적으로 60년대는 한층 혼란스러운 시대였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불경기를 겪던 유럽경제는 50년대와 60년대에 큰 발전을 이루었다. 자유시장경제의 번창을 가능케 하며 상업적 자유가 달성되었다. 어쨌든, 미국에서의 정치적 상황의 유효성에 대하여 의문시되었던 것과 같이 유럽에서의 체계는 비슷한 국면이 진행되었다. 1900년대 초의 사회주의자 운동은 새로운 자본주의 경향과 충돌했었고 그리고 50년대의 유럽에

28) Small Size, Medium Size, Large Size, Extra-Large 또는 Two Extra Large

29) <http://www.design-instr.nl/news/060396/060396index.html>

30) O.M.A. Rem Koolhaas and Bruce Mau, 'S, M, L, XL', (New York: Rem Koolhaas and The Monacelli Press, 1995), xix.

31) megalomania

32) http://www.asu.edu/baed/Faculty/Birn/MullinaxVanDahm_notes.html

33) O.M.A. Rem Koolhaas and Bruce Mau, 'S, M, L, XL', 971쪽.

서의 철학적 질문과 뒤섞이게 했었으며,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이념이 다른 사람들끼리 마찰이 일어나게 했었다. 사회적으로 르파브호와 그의 동료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억압들에 대한 자연과 자유 사상은 작품의 아이디어 등을 바꾸게했으며, 공산주의자와 전체주의자를 거부하게 되었다.

이때는 유럽사회의 건축물을 헐박하던 유동적인 상황이었다. 이것은 현재 베이루트의 상황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는데, 그 안에서 경제적 변영의 공동된 깃발아래 모여든 다른 그룹들이, 자본주의로 몰입하는데 그들의 견해와 반대되는 그룹에 대해 뿌리깊은 증오를 보였다. (베이루트나 유럽의) 모든 상황에 있어 다른 공동사회를 엮어주던 자본적 유대는 모두 해체되었다.

베이루트에서는 이런 사건의 결과중의 하나가 내란이었는데, 유럽에서는 내란으로 치달는 극단성은 달성되지 않았다. 어쨌든, 프랑스에서 1968년 5월에 가장 급진적인 사회변화가 진행되었고, 당시 경향에 대한 그들의 반대와 각성을 토로하고자 많은 사람들은 대규모 시위를 하였다. 국가의 정치적 구조 그리고 문화적 구조의 변화들을 따라서 이러한 사건으로부터 사회와 지역사회를 엮어주는 반-도시화를 향한 운동이 태어났다.³⁴⁾

렘 쿨하아스는 이렇게 떠올라있던 시대로부터 영향을 받은 건축가중의 한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무덤에 누워있는 레닌의 모습과 등소평의 사진이 실린 신문을 복사해 책에 실은 이유이기도 하다. 즉, 두 인물은 1960년대 학생운동에 영향을 주었던 3M(모택동, 마르크스, 마르크제)의 패러디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렘 쿨하아스같은 건축가를 기대하려면 20년 이상 우리 건축이 지닌 문제를 밝히기 위하여 다른 곳에 가서 건축을 연구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가? 그보다 그 고민의 폭과 깊이가 더 문제가 될 지 모른다.



1968년 5월, 파리 시가지 풍경(사진 출처 : UJA International Architect 10, 8쪽)

건축적 의미

1. 하이퍼 빌딩-거대함

건축에서 궁극적인 것은 거대함이다. 거대함은 건축의 마지막 요새이다. 간단히 말하면, '하이퍼' 건축이다. 이것이 렘 쿨하아스가 생각하고 있는 건축으로 5가지로 요약된다.

1) 거대한 건물은 특정한 건축적 태도나 그것들의 조합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다.

2) 거대함 속에서 건축의 "예술"은 쓸모가 없다.

3) 거대한 건축에서 '정직함'에 대한 인간적 기대는 소용없다: 내부와 외부는 별개이다.

4) 크기에 관한 한, 거대한 건물은 선과 악을 떠나 윤리 영역을 벗어난다.

5) 거대한 건축은 스케일, 건축적 구성, 전통, 투명성, 윤리 등과는 관련없다. 거대한 것은 더 이상 도시조직의 대상이 아니다. 스스로 존재한다. 기껏 해야 도시와 공존할 뿐이다.³⁵⁾

XL 릴리 프로젝트 : 초대형 규모의 일 Euralille/돌연한 비약³⁶⁾

렘 쿨하아스가 몽상가로서의 명성을 건축가로서 대치하는데 거의 20년이 걸렸다. 그는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가로서 보다 대규모의 도시계획안의 건축가로서 인식되고 있다. MCA를 쿨하아스에게 위임하게 만든, 또 그의 가장 큰 규모의 일로 첫 사례는 '릴리 프로젝트'였다. 그 도시에서 쿨하아스를 흥분시킨 것은, 전략적으로 프랑스와 영국을 잇는 TGV용 터널 초입에 위치한, '릴리'가 17만 5천명의 거주자에게 사용자에게 친근감을 유지하면서, 이론적으로 1년에 통과하는 5천만명이 머무를수 있도록 해야 했다. 그 도시의 대표계획가로 지명된 쿨하아스는 그곳에 설계자로 여러명을 위촉하였다. 크리스티앙 포잠박은 사무소동을, 장 누벨은 상업센터를 맡아했으며 가즈오 시노하라, 끌로드 비스콘티, 마리 프랑스와 델라이, 장 마리 드릴류 등이 함께 참가했다. 쿨하아스 자신은 거대한 컨벤션센터인 큰 궁전(그랑 팔레)을 만들었다. 아마도 그랑 팔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그의 몸짓은 건물의 로비인데, 마치 방들이 표시는 되어 있지만 벽이 없는-전혀 형태없이 기능을 수용하기 위한 것 처럼, 쿨하아스는 몇 개의 멋있는 의자를 사각형의 비싼 카페트 위에 놓았고 공기조화 덕트가 있는 넓은 콘크리트 천정 아래 작은 사각형 모양의 나무 천정을 매

34) http://www.asu.edu/caed/Faculty/Birn/MullinaxVanDahm_notes.html

35) O.M.A. Rem Koolhaas and Bruce Mau, 'S. M. L. XL', pp. 496-516.

36) Centre International d'affaires : Quantum leap

37) A+U 9408, 'Kunsthal', pp.109-143.

38) TIME Magazine/ April 8, 1996 Volume 147, No. 15.

달았다.

XL : 빌머메어 재개발 네덜란드 잇기: 네덜란드 내에서 기존도시의 밀도를 맨해튼, L.A.의 밀도와 비교하여, 도시밀도를 조절하는 이론적 네덜란드 재배치계획. 북부에 있는 암스텔담의 중심을 둔 네덜란드의 도시들을 유럽 중심지와 가깝게 라인강 근처인 나라를 갈라놓은 인위적인 직선 남부 아래에 몰아놓은 계획.

L : 프랑스 국립도서관, 비우기 전략 : 도미니크 베로가 당선된 국립도서관 설계경가 출품작이다. "설계경기에서 이기기 원하는 것과 가능한 작업으로 최선을 다하기 원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이 계획은 과대망상광의 꿈이 담긴 계획안이다.

L : 벨기에, 지부르게 페리 터미널, 바벨탑 : 여행객들을 위한 시설, 유럽의 새로운 꿈의 표현으로서의 터미널, 자연에 대항하여 버티기 위한 기능과 상징을 지니는 시설, 최상층에 카지노, 수영장, 강당 등이 있고, 호텔, 식당, 영화관, 운전자 편의시설과 파노라마로 바다가 보이고 하루 여려개 층에 주차장이 있는 원형 평면의 구형의 건물, 1989년 설계경기 출품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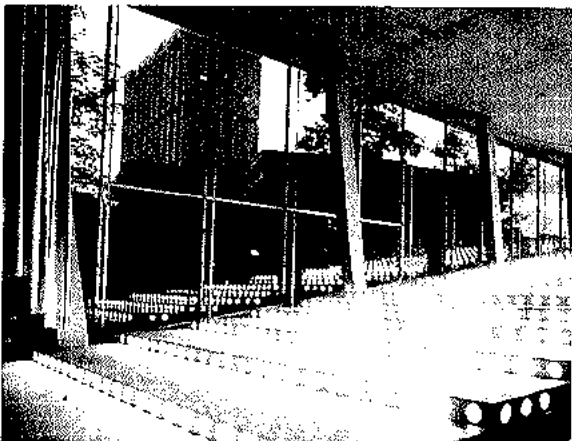
라 빌레뜨 공원 낙선작 물체 없는 밀집, 라데팡스, 그랑 아르쉴, 라데팡스 오피스, 옆으로 밀어내는 쇼 (쌓고, 쌓고, 쌓고, ... 앓, 쌓고, 쌓고, 쌓고, ...), 구조적 변형의 순간으로 처리된 매스가 변형된 사무소 건축.

2. 흐름

렘 콜하이스 건축의 대표적인 아이디어는 "흐름, 동선,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건축가는 여행중이며, 관광이며 질문이다. 소련으로 부터 흘러 내려온 구성주의의 태도는 아직도 흘러 다닌다.

M : 쿤스트할 II/사각형 안의 인생? (프로그램으로 부터 자유로운 프로그램)

예술품을 소장하는 미술관의 일반적 제약으



쿤스트 할(사진 출처 : A+U 9408, 138쪽)

로부터 자유로운 미술관으로, 소장하거나 보유하지 않고 전시만을 하는 공공미술관이다. 이 건물의 기본개념은 "흐르는 연속 동선" (continuous circuit)³⁷⁾이라고 콜하이스는 말한다. 로텔담의 미술관인 쿤스트할에서, 콜하이스는 마무리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벽에 주름진 플라스틱을, 바닥에 금속망을, 조명으로 노출 형광등을, 나무 줄기를 기둥과 담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건축은 통찰력과 주위여건의 부딪힘이다"라고 콜하이스는 말한다. 이 건물은 미이스의 국립미술관과 꼬르뷔제의 카펜터센터의 영향을 받은 패러디로 볼 수 있다. 신체장애자들에게 접근이 불편한 것이 콜하이스의 디자인에서 어려운 점이다. 쿤스트할은 오디세이의 은유이다. 어디에 머무르기 보다 쉬지않고 다니도록 되어있다. 쿤스트할에 대하여 보통 사람들과 일반적 예술이 쉽게 만날 수 있는 기차없는 기차역, 비행기 없는 비행장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된다.

릴리 컨벤션센터인 그랑 빨레를 계획하며, "나는 건축이 어떻게 이벤트의 흐름을 보내고, 강화시키고, 유연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는지 관심있다."고 콜하이스는 말한다. 넓은 공간에서 사람들의 흐름이 모였다 흩어지고 다시 모이는 과정을 건축적으로 해결하고 연출하는 작업이 좋다는말 이리라.

3. 세계화

콜하이스에게 가장 현대건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세계화이다. "처음으로, 건축가들은 세계 어느 곳에나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일년중 대부분을 호텔에서 지내지만) 런던에서 살고 있고, 그의 사무실은 로텔담에 있고, 하버드 대학에서 중국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Pearl River Delta 계획을 대상으로 연구중이다. 콜하이스는 말한다. "당신은 꼭 수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각 국가의 문화적 가능성들은 당신이 재미있게 조합하는 방법대로 사용하면 할 것이다. MCA 프로젝트는 그런 의미로 맛있는 계획이다. 그 이유는 계획안이 아주 미국적이어서 도전



쿤스트 할(사진 출처 : A+U 9408, 130쪽)

해볼 만한데 아직 내 개인적 역사와 연결될 것이다.”³⁸⁾

달걀모양의 별채로 떨어져 있는 삼페인 바가 특징적이다.

M : 건축박물관, 미술관 공원 | 쿤스트할 I : 삼각형의 대지에 투명한 삼각형의 건물이다. 1994년에 완성되다. 비렌델 보가 실험되다. 오 코에넨이 당선되다.

M : 원형 감옥의 리노베이션 | 개정 (건축의 자발적이지 않은 죄수들의 주거)³⁹⁾ : 1787년에 철학자의 아이디어에 따라 생겨난, 중앙에 감시소가 있고 둘레에 감옥이 있는 '아른헴 피델 원형감옥'은 이미 100년간 사용했고, 앞으로 50년간 재사용을 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연구를, 네덜란드 의회 설계경기에서의 낙선 대가로 렘 쿨하아스가 의뢰받았다. 명확하게 시대에 뒤진 건축 오브제가 아직 서있다는 것은, 인류가 "진보"해 왔다는 100년간의 기간에 대하여 조롱하는 것 같다. 이 프로젝트에서 어려운 점은 정치적 주제에 맞도록, 프로그램상의, 은유적인, 형태적인 의도에 맞추어 확장하는 것이었다.

5. 무념 (無念)

탈출 또는 건축의 자발적 죄수들 (대본으로서의 건축) : 벽속에 갇힌 건축으로 부터의 탈출, 선, 악으로 나뉜 도시에서의 건축. 카사벨라 잡지 설계경기 출품작.

부록 | 정신적란의 뉴욕 (책 속의 책) : 책의 일부는 "가상적 결론"을 있는 그대로 복사한 부분으로 당시의 생각을 다시 보여 준다. 브리젠도르프의 수채화 그림이 전체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 인상적인 그림이 되었다.

M : 비잔티움(건축의 외례) | 사회주의자 손 안에 있는 암스테르담에서, 발전소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거, 사무소, 상가 등을 짓는 계획과정을 그린 만화. 도시화에 대한 상충된 의견대립이 보인다.

M : 현장답사 : 70년대의 A.A스쿨의 여러 분 위기에 대해서 렘 쿨하아스는 회고한다. 그리고 60년대 후반

A.A스쿨 시절에 '건축으로서의 베를린 장벽'을 연구하기 위하여 베를린으로 향했던 기억을 되새긴다. 그해 베를린 장벽이 생긴지 10주년이 되는 때에, 렘 쿨하아스의 첫 인상은 늦은 8월의 더위였다. 동베를린이 버려진 것만큼 서베를린도 거의 버려진 도시 같았다. 충격은 동베를린이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얼려진 사회"였던 서베를린이 갇혀 있었다는 것이다. 우습게도 장벽은 단순했고, 엄청난 규모로 남과 북을 가르고 있었다.

M : 코흐/프리드리히 거리 주거 | 난파된 주거단지(벽을 따라 선 베를린: 작업이 될까?)⁴⁰⁾ 서베를린 미국 판할지역의 검문소 찰리근처, 18세기 도시가로 패턴으로 구성된 4개 블록에 대하여 벌인 IBA를 위한 현상설계로, 50, 60년대의 건축가들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작업이었다. 이미 백지처럼 되어버린 프리드리히 거리에 쿨하아스는 베를린에서 개발된 현대유형학들과 질감들을 더욱 확장하기 위한 조사작업으로, 심각하게 폐허가 된 대지의 특성을 재해석하였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는, 무엇이든 가능하다."

"건축이 있는 곳에는, (그것 외에) 가능한 것은 없다."

아마도 건축가의 광신주의-건축이란 선을 위한 순환일 뿐만 아니라, 악을 위한 설명이라고 건축가들이 믿게하는 신념-은 전문가적인 변형일 뿐만 아니라, 무에 대한 공포, 허에 대한 본능적 혐오, 그 반대에 대한 공포에 반응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무엇이든 가능한 지역에 속한다고 쿨하아스가 보았을 것 같은데, 그랬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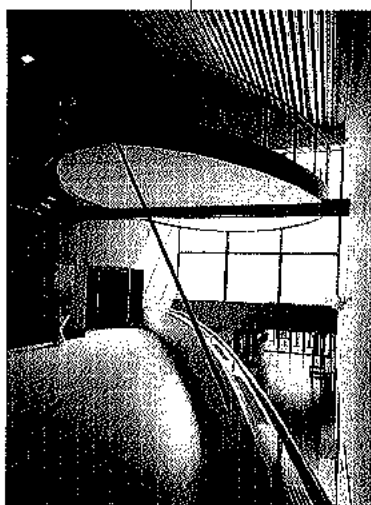
39) transparency paradigm

40) Renovation of a Panopticon prison | Revision (housing the Unvoluntary Prisoners of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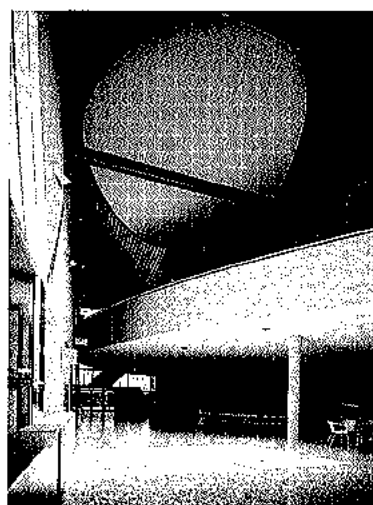
41) Housing Kochstrasse/Friedrichstrasse | Shipwrecked(Berlin along the wall: can it work?)



달라바 주택(사진 출처 : O.M.A. Rem Koolhaas and Bruce Mau, 『S. M. L. XL』, 141쪽.)



네덜란드 무용극장(사진 출처: Charles Jencks, 『The New Moderns』, 4쪽)



네덜란드 무용극장(사진 출처: Charles Jencks, 『The New Moderns』, 275쪽)

한국전통 주거공간의 마당 구성원리(3)

A Study on the Structural Principle of Madang Based on Korea Traditional Dwelling Space

최동호 / 예전건축사사무소

by Choi Dong-Ho

4. 傳統住居 마당의 形態原理

1. 이야기에 들어 가면서

2. 마당의 개념

2-1. 마당의 정의

2-2. 채와 마당의 분화

2-3. 마당의 분류

3. 전통주거 마당의 구성원리

3-1. 마당구성 특성원리

3-2. 마당구성 원리분석

3-3. 채와 마당의 구성원리

4. 전통주거 마당의 형태원리

4-1. 마당의 유형분석

4-2. 마당의 형태원리

4-3. 마당의 규모

맺음말

4-1. 마당의 類型分析

채의 分化에서 마당이 분화되고 다시 그채는 間의 분화가 되는 傳統住居空間은 民家의 경우에는 서너間的 조합으로 채의 해결이 가능하지만 배치구성을 결정짓는 要素로서 “채(棟)의 分化”가 대단히 중요하며, 班家의 경우에는 마당과 더불어 매우 복잡한 연결 構造를 갖게 된다. 마당은 그 類型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마당을 위한 마당이 아니라) 반드시 채와 동반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안채 속에 안마당이 자리하는 것처럼 사랑마당 또한 사랑채 분화에 의한 類型이 된다. 마당의 구성원리 가운데에서 여섯마당으로 분류한 것 중의 주요 3체인 안채, 사랑채 행랑채와 고방채, 별당채, 사당 등의 여섯채에 의한 여섯마당이 어떻게 분화되어 연결 結合되어 形成되는지 평면형에 의한 類型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안채 平面형에 의한 마당들의 類型

민가의 주택 類型 분류에서 보면 안채의 기본틀이 부엌 안방 대청 건넌방으로 이루어지는 일자형과 꺾임형으로 나누는 2가지의 틀로 볼 수 있는데, “民家型과 京畿型”²¹⁾으로 대별될 수가 있다. 원래 민가의 형태적 특성으로는 홑집계열과 겹집계열로 구분하기 때문에 평면형태를 한줄로 되는 것(도리방향)과 두줄로 되는 것을 분리하여 마당들의 類型을 나누는 방법도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마당은 보방향으로 형성되는 점을 감안할때 “민가형과 경기형”으로 나눈 것으로서도 마당의 類型은 구조적인 원리 분석이 가능하리라고

〈그림 4-1〉 평면類型에 의한 안마당의 基本形

부엌	안방	대청	건넌방
		안마당	

안방	대청	건넌방
	안마당	
부엌		

21) 정인국, 『韓國의 民家(1)』, 우림44호, 374쪽.

보여진다. 홑집의 類型을 보면 일자집, ㄱ자형홑집, ㄷ자형홑집, 트인 구자집, ㄱ자집이 있고, 겹집 類型은 도투말이집, 마루중심형 겹집(까치구멍집), 새겹집(두리집), 온돌중심형 겹집 등²²⁾으로 나눌 수가 있다. 겹집에서 도투말이집은 부엌+방+방의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형과 마당의 구성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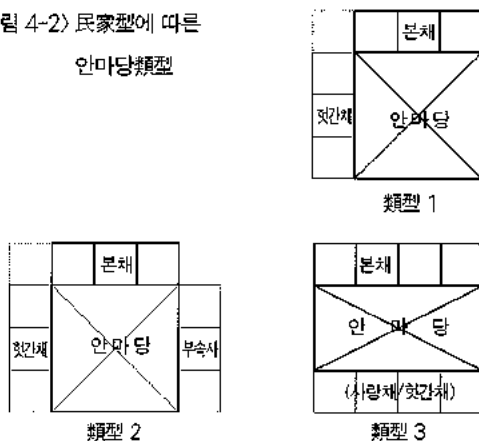
민가형은 一자형, 一列형, 一자형식 등으로 분리위지며 마당은 농사기능이 위주가 되는 안마당이 구성되며 분화에 의해서 一자형, 二자형, ㄷ자형, ㄱ자형의 체에 따른 안마당이 ㄱ자형을 이루게 된다. 민가의 안채는 원래 單室주거로서 불을 이용하는 취사공간과 휴식을 위한 침실공간으로 되었으며 그 기능이 구분되어 부엌과 방으로 형성되었다.²³⁾ 경기형의 마당은 체가 ㄱ자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외부공간은 자연스럽게 안마당이 이루어 지고 ㄱ자형, 꺾임형, ㄱ자형식 등으로 말한다.

1) 民家型의 마당類型

남부지방의 민가에서 많이 볼수 있으며 3량구조에 前面이 3間 내지 4間 規模가 일반적이다. 모든 방이 南向으로 開口部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배적하며 위생상 효율 높은 공간²⁴⁾을 만들수 있는 농촌민가의 가장 보편적인 형식이다. 부속건물이 본체의 좌측 또는 우측이나 앞쪽으로 오게 될 때 물론 체의 형태는 다르게 나타나며 아울러 마당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類型1은 기본형인 일자형에서 헛간채가 분화된 경우로써 ㄱ자형의 평면에 의한 안마당이 구성되며, 向은 물론 안방의 조망 채광에도 京畿型보다 利點이 있다고 볼 수

〈그림 4-2〉 民家型에 따른 안마당類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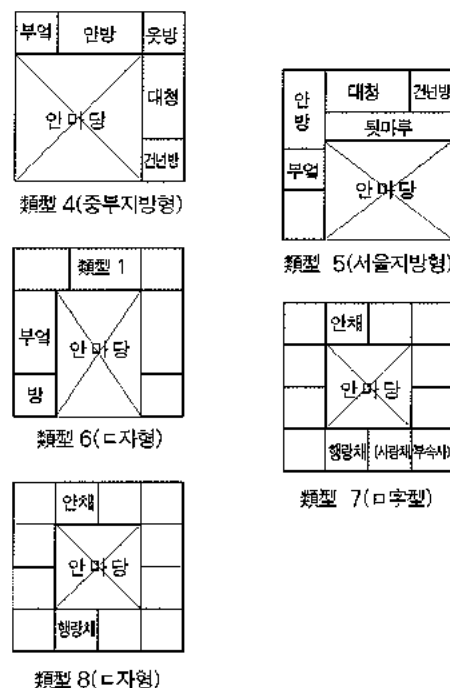
22) 김일진, 『南部地方의 傳統民家』, 《建築과 環境》 8708, 25쪽.
23) 朴彦坤, 앞책, 211쪽.
24) 朴彦坤, 앞책, 212쪽.

있으며, 類型2에서는 체의 형식이 본채(안채+사랑채 또는 안채만 있는 경우의 2가지)와 헛간채 및 부속사로 이루어지며 ㄷ자형의 평면형태를 가지고 가운데에 마당이 생긴다. 사랑채 또는 헛간채가 본체의 전면으로 분화되어 가운데에 마당이 형성되는 類型3과 같은 경우도 있다.

2) 京畿型의 마당類型

경기형의 평면형은 궁전건축²⁵⁾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 꺾임형으로서 처음에 정면 3間 또는 4間으로 되며 한쪽의 퇴간이 앞으로 연결되어 배치가 일렬에서 직각으로 연결되는 형식으로 그 類型은 2가지²⁶⁾로 나눌 수가 있다. 그 類型을 살펴보면 類型4인 중부지방형은 전면이 남향으로 되어 일조와 일사에는 유리하지만 방의 독립성에는 불리하고, 서울지방형인 類型5는 그 반대로써 안방은 일조는 좋지 않으나 독립성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부엌의 위치에 따라서 ㄱ자로 꺾이게 되면 경기형이 되는 요인이 되지만 마당의 형태는 ㄱ자형으로 변함이 없다. 다음 類型7인 경우는 ㄷ자형태로서, ㄱ자형이나 一자형집의 앞에 부엌이나 방이 접속되어 나타나며 一자형이나 ㄱ자집의 발전형태이다. 이런 형이라든 마당의 형태는 ㄱ자를 유지한다. 類型8과 7인 예는 트인ㄱ자이거나 ㄱ자형으로서, ㄱ자형 안채와 사랑채가 맞물리거나(또는 ㄷ자형에 일자형 사랑채나 부속사가 접속됨) ㄷ자형 정침에 一호형 행랑채가 형성된다. 類型7은 영남 북부지방에 몰려있는 전형적

〈그림 4-3〉 京畿型에 따른 안마당類型



25) 鄭寅洞, 앞책, 374쪽.
26) 朴彦坤, 앞책, 212쪽.
27) 文世榮, 『ㄱ字型 傳統住居의 平面構成에 關한 研究』, 慶熙大 碩論, 1987, 22쪽.

인 口자의 평면형으로서 채가 마당을 에워싸는 예가 되는 것이며 마당의 크기는 2×2 간 이상되어야 채광 조망 배수 작업 등의 실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²⁷⁾. 그러나 향단과 같은 안마당의 크기는 2×2 간(5.09×4.42)이지만 사랑대청으로 열려진 개방공간이 연속되기 때문에 그렇게 좁게 보이지 않는 특별한 경우도 있다.

口자형 주거에서 안채의 평면구성은 채의 분화에도 실의 내용은 변동이 없는데 반해 사랑채와 행랑채는 변화의 중심역할을 하게 되므로 만약 사랑채가 분화되면 사랑마당이 생기고, 행랑채가 분화되면 행랑마당이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분화의 과정은 다시 영역을 구축하며 또 다른 채의 마당을 발생케 한다.

나. 사랑채의 平面형에 의한 마당類型

사랑채가 채(棟)로 분화되는 것은 中農形式이상(자영농)이며²⁸⁾ 중농이하 계층에서는 채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間으로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사랑마당의 경우에도 안채와 마찬가지로 마당의 類型이 먼저 결정된 후에 채가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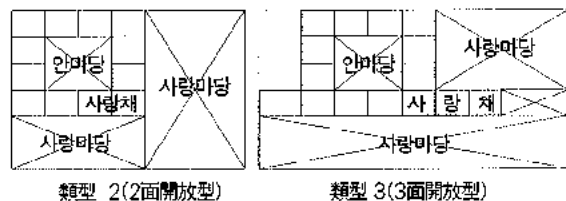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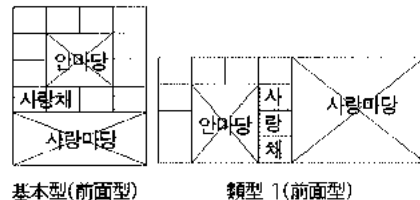
되는 “마당을 위한 마당”이 아니라, 채가 먼저 구성된 후 그다음 마당이 생기는 “채에 의한 마당의 形成”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전통 민가에서 분화의 시작 자체가 한국 전통 건축만이 소유하고 있는 주거문화의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건축문화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배경과, 사상적인(유교사상, 음양오행사상 등) 일반양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

사랑채는 전통적인 분화방법으로서 유교의 내외법에 따라 남녀의 각공간이 분리되어 안채와 사랑채로써 나누어지게 되었다. 조선초기에는 안채와 연결된 두숙형태로 나타

나는 접속형으로서 단순형, 복합형, 누마루형으로 분류되고, 후대로 오면서 조선중기부터는 별동형²⁹⁾으로 나타난다.

1) 單純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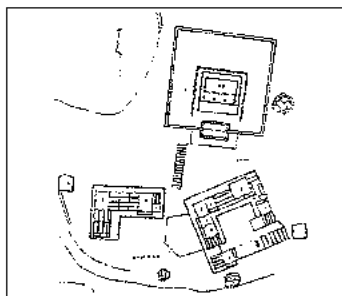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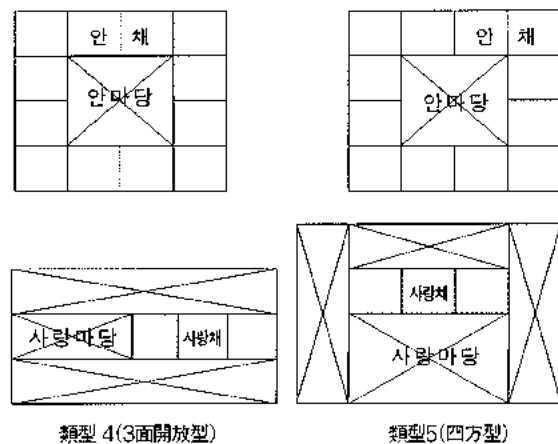
단순형은 사랑채가 안채와 혼합된 하나의 물체를 구성하며 (안채접속형) 분화되어 별동의 건물로 되기전까지는 그 機能과 마당의 空間 영역상으로는 확실한 구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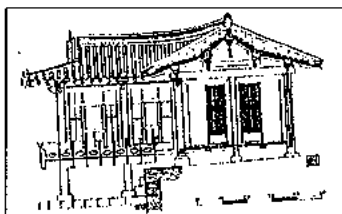
2) 別棟型

사랑채의 규모가 커지면 분화로 과정을 거쳐서 별동의 사랑채가 구성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때 사랑마당의 공간은 확실한 구분을 가져오게 된다. 사랑채의 類型은 單純型과 別棟型으로 나눌수가 있는데 단순형은 안채의 4가지 類型에 의한 사랑마당의 분류이다. 사랑채는 안채에 의한 분화가 이루어지는 것에 의해서 마당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안채의 類型에 따르지 않으면 안되는 조건이 있다. 단순형은 기본형을 前面形으로 하고 類型의 변화를 3가지 가지게 된다. 類型 1은 사랑채의 前面에 마당이 구성되는 것으로서 윤선도 고택과 같은 예이며, 類型2는 2面 開放形으로서 손문민가옥의 경우, 3面 開放形의 類型3은 운조루, 충효당과 같은 대부분의 가옥이 여기에 속한다. 별동형에서는 사랑채의 간의 분화도 이루

〈그림 4-4〉 사랑마당의 類型



〈도표 4-1〉 무점당 配置圖



〈도표 4-2〉 무점당 斷面圖



〈사진 4-1〉 누마루 조영

28) 文世榮, 안채, 26

29) 김동식, 『韓國의 民家』, 구민44호, 1984, 59쪽.

30) 崔登, 『朝鮮中期以後 南部地方 中上流仕居에 관한 研究』, 서울대 博論, 1989, 4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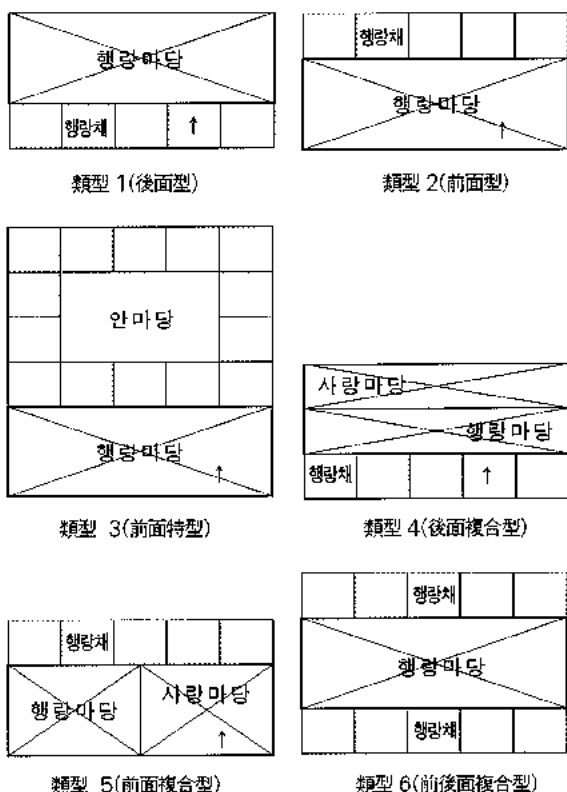
어져서 실이 세분되는(寢房, 冊房, 사랑방) 양상을 띠게 된다.

사랑마당은 3면형과 사방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類型4는 외성김씨종가택의 경우이며, 사방형의 類型5는 완전한 별동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김동수 가옥이 이런 사례에 속하며 선교장의 할래정은 사랑마당앞과 행랑마당이 부분적으로 겹쳐지는 양상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表 4-1〉 사랑마당 類型

구분 마당 형태	類型1			類型2		비고
	類型1	類型2	類型3	類型4	類型5	
대형			충효당 영전당 관가정		임청각 독락당 벽향가옥	의성김씨대종가 사랑채는 일부 행랑채의 연결 부분이나 별당 개설으로 불수 있으며 3면 개방형.
대형+누마루		예인이씨종가 손동안가옥	정재영가옥 윤조루 김가을가옥 영전당	의성김씨대종가	김동수가옥 임청각 하업정 동춘당	
누마루	함단 문선도가옥					

〈그림 4-5〉 행랑마당의 類型



다. 행랑채 平面型에 의한 마당類型

안채와 사랑채의 補助的인 역할을 갖고 있으며 수장기능을 담당하며 행랑채의 행랑마당은 채의 구획으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담의 역할이 마당을 구성하는 形式에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행랑마당의 類型은 6가지로 나누어지는데 類型1은 행랑채가 전면에 노출되어 집의 경계영역을 짓게 되며 바깥마당에서 보면 집의 울타리 역할은 물론, 입면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대부분의 전통가옥이 이 형식에 속하게 된다. 類型2는 양동마을의 함단과 같이 대문을 진입하게 되면 먼저 마당이 위치하고 그뒤에 행랑채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서 전면의 행랑채 대신 담이 입면을 구성하게 된다. 類型3은 행랑마당만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관가정이 이 예에 속한다. 행랑마당과 사랑마당이 겹치는 공간의 類型으로써 가로로 함께하는 것은 類型4의 後面複合型이고, 세로로 같은 마당이 되어 있는 것은 類型5(前面複合型)로 될 수 있다. 강릉의 선교장의 행랑마당이 類型4의 경우이고, 類型5는 양진당이나 충효당의 행랑마당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類型6은 임청각의 예로서 두행랑채의 병렬로 된 그 사이에 행랑마당을 이루는 경우이다. 이상과 같이 행랑마당은 여섯가지의 행랑마당 類型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고방채, 별당채, 사당채의 평면형에 의한 마당類型

고방채의 원형이 남아있는 예는 많지 않고 정재영가옥의 배치도에 의하면 별도의 고방채를 두고 그 앞에 마당을 위치시켰다. 이 가옥의 경우에는 고방마당의 형태가 확실

〈表 4-2〉 행랑마당의 類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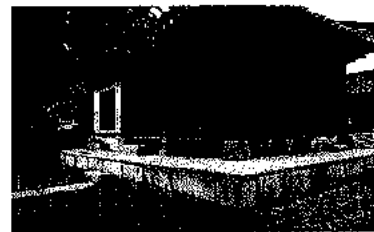
類型 區分	類型 1	類型 2	類型 3	類型 4	類型 5	類型 6
	後面型	前面型	前面特型	後面複合型	前面複合型	前後複合型
家屋	의성김씨대종가 충효당, 영전당 복춘덕, 벽향가옥 정재영가옥 김동수가옥 문선도가옥, 윤조루 김가을가옥, 명세향전 재업당, 임경정 영전당	손동안가옥, 함단 무침당, 정재영가옥 윤종고택, 동춘당 독락당	관가정	선교장	충효당 양진당	임청각



〈사진 4-2〉 충효당 사랑마당과 행랑마당



〈사진 4-3〉 선교장의 사랑마당과 행랑마당



〈사진 4-4〉 제월당 별당마당

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다른 미당의 경우는 고방채가 안채의 몸
채에 속하여 고방마당을 두고 있다.

별당마당에서는 별당의 의미가 정객이나 독서로써, 사랑채의 기능과 精舍(학문을 가르치려고 마련한 공간과 修養空間)로써의 2가지 성격을 갖게 되므로 場所性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前面에 方池를 두는 것도 別堂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과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별당마당은 사방에 마당을 두는데 전면에는 대부분 연못을 많이 만든다. 별당마당의 평면형은 별당을 중심으로 좌우와 뒷편에 마당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별당과 사랑채 별당의 구분은, 사랑채가 안채와 함께 있으면서(안 사랑채) 따로 별당채를 두는 例(임청각의 군자정, 박항가의 하염정 등)는 별당으로 보고, 안채에 사랑채를 두지않고 안채에서 분화된 별당의 사랑채는 그대로 사랑채(의성김씨대종가)로 보았다. 그 이유는 사랑채는 사랑마당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별당은 별당마당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당마당은 사람의 체를 중심으로하여 보통 四方으로 마당을 구성하는 형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것은 사당의 立地와 그 성격이 깊은 장소, 높은 위치, 상징성, 좌향, 엄숙함³¹⁾ 이 내재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은 폐쇄적이 될 수밖에 없다. 사당의 가례도에 나오는 건물의 배치는 북측 상단 건물, 중앙건물, 출입문, 하단건물³²⁾로 나누어져 있으며 사방이 담으로 둘러있음을 볼 수 있다.

4-2. 마당의 形態原理

미당의 類型分析을 통하여 안마당, 사랑마당, 행랑마당, 고방마당, 별당마당, 사당마당의 여섯마당에 대한 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 수 있다. 안마당은 圍繞感이 높은 口字型 平面이 많은 편으로서 채(棟)의 구성이 一자형에서 ㄱ자, ㄷ자, ㄱ자형으로 점차 分化되어도 마당의 형태는 거의 口字型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당이 네모 반듯해야 하는 이유는 임원경제지에서 밝힌듯이 안마당의 경우에 곡선형의 마당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랑마당은 외향성을 갖는

32) 趙重根, 같은책, 98쪽.

32) 趙重根, 같은책, 98쪽

점을 비추어 볼 때 밖의眺望을 위해서 어떤 方向으로 사랑채가
향하고 있는지가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별동형의 사랑마당
을 제외하고는 3面開放型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행랑채의 경우에도 전면에 행랑마당이 있는 것보다는 후
면에 마당이 놓이는 경우가 대부분의 가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요 3채에 의한 마당 구성은 확실한
질서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방마당의 경우는 행랑마
당의 영역이거나 안마당의 옆부분에 위치하기도 한다. 나머지
2마당인 별당마당과 사당마당의 구성은 완전히 別棟의 채를 가
지기 때문에 四方性を 갖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여진다.

이상과 같이 마당 類型 分析을 통해서 각 마당이 갖는 類型의 特性을 살펴보았는데 여섯마당이 混合된 構成을 하게 되면 어떠한 形態가 되는지 <도면 4-3>과 같이 6가지의 家屋를 통해 알아본다.

미당의 형태에 대한 6가지 경우의 예를 추가
 갖는 모양에 의하여 알아보았는데 미당의 공간 類型(형태와
 비례까지 포함)은 안마당에서부터 사당마당까지의 多樣한 모
 습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볼수가 있다.

미당의 형태를 채의 구성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그림 4-6〉 여섯미담의 기본형태 영역성

[illegible]

〈사진4·5〉 의정검씨대종가 안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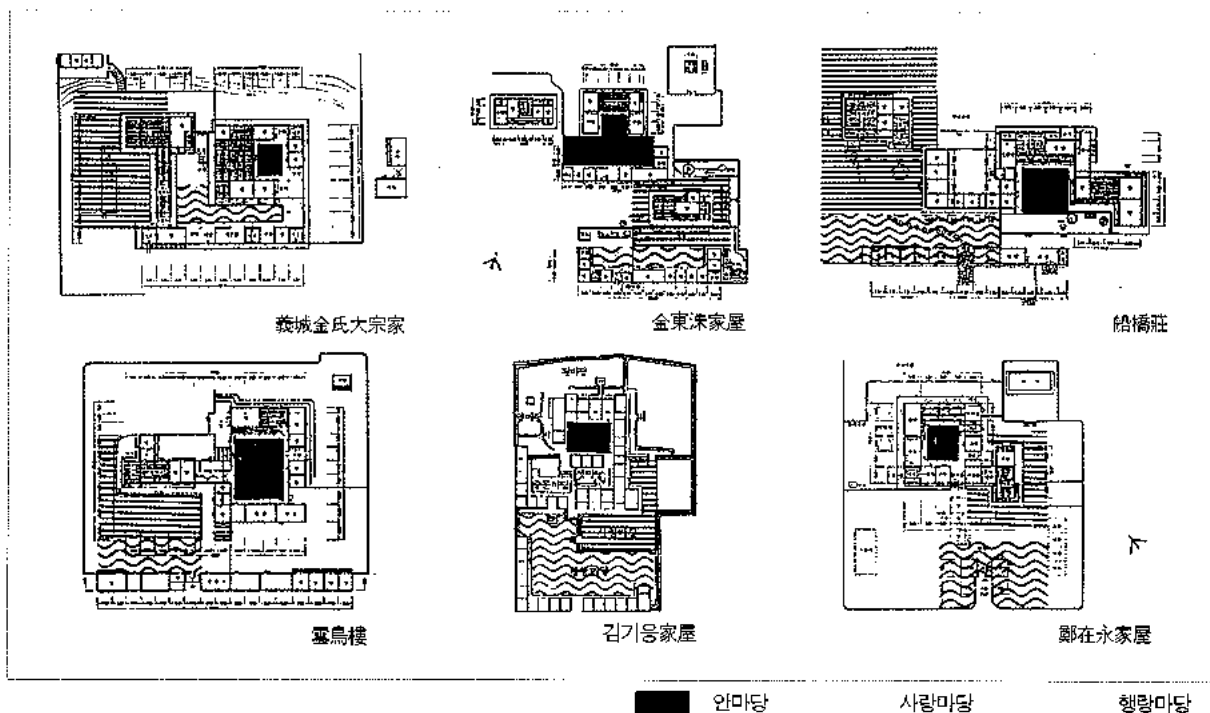


〈사진4-6〉 김동수기옥의 사랑마당



〈사진4-7〉 선교장 안마당

〈도면 4-3〉 마당의 形態에 나타난 範圍圖



로 살펴보면 첫째, 안마당은 대체적으로 卍자형을 형성할 때 正方形을 갖는 평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둘째, 사랑마당의 경우는 물론 사랑채를 기준으로하여 볼 때 전면에 마당이 구성 되어 있는 경우를 비롯하여, 사방으로 마당이 형성되는 사례까지를 포함하여 보면 여러 형태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랑마당의 類型이 기본형에서 類型5(사방형)의 여러모습이 됨을 알 수 있는데, 기본형과 類型1(전면형)은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함께 장방형이 됨을 알 수 있고 類型2(2면 개방형)는 ㄴ자형, 類型3(3면 개방형)은 ㄴ자형에 장방형이 합쳐진 경우이고, 類型4(3면 개방형)는 ㄴ자형이, 類型5(四方形)는 卍자의 형으로 됨을 알 수 있다. 사랑마당은 대체적으로 卍字形인 안마당과는 전혀 다르며, 長方形이라고 단정짓기가 곤란하고 채의 類型에 따른 마당의 형태가 장방형에서, ㄴ자형, 卍자형 등의 複雑한 모습을 갖고 있다. 셋째, 행랑마당은 前面 또는 後面이던 관계없이 장방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넷째, 사랑마당의 類型은 안마당의 경우처럼 정방형의 비례를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다섯째, 그외의 마당의 類型

인 고방마당과 별당마당 등은 어떠한 형을 결정짓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그 채(棟)의 형에 따라서 외부공간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며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다고 본다.

마당의 형태는 채의 類型에 따라서 외부공간이 여러 比例를(그림 4-6 참조) 보이며 단순히 형성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안마당과 사랑마당은 대체적으로 구자형을 갖고 있다. 특히 안마당의 類型은 그 비례가 갖는 가로 세로의 비율이 의성김씨대증가는 1:1.18, 충효당이 1:1.32이며 함단은 1:1.15가 되었다. 卍자형을 갖는 마당은 물론 채의 구성이 안대청이 몇칸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지만 정방형에 가까운 예가 많으며, 큰 卍字形이지만 정병호家屋은 1:2.49의 가로 세로의 비를 갖는 예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사례가옥을 종합하여 보면 마당이 갖는 비례는 보통 1:1.5의 범위내에 속해 있으며 추사고택과 같이 1:1의 크기의 정방형의 비례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사진 4-8〉 운조루의 뒷마당



〈사진 4-9〉 김기웅가옥의 안마당



〈사진 4-10〉 정재영가옥의 안마당

중국 고건축 기행(4)

Travels of chinese Traditional Architecture

山西省을 중심으로

김도경 / 고려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수료

by Kim Do-Kyoung

1995년 10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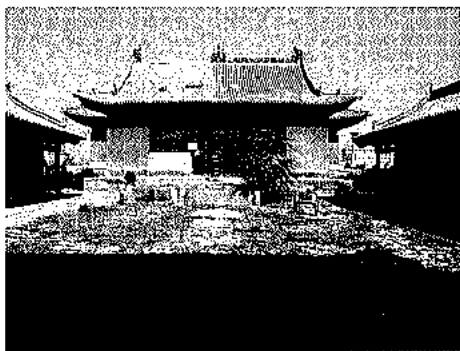
오늘부터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한다.大同은 큰 도시에 속하기 때문에 숙박은 좋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조그마한 시골마을을 돌아다녀야 한다. 사위는 커녕 잠자리가 마땅할 지 걱정이다. 오늘의 첫번째 목적지는 朔州(朔縣)에 있는 崇福寺이다. 朔州로 이동하기 위해 오전 7시 50분 大同역을 출발하는 기차를 탄다.硬坐라고 하는 딱딱한 의자가 있는 일반칸이다. 기차 안은 중국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로 정신이 없다. 게다가 담배는 왜그리 피워대는지…….

오전 10시 30분 예정된 시각에 朔州역에 도착했다. 역 앞에는 자전거 택시가 줄을 서있다. 손쉽게 이 택시를 잡아 타고 시내를 가로질러 崇福寺에 도착했다.

金代의 배치기법과 목조건축 - 朔州 崇福寺

崇福寺는 朔州시내 東街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시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시가지였다. 절의 규모에 비해 초라해 보이게까지 하는 조그마한 山門은 굳게 닫혀 있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수리중이라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동행한 중국인 학생 黃偉가 동분서주한다. 오랜 기다림 끝에 관리인이 나타났다. 이 관리인은 멀리서 온 우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특히 黃偉가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인 清華大學에 다닌다는 점에 마음이 끌렸나 보다.

山門 앞에서 관리인을 기다리면서 벽에 걸려있던 안내문과 배치도를 살펴보고있다. 崇福寺는 唐麟德2년(665년)에 창건되었다.遼代에 '林衡院'라는 관아로 사용되다가 統和年間(983년-1011년)에 '林衡寺'로 개명하였다. 이후 金天德2년(1150년)에 '崇福禪寺'로 개명하였다가 清乾隆年間(1736년-1795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고쳤다. 절의 규모는 꽤나 큰 편으로 남향하고 있었다. 남북의 중심축을 설정하고 앞에서부터 山門-金剛殿-千佛閣-大雄寶殿-彌陀殿-觀音殿이 배치되어 있다.千佛閣앞에는 鐘·鼓樓가 있으며, 大雄寶殿 앞에는 동서로 地藏堂과 文殊堂이 있다. 그리고 직사각형으로 담장을 쌓아 寺域을 구획하였다. 담이 없고 중국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院落"형 배치도 아니다. 金代에 이루어진 배치형식으로 보인다.



崇福寺 大雄寶殿 정면



崇福寺 千佛閣 상층의 공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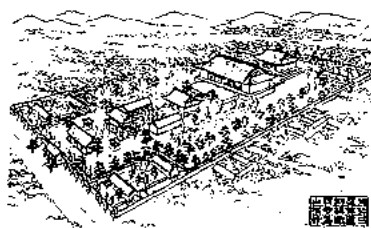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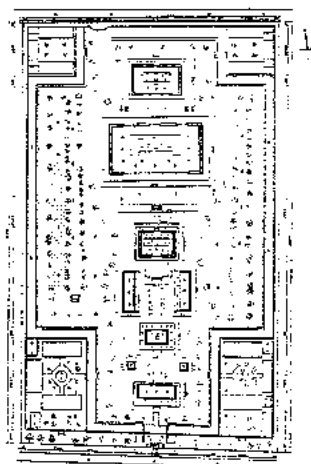


崇福寺 彌陀殿 귀포와 추녀

무겁게 보이던 山門이 열렸다. 山門을 통과하자 金剛殿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金剛殿은 天王殿이라고도 불리우며, 淸乾隆년간에 중건되었다. 내부에는 四天王像과 二金剛이 모셔져 있다. 전면에 외부로 노출된 틈을 둔 맞배집으로 우리나라의 사당이나 大成殿과 비슷한 형식이다. 기둥 상부와 柱間에 공포가 구성되어 있다. 공포는 간결한 형식으로 내외 1출목이다.

千佛閣은 2층의 樓閣式 건축으로 2층에는 난간을 돌려 사람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였다. 건물의 입면이 흥미롭다. 직사각형 평면의 건물 몸체 주변으로 한 간을 덧달아 내었다. '副階'라고 부르는 부분이다. 副階로 인하여 지붕은 2중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副階 지붕의 전면과 후면 어간 부분만을 좀 높게 하여 별도의 지붕을 구성하였다. 이것이 입구를 돋보이게 하고 정면성을 부각시켜 민첩한 지붕구성에 변화를 주었다. 千佛閣은 佛經을 보관하는 건물이다. 일반적인 중국사원에서 藏經閣은 절의 맨 뒤에 위치하는데 반하여 이곳에서는 藏經閣이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 千佛閣은 明成化年間(1465년~1487년)에 건축되었는데, 사용된 공포가 낯설지 않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 중국건축의 공포, 특히 官에서 주도한 건축물의 공포는 상당히 규격화되어 경직된 느낌을 준다. 그러나 千佛閣의 공포는 달랐다. 어디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까? 충남 서산에 있는 開心寺 大雄寶殿의 공포가 떠올랐다. 開心寺 大雄寶殿은 조선초기의 건물이다. 金剛殿과 비슷하거나 조금 앞선 시기의 건축이다. 千佛閣의 상층공포는 외3출목이다. 출목수가 하나 많고 보머리가 다른 부재와 같은 단면크기로 돌출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露工과 살미 외단의 牛舌형이 開心寺 大雄寶殿과 닮았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발견이었다. 답사를 통해서나 얻을 수 있는 즐거움, 책을 통해서 얻기 어려운 즐거움이다. 관리인에게 내부를 볼 수 없느냐고 물어보았으나 거절당했다. 살짝 들어가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으나 문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다.

大雄寶殿 앞에는 院落이 형성되어 있다. 崇福寺에서 유일한 四合院式 구성이다. 大雄寶殿은 明成化5년(1469년)에 중건되었다. 三寶殿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崇福寺 배치도 및 복원조감도(출처:朔州崇福寺彌陀殿修繕公正報告)

佛·法·僧이라고 하는 불교의 三寶를 의미하는 말이다. 정면 5간의 규모로 기단 앞에는 넓은 月臺를 두었다. 전후면 어간에 출입을 위한 문을 달고 정면 어간 양 옆의 협간에 창을 두었을 뿐, 나머지 면은 모두 두꺼운 벽체로 처리하였다. 柱間에도 공포를 배치하였으며, 그 형식은 외2출목이다. 전체적인 외관은 彌陀殿과 觀音殿의 외관을 따른 것으로 보이며, 공포는 千佛閣과 동시대적인 양식을 보이고 있다.

彌陀殿은 정면7간, 측면4간으로 崇福寺에서 가장 큰 건물이다. 金皇統3년(1143년)에 건축되었다고 한다. 전돌로 쌓고 갑석으로 마무리한 높직한 기단위에 건축되었다.

1)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중앙의 마당을 중심으로 네 방향으로 건물을 배치하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을 院落이라고 부르는데, 하나의 건축군은 이 院落 및 개가 겹쳐지는 배치를 형성한다.



崇福寺 金剛殿 정면



崇福寺 千佛閣 전경



崇福寺 彌陀殿 전경

기단앞에는 넓은 月臺가 있고, 월대 정면 중앙에는 전돌과 돌을 가지런하게 쌓아 만든 계단이 있다. 계단 양 옆면은 전돌을 이용하여 여러 단으로 중첩된 직삼각형을 구성하였다. 경주 불국사의 대웅전과 극락전 돌계단 양측면의 버선코를 가진 삼각형 석시리가 생각난다. 계단 앞 양 옆에는 돌사자 하나씩을 세웠다. 형식화되고 경직된 모습으로 두 마리 다 입을 딱 벌리고 있다. 공(寶珠)을 가지고 노는 앞다리도 딱딱하게 경직되어 있다. 정면 중앙의 5칸과 후면의 한 칸 걸러 한 칸씩 도합 3칸에는 문을 달았다. 彌陀殿 후면 문의 배치는 大同 上華嚴寺 大殿의 정면에서 본 적이 있다. 정면의 창호는 金代의 것으로 15 종류에 이르는 많은 花무늬를 조각하였다. 중국내에서 현존하고 있는 가장 완벽한 金代의 창호라고 한다. 기둥에는 미세한 배흘림이 있고 상부는 둥글게 말아쥘 편수깎기를 하였다. 공포는 7鋪作(4출목)으로 柱心包에는 斜栱이 사용되었다. 주간포는 주심포에 비해 간략화된 형식이다. 귀포는 귀한대와 살미, 첨차 외에 斜栱이 사용되어 매우 복잡한 구성을 하고 있다. 지붕은 녹색을 위주로 하여 군데군데 황색을 섞은 유리기와를 사용한 팔작지붕이다.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으로 보아 사전지식이 없더라도 최근에 보수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지붕면에는 진한 녹색의 유리기와를 사용하여 마름모꼴의 무늬를 새겨 놓았다. 고려시대의 불화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지붕을 장식한 건물을 볼 수 있다. 용마루에는 鸱尾(鸱吻)와 脊刹, 脊獸 등 장식기와로 장식하였다. 모두 유리기와, 즉 테라코타에 유약을 입힌 것이다. 중국의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식수법이다. 내부의 기둥 중 일부는 외간주와 기둥열이 맞지 않는다. 즉 移柱法이 사용되었다. 이로 인해 상부의 가구에는 특별한 구조법이 사용되었다. 기둥의 배열과 그에 따른 가구법의 적절한 응용이라는 측면에서 시대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觀音殿은 崇福寺의 맨 뒤에 위치한 건물이다. 정면5칸, 측면3칸의 金代건축이다. 건물의 외관은 彌陀殿과 거의 동일하다. 기단 앞의 月臺는 彌陀殿의 기단과 단차를 두고 연결되어 있다. 중국건축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기단처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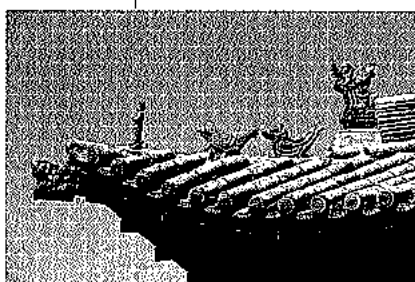
법이다. 정면의 중앙 세 칸과 후면 여간에 문을 두었다. 내부공간을 넓게 사용하기 위해 遼·金代에 유행했던 減柱法을 사용하였다. 기둥상부에는 창방과 평방을 두고 공포를 올려놓았다. 주간포는 정면과 후면의 여간에 두 구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간에는 모두 한 구씩의 공포를 올려놓았다. 주심포와 주간포는 동일한 형식의 외3출목으로 다만 측면의 주간포만은 살미의 외단을 다르게 처리하였다.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물매가 심한 편이며, 유리기와를 사용하여 彌陀殿과 비슷한 장식을 하였다. 지붕 측면의 합각부에는 조각이 좋은 懸魚가 매달려 있다.

崇福寺에서 나와 朔州역으로 향한다. 개찰이 시작되자마자 한비탕 전쟁을 치르듯 기차에 올랐다. 黃偉와 斜栱에 대하여 얘기를 나눈다. 斜栱은 언제,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을까? 중국인 학자들은 斜栱이 사용된 사실만을 설명한다. 遼·金代에 갑자기 출현하여 유행하다 사라진 斜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리 주목하지 않는다. 생 각컨대 斜栱의 발생은 다각형 전탑의 귀포와 관련이 깊은 듯하다. 사각형 평면의 건물에서 주간포를 올려놓을 때 柱間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공포를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柱間이 넓은 곳에 斜栱을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렇게 사용된 斜栱은 점차 장식화의 경향을 띄면서 발전하게 된다. 얘기를 통해 斜栱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해 본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목 적지인 忻州이다. 자칫 목적지를 지나칠 뻔 했다. 서둘러 내린 忻州는 조그마한 도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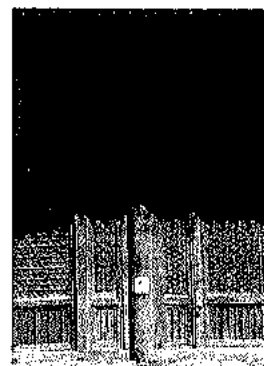
역을 빠져 나오니 숙박업소에서 나온 사람들이 호객행위를 한다. 역 앞으로는 길게 직선의 도로가 뻗어있었다. 길 좌우로 각종 과일을 파는 행상이 늘어져 있다. 오후 6시 10분, 우선 숙소를 정해야 했다. 鐵路招待所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갔다. 외국인도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招待所는 우리의 여인숙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용료가 매우 싸다. 하루에 1인 기준으로 10元, 우리의 1,000원에 해당한다. 지저분하고 낡은 시설, 샤워실은 물론 화장실도 없다. 방에는 1인용 침대 두 개와 책상, 의자가 놓여



崇福寺 觀音殿 전경



崇福寺 觀音殿 추녀마루의 장식



崇福寺 彌陀殿 기둥과 공포

있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黃偉는 책상과 의자를 방문에 기대어 놓는다. 안전을 위해서라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소란스러운 소리, 그리고 밤새 우리가 자는 방문을 두드리고 발로 걷어 차는 소리…….

1995년 10월 7일

아침일찍 小州 버스정류장에서 太原과 大同 사이를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原平으로 향한다. 原平 버스정류장에서 惠濟寺까지는 오토바이 택시를 이용했다. 달리는 오토바이에서 느끼는 10월의 공기는 손끝이 마비될 정도로 차갑다.

原平 惠濟寺

惠濟寺는 原平縣城 동북쪽 약 15km의 練家崗村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에는 물에 씻겨내린 삼척이 곳곳에 산재한 황토층이 노출되어 있었다. 양떼를 몰고가는 중년 목동의 모습이 한가롭기만 하다.

惠濟寺는 唐代에 창건되었으며, 宋代에 중건되었고, 이후 각 왕조를 거치면서 보수되었다고 한다. 절에 속한 한 암자에서는 曹氏노파를 모시고 있는데, 여기에는 절의 창건과 관련된 전설이 얹혀있다. 唐代에 절을 지을 때 건물을 짓는데 사용하기 위해 曹氏가 매일 물 한 항아리씩을 보시하다가 공사가 끝난 후 죽었다. 이에 사람들이 曹氏노파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암자를 짓고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전설이 있는 얘기거리가 있는 곳은 정감어린 느낌이 든다.

山門, 觀音殿, 鍾樓, 伽藍殿, 東西廊廡, 大佛殿 등의 건물이 남아있다. 보수한지가 오래된 듯 건물들은 매우 낡은 모습이었다. 솟을대문 형식으로 높이 솟아 있는 문을 지나면 大佛殿을 중심으로 좌우와 앞쪽에 건물이 위치한 중정형의 공간이 나온다. 문 오른쪽으로는 특이한 형식으로 높게 솟아있는 鍾樓가 있다. 중심건물인 大佛殿은 '千佛殿'이라고도 하는데 정면5칸, 측면5칸의 팔작집이다. 宋代의 건물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은 후대에 개조된 듯 하고 내부가구에서만 宋代의 모습을 약간 찾아볼 수 있는 정도이다. 大佛殿 앞 서측 廊廡

에는 채색이 벗겨진 소상 몇 軀가 있는데, 조각이 좋고 연대도 오래된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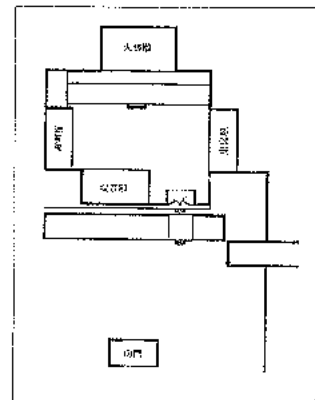
자연스러운 배치형식 - 原平 林泉寺

林 泉

寺는 宋代에 창건되었다고 하며, 창건당시의 이름은 '土聖寺'였다고

한다. 原平縣城에서 서남쪽으로 15km 떨어진 水油溝村 북쪽의 한참을 산속으로 들어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山西省에서는 보기 드물게 제법 숲이 우거져 있다. 절 옆으로는 계곡물이 흐른다. 그 위에 '渡仙橋'라고 부르는 석조 홍예교가 설치되어 있다. 홍예의 이맛돌에는 禁獸가 조각되어 있다. 다리를 건너 좌측으로 꺾어지면 60단 정도로 높다랗게 쌓아올린 돌층계가 나온다. 돌층계 위에 중층누각이 있다. 佛教經典을 보관하던 藏經閣이라고 하지만 건물의 형식으로 보아 藏經閣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듯 하다. 1층 어간에 절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상층에는 넓다란 누마루가 형성되어 있다. 일종의 樓下진입인 셈이다. 원래 林泉寺를 찾은 이유는 절앞에 있는 전탑을 보기 위해서였다. 우리나라의 사찰에서나 볼 수 있는 진입방법을 중국에서 볼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었다.

누문 안쪽에는 뒷편으로 大殿터가 남아 있고 그 앞 좌우에 配殿이 있어서 중정을 형성하고 있다. 전탑은 누문 앞쪽, 돌다리를 건너 우측에 위치하고 있다. 전탑 옆에는 지정문화재임을 알리는 '靈巖塔'이라고 새긴 표식이 있다. 양식상으로 보아 宋代에 건축된 탑으로 추정된다. 평면은 8각형으로 그 형식이 특이하다. 유난히 높은 기단 위에 4층의 탑신이 올려져 있다. 1층탑신은 다른 층의 탑신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으로 동북쪽에 감실의 문이 있다. 1층 옥개 하부에는 宋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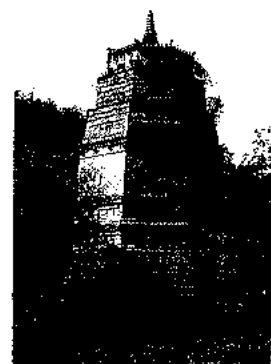
惠濟寺 배치도(non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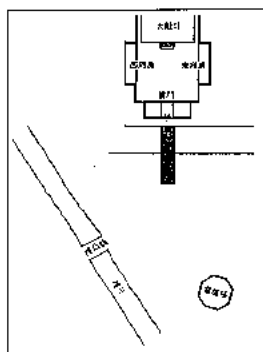
惠濟寺에 모셔진 塑像들



林泉寺 진입광경



林泉寺 靈巖塔 전경



林泉寺 배치도(non scale)

전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략화된 공포가 새겨져 있다. 2층과 3층의 탑신 각 면에는 수많은 佛像이 조각되어 있다.

忻州 金洞寺

金洞寺는 縣城에서 서북쪽으로 20km 떨어진 西呼延村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은 황토층으로 이루어진 완만한 경사지에 대추나무숲이 형성되어 있다. 창건년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건축적인 특징으로 보아 적어도 宋代부터는 존재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절의 배치는 일반적인 배치와는 달리 동서로 긴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중심축도 형성하지 않았다. 이 지역에서 林泉寺나 惠濟寺, 그리고 金洞寺와 같은 특수한 배치 형식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절은 한 노파가 관리하고 있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인지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이해 준다. 건물의 잠겨있는 문들도 손수 열어준다. 덕분에 건물 내부사진도 자유롭게 찍을 수 있었다.

金洞寺에는 正殿을 비롯하여 祖師堂, 觀音殿, 天王殿, 鍾樓 등의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낡은 상태였다. 대부분의 건물은 明·清代에 건축되었으며, 祖師堂만이 오래된 양식을 지니고 있었다. 鍾樓는 惠濟寺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높다란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다.

祖師堂은 정면3칸, 측면3칸으로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평면을 한 팔작집이다. 정면의 어간에만 두짝의 판장문을 두었고 그 양쪽 협간에는 살창을 두었다. 내부에는 외진주열에 맞추어 네 개의 고주를 두었다. 주심포와 귀포는 외2출목으로 제1출목선상의 첨차가 생략된 儉心造이다. 柱間에는 공포를 두지 않고 뜯창방(柱頭枋)에 첨차의 형태를 조각하였을 뿐이다. 평면형식이나 기구법 등으로 보아 北宋代에 속

하는 건물로 보인다. 특히 祖師堂 내부 중앙에는 '先師祐民之關'이라고 쓴 현판이 걸린 중층누각이 조각되어 있고 그 속에 祐民의 雕像을 모셔놓고 있다. 이 중층누각은 祖師堂 건물 자체와 비슷한 양식으로 되어 있다.

金洞寺를 떠나 太原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7시 40분이었다. 山西省의 중심도시이지만 대도시답지 않게 어둠속에 띄엄띄엄 위치한 가로등과 상점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보일 뿐이었다. 太原은 전에 한 번 와본적이 있다. 太原에서 가장 유명한 옛 건축물은 晉祠이다. 晉祠의 중심건물은 聖母殿으로 宋代의 건물이다. 94년도에 방문했을 때 수리 중이었다. 그 수리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답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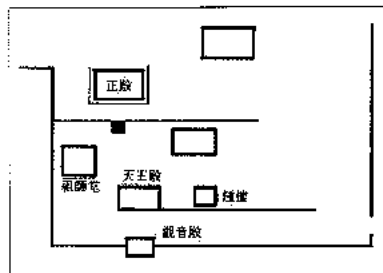
1995년 10월 8일

오전 5시 30분 기상하였다. 多福寺와 寶大夫祠를 가기 위해서는 오전 6시 45분에 太原北驛에서 출발하는 上蘭村행 기차를 타야 하기 때문이다. 上蘭村에는 華北工學院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다. 아침일찍 기차로 등교하는 학생들 무리에 끼어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간다.

산 정상에의 사찰 - 多福寺

多福寺는 이곳에서 버스를 타고 약 20분 달린 곳에 위치해 있다. 버스정류장에서 가까운 곳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웬걸, 多福寺는 산 정상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북이 많기도 하지……. 이 산은 太原에서도 관광지로 유명한 名山이라고 한

다. 그러나 높은 나무나 계곡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중국인이 자랑할 정도의 名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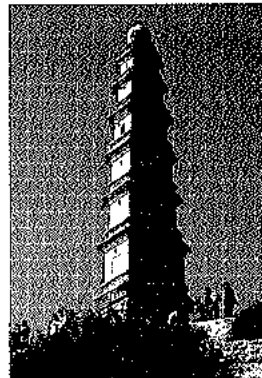
金洞寺 배치도(non scale)



金洞寺 祖師堂 정면



金洞寺 祖師堂 측면공포



多福寺 전담 전경

겨우 이 정도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가을이라고는 하지만 낮 동안의 해는 아직 뜨겁다. 그래서 산등성이를 따라 올라야 하는 산행은 힘들지만 하다. 가을산행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근처 太原시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도착한 곳은 절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전답이다. 6각7층으로 宋代에 건축되었다고 하지만 그리 연대가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 또 다른 봉우리 정상 부근에 계곡을 끼고 多福寺가 위치해 있다. 唐貞元2년(786년)에 창건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宋末에 병화로 불타고 明 洪武년간(1368-1398)에 중건하였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山門, 鍾樓, 大雄寶殿, 文殊閣, 藏經樓, 東西廂殿 등이 있는데, 모두 明代의 건물이다. 多福寺가 위치한 봉우리 정상에는 제법 많은 수의 민가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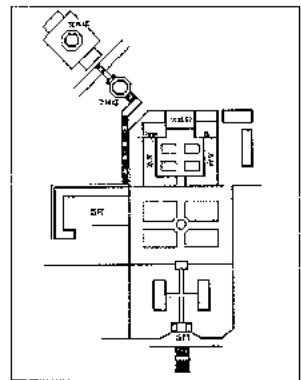
元代の 건축 - 祠廟 寶大夫祠

多福寺를 내려와 다시 上蘭村으로 향한다. 華北工學院 정문을 끼고 오른쪽으로 돌면 汾河를 바라보며 寶大夫祠가 위치해 있다. 寶大夫祠는 封地가 太原이었던 晉國의 大夫인 寶曄가 도랑을 파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였기 때문에 後人들이 이곳에 祠를 세워 그를 모시고 제사를 지낸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祠의 창건년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唐代에는 존재하고 있었다고 한다. 현재 山門을 비롯하여 獻亭, 大殿 등의 건물이 있는데 모두 元 至正3년(1343)에 중건된 것이다. 그러나 山門의 건축양식, 특히 공포나 기구법에는 金代의 수법이 보인다. 평면이나 구조, 양식 등이 특이하여 건축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로 보인다. 祠의 옆쪽에는 隰石山 바위 아래에서 차가운 샘물이 솟아나고 있다. 물의 온도가 낮아서 '寒泉'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山門은 굳게 닫혀 있었다. 오후 2시가 되어야 문을 연다고 한다. 현재 시간은 오전 11시. 그때까지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 太原시내로 돌아왔다. 太原시내에는 오래된 도시답게 많은 유적들이 있다. 崇

善寺, 文廟, 그리고 현재 山西省博物館으로 사용되고 있는 純陽宮, 雙塔寺 등……. 그리고 太原 근교에는 중국의 五大石窟 중의 하나인 天龍山石窟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94년도 답사때 방문한 적이 있다. 이번에는 그 때 답사하지 못했던 崇善寺, 文廟, 雙塔寺

를 들렀다. 먼저 찾아간 곳은 崇善寺와 文廟였으나 휴관중이거나 수리중이었다. 간단한 답사를 마치고 雙塔寺로 향한다.



雙塔寺 배치도(non scale)

明代 建造建築의 집합체 ; 太原 雙塔寺

太原시 동남쪽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는 雙塔寺는 明萬曆년간에 高僧 佛燈이 칙령을 받들어 창건하였다고 한다. 雙塔寺의 본명은 永祚寺이다. 雙塔寺라는 이름은 절안에 雙塔이 있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雙塔寺에 현존하는 주요한 건축물은 모두 壩造이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壩造건축을 '無梁殿'이라고 부른다. 입구인 山門 앞에는 높다란 계단이 있다. 山門에서 大雄殿에 이르는 중심축이 형성되어 있다. 大雄殿은 중층의 無梁殿 형식으로 1층은 大雄殿 2층은 藏經閣이다. 중심축선 좌측으로 담장을 쌓아 만든 별도의 구역에 '墨院'이라고 부르는 花園을 만들어 놓았다. 마당에 각종 화초를 심고 그 주변으로 'ㄱ'자형의 長廊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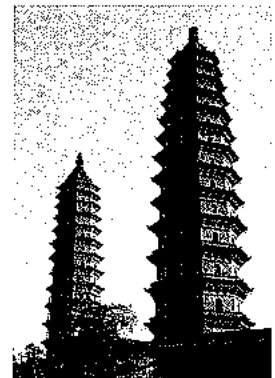
雙塔은 절 뒷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두 탑의 형식은 동일하다. 8각형 13층으로 탑의 이름은 '文宣'이다. 각 층 처마 아래에는 공포를 새겨 놓았다. 최상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내부는 2층의 공간이 형성되어 중앙을 빈 공간으로 하고 외곽의 공간을 계단으로 만들었다. 중앙부의 각 층 천장은 전돌을 내쌓는 방식으로 궁륭을 만들었다. 이 雙塔의 정상에 오르면 雙塔寺 전역은 물론 太原시내를 조망할 수 있다.



寶大夫祠 山門 정면



雙塔寺 大雄殿 정면



雙塔寺 雙塔 전경

설계자와 시방서(完)

Architect & Specifications

이중호 / 자유기고가, 전 FED 품질관리 담당
by Lee Chung-Ho

시방서가 건설의 전부는 물론 아니다. 계획에서부터 자금, 대지, 설계, 환경, 공해, 교통, 미관 등 수많은 단계를 거쳐서 입찰, 착공과 준공, 그리고 하자보증까지를 우리가 다 알고있는 사실이지만 공사중에 일어나는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에 거쳐야 할 사항은 실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모든 절차는 두가지의 목적으로 귀결된다. 품질시공과 경제적인 시공이 그것이다.

돈이 많이 드는 품질시공이나 돈을 줄이기 위한 부실시공은 시방서없는 도면이나 도면없는 시방서와 마찬가지로, 품질시공이란 안전한 구조물, 아름답고 기능에 맞는 건축물을 적정한 값으로 생산하는 기법을 뜻한다. 안전한 구조는 건축전문용으로 소정의 강도와 내구성이다. 건축물의 미적가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질과 같으며 기능의 구조는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는 뜻과 같다. 구조체의 강도는 질병없는 건강한 삶을 뜻하고 내구성은 오랫동안 살아가는 장수(長壽)를 뜻한다. 우리 인간이 건강하고 정력적이고 오래 살기위해서 동물도 하지 않는 파렴치한 짓을 서슴없이 해 왔지만 건강하고 장수하는 건축물을 생산하기 위한 도구는 잃고 살아왔다. 시방서,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도구이다. 그래서 공사에 관한 사고나 사건은 역사의 수레바퀴와 함께 했고 시공자와 감독기관은 불산의 대명사가 되어 왔으며 이러한 부실로부터 헤어나기 위한 묘안이 백출되고 있다. 그 묘안들이 지금 우리의 현장에서 나무끼고 있는 "내집처럼 짓자",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 "혼을 담은 시공", "실명제" 등이다. 고향의 푸른잔디 언덕위에 그림같은 내집을 짓기위해서는 혼이나 실명제대신 기술과 경험 그리고 최선의 마음을 담아야 한다. 기술과 경험을 담은 그릇이 바로 도면과 시방서이고 이 절그릇을 굽는 도공이 바로 설계자이다. 도공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릇을 현장에서 적재적소에 알맞는 시기에 정성스럽게 사용하는 사람이 시공자이다. 기술은 과학과 공학이며 경험은 경륜과 숙련이다. 최선의 마음가짐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이어야 한다. 다시말해서 불안한 노사관계나 열악한 작업조건에서는 최선의 마음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아무리 우수한 설계자라도 그가 작성한 도면과 시방서가 완벽할 수는 없다. 이러한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소위 "설계감리" 제도이다. 우리의 제도가 아직은 미비하지만 품질시공과 경제적인 시공을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제도 도입에는 틀림없다. 선진국의 설계감리제도, 즉 설계감리의 체계나 방법, 3단계 기법 등은 차후를 기대하면서 우선 이중검토(Double Check)와 교차검토(Cross Check)의 두가지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사실만을 강조한다. 교차검토란 설계자가 작성한 도면과 시방서를 현장에서 이를 사용할 시공자가 검토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우리는 훌륭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너무나도 당연하고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현장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공사시방서와 시공도라고 언급한 바 있지만 시방서는 설계자가 만들고 시공도는 시공자가 그린다. 이 사실은 마치 설계자와 시공자가 바늘과 실같은 관계임을 말해주고 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시공자가 그리는 시공도의 지침이나 자료는 설계자가 제공한다는 것이며 이는 설계자와 시공자의 사이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뜻하지만 다른 일면은 현장을 이해하고 시공을 숙지하는 설계자만이 훌륭한 시방서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눈물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 인생을 논할 수 없듯이 피땀어린 현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과 설계나 시공, 제도나 규정, 그리고 교육을 논한다는 것은 석녀(石女)에게 자식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이미 기술한 바 처럼 건축의 한 작품이 탄생되기까지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는 품질시공과 경제적 시공으로 귀결될 수 있고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훌륭한 시방서의 작성과 활용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마치 똑똑한 자식 한사람만 있으면 부족한 아홉사람의 자식을 호의 호식 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현장을 이해하는 설계자만이 훌륭한 시방서를 만들 수 있고 건설의 최종 목적은 시방서만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다시 우리 시방서의 문제점을 알아보자. 시방서를 논의할 때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른 의견을 개진하지만 여기에 소개하는 내용은 필자의 개인의견임을 밝히며 우리 시방서의 문제점 여부를 떠나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항들이기도 하다. 아울러 제시된 문제점에 대해서 최선의 공통분모를 기대한다.

우리시방서의 문제점중에서 첫째가 계약의 불공정이고 둘째가 일반규정이 없다는 사실이라고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시방서의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은 시방서라는 단순한 의미보다는 우리건축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시방서의 세번째 문제점은 낙후된 품질이다. 건축자재의 품질이 하루아침에 국제수준이 될 수 없지만 국제품질규격이나 시험규격에 합격할 수 있는 근거를 시방서는 제공해야 한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건축자재가 상당한 질적 향상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시방서만 수십년전의 품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넷째는 우리의 건설산업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은 국가의 기간산업이고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제조업분야이다. 이러한 제품은 체계화,

규격화, 표준화 등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있는 미국의 각종 규정 즉, ASTM, ANSI, UL, NFPA... 등의 규정은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 기능, 안전 등 품질위주이지만 자국산업의 보호라는 목적을 시방서를 통해서 잘 반영하고 있다.

다섯째는 경직된 제도이다.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매년 시방서의 보완, 수정, 신설 등의 작업량은 상당하다. 하물며 품질향상과 시장개방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우리로서는 이를 바 없다. 제도는 필요에 의해서만 들어지고 있지만 이때는 경륜있는 인사가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주의깊게 만들어야 한다. 또 한번 만들어진 제도나 규정은 필요시 수시로 수정 보완되어야 하며 이런 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사정이나 보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행하지 않는 시방서의 경직성은 가장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여섯째, 무분별한 외국제도나 기술의 도입이다. 사실 선진국의 제도나 품질수준은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이 많고 언젠가는 우리것으로 만들어서 세계시장에서 손색없이 활용되어야 할 것들이다. 당장 우리가 사용하기는 무리가 있고 급격한 변화는 적응에 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여건에 맞게 보완된다면 현장의 품질에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문제는 선진국의 제도나 규정을 확인과정없이 그대로 사용하려는 소위 베끼는 문화가 문제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아직 건축의 품질이 정착화되지 않은 우리현편으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음의 두가지 사항만은 심도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베끼더라도 베끼 것을 베끼고 베끼려면 제대로 베끼라는 주문이다.

일곱째, 우리의 시방서는 특히 국제화에 대비하고 크레임(Claim)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국제화란 많은 개념과 사실을 포함하고 있어서 한마디로 이를 정의하기는 어렵다. 크레임은 우리건설의 가장 취약점이며 무방비상태의 약점이다. 상기 두가지 조건은 별도의 숙제로 남겨둔다.

시방서의 문제점은 아니지만 시방서가 우리 건축에 기여해야 할 두가지 과제가 있다. 그 첫째가 표준화이다. 표준화야말로 품질시공과 경제적인 시공에 가장 효자이지만 그렇다고 조금도 어려운 일도 아니다. 표준화는 품질은 물론, 작업이 용이하고 제작이 쉽고 공기가 단축되며 수율의 증가로 경제적인 시공과 함께 외화를 절약할 수 있는 일거오득

(一舉五得)이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분쟁을 예방해 주는 효부이기도 하다. 쉬운것부터 하나씩 표준화하는 방법, 국가의 표준시방서나 발주자의 자체시방서에 반영하는 방법, 심지어 동종의 공사를 대량 시공하는 건설회사라도 설계자와 협의해서 회사표준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 시방서만으로도 표준화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다음은 교육이다. 우리의 대학교육이 현장감각이 없는 허구적인 교육이 된 원인중의 하나가 바로 시방서이다. 이제 시방서는 국제화의 현장에서 내실있는 기술자양성의 일익을 담당해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해야 한다. 시공이 일반적인 기법이라면 시방서는 제한적인 기법이다. 자고로 어느 현장이든지 일반적인 기법을 시공자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법은 없으며 발주자는 반드시 어떠한 재료나 시공방법을 지시하고 제한한다. 이러한 지시나 제한을 시공자는 순발력있게 적응해야 하며 이 적응하는 도구가 시방서의 생활화이다. 내일의 건축기사들이 활동할 무대는 세계속의 다국적현장이다. 이들이 현장에서 살아남고 수주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선진국의 시방서를 원어로 대학교육에 반영해야 한다. 이것이 산 교육이요, 세계화의 대학이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연계되는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교육이 또 다른 산 교육이 될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시방서의 문제점과 작성방향 몇가지를 제시했지만 그 실질적인 사례는 생략하고 우리 시방서가 전면 언급을 회피한 총칙, 혹은 일반규정의 문제점들을 다시 제기해 본다. 일반규정은 착공전에서 준공후까지의 전 과정과 나머지 전체 규정을 통제하므로 가장 중요한 장(Division)이다. 이 규정의 구성도 공사순서에 따르거나 중요성의 정도를 혼합해서 배열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일반조건의 중요성은 이미 기술한 바 있지만 공사시방서의 일반조건은 해당 공사의 특성이나 여건에 따라서 그 구성내용도 상이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몇가지를 소개한다.

• 공사의 시작은 착공이고 끝은 준공이다. 그래서 착공과 준공에 대한 조항이 일반적으로 머리쪽에 기술된다. 우리는 착공의 시기와 준공의 날짜가 명시된 제도를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연속적인 날짜개념인 카렌다 일수(Calendar Day)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고 불가항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타당성있는 공기의 산정방식으로 현장에서 시공자에게 상당히 합숙성있는 사항을 내포하고 있다. 착공에 대한 예를 들어보자. 얼마전 우

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 착공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으로 상당히 지연됐고 국가적인 문제로 비화된 사건이 있었다. 착공을 위해서 장비와 인력을 현장에 투입한 시공자는 드디어 착공지연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발주자에게 요구했고 그 금액이 무려 13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러한 분쟁을 크레임(Claim)이라고 한다. 착공도 되기전에 천문학적인 크레임이 발생된 사건은 나름대로 변명의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국가적인 손실이고 국민의 혈세(血稅)가 낭비될 경우도 있다. 반드시 사실을 규명하고 국민이 낸 세금에 낭비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처럼 착공지연으로 인한 손실이나 분쟁은 시방서의 착공과 준공조항에 한두마디 문구의 삽입으로 분쟁이나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모든 분야에서 완벽한 지자체의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지만 이러한 예견가능한 분쟁을 예방하지 못했다면 이는 자질문제의 대상이다. 미국의 민간공사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준계약서(FIDIC)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시공자는 공사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착공지연으로 인한 분쟁은 우리나라의 경우 용지보상이나 용지수매, 혹은 민원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이로인한 분쟁이나 손실은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지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시방서는 어떠한 규정으로 발주자를 보호하고 시공자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가?

• 공사가 계약공기보다 지연될 때 시공자는 이에 상응하는 발주자측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것이 소위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이다. 미국의 경우는 이 금액을 1일 〇〇〇원 이라고 일정금액을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와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문제는 국제화의 계약에서 지체상금제도가 엄격히 집행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공기의 지연이 그 원인을 규명하면 발주자가 주장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시공자는 지연의 사유를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있다. 그렇다면 시방서는 여하한 규정으로 공기지연의 정당성을 반영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어떠한 사유로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는가?

• 현장에서 가장 많은 분쟁의 원인은 공기가이다. 즉, 공기연장(Time Extension)에 대한 상이한 의견이다. 공기연장의 가장 타당한 이유는 우리가 설계변경이라고 부르는 변경(Change)이며 이밖에도 불가항적인 경우도 있다. 비근한 실례로 공비가 출몰한 동해안의 작전지역내에서 공기연장은 타당한 조건인지 검토되어야 한다. 공기연장의 타당한 이

유는 무엇이며 그 후속조치는 무엇인가? 날씨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인 조건이지만 어떠한 날씨조건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청명한 날씨에도 공기연장은 가능한가?

• 우리현장에서 가장 많은 문제의 주범이 설계변경이다. 어떠한 공사라도 설계변경이 없는 현장은 없다. 문제는 이 변경이 정당한 사유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설계변경은 누가 어떤 이유로 제안하며 그 승인절차와 후속조치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설계변경은 지시나 동의를 구할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 근래 감리제도가 강화되면서 감리자에게 부여되는 대권이 있다. 바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감리자는 스스로의 묘혈을 파는 결과를 초래한다. 크레임에 걸려든다는 뜻이다. 시공자를 제재하는 방법은 공사중지, 계약해지, 영업정지 등 3가지가 있지만 이는 확실한 근거없이 사용할 수 없다. 시방서는 공사중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발주자는 어떠한 조건에서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 시공자는 공사시작 전부터 공사가 끝난 후에도 여러가지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제출(Submittals)의 제도는 우리가 개발한 것이 아니고 수입된 제도이다. 시공도, 시공상세도 혹은 상세시공도 등 용어조차 정리되지 못한 제출들이 우리 현장을 어지럽히고 있다. 제출이란 제도가 왜 필요하고 어떠한 서식이 효과적인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수많은 제출의 강요는 거의가 전시적인 효과밖에 없다. 시방서는 제출의 종류와 시기, 부수, 포함될 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근거없이 제출만 요구하면 이는 계약위반으로 시공자는 이에 복종할 의무는 없다. 그렇다면 시방서에 제시되는 제출의 종류와 시기, 판정기준은 무엇이며, 한가지 제출로 여러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준서식은 없는가? 만약 이런 서식이 있다면 현장의 기술자들이 보다 많은 시간을 서류가 아닌 품질확보에 사용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 현장에서 가끔 서로가 맞지 않는 상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하고 표준시방서와 공사시방서가 틀리고 평면과 상세도가 서로 맞지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군국주의 잔해인 감둣마음대로 해야 하는가? 시방서는 이같은 상충점을 해결해야

한다.

• 도면이나 시방서가 완벽할 수 만은 없다. 그러나 도면이나 시방서에 빠졌다고 그대로 시공할 수는 없다. 분쟁의 소지가 있지만 이러한 난해한 문제도 시방서는 해결해야 한다.

• 공사의 핵심은 품질이 으뜸이다. 계약조건에 맞는 자재와 시공을 위해서 시공자는 여하한 계획, 즉 인적 구성, 시공, 품질, 안전 등의 방안을 수립하고 적용해야 한다. 시방서는 어떤 방법으로 시공자의 이같은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가?

• 건축공사는 땅파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땅파는 작업을 할때마다 지하에 묻힌 배관에서 사고가 발생되는데 시방서는 이런 지하배관이나 구조물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어떠한 방법이 안전한 굴토의 제도와 공법인가?

• 공사비와 이의 지불방법 또는 지불을 유보하는 경우를 시방서는 분명하게 정의해야 한다. 정부공사의 지불은 해당 법규가 있지만 현장의 시공이 계약에 일치하지 않으면 지불은 유보된다. 지불방법, 지불시기, 지불을 유보할 수 있는 조건 등을 시방서는 제시해야 하지만 이를 잘못 적용할 경우 발주자는 배상이나 이까지 지불해야 하는 크레임이 발생된다. 지불을 유보할 수 있는 조항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의 융통성있는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 공사중에 시공자가 제출해야 할 여러가지 문건이 있다. 이 중에서 자재에 관한 조항과 시공에 관한 조항이 가장 중요한 제출이며, 제출된 문건이 발주자에 의해서 잘못된 허가가 있을 수도 있다. 또 시공도는 경우에 따라서 특허나 로열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신기술이 있으며 시공도의 작성시 각 공종마다 그 내용이 동일하지는 않다. 시방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발주자가 잘못 허가한 제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신기술의 시공도는 발주자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지, 공종마다 상이한 시공도의 작성방법과 추가할 조건은 무엇인가?

• 자재와 시공기술은 공사시방서에 상당히 심도있게 언급되어야 한다. 자재나 장비에 대한 규정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시공기술은 어떻게 규제해야 되는가?

• 발주자는 사정에 따라서 준공전에 건물을 사용할 경우가 있다. 이때는 시공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발주자가 시공자의 동의없이 준공전이라도 건물을 사용하거나 점용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해외현장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조건으로 물리적인 조건은 발주자에 책임이 없다는 규정을 시방서에서 볼 수 있다. 기후조건이나 교통시설 등에서 발주자의 면책은 이해할 수 있으나 시공자에게 제공된 도면이나 시방서에 표시된 지반이나 지하의 지질, 지형지물에 대해서도 발주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공자의 상세한 현장조사를 강요하는 조항이지만 전문업자에게 의뢰한 지반조사(Boring Log)에 대해서 시공자는 크레임을 제기할 수 없다는 해석이지 공사비 증감이나 공기의 변경을 묵살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이같은 경우 시방서는 시공자의 의무와 발주자의 조치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 시공자가 현장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크레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를 노출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시방서는 이런 부도덕한 시공자의 기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이때 시방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현장에서 가장 바쁘고 할 일이 많은 때가 준공시기이다. 준공 예비검사, 준공검사, 준공청소, 준공도, 장비의 시운전, 각종 시험, 장비의 자료, 자재의 스페어(Spare), 장비의 공구 등 많은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 시방서는 이들 작업의 계획, 순서, 내용, 기준, 종류, 수량, 자격, 방법 등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규정에 예비검사는 준공 30일전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잠시 제도에 대해서 두가지만 논하기로 하자. 우리나라는 정부가 인정한 대학의 건축과를 졸업해도 면허라는 제도의 벽에 부딪친다. 그래서 지금은 소위 "학경력자"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다. 면허는 없어도 학력과 경력을 인정해 준다는 구멍가게식 발상이다. 대학의 4년을 강습소나 입시학원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더욱 놀라운 일은 대학을 졸업하고 면허시험의 합격률이 20%정도라는 하늘과 땅이 기절초풍할 사실을 무엇으로 강변하겠는가? 일본의 대형 건설회사는 한 회사에 기술사가 수천명이고 중견회사도 수백명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의 제도에서 그 저의는 규명되고 시정되어야 한다. 다만 합격하면 다른 사람의 합격을 결사 저지하는 개인,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서 극도의 배타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는 집단, 이런 개인이나 집단의 부당한 이기주의

가 횡횡하는 제도나 대학의 권위를 강습소로 전락시키는 제도는 이제 국제화의 지구촌에서 우리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우를 범하는 일이다. 또다른 제도는 건설의 과정을 군대의 제식훈련처럼 생각하는 사고이며 그 실례가 바로 준공 30일 전에 실시하는 예비검사의 규정이다. 공사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10년의 공사가 있고 1년의 공사가 있다. 당연히 예비검사의 일정도가 변적이어야 하며 준공 30일전이라는 규정은 또 다른 부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예비검사의 제도는 시방서에 규정할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일정은 현장상황에 따라 감리자의 판단과 시공자의 협의로 결정되어야 한다. 다시 준공단계에서 시방서의 역할을 알아보자. 예비검사와 준공검사의 절차와 불합격됐을 경우의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준공도의 작성시기와 종류, 절차 등은 어떻게 수행되는가? 장비의 시운전에 대한 시간과 강사, 참고자료는 무엇이 필요한가? 스페어의 종류와 양은 어느 정도인가?

• 공사가 끝나면 하자보수에 들어간다. 우리 규정에 공중에 따라서 하자보증기간이 지정되어 있지만 그 내용이나 제도가 상당히 일방적이다. 하자보증에 공정한 계약내용과 효과적인 제도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중요한 사항의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다음의 사항들도 시방서는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발주자가 제공하는 관급자재 혹은 지급자재, 그리고 현장의 용수와 동력에 대해서 관리, 저장, 사용에 대한 규제를 명시해야 한다. 기존 시설물의 보호나 처리, 분쟁의 발생시 해결방법, 검사의 정밀도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관급공사에 따라서는 자재의 구매서류, 세금, 채권, 공무원에 대한 수뢰, 이자 등의 규정을 시방서에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또 적성국에 대한 금지조항과 자국산 제품의 우선사용, 지체부자유자에 대한 보호조항이 삽입되는 경우도 있다. 근래 우리현장에서 시행되는 시공평가제에 따른 보상과 제재, 기술제안(VE)에 대한 포상을 시방서에 지적하여 품질시공과 기술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이 밖에도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는 공사의 특성에 따라서 더 많은 조항이 추가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될 수도 있다.

시장개방과 국제화의 건설현장에서 가장 시급히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할 시방서의 작성은 참으로 어려운 작업이다. 미리 전문가를 양성해서 설계자에게 되돌아 올 수 있는 크레임을 예방하는 현명한 조치가 필요한 시기이다. 각 공종마다 상세한 내용은 차후를 기대하면서 이를 마감한다.

기상자료를 이용한 지역별 적정 건축시기 고찰

Report on Optimization of Regional Construction Period

Based on Meteorological Data

정광모 / 보은기상관측소장

by Chung Kwang-Mo

1. 현행제도의 문제점

인류는 자연에 적응하며 오랜 세월을 살아 왔으나 과학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각종 중장비를 사용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건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따라서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건축과의 관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가. 건설교통부 건축 일반시방서의 동절기 콘크리트 공사기간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지역별로 기온차가 매우 큰데도 건교부 건축 일반시방서는 공사기간이 지역별로 구분되지 않아 건축시공자 및 감리, 감독자가 공사지역의 공사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는 지침서로서의 기능이 부족하다.

〈표 1〉 건교부 건축 일반시방서

구 분	기 간
콘크리트 중지기간	12월말~다음해 2월초
극한냉기 콘크리트 기간	11월말~12월말, 2월초~3월초
한냉기 콘크리트 기간	10월말~11월말, 3월초~3월말

단, 상기표는 일반적인 것이므로 그 해의 기온변화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위의 기간을 조정한다.

나. 충북지방의 계절별 건축현황의 문제점

표2를 살펴보면 기상을 무시하고 계절에 관계없이 공사가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겨울철에도 연대비 13~19%의 공사가 시행되어 콘크리트 강도가 정상적인 때보다 20%이상 감소되고 있다. 둘째, 여름철에 연대비 약 25%의 공사가 시행되어 장마, 태풍 등 악기상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재시공으로 공사비가 증가된다. 셋째, 가을철에도 연대비 28~30%가 시행되어 겨울공사로 이어져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

〈표 2〉 95년도 충북도내 공사착공현황·레이콘 판매현황

종류 / 계절	겨울	봄	여름	가을	계
충북도내 착공면적 (㎡)	688,345	1,012,959	926,373	1,012,959	3,640,636
	19.0%	27.8%	25.4%	27.8%	100.0%
충북도내 레이콘판매(만㎡)	674	1,629	1,264	1,544	5,111
	13.2%	31.9%	24.7%	30.2%	100.0%

- 충청북도 공사착공면적 : 충청북도청 주택과 '95 건축을 착공 통계자료
- 충청북도 레이콘 판매 : 충청북도 레이콘공업협동조합 '95 레이콘판매자료

2. 개선방안

기상청에서 발간한 한국기후표를 참고하여 전국에 있는 기상관측소 68곳의 기온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적산온도를 산출하여 적정 건축시기를 규명하여 건교부 건축 일반시방서를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가. 전국 68개 관측소의 기온자료를 이용하여 적산온도 산출

콘크리트의 강도=시멘트+모래·자갈+물+재령일+ 온도

콘크리트의 강도는 시멘트에 모래, 자갈, 물을 혼합하여 양생기간(재령일=28일)동안의 온도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온도는 콘크리트의 강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적산온도란 콘크리트공사 시작일로부터 KS에 규정된 28일간의 일평균기온의 합계이다. 즉, 재령일 동안의 일평균기온에 10을 더한 값의 합을 적산온도라 한다. 이와같이 적산온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시멘트가 서서히 경화되기 때

$$M(^{\circ}D \cdot D) = \sum_{z=1}^n (T_z + 10)$$

M : 적산온도
z :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일(28일)
Tz : 재령 z(일)에 있어서 예상 일평균 기온

문이다. 적산온도 산출 공식은 아래와 같다.

위 식의 일평균기온의 자료는 기상청에서 발간한 1960년~1990년까지의 30년 평년값을 이용하였다. 전국 68개 기상관측소의 일평균 기온자료를 이용하여 표3과 같이 적산온도 평년값을 만들었다. 표3 적산온도 평년값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지역별 기온의 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적정건축시기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적산온도 평년값 표3을 사용하여 공사 지역별 콘크리트공사의 적정시기를 표4와 같이 만들어 콘크리트공사 시작일 분포를 작성하여 가시적으로 지역별 공사 적정기를 알아 볼 수 있게 하였다.

〈표 3〉 적산온도 평년값(단위 : $^{\circ}D \cdot D$)

월순	지역	목포	광주	서산	서울	대관령	청주	대구	진주	부산
7	상	971	989	956	969	816	980	998	976	952
	중	1004	1018	983	995	841	1003	1028	1002	990
	하	1023	1030	996	1006	845	1013	1039	1015	1012
8	상	1015	1015	978	991	819	990	1019	1001	1006
	중	987	982	945	957	776	953	978	970	980
	하	945	931	895	910	722	897	923	920	938
9	상	898	877	842	858	667	837	867	867	892
	중	848	819	785	803	615	772	811	808	847
	하	800	766	730	746	565	712	761	756	806
10	상	746	707	668	681	512	645	704	694	760
	중	691	650	609	619	459	582	646	637	712
	하	630	585	540	545	393	510	579	568	654
11	상	565	519	473	466	320	440	508	501	590
	중	501	455	410	387	252	371	448	433	524
	하	446	399	355	323	194	315	383	377	468
12	상	398	352	304	270	148	259	333	333	423
	중	360	315	263	229	106	217	305	305	387
	하	329	297	231	195	73	186	270	285	357
1	상	315	263	217	185	58	181	260	276	343
	중	309	255	210	186	50	182	262	277	339
	하	325	328	234	217	78	216	289	304	361
2	상	341	319	260	251	108	250	319	338	385
	중	371	357	299	298	150	297	362	375	420
	하	402	394	336	345	195	341	407	410	455
3	상	447	445	391	404	250	400	462	459	498
	중	499	507	454	471	319	472	525	518	547
	하	557	570	518	539	386	543	586	579	593
4	상	618	637	580	610	462	613	650	636	642
	중	669	690	637	669	524	672	704	685	686
	하	713	735	683	720	573	721	752	729	728
5	상	756	778	731	766	613	768	797	769	764
	중	795	818	775	806	651	811	837	809	795
	하	833	856	820	847	688	856	873	846	822
6	상	865	888	860	882	719	891	903	878	848
	중	898	920	892	914	747	922	931	909	875
	하	931	952	921	940	778	947	960	941	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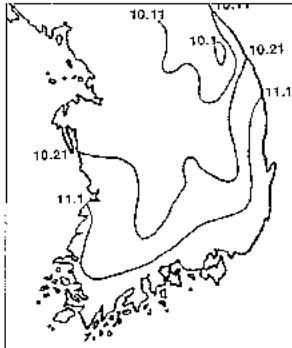
□ : 중지 □ : 극한기(위험) □ : 한냉기(경계) □ : 적정기

나. 지역별 콘크리트 공사기간 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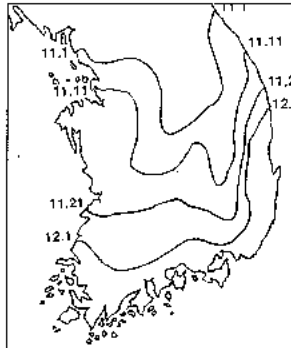
〈표 4〉 지역별 콘크리트 공사기간

지역	한냉기	극한기	공사중지	적정기
부 산	11. 11~3. 20	-	-	3. 21~11. 10
목 포	11. 11~3. 31	1. 1~1. 20	-	4. 1~11. 10
진 주	11. 1~3. 20	12. 11~1. 31	1. 1~1. 20	3. 21~10. 30
광 주	11. 1~3. 31	12. 21~2. 10	1. 1~1. 20	4. 1~10. 30
대 구	11. 1~3. 20	12. 11~2. 10	12. 21~1. 31	3. 21~10. 30
서 산	10. 21~3. 31	12. 1~2. 29	12. 11~2. 10	4. 1~10. 20
서 울	10. 21~3. 31	11. 21~2. 20	12. 1~2. 10	4. 1~10. 20
청 주	10. 21~3. 31	11. 21~2. 20	12. 1~2. 10	4. 1~10. 20
대관령	10. 1~4. 20	11. 1~3. 20	11. 11~3. 10	4. 21~ 9.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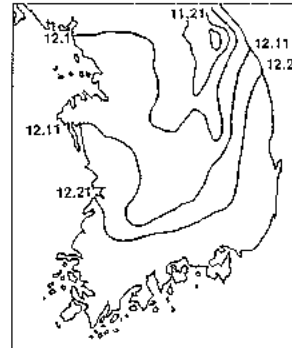
다. 콘크리트공사 시작일 분포도



(그림 1) 한냉기(경계) (적산온도 550° D·D 이하)



(그림 2) 극한기(위험) (적산온도 280~336° D·D)



(그림 3) 공사중지(적산온도 280° D·D 이하)



(그림 4) 적정기(적산온도 550° D·D 이상)

라. 결과

1) 지역별 적산온도를 산출하여 콘크리트 공사 한냉기(경계), 극한기(위험), 중지기, 적정기의 평년값을 정하여 건교부와 협의하여 건축 일반시방서를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5는 청주지역을 기준으로 현재와 개선된 점을 비교해 보았다. 한냉기(경계)는 약 10일 정도의 차가 있고, 극한기(위험)는 20일, 공사중지기는 40일간의 차를 보였고, 공사 적정기는 현재는 구분하지 않았는데 개선안에서는 4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5〉 콘크리트 공사기간 비교(청주지역)

지역	한냉기(경계)	극한기(위험)	공사중지	적정기
현재	10월말~3월말	11월말~3월초	12월말~2월초	-
개선	10. 21~3. 31	11. 21~2. 20	12. 1~2. 10	4. 1~10. 20

2) 콘크리트공사 적정시기 규명으로 공정별 계획적인 표준안을 마련하였다. 표 6을 살펴보면 현재는 계절에 관계없이 공사가 착공되고 있으나, 개선방안으로는 겨울철에 설계를 하고 봄에 착공을 한다. 이 때 토목, 기초, 조경, 콘크리트, 방수공사를 하며, 우기인 여름철에는 각종 실내공사를 하고 방수공사도 시험할 수 있다. 가을철에는 마무리 공사를 하고 방수공사 등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수공사를 하여 준공을 하는 기상을 이용한 건축공정의 표준안을 마련할 수 있다.

〈표 6〉 건축 공정별 표준안

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현재	착공 : 28~32% ※ 착공	착공 : 25% 각종 실내공사 (방수시험)	착공 : 28~30% 미장, 도장 등 마무리 및 보수	착공 : 13~19% 설계
개선	토목·기초, 조경 콘크리트, 방수		※ 준공	

3) 콘크리트공사 기간동안의 적산온도를 산출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함으로써 건축공사기간을 기록 유지하여 부실공사를 방지시킬 수 있음.(건교부와 협의)

마. 결론

1) 기상을 이용하여 지역별 적산온도를 산출하여 콘크리트공사 적정시기, 경계시기, 위험시기, 중지시기, 중지해제 시기의 평년값을 정하여 건교부와 협의하여 건축 일반시방서를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기상을 이용하여 콘크리트공사의 적정시기를 규명하여 건축공정별 표준안을 마련하여 사용

3) 건축물을 지탱하고 있는 시멘트 구조물의 공사시기를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매매시 상품의 가치판단의 기준설정이 용이(건교부와 협의)

3. 기대효과

가. 기상을 이용하여 건축을 함으로써 공사기간 준수 및 공사비 절감

1) 동절기 콘크리트공사 중지기간을 지키므로써 그동안 시행되어 오던 연대비 13~19%의 공사가 시행되지 않게 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을 50년으로 보았을 때 10년간의 수명 연장 효과가 있음.

2) 여름철에 시행되는 연대비 약 25%의 공사가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침수 및 토사유출로 재시공되고 있어 이에 따른 공기지연 및 재시공 공사비 절감효과

나. 콘크리트 공사의 강도 증가로 튼튼한 건물 완성

다. 우기전에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장마시 확인, 불량시 보수 용이

라. 건축공사의 동시 착공으로 중소 건설업자 구제

마. 공사자체시 감독관청에서 공정표와 기상증명과 대조하여 공사연기 결정 용이

바. 기상을 무시한 건축에서 이용하는 과학적인 건축시공으로 효율성 증대

과천시립도서관

Kwacheon City Library

과천시립도서관

지질표본관(박물관)

중앙구실내체육관

강서구 교통관련 청사

광주도시철도 종합사령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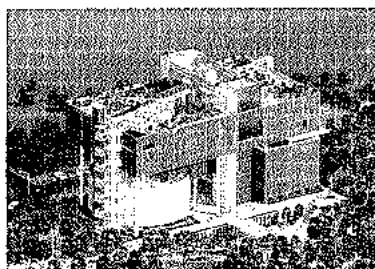
나주 상징문

과천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과천지역의 정보화를 선도하고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시립도서관을 건립코자 설계경기를 실시하여 지난 96년 12월 21일 이공건축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

했다.

총 23개 작품이 접수된 이번 설계경기의 우수작에는 우리공간건축(박성준)안이 선정됐으며, 가작으로는 정현식건축(정현식)안, 오림건축(홍순전)안, 고우건축(양승관)안이 각각 선정됐다.

▶ 당선작 / 이공건축(이관직)



조감도

위 치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573일 대(갈현근린공원 부지내)
지역지구	개발제한구역(근린공원)
대지면적	3,900㎡
건축면적	1,683.4㎡
연 면 적	12,291.5㎡
건 폐 율	43.2%
용 적 륜	195.7%
규 모	지하 2층, 지상 6층
구 조	철근 콘크리트
주요설비방식	FCU+공기조화방식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외부미감	THK30 화강석, THK24 적 외선 차단 컬러복층유리
설계담당	김호경, 조종연, 백운주, 장진 욱, 박영재, 임태연, 이정희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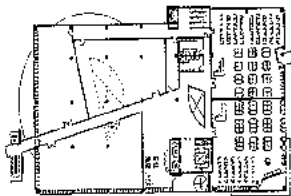
- 건물의 축 및 정면성
 - 현 도시의 남서-북동 그리드를 건물의 기본축에 적용
 - 시야가 개방된 남서측에 정면이 놓이도록 건물배치
- 건물로의 접근동선
 - 차량 이용동선 : 간선도로에서 지하주차장 또는 외부공원 주차장으로 진입

- 하여 건물 후면으로 접근
- 보행자 동선 : 간선도로에서 직접 진입하는 동선과 공원을 통과하여 진입하는 동선 모두 건물전면으로 접근
- 건물 후면으로의 접근동선과 전면으로의 접근동선의 흡수, 그리고 공원주차장과 공원과의 적극적 연계를 위해 지상1층에 피로티 설치
- 지형의 입체적 이용
 - 선문가든을 가로지르는 다리형태로 주 진입동선을 구성하여 입체적인 공간감과 자연광의 적극적 도입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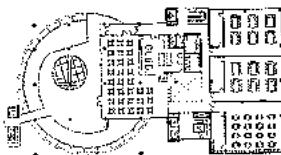
평면계획

- 기능에 따른 Zoning 구분과 형태구분
- 동적 성격을 가진 기초과학 실험센터의 전시실들을 서측 저층에 원형으로 계획
- 정적성격의 열람, 자료, 연구기능들은 동측상부에 사각형으로 계획
- 이용자 동선과 관리동선의 분리
- 이용자의 접근과 인지가 용이한 건물 남측에 이용자 수직동선(엘리베이터와 계단)계획
- 차량을 이용한 관리상의 자료반출입, 출퇴근 등에 유리하도록 건물북측에 관리수직동선 계획
- 남북 계단실을 연결하는 중간부분을 공공부분(화장실, 휴, 휴게실)으로 계획하여 상호유기적연계 유도
- 입체적 공간계획
 - 공간의 막힘과 트임을 평면과 단면상 적극적으로 활용한 아트라운, 바닥오픈, 브릿지등으로 이용자에게 다양한 체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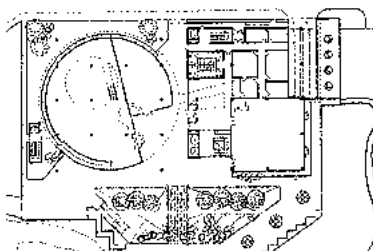
- 기본축에서 변형된 각도의 긴 직선의 복도를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느낌의 바닥오픈이나 평면형태를 계획
- 남·서측 외벽에 대한 일사·일조 조절 계획
- 외벽에 적외선 차단유리를 설치하여 일사량 조절
- 실내 내부조도의 조절위해 이용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수직 가변차양 설치
- 수직 가변차양과 유리외벽사이에는 Passive Solar 원리로 활용하도록 공조·환기시설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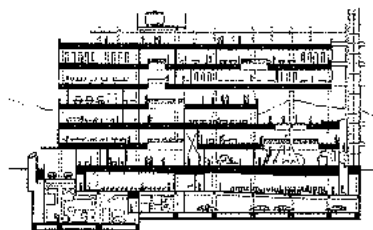
5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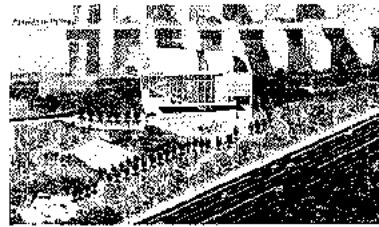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단면도

▶우수작 / (주)우리공간(박성준)+임재웅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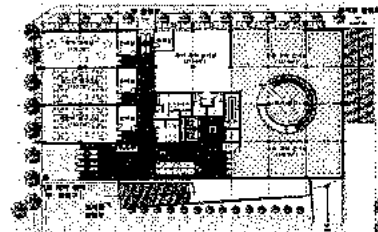
지역지구	녹지지역 / 개발제한구역
대지면적	24,080㎡ 중 3,900㎡
건축면적	1,746㎡
연 면 적	11,530㎡
규 모	지하 1층, 지상 6층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주요외장재	화강석, 24복층유리, 알루미늄 패널

· 계획의 주안점

- 두 기능의 분리·조화 : 기초과학 실험 센터를 1층에 배치하고, 도서관을 2층부터 배치하여 외부램프 및 계단으로 연결하였고 내부에서는 Open된 공간

을 통해 계단으로 연결

- 이용 및 관리의 편의성 : 동선 및 공간을 단순화하여 인지성을 높이고 효율을 높이고저 하였으며 가변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
- 내부 공간의 다양성 : 주계단 및 복도를 전면 커튼월에 면하게 계획하여 전면공원을 조망할수 있게 하였고, Elev. 홀 부분의 Open 공간을 통해 후면부에도 개방된 공간 형성
- 향후 증축에 대한 고려 : 향후 증축 부분인 북서쪽으로 서고, 열람실 등을 배치하고 복도가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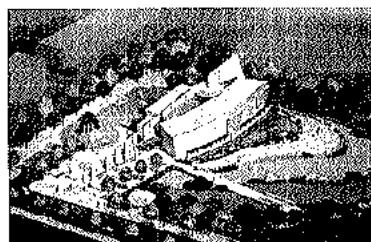
지질표본관(박물관)

Museum of Geological Specimens

한국자원연구소에서는 국내 유일한 지질 자료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지질 및 자원 전반에 대한 일반인들의 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지질표본관(박물관)건립 설계경기를 조달청에 의뢰, 실시

한 결과 총 8개작품이 응모하여 지난 96년 12월 18일 코파건축(이근홍)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우수작으로는 미래·우리·우정건축(장기성)안과 한메건축(이충기)안이 선정됐다.

▶당선작 / 코파건축(이근홍)



조감도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30번지(연구소 부지내)
대지면적	186,734㎡(56,487평)

지역지구	연구단지, 자연녹지지역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면적	1,129.21㎡(341.59평)
연 면 적	2,465.23㎡(745.73평)
건 폐 율	0.60%(기존건물제외)
용 적 륜	1.04%(기존건물제외)
용 도	전시시설
사업기간	96. 10~98. 12 (설계 및 시공)
추정공사비	4,100,000,000원
주차대수	40대 방문객용 : 27대

버스용 : 5대

직원용 : 9대

배치 계획

- 주진입로와 전시공간사이 전이공간을 두어 진출입시 유기적인 흐름을 유도
- 외부전시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 - 교육의 장 확대
- Open Space를 확보하여 휴게 및 녹지 공간을 형성
- 외부동선과 단지내 동선의 연계성을 고려
- 기존 단지와의 조화를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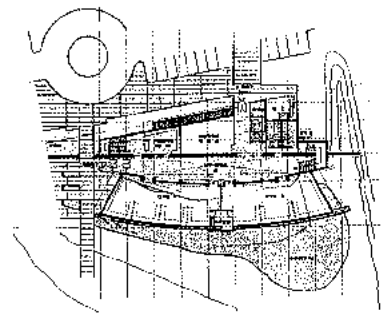
평면계획

- 전시실 계획
 - 다양한 전시가 가능한 규모(10m×49m)
 - 필요에 따라 개폐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용통성 확보
 - 전시부분을 서비스 부분과 분리 : 전시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외부 전시장과 시각적으로 연결 : 전시의 확장성 제고
- 코아 계획
 - 상하부 전시동선의 원활한 연결 → 연결계단
 - 수장품의 운반을 돕기 위한 화물용 Elev 설치
 - 장애인, 노약자의 수직 이동을 돕는 Elev 설치
- 표본 수장고
 - 자상면적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지하 수장고 계획
 - 전시물의 온도·습도를 방지하기 위한 항온 항습설비 도입
 - 전시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반하기 위해 Elev에 인접하여 계획
- 표본제작실, 작업실, 실험실, 사무실
 - 소규모이거나 단기간 보관하는 전시물의 보관 및 가공 장소
 - 별도의 공조설비 도입
 - 표본 수장고와 함께 Elev에 인접시켜 각 실간의 원활한 연락체계 수립
- 영상실, 홍보실
 - 전시물에 관한 사전교육
 - 지질과 자원에 관한 시청각교육기능

· 전시실과 동선을 연결하여 교육·홍보효과에 극대화를 꾀함.

- 기계·전기실

- 전시실 등 각 공간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
- 향후 증축 등 변화되는 조건에 용이하게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공간 확보



1층 평면도

중랑구 실내체육관

Chungnang Sports Center

서울시 중랑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들의 체육시설 확보요청에 부응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실내체육관을 효율적으로 건립하고자 설계 경기를 실시한 결과 총 7개 작품이 응모하여 지난 96년 12월 2일 (주)미래건축(박규남)안을 최우수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우수작으로는 (주)중일건축(이병욱)안이, 기작으로는 공연건축(강석후)

안이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작에게는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이, 우수작에는 상금 5백만원, 기작에게는 상금 3백만원이 각각 주어지며, 이번 설계경기의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김강수(고려대 교수), 김해정(명지대 교수), 신범식(시립대 교수), 홍갑표(연세대 교수), 문숙경(에문건축 소장), 임장렬(성림건축 소장), 최종철(종현건축 소장)

▶ 당선작 / (주)미래건축(박규남)



조감도

위 치	서울시 중랑구 묵동 22번지
대지면적	3,248.2㎡
연 면 적	5,853.44㎡
건축면적	1,464.45㎡
건 폐 율	45%
용 적 륜	101.8%
구 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철골트러스+스페이스 프레임
층 수	지하 2층, 지상 3층
외부마감	화강석버너구이, 화강석물갈기, 화강석흑두기, 120D㎜불소수지코팅알미늄후레임, 18㎜파스텔컬러복층유리

배치계획

- 중앙부 동선축을 중심으로 좌측은 교육 등 관리기능 및 교육기능을 위한 정적인 동선과 우측은 수영장장과 농구장등 주로 액티브한 동선으로 분리하였다.
- 부정형 대지형태에 따라 기능별로 건물 군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사실상 이용 목적에 혼선이 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 건물군의 불균형배치로 깊이를 다르게 하여 주변건물과의 수평적 요소에 변화를 주었다.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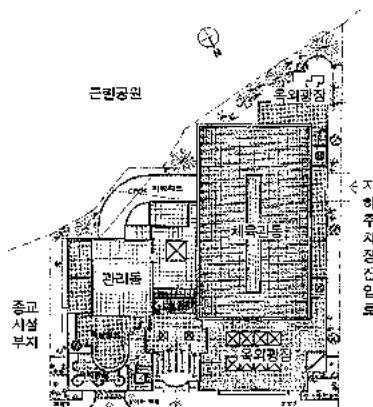
- 체육시설과 주민교류의 장인 근린시설로 양분된 계획은 넓은 홀과 자연채광을 적극 도입하여 시설이용자의 쾌적감을 증폭시키도록 노력하였고 서비스코아의 공동사용으로 분산과 통제가 용이하고 경제적 건물이 되도록 고려하였다.
- Span과 자중을 고려하여 수영장을 체

육관지하에 위치하였고 천창을 최대 활용하여 자연채광을 유입하였으며 피난을 고려하여 계단의 분산배치와 각종 부대시설을 근접배치하여 이용에 편의를 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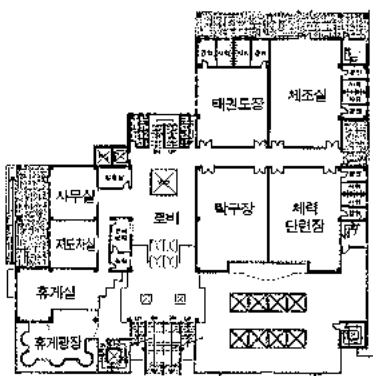
- 각기능별로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운동전후 여유시간을 고려하였고 1층에 광장과 연계된 종합휴식공간을 두어 이용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쾌적하고 여유있는 체육관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 1층에는 상하부가 Open된 넓은 중앙로비를 중심으로 좌측에는 관리실 및 지도자교실과 우측에는 생활체육과목인 태권도실, 탁구실, 체조실, 체력단련실 등을 배치하여 비교적 빈번한 이용을 고려하였고 각기능별로 강의 및 샤워시설을 설치하였다. 또, 외부광장과 발코니 등을 활용하여 개방감을 확보하였다.

- 3층에는 Open로비를 중심으로 좌측에는 다목적소강당을 설치하여 각종 주민행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우측체육관상부는 외주부로 중층을 만들어 조깅트랙을 계획하였다.



배치도



1층 평면도

▶우수작 / (주)중일건축(이병욱)



조감도

위 치	종량구 묵동 22번지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3,248.2㎡
도로현황	10m 도로
건축면적	1,442㎡
연 면 적	5,792㎡
건 폐 율	44.39%
용 적 륜	87.79%
구 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층 수	지상 4층, 지하 1층
주요마감재	화강석, 칼라목충유리, 유리부력
주요설비	냉·난방 공조설비(단일덕트 정풍량방식+팬코일유닛)

현대인의 생활패턴과 여가이용의 의식변화에 따른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교육, 문화, 생활체육 등 다목적 문화체육시설로 개방적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주민과 행정을 이어주는 문화, 쉼터의 가교적 건물이다.

기능의 합리성, 경제성, 조형적 상징성을 고려하여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이용하고, 주변 신도시와의 조화를 이루며 도시의 연속성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주변부지 및 환경과의 연계에도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계획에 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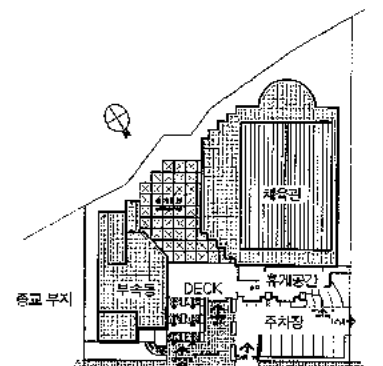
전면도로와 약 3m의 고저차가 있는 사다리꼴의 부지로 계획하는 시설규모에 비하여 대지면적이 다소 협소한 관계로 인공적 Deck광장을 계획하여 동선의 함유 분산이 용이도록 Concourse 및 휴게공간을 구성하고, 다용도 기능의 시설물에서의 사용빈도를 예측하여 각 기능간의 연계 및 분리사용이 가능토록 독립적 기능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구성을 하였다.

진입과정에서부터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하여 일사다종이 이용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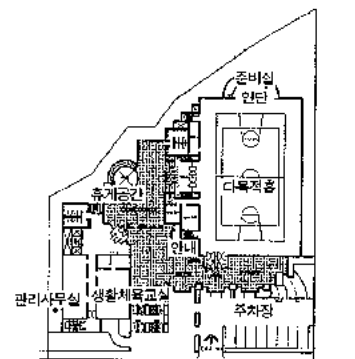
때의 Panic현상을 배제하고, 필요시 인접한 도서관의 주차장을 공용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구상하고 수직, 수평의 원활한 순환동선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부지배면에 위치한 봉화산자락의 흐름을 분절시키지 않는 대지조성을 계획하여 자연식재의 연속적 흐름의 조경계획을 하고, Mass의 분리 변화로 중압감을 배제하며 기능별 Identity를 부여한 형태계획을 유도하였다.

용도의 변화 및 시설의 확충 등에 가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평면계획을 하고, 장스팬이 요구되는 다목적Hall의 구조는 프리프렉스Beam과 철골트러스구조로 계획하여 구조의 단순화, 경량화를 통한 경제성을 고려하여 계획 하였다.



배치도



1층 평면도

강서구 교통관련 통합청사

Kangseo Traffic Administration Building

▶ 당선작 / 우리건축(김용연) + 티·옌건축(김석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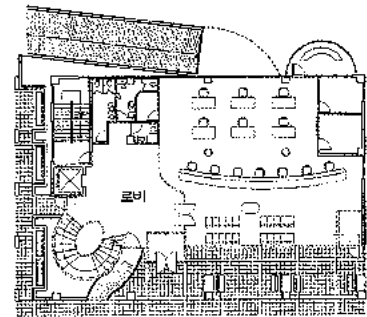
투시도

대지위치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1488-9호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948.90㎡
건축면적	437.00㎡
연면적	3,612.28㎡
건폐율	46.05%
용적률	253.92%
층수	지하 2층, 지상 6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27.1m
외부 마감	화강석 물갈기, 알미늄 쉬트 판넬
설비	온수 방열기, 공냉식팩키지 국부냉방
주차대수	24대

이 건물은 강서구 교통관련 업무를 위한 시설로 계획된 것이다. 하지만 공공 건물로서 단일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사의 기능보다 공공의 사무실과 은행 및 일반 임대사무소로 쓰이는 사무소 건물이다. 공공업무 공간의 수요 외에 규모를 좀 더 크게 하여 여분의 공간을 임대할 목적이다. 그래도 이 건물에서 공공의 성격을 벗을 수는 없을 것이다. 관공서 건물은 일반 건물과 다른 몇가지 특성을 갖게 된다. 일반 건물이 사용자의 투자 수익에 얽매어 법에 정해진 건폐율 및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려 하므로써 건물이 도시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별로 없게 된다면 공공 건물은 그러한 목적들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

공공의 편의와 도시에의 기여를 생각하게 된다. 즉 토지가 공공 이용에 제공되어 보행인 및 지역 주민들이 접촉하는 장소로서 기능을 갖게 한다든지 일종의 랜드마크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배치 계획에서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지역의 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외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주차는 모두 내부주차로 하고 파고라 및 조경에 의한 그늘조성과 벽면에 상쾌한 물의 느낌을 느끼며 쉴 수 있게 하였다. 차량진입은 건물의 좌측 8m 도로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 보행자 동선은 차량 동선과 분리하여 주도로에서 보행광장을 통해 주 출입이 되게 하고 측면 도로에 부 출입구를 두어 이용자가 출입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1층 은행과 2층 교통 민원실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동선량이 크

므로 많은 사람의 운집에 대응하는 홀을 두고 1,2층간 이동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오픈계단을 설치하였다. 지하 1,2층은 주차장 및 관리 수납시설을 두고 3,4층은 교통청사 사무실 5,6층은 임대 사무실을 두었다. 그리고 지붕에는 옥상 정원을 설치하고 벤치와 파라솔을 두어 그늘을 제공하였다. 외관은 단순한 윤곽의 솔리드한 매스와 지붕 파라솔과 저층부 피로티 부분의 보이드한 부분이 조화되게 하려 했다. 그리고 전면의 일부를 커튼월 처리하여 면 안에서의 균형을 추구하였다. 사람들에게 외부 광장에서 여유가 느껴지고 옥상정원의 수목이 생동하여 파라솔 그늘에서의 휴식이 즐겁게 되었으면 한다.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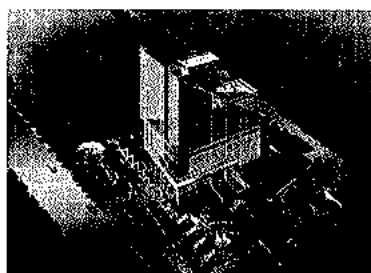
광주도시철도 종합사령실

Kwangju Subway Headquarters

광주시는 광주 도시철도의 종합운영관리를 위한 종합사령실 건립을 위한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하여 지난 96년 11월 1일, 토문건축(한남수+신동훈)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총 5개 작품이 응모한 이번 설계경기의 우수작은 유지건축(김유지)+SQ디자인

설틴트(강장완)안이, 가작은 한국종합건축안이 각각 선정됐다. 당선작에게는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이 부여되었고, 우수작에게는 상금 1천만원, 가작에게는 상금 5백만원이 각각 수여됐다. 본지에서는 당선작과 우수작을 게재한다.

▶ 당선작 / 토문건축(한남수+신동훈)



조감도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마곡동 165-7
대지면적	12,500㎡
지역지구	생산복지지역, 5종미관지구
건축면적	2,477.22㎡
연면적	24,010.29㎡
건폐율	19.58%

용 적 륜 131.33%

규 모 지하 2층, 지상 10층

하늘, 땅, 주변, A Being

남측 양지의 푸르름,

펼쳐짐 그리고 A Being

전면 고속화도로의 분주함 그리고 A Being

주변 스케일의 광대함 그리고 A Be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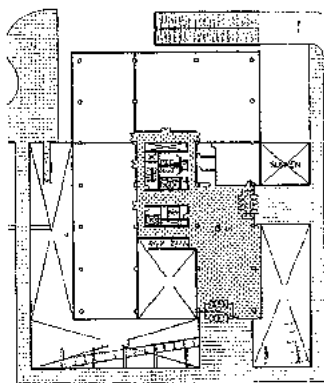
신시가지 질서의 정연함 그리고 A Being

지하철도, 땅, 땅속 그리고 A Be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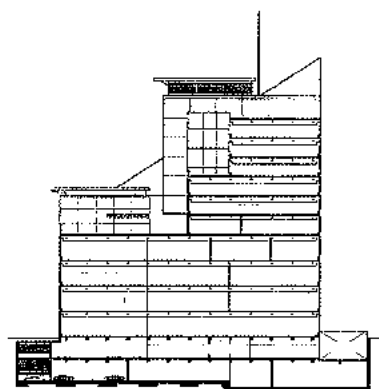
사령실의 긴장, 진지함 그리고 A Being

사령실의 무게 그리고 A Being

문명 그리고 A Be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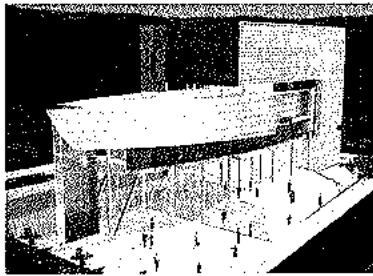


1층 평면도



횡단면도

▶우수작 / 유지건축(김유지) + SQ디자인컨설턴트(강장완)



조감도

건축면적 2,458㎡
연 면 적 23,546㎡
건 폐 율 19.7%
용 적 륜 140%
규 모 지하 2층, 지상 8층

구 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주요외장재 알루미늄 판넬, 화강암

설 계 팀 원종훈, 오명신, 서재우, 박민진, 김형태, 김형중, 강운

첨단시스템의 중앙통제 기능을 모이둔 종합사령실의 타원형 매스와 단순사무 기능을 위한 운영사무실의 상자형 매스가 주는 대비감이 도시철도의 힘과 속도를 느끼게 한다. 터널 속을 질주하는 열차의 상징, 은유적 기능성과 종합사령실의 기능적 특수성을 건축적 언어로 발전시켰다.

나주상징문

Naju Symbolic Gate

나주시는 나주광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나주상징문 설계경기를 실시하여 유지건축 + SQ디자인컨설턴트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육교형 관문을 설계경기를 통해 공모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이번 설계경기는 전체사업의 1단계로써 추진되어 오는 12월 준공될 예정이며, 2단계로써 공연장, 이벤트홀, 정보센터, 체육공원, 산책로 등이

99년 3월경 마무리될 예정이다. 총 9개 작품이 접수된 이번 설계경기의 우수작은 삼풍건축 안과 삼강건축 안이 각각 선정됐으며,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부시장(위원장), 강건희(홍익대), 황영성(조선대), 남기봉(동신대), 김왕현(동신대), 유재균(전남대), 김인영(조선대), 신영호(대전산업), 전진환(운영위원), 신영차(개발단장), 김춘식(시의원)

▶당선작 / 유지건축(김유지) + SQ디자인컨설턴트(강장완)



조감도

위 치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나주광장부지 내 8차선도로
지상높이 12m(육교 상판 6.3m)
주요외장재 철골, 스테인레스패널, 알루미늄, 패널, 강관파이프, PC 강봉

설 계 팀 원종훈, 오명신, 서재우, 김형태, 강운, 박민진

나주 상징문디자인은 나주배에 날개를 달아주려는 꿈에서 시작되었다.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석축은 나주를 찾은 이에게 천년 묵사고을의 시간과 공간의 깊이를 느끼게 하며, 상징문에 육교와 누각의 기능을 더하여 계획된 나주광장의 중심이 되게 하였다.



정면도

Architectural Record

The Architectural Review

Architecture

Domus

건축문화

A+U

신건축

Architectural Record

96년 12월호

96년 12월호는 건물 종류에 따라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는 〈연속기획〉을 통해 기업들의 사무



실과 제조공장을 합친 새로운 작품물을 살펴보고, 아울러 기술변화와 연구개발비의 감소로 변모하고 있는 연구실 설계의 동향을 소개했다. 또한 1996년의 우수 건축관련 상품들을 총망라해 놓았다.

연속기획 - 기업 업무복합 건물

오늘날 기업들의 업무에 있어 디자인, 판매, 공정관리 등 본사의 업무와 제조공정의 경계가 점점 사라짐에 따라 새로운 건축분야가 활성화되고 있다.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소위 "지식기반산업"들이 이러한 경향을 이끌고 있는데, 기업의 각 업무간 시간적, 공간적 단절을 줄이기 위해 모든 업무시설들을 모은 복합건물군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들 기업건물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더불어, 회사를 대표하는 이미지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미시간 Miller SQA

저렴한 유지비를 추구하는 디자인으로 잘 알려진 William McDonough는 이 가구제작전문 기업의 본부로 대지에 길게 펼쳐진 복합건물을 제시하였다. 볼트 지붕은 그 사이로 내부에 빛을 도입하여 식당이나 실내운동장 등의 공공시설을 밝혀주며, 이를따라 나있는 복도를 통해 각 부문의 직원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게

하였다. 조경건축전문 Pollack Design Associates에 의한 조경은 기업의 기능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자연적인 경관을 잘 살린 예를 보여준다.

▶캘리포니아 3Com Building 500

이 컴퓨터회사는 급변하는 과학기술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기업을 부각시킬 수 있는 건물군을 요구했으며, Studios Architecture는 그것을 제공했다. 프로그램의 유동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방형의 건물에 첨부된 휴식공간들은, 자연광을 도입하고 개방적으로 만듦으로써 직원들의 자유로운 만남의 장으로 기능한다.



캘리포니아 3Com Building 500

그 이외에 ▶Studios Architecture가 설계한 캘리포니아 Northern Telecom 본사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며, ▶Thompson, Ventulett, Stainback & Associates의 조지아 Prince Street, ▶Studios Architecture의 Silicon Graphics 본사, Fore Systems 본사, Backen Arrigoni & Ross의 Sun Microsystems 본사, Bottom Duvivier의 Hewlett Packard 본사 등 컴퓨터관련 기업들의 복합건물군이 소개되어 있다.

연구실 건축

카네기 멜런 대학의 지하연구실은 기술변화와 연구개발비의 감소로 변모한 연구실 설계의 좋은 예를 보여준다. 개방된 구조와 가구 배치로 연구원들간의 교류를 도모하고, 노출된 설비들은 시공비를 절감함과 동시에 요구 변화에도 유동성을 가질 수 있다. 기능성, 안전성을 도모한 기타 설비들의 배치는 연구환경을 더욱 개선시키고 있다. 아울러 1995년의 모범연구소 건축 투표에서 입상한 18개 연구소들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

1996년 건축관련 상품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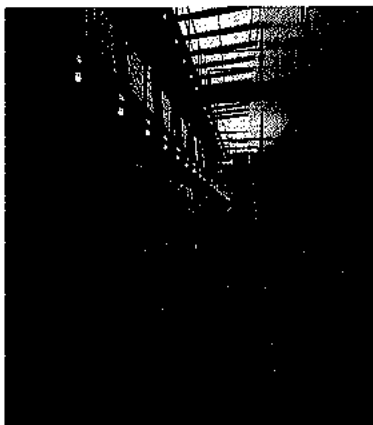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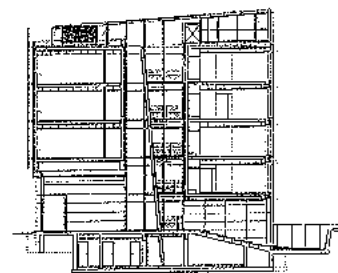
각종 시공재료에서부터 문, 가구, 싱크대, 조명기구 등 1996년의 우수 건축관련 상품으로 선정된 상품들과 구입 연락처가 소개되어 있다.

The Architectural Review

96년 12월호

96년 12월호는 유럽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의 건축에 관하여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The Architectural Review지와 코필드가 공동개최한 사진전의 입상작들을 소개하였다.



건축가의 집(Headquarter) / Nielsen, Nielsen & Nielsen/

덴마크 코펜하겐 건축

코펜하겐은 19, 20세기에 지어진 건물들로 이루어진 비교적 젊은 도시이면서도 그 동안의 역사적 변화를 잘 축적해왔다. 도시전체에 남아있는 다양한 양식들은, 초인간적 스케일의 건축물들이 들어서는 오늘날에도 도시전체의 인간적인 느낌을 보존해 주고 있다.

▶Henning Larsens Tegnestue의 Ny Carlsberg Glyptotek 박물관 증축안은 정제된 재료와 명확한 형태를 통해 19세기 건물을 성공적으로 부활시켰으며, ▶Nielsen, Nielsen & Nielsen이 설계한 건축가의 집은 덴마크 건축사협회가 직접 투자하여 설립한 것으로 철재와 유리의 현대적 사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난파선과 같은 복잡한 형태를 띤 Søren Robert Lund의 코펜하겐 현대미술관은 재료들의 독창적인 사용과 복합적인 공간구조를 보여준다.

그 외에 ▶KHR AS Arkitekter의 사무실 계획안 ▶Tegnestuen Vandkunsten의 쇼펄물, ▶Vilhelm Lauritzen의 홀멘 건축학교, ▶Bornebusch Tegnestue의 산림연구소, ▶Korshagen Arkitekter의 예술회관 등이 소개되어 있다.

인테리어 디자인

▶코펜하겐의 오래된 공장을 개조하여 사무공간과 작업실로 변모시킨 Knud Holscher의 디자인을 비롯해, 낙후된 건물의 재사용에 대한 성공적인 예를 동경과 런던에서도 찾아보았다.

기타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가구 상품들, ▶독창적인 디자인을 보여주는 d line international의 손잡이, 화장실 설비 제품들, ▶과거의 모습으로 복원된 코펜하겐의 시청 광장 등이 소개되어 있다.

Architecture

96년 11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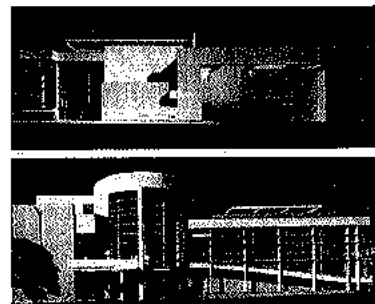
11월호는 대학이나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최근의 미술관, 박물관들에 대한 특집으로, Richard Meier, Cesar Pelli 등의 신작이 소개되어 있으며, 고 Pietro Belluschi 미술관 증축안, 미술관에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등을 다루고 있다.



미술관 건축

미술관, 공연장 등 예술관련 건축은 옛부터 문화적 성취도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근래에는 경제적 번영, 관광산업 개발, 도시 제철성확에 있어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James/Snow Architects가 설계한 미네소타 어린이박물관, ▶Carlos Jimenez의 W.L.S. Spenser 예술회관, ▶Richard Meier가 설계한 베버리힐스의 텔레비전 라디오 박물관



베버리힐스의 텔레비전·라디오박물관 (Richard Meier 作)

▶Ralph Appelbaum의 휴스턴 홀로코스트 박물관 ▶Cesar Pelli의 오하이오

아로노프 예술회관 등을 소개하였다.

▶미술관이나 박물관 신축이 급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이들 건축은 아직도 건축의 예술적 의미가 고려된다는 점에서 건축가들에게 강한 매력을 준다. 뉴욕의 Annabelle Selldorf, Richard Gluckman, 로스엔젤레스의 Frederick Fischer는 이 분야를 전문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다. 아들의 설계는 극소적이면서도 결코 중립적이지 않은 공간계획을 이루므로써 큐레이터의 개성이나 전시계획의 다양성에 부응하고 있다.

의견 - 건축가의 언어에 의한 표현 능력에 대하여

(글 : Stephen A. Kliment)

건축가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글짓기를 감당해야만 한다. 제안서, 계획서, 계약서, 보고서, 또 인쇄매체가 요구하는 글에 이르기까지 건축가가 써야하는 글은 너무나도 많은 것이다. 하지만 건축가들의 글솜씨는 형편없고 개선될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 건축가의 긴 교육 과정에는 글 잘 쓰는 법에 대한 과정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글 대신에 시각적으로 표현할 것을 요구할 뿐이다.

건축가로서 글을 잘 쓰지 못한다는 것은 치명적이다. 그것은 프로젝트를 말느나 못마느나의 중요한 문제를 판가름하는 것이다. 글솜씨는 말솜씨와도 연관이 되며, 어려운 건축적 표현들을 동원하여 건축주를 설득하려 하는 것은 대부분 실패하기가 쉽다. 그들 앞에서 자신도 모르는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들에게 신비감을 주므로써 프로젝트를 얻도록 해줄 수도 있지만, 자신에게나 건축가 전체에게 대단히 위험한 모험이다. 건축주는 상식은 있지만 건축, 철학용어에 대해서는 무지한 일반인들인 것이다.

건축 평론, 출판계도 마찬가지이다. 벤헨이나 스킨리와 같이 이론을 쉽게 표현한 사람들도 있는 반면, 대부분은 어렵거나 새로운 표현을 사용하며 철학계 등 외부의 침입은 그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여기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요약, 정리하여 전달하고, 짧고 쉬

운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건축교육계, 평론계, 출판계, 그리고 직업사회 모두가 여기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현대 경쟁사회에서 이기기 위해서, 건축가도 언어표현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기타

▶Ann Beha Associates에 의해 실행된 고 Pietro Belluschi의 포틀랜드 미술관과 클라크 예술회관 증축안 계획, ▶맨하탄 공원계획 설계경기의 결과, ▶런던에 시공될 Richard Rogers, Norman Foster, Zaha Hadid의 하이테크건축물 계획안, ▶개원 25주년을 맞은 디즈니월드의 모습 ▶음향 설계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신상품으로 오티스 사가 얼마전 발표한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등을 다루고 있다.

Domus

96년 11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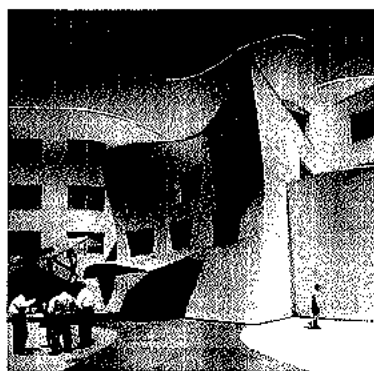
11월호는 진지한, 심각한, 예술로서의 건축의 다른 면인 유희적인 건축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디즈니가 이러한 경향에 미친 절대적인 영향과 더불어, 일반 예술계에 이미 파급되어 있는 디즈니 신드롬의 각종 유형을 살펴본다.

프로젝트 - 디즈니 신드롬

디즈니 신드롬은 사실 요즘 더욱 기세를 떨치고 있는 오락적인 건축 경향을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건축계에서는 이러한 건축을 아직은 의미있게 바라보고 있지

는 않다. 디즈니는 "건물이 꼭 따분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었는데, 이제 디즈니월드의 건축물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네러티브 건축의 모습을 거의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더이상 아이들을 위한 것으로 간파되어서는 안된다.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 이러한 건축물들은, 사실 도시와 더불어 근대성을 대표했던 박



캘리포니아 팀 디즈니 빌딩



람회의 역할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Arata Isozaki의 플로리다 팀 디즈니 빌딩, ▶Frank O. Gehry의 캘리포니아 팀 디즈니 빌딩과 디즈니 아이스 센터, Venturi, Scott Brown의 플로리다 소방서와 주유소, Robert A.M. Stern의 캘리포니아 만화영화 회관 등의 디즈니 건축물을 자세히 다루었다.

라스베가스에서 다시 배우며

"라스베가스에서 배우며"의 Robert Venturi, Denise Scott Brown이 25년만에 다시 라스베가스를 방문하였다. 라스베가스 거리는 라스베가스 대로로 도시화 되었으며, 사인으로서의 거대한 간판들은 사라지고 건물전체가 사인이 되었다. 이미지는 더 이상 놀라운 것이 아니라 편안한 것이 되었고, 자동차를 통한 인식보다는 도보를 통한 인식이 더 비중있게 되었다. 거리는 이제 하나의 쇼핑몰이 되었으며, edge city로 나아가고 있다.



기타

디즈니 신드롬에 대한 논의의 연장으로 ▶유희의 오브제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Stefano Giovannoni, Guido Venturini의 작품소개 및 인터뷰, ▶건축과 그래픽 디자인의 '환상적인' 조합인 일본의 테마공원 아쿠아리토, ▶가상현실을 이용한 오락산업, ▶팝아트 조각품, ▶로스엔젤레스의 독창적인 형태의 건물들과 그 지도가 개제되어 있다. 그 외에 ▶Frank O. Gehry 작품집, Rem Koolhaas의 S,M,L,XL, Mario Botta CD-ROM 등에 대한 개설이 실려있다.



캘리포니아 디즈니 아이스센터

건축문화

97년 1월호

이번 호에서는 '모던 스트럭처의 탐험'이라는 주제로 근대 이후에 나타난 철, 콘크리트, 나무, 막 구조에 대해 작품의 예를 들어 다루고 있으며 ▶안토니오 가우디 ▶마스 반 데르로에 ▶르 꼬르뷔제 ▶겐조 당게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루이스 칸 ▶에로 사아리넨의 구조 디자인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

모던 스트럭처를 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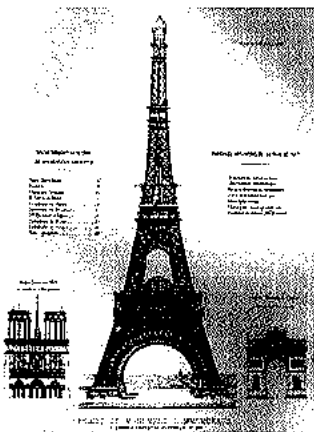


-鐵, 콘크리트, 木, 膜

▶鐵 -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은 철의 기술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건설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17, 18세기는 공업적인 鐵鐵이 양산에 적합하고 가소성에서도 우수한 주철로 대체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주철기술은 다층의 공장이나 창고, 상점, 다스팬의 시장이나 주차장, 교량 등의 구조에 도입되어 다층의 골조, 트러스나 아치 등의 구조방식에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조셉 펙스턴에 의한 역사적 구조물인 1851년의 런던 크리스탈 팰라스의 특징은 구조형식이나 스패의 크기에서 보다 주로 그 경제성과 공사의 속도의 빠르기에 있었다. 19세기 후반에는 철강구조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2개의 발전이 있었는데, 그 하나는 19세기 전반부터 발전되어 왔던 구조역학의 이론과 실험이 하나의 정력학 체계로 통합된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압연동철 내지는 압연강의 용접기술의 발전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술과 공업의 진전과 보조를 같이하여 역사, 마켓과 같은 다스팬을 갖는



에펠탑

아름다운 건물들을 등장시켰고 이러한 성과를 표현한 것이 1889년 파리박람회와 기계관과 에펠탑이다. 소개된 22개의 작품을 통해 철을 이용한 아치, 트러스, 돔, 하이 브리드, 텐션, 리지드 프레임, 셸구조를 선보이고 있다.

▶콘크리트 - 철근 콘크리트는 금세기 초기에 사회적으로 인지도된 신재료이다. 무근 콘크리트로부터의 콘크리트의 발전 단계를 보면 시기별로 크게 4단계로 나

눌 수 있다. (1)무근 콘크리트법의 萌芽期, 정체기(고대-중세); 기원전의 천연 시멘트에 의한 모르타르 공법과 콘크리트 공법, 로마인들의 콘크리트 공법, 로마네스크·고딕 시기의 정체기 (2)무근 콘크리트공법의 부활기(18세기 중기-19세기 전기); 고대 콘크리트법의 부활, 인공 시멘트의 개발 (3)철근 콘크리트공법의 萌芽期(19세기 중기-후기); RC부재의 여명, RC아론의 여명 (4)철근 콘크리트공법의 伸展基(20세기 전기); RC설계 기준 마련, 콘크리트 강도의 예측가능 등 RC공법의 기술적 기반이 비약적으로 발전. 오귀스트 페레의 프랭클린가의 아파트를 시작으로한 14개의 작품소개를 통해 리지드 프레임, 아치, 돔, 셸, 플랫 슬래브 구조를 선보이고 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나무 - 현재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대공간 구조에 목구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 다양한 형태로 추고되고 있다. 여태까지의 대공간 구조에 목구조를 사용하는 방법은 트러스였는데 이제는 하이브리드의 형태로 진행되어지고 있다. 목구조의 대공간구조에의 응용의 폭은 광범위하여, 나무가 갖는 독특한 공간성, 가능성은 무한하다. 그러나, 재료의 천연적인 약점이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집성재의 활용이 주목받고 있다. 이 집성재의 등장은 의외로 오래되어 1893년 스위스 바젤의 콘서트홀에 건설된 40m스팬의 3한지 아치에서였다.

3개의 작품을 통해 빔과 트러스 구조를 선보이고 있다.

▶막 - 근대에 있어서 막구조의 발전은, 신재료와 새로운 구조 시스템의 개발에 의해 이루어진 점이 많다. 그중 주요 것들을 열거하면 ①Frei Otto(독)에 의한 초기장력을 도입한 최소곡면과 동장력곡면의 막구조, 즉 격자 셸구조의 개발 ②주구조부재에 케이블을 이용한 Fritz

Leonhardt(독)의 교량기술과 Otto의 막구조 기술의 조합에 따른 케이블 넷 보강막구조 ③Walter Brid(미)의 고라이즈 레이터 돔 개발 ④David Geiger(미)의 저라이즈 케이블 보강 공기막구조와 케이블과 폴라임 서포트의 조합에 의한 케이블 돔구조의 개발 ⑤PVC코팅을 한 폴리에스테르 등의 신소재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Otto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소개된 3개의 작품은 뉴메릭, 서스펜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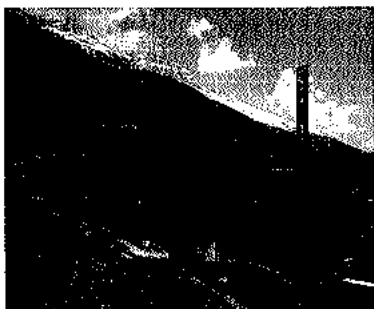
97년 1월호

이번 호에서는 건축가
▶ Peter Zumthor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그의 에세이와 5개의 작품,



드로잉 등을 선보이고 있다. 그 외
▶ Jean Nouvel의 작품과 ▶ James
Carpenter의 6개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 연재물로 '전후의 현재주택' 제
1회 분 칸.타다시.오오시마의 '1950년
대를 보다 - 현대주택을 만들어낸 것/
Maynard Lyndon House'가 실렸다.

특집 - Peter Zumthor



성 베네딕트 교회(스위스, 1987~89)

'The Body of Architecture - Observation'이라는 제목의 그의 에세이('Form Follows Anything'이란 심포지움을 위한 강의원고)에선 자신이 경험했던 건축적 경험을 통해 자신의 건축관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유행에 민감한 건축에는 별 관심이 없으나 그러한 작품에서도 유쾌한 공간을 찾아냈을 때의 기쁨을 열거하고 있으며 과거의 것과 현재의 것의 절묘한 만남을 가진 건물들(증축된 건물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인체에 대한 그의 관심은 개인의 아이덴티티의 표현물로서이며 동시에 그를 표현하기에 신체가 갖는 아이러니컬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어느 작가의 건물사진을 보고 평면적이고 카드보드된 모형사진을 보는 것 같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너무나도 유명한 작가의 것이었다고 하는 대목은 그의 시니컬한 면모도 보여주고 있다. 그는 Meret Oppenheim의 말로 끝을 맺는다. "효과적이라면 어느 아이디어도 폼(form)을 가져야 한다."

소개된 그의 작품들은 ▶성 베네딕트 교회(스위스, 1987-89) -보트와 같은 모양을 한 이 교회는 그 지방 모교회의 이미지를 딴 것으로 그것은 안심감, 부드러움, 침착, 명상이다. 목상과 생명의 공간이기도 하다. ▶로마시대 유적을 위한 쉼터(스위스, 1985-86) -로마시대의 건물 2개동의 기초와 그 모서리 부분만 남은 1개동의 유적에 대한 보호를 위한 건물이다. 목조를 이용하여 목재 부재간에 간격을 두어 걸려진 빛과 외기가 실내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Atelier Zumthor(스위스, 1985-86) -1층에 가든룸, 2층에 설계실, 지하에 서고를 배치한 그의 아뜰리에에는 지상층은 목조로 이루어져 주변의 공예가나 농가의 목조건축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오브제로서 목재를 다루고 있다. ▶Masans의 노인주택(스위스, 1992-93) -기존의 건물과 이 새로운 건물은 개방적인 정원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신.구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건물은 퍼블릭과 프라이빗한 공간의 분리에서도 뛰어난 면을 보이고 있다. ▶쿠르 미술관 연결통로(스위스,

1987-90) -1876년에 건설된 빌라와 1940년대에 건설된 자연사 박물관 모두가 현재 미술관으로 사용되면서 연결 통로가 필요하게 되었다. 빌라의 양식이 동양의 영향을 받은 것이어서 작가는 일본 목조건축을 참고로 하였다.

그 외에 ▶Jean Nouvel의 갤러리 라파엠티(독일, 베를린, 1996)는 실내공간에 바로선 것과 거꾸로된 원추모양의 공간을 포함시켜 이를 유리로 에워싸 화려한 내부연출을 하고 있으며 ▶빛과 구조에 의한 연출을 하는 James Carpenter의 여섯 작품들 -CTS 구조적 유리프리즘(미국, 인디애나 폴리스, 1987), Spectral Light Dome(미국, 오레곤, 1987), Sphere - 10개의 커다란 원 (1992), 편광하는 빛의 장(미국, 뉴욕, 1995), Reflective Glass Wall(미국, 호놀룰루, 1996), Pedestrian Bridge(독일, 브레메르하벤, 1996) - 이 소개되었다. 그의 작품들은 빛의 굴절과 반사를 이용한 효과를 통해 환상적이고, 경쾌하며, 신비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효과를 내는 유리 프리즘들은 구조와 엮물려 어색한 연출이 되지않게 하고 있다.

신건축

97년 1월호

이번호에서는
▶ 福岡대학 60주년
기념관, 파
라폴스 체육
관, 長岡 리
락홀, 마루치
미디어 공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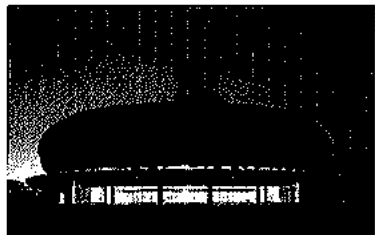


등 14개 최근 작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 특집에서는 '長野(나가노) 1998'이라
는 제목으로 제18회 동계올림픽경기장 시

설들을 소개하고 있다. ▶특별기사에서
는 '96 Architecture of the Year 비평
이 ▶건축논단에서는 'The Asian
Architect - 아시아의 건축가와 건축에
대하여'가 ▶연재물로 '제도판 없는 설
계실④ - 日建設計.東京판이 실렸다.

특집 - 長野 1998

특집에선 1998년 2월 7일서부터 16일
간 長野시와 그 부근에서 개최되는 제
18회 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주요시설들
이 소개되었다. 소개된 시설들은 ▶M자
의 형태를 중첩시켜 놓은 듯한 외관을 지
닌 長野市 올림픽기념 아레나-M웨이브
(久米 外 5개 설계사무소). 이는 '돔 건
축'에의 결별을 선언하고 나섰다. ▶종합
스포츠 아레나 화이트 링(日建設計)은
메인 아레나와 서브 아레나로 구성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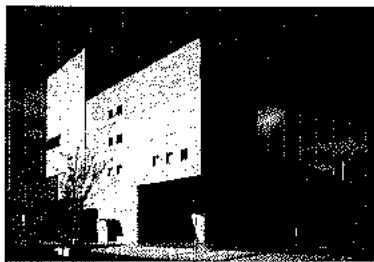
나가노 아레나 화이트링 종합스포츠관

졌으며, 메인 아레나의 돔은 6분할 페러
렐 라메어로 지붕의 고면을 분할하여 부
재를 배치하고 있다. ▶南長野운동공원
다목적 경기장 내야 스탠드(주택·도시
정비공단 類설계실)는 운동공원 내에 위
치한 내야만을 갖는 독특한 모양의 스탠

드로서 자연과 和(일본)의 축제공간-벚
꽃밭에서의 모임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다목적 스포츠 아레나 Big Hat
(山下設計.長野設計共同企業)은 올림
픽 기간중에는 아이스하키A 경기장으로 사
용되다가 그 이후에는 각종 운동경기, 콘
서트, 전시회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
으로 쓰인다. 이는 국제컨벤션도시로 도
약하려는 長野시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
다. ▶아쿠아 링(山下設計)은 대회기간
동안 아이스하키 경기장으로 사용되다가
이후에는 수영장으로 쓰이게 된다. ▶그
외 전반적인 長野시의 올림픽 경기장 건
설에 관한 계획이 소개되었다.

작품

▶福岡(후쿠오카)대학 60주년 기념관
(Maki and Associates)은 학생 로비,
콘서트홀, 전시갤러리가 들어가는 복합
시설이다. 기단부에 마련된 아름다운 로



후쿠오카대학 60주년 기념관

비 위에 콘서트 홀과 전시갤러리가 위치
한다는 구성을 보이고 있다. ▶같은
Maki and Associates의 작품인 神奈
川(가나가와)대학 16號館은 삼각형의
대지에 위치해 건물의 외관은 대지의 모
양을 따르고 있으며 상부에 커다란 드럼
을 얹고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대지가
6m의 고저차가 나는 것을 이용해 땅이
낮아지는 부분에 높은 천정고를 갖는 입
구를 마련하였으며 저층부에는 회의실

이, 상층부의 드럼부분에는 대규모 홀이
위치하고 있다.

▶파라폴스 체육관(Arata Isozaki &
Associates)의 지붕의 다양한 곡면은
일본 전통 농가 주거의 지붕곡면을 연상
시키며 ▶長野리릭 홀(Toyo Ito &
Associates)은 각각 타원과 사각형의
평면을 가지는 홀의 입체를 보완한 지붕
곡면을 가지는 저층부-로비와 부속시설-
가 하나로 묶어내는 모양을 하고 있다.

연재

▶제도판 없는 설계실④ - 日建設計의 東
京본사 부대표인 小倉善明씨는 'CAD는
데이터 베이스다'라고 한마디로 요약하
였다. 컴퓨터는 단지 도면을 그리는 도구
가 아니며, 대규모 프로젝트에서의 고객
과 설계팀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꼭
필요하며, 컴퓨터의 사용은 전체 조직을
변화시키는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다.

▶TOKIO계획 1997 - 컴퓨터 테크놀러
지의 진화에 의해 현재의 우리들은 복잡
하고 랜덤한 자연의 모습을 그려내는 일
이 가능하게 되었다. 일원적인 합리를 넘
어선 다차원적인 합리의 로직에는 무한
한 가능성이 있다. '마루치 모듈러 하우스
집'은 불균등 스펠×불균등 층고×공극
이라는 심플한 룰에 의해 만들어진 복잡
하고 한없이 다양한 컴퓨터시대의 새로
운 집합주거인 것이다.

설계경기 입상작 발표

- 제23회 日新工業建築設計競技의 입선
작이 발표되었다. '도시에 사는 3세대 4
가족'이라는 과제가 주어진 이 설계경기
에서 1등은 鈴木孝男 외 2인이 당선되었
다.

〈번역 / 강성훈, 최원준〉

96년도 12월분 설계도서 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12월분 1천1백만7천1백84㎡ 보다 1.3%(1십4만6천7백27㎡) 증가한 1천1백1십5만3천9백11㎡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12월누계 1억2천3백7십5만4천8백54㎡ 보

다 2.9%(3백5십4만5천6백66㎡) 감소한 1억2천2십만9천1백88㎡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전월 11월분 1천6십3만8천2백53㎡보다 4.8% (5십1만5천6백58㎡) 증가한 1천1백1십5만3천9백11㎡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

(단위/㎡)

구분	1995년도	1996년도	증 감	비율(%)
증가지역				
대 구	749,073	1,062,624	313,551	41.9
인 천	330,571	505,960	175,389	53.1
광 주	287,817	603,968	316,151	109.8
대 전	222,355	528,347	305,992	137.6
경 기	601,296	1,212,389	611,093	101.6
충 남	103,777	229,128	125,351	120.8
전 북	202,095	272,359	70,264	34.8
전 남	97,248	146,260	49,012	50.4
경 북	227,601	368,836	141,235	62.1
감소지역				
서 울	4,851,304	4,174,616	(676,688)	-13.9
부 산	1,047,339	866,741	(180,598)	-17.2
강 원	224,083	169,948	(54,135)	-24.2
충 북	294,397	230,861	(63,536)	-21.6
경 남	1,689,818	710,641	(979,177)	-57.9
제 주	78,410	71,233	(7,177)	-9.2
합 계	11,007,184	11,153,911	146,727	1.3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

(단위/㎡)

용도별	11월분	12월분	증 감	비율(%)
단 독 주 택	454,030	666,656	212,626	46.8
다 세 대 주 택	226,637	261,222	34,585	15.3
연 립 주 택	115,983	115,249	(734)	-0.6
아 파 트	5,148,670	4,830,418	(318,252)	-6.2
근린생활시설	1,107,297	1,571,188	463,891	41.9
중 고 시 설	58,353	113,602	55,249	94.7
의 료 시 설	165,842	57,360	(108,482)	-65.4
교육연구시설	270,011	520,970	250,959	92.9
업 무 시 설	636,850	422,018	(214,832)	-33.7
숙 박 시 설	176,350	272,709	96,359	54.6
공 장	899,914	816,281	(83,633)	-9.3
기 타	1,378,316	1,506,238	127,922	9.3
계	10,638,253	11,153,911	515,658	4.8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12월분)

구분	1995년			1996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2,356	2,429	697,053	2,033	2,137	666,656	(322)	(292)	(30,397)	-4.4	
다 세 대 주 택	614	638	291,447	441	470	261,222	(173)	(168)	(30,225)	-10.4	
연 립 주 택	84	113	180,670	89	91	115,249	5	(22)	(65,421)	-36.2	
아 파 트	157	511	5,578,072	112	256	4,830,418	(45)	(255)	(747,654)	-13.4	
근린생활시설	2,364	2,451	1,186,423	2,839	2,921	1,571,188	475	470	384,765	32.4	
중 고 시 설	75	82	58,568	112	124	113,602	37	42	55,034	94.0	
의 료 시 설	19	22	115,441	22	21	57,360	3	(1)	(58,081)	-50.3	
교육연구시설	106	110	402,015	183	214	520,970	77	104	118,955	29.6	
업 무 시 설	114	132	444,867	133	151	422,018	19	19	(22,849)	-5.1	
숙 박 시 설	109	118	205,631	250	273	272,709	141	155	67,078	32.6	
공 장	630	836	809,750	691	927	816,281	61	91	6,531	0.8	
기 타	894	1,052	1,037,247	1,271	1,495	1,506,238	377	443	468,991	45.2	
합 계	7,521	8,494	11,007,184	8,176	9,080	11,153,911	655	586	146,727	1.3	()=마이너스

용도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12월분)

구분 용도별	1995년			1996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41,821	42,645	11,030,212	37,791	38,729	11,364,535	(4,030)	(3,916)	334,323	3.0	
다 세 대 주 택	8,180	9,125	3,929,473	7,319	7,803	4,309,675	(861)	(1,322)	380,202	9.7	
연 립 주 택	1,221	1,316	1,839,798	1,222	1,277	1,790,172	1	(39)	(49,626)	-2.7	
아 파 트	1,867	6,141	47,673,281	1,281	2,818	46,706,684	(586)	(3,323)	(966,597)	-2.0	
근린생활시설	38,298	39,630	17,796,424	36,223	37,743	17,323,153	(2,075)	(1,887)	(473,271)	-2.7	
중 고 시 설	1,258	1,422	993,063	1,189	1,360	1,090,288	(69)	(62)	97,225	9.8	
의 료 시 설	273	292	935,287	250	283	885,075	(23)	(9)	(50,212)	-5.4	
교육연구시설	1,376	1,548	3,581,178	1,381	1,546	3,875,157	5	(2)	293,979	8.2	
업 무 시 설	1,291	1,365	5,818,691	1,093	1,165	5,530,157	(198)	(200)	(288,534)	-5.0	
숙 박 시 설	1,460	1,634	2,253,143	1,741	1,865	1,818,521	281	231	(434,622)	-19.3	
공 장	9,573	13,081	14,017,108	7,824	10,400	10,966,619	(1,749)	(2,681)	(3,050,489)	-21.8	
기 타	11,632	13,955	13,887,196	11,769	13,798	14,549,152	137	(157)	661,956	4.8	
합 계	118,250	132,154	123,754,854	109,083	118,787	120,209,188	(9,167)	(13,367)	(3,545,666)	-2.9	()=마이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2월분)

구분 건축사회	1995년			1996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 울	1,893	1,895	4,851,304	1,434	1,437	4,174,616	(459)	(458)	(676,688)	-13.9	
부 산	622	929	1,047,339	431	586	866,741	(191)	(343)	(180,598)	-17.2	
대 구	1,059	1,119	749,073	413	413	1,062,624	(646)	(706)	313,551	41.9	
인 천	314	334	330,571	318	320	505,960	4	(14)	175,389	53.1	
광 주	240	273	287,817	662	762	603,968	422	489	316,151	109.8	
대 전	198	201	222,355	306	311	528,347	108	110	305,992	137.6	
경 기	914	981	601,296	1,800	2,077	1,212,389	886	1,096	611,093	101.6	
강 원	384	399	224,083	392	427	169,948	8	28	(54,135)	-24.2	
충 북	313	377	294,397	300	396	230,861	(13)	19	(63,536)	-21.6	
충 남	186	186	103,777	338	260	229,128	152	74	125,351	120.8	
전 북	158	158	202,095	330	330	272,359	172	172	70,264	34.8	
전 남	202	242	97,248	251	284	146,260	49	42	49,012	50.4	
경 북	290	399	227,601	370	483	368,836	80	84	141,235	62.1	
경 남	608	842	1,689,818	662	809	710,641	54	(33)	(979,177)	-57.9	
제 주	140	159	78,410	169	185	71,233	29	26	(7,177)	-9.2	
합 계	7,521	8,494	11,007,184	8,176	9,080	11,153,911	655	586	146,727	1.3	()=마이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12월분)

구분 건축사회	1995년			1996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 울	18,866	18,946	31,356,368	25,924	25,988	56,437,587	7,058	7,042	25,081,219	80.0	
부 산	10,451	12,563	9,038,554	7,720	10,383	10,101,171	(2,731)	(2,180)	1,062,617	11.8	
대 구	14,288	14,870	8,166,388	8,053	8,097	8,926,781	(6,235)	(6,773)	760,393	9.3	
인 천	4,301	4,571	5,716,319	3,946	4,029	4,750,588	(355)	(542)	(965,731)	-16.9	
광 주	3,319	4,215	4,191,176	3,927	4,633	3,221,633	608	418	(969,543)	-23.1	
대 전	2,878	3,058	3,259,633	3,325	3,378	2,376,920	447	320	(882,713)	-27.1	
경 기	20,671	23,123	21,608,810	19,864	21,960	12,453,492	(807)	(1,163)	(9,155,318)	-42.4	
강 원	6,206	7,202	4,319,935	4,989	5,450	2,020,808	(1,217)	(1,752)	(2,299,127)	-53.2	
충 북	5,565	6,308	4,360,946	4,374	5,095	3,136,836	(1,191)	(1,213)	(1,224,110)	-28.1	
충 남	4,551	4,869	6,025,793	3,700	3,190	2,235,234	(851)	(1,679)	(3,790,559)	-62.9	
전 북	2,984	3,313	4,070,612	2,723	2,725	2,096,112	(261)	(588)	(1,974,500)	-48.5	
전 남	4,215	4,977	3,070,134	3,462	3,836	1,628,929	(753)	(1,141)	(1,441,205)	-46.9	
경 북	6,644	8,737	6,532,446	4,973	6,156	2,905,409	(1,671)	(2,581)	(3,627,037)	-55.5	
경 남	11,113	13,063	11,062,988	10,378	11,973	7,131,155	(735)	(1,090)	(3,931,833)	-35.5	
제 주	2,198	2,339	974,752	1,725	1,894	786,533	(473)	(445)	(188,219)	-19.3	
합 계	118,250	132,154	123,754,854	109,083	118,787	120,209,188	(9,167)	(13,367)	(3,545,666)	-2.9	()=마이너스

한·중·일 건축교류협정 체결

이사회 개최

건축3단체, 경쟁제한법령 개정안 공동대처

97년도 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 간담회

제2차 아·태건축 국제심포지엄

세네갈 GOREE기념박물관 국제현상설계

서울시, 현상설계 체계확립방안 마련

건축신간 안내

한·중·일 건축교류협정 체결

3국 건축사협, 중국 북경에서
협약체 구성 합의

앞으로 한·중·일 세국가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가간 건축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우리 협회(회장 김영수)를 비롯해 중국의 등록건축사협회(전국 등록건축사관리위원장 우이량) 그리고 (사)일본건축사협회(회장 사와다 미츠후사) 등 3개국 건축사단체는 지난 1월 8일 중국 북경에서 대표단 회의를 갖고 앞으로 동북아시아 국가간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한·중·일 건축교류 협의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협정서 체결에 참가한 이들 3개국 건축사단체들은 이번 합의로 세계무역기구(WTO)차원의 시장개방에 대비해 동북아시아 차원의 지역협조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 협의회를 통해 본격적인 국가간 건축교류의 폭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회원국을 순회하면서 정기총회를 개최기로 하고 차기회의는 내년 4월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개최기로 하였다. 이번 창립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 상호방문 및 관심현안에 대한 의견교류 ▶ 기술교류 및 간행물 등의 정보교환 ▶ 건축사등록에 관한 제도·정책·법규 등의 자료교환 ▶ 연구발표 및 전시회 등에 관한 학술·문화사업 협력 ▶ 기타 회원국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이다.



왼쪽부터 김영수 회장, 우이량 중국건축사등록관리위원장, 사와다 미츠후사 일본건축사협회장

이사회 개최

건축사 및 건축사보 직점인건비
기준 변경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97년도 제1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월 14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보고사항에 이은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의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사회 광경

○ 제1회

- 제1호 의안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전산화개발 운영업체 선정 승인의 건
 - 건설기술자경력관리 전산화개발 운영업체로 한국유니시스(주)를 선정기로 함.
- 제2호 의안 : 건축사시험관리업무 세부기준(안) 제정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3호 의안 : 경기도건축사회 직원 정원조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4급갑 1명→3급 갑, 7급갑 3명→6급갑)
- 제4호 의안 : 경조비 지급기준표 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경조비 지급기준을 '15만원 이내' 로 개정)
- 제5호 의안 : 임회비관리회계 임의적 립금 일시차입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97년도 1~3월중 건축사시험관리회계 운영을 위하여 임의적 립금 6천만원을 일시차입)
- 제6호 의안 : 복무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복무규정 제14조 '지참 및 조퇴의 영향' 삭제)

건축사 및 건축사보 직접인건비

(단위: 원)

구 분	직접인건비	학력 및 경력의 기준		
		대졸	전문대졸	공고졸
건축사	153,805	—	—	—
건축사보(고급)	111,484	10년 이상	12년 이상	14년 이상
건축사보(중급)	90,147	5년 이상 10년 미만	7년 이상 12년 미만	9년 이상 14년 미만
건축사보(초급)	63,872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9년 미만
보 조 원	55,263	—	5년 미만	7년 미만

- 제7호 의안 : 건축사 및 건축사보 직접인건비 기준변경(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하되, 시행일자는 1997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키로 함.

건축3단체, 공정위 경쟁제한법령 개정안 공동대처

건축3단체장 조찬회에서

「건설업계의 건축설계업 진출허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법령 개정안 처리방향을 두고 우리 협회와 건축가협회, 건축학회 등 건축3단체가 공동대처하기로 했다. 건축3단체 회장단은 지난 1월 24일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경쟁제한법령 개정을 다루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만간 건축계 반대여론을 수렴,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3단체 회장은 이번 공정위의 제안으로 말미암아 설계·시공의 분리원칙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사태를 막기 위해 3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논리로써 대처해 나갈 것을 합의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각 단체의 역대회장단을 중심으로 향후 건축계 원로모임을 정례화해 건축계의 현안 및 공동관심사에 있어 원로들의 자문을 구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3단체를 네트워크화해 수시로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각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보센터운영방식을 개발해 공동운영키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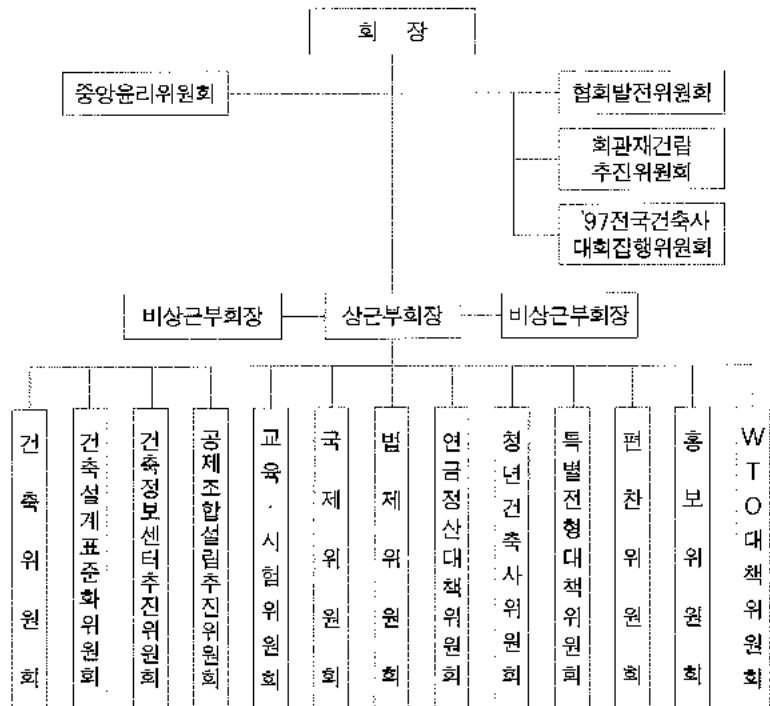
97년도 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 간담회

각 위원회별 활동 강화

올해 우리 협회 각 위원회별 활동방향을 협의하기 위한 97년도 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 합동간담회가 신년 교례를 겸해 지난 1월 7일 오후 2시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협회발전위

원회를 비롯해 '97전국건축사대회집행위원회, 회관재건립추진위원회, WTO대책위원회, 공제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 올해 새로 신설된 위원회들이 여느해 보다 많아진 관계로 위원회 운영상 예견되는 사업중복과 혼선을 막고 위원회간 역할조정과 회장의 지휘중점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과거 대다수 위원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왔던 반면, 일부 위원회의 경우 회의 참석률 저조 등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고 앞으로는 전임위원중 활동적인 위원들을 30%씩 잔류시켜 위원회 활동의 연계성을 도모키로 했다. 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학계, 유관단체, 전문가 등 외부인사들을 다수 포함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각종 사업을 2~3개 관련위원회가 공조해 추진키로 하는 등 위원회활동 강화를 위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었다. 올해의 우리협회 위원회 조직은 다음과 같다.

1997년도 위원회 조직표



건축관련 언론과의 간담회 개최

현안관련 협회 입장 및 올해
중점추진사업 밝혀

우리 협회는 지난 1월 17일과 18일 양일간 건축·건설관련 언론관계자 초청간담회를 가졌다. 건설관련 신문 및 건축전문잡지의 편집장과 기자 등 60여명이 함께 자리한 이번 간담회에서 본협회 김영수 회장은 먼저 현안관련 협회의 입장과 올해 중점추진사업에 대해 밝히고 이어 기자들과 일문일답 형식의 대화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건설회사의 설계참여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법령 개정안을 내놓은데 대해 구체적인 반대의견을 강력히 표명하고 이번 사안이 결코 규제완화 대상의 성격이 될 수 없음을 확고히 밝혔다.



간담회 광경

제2차 아·태건축 국제심포지엄

「공공장소의 건설」 주제로
4월 9일부터 하와이에서

미국 하와이대학 건축대학원이 주최하는 「제2차 아·태건축 국제심포지엄」이 오는 4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4일의 일정으로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다. 「공공장소의 건설」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공공장소 설계를 위한 역사적·문화적 고찰」, 「정치·사회·경제적 배려를 통한 공공장소의 변화목적 및 가치」, 「공공장소의 보존과 발

전에 대한 정책과정」, 「아·태지역 주요 도시 공공장소의 적극적 투자와 사례연구」 등을 내용으로 발표 및 토론이 열린다. 참가등록 마감일은 오는 3월 28일이며 등록비는 2월 28일 이전 등록자에 한해 미화 350달러, 2월 28일 이후부터는 400달러로 참가자는 별도의 숙박비(1일 기준 120달러)와 회의자료비 125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참가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기획실(02-581-5711~4)

세네갈 GOREE기념박물관 국제현상설계

강석원 건축가협회장, 심사위원으로 선정
참가신청접수 2월 20일까지

세네갈 정부가 다카르 마들레이灣에 위치할 박물관 및 정보·연구센터 등의 시설물에 대한 국제현상설계를 실시한다. 1백 50만 아프리카인들의 순례지가 될 이 기념단지는 길고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극복하고 자유와 안내로부터 창출된 문명을 건설하려는 끈질긴 아프리카인의 의지를 형상화시켜 향후 아프리카 공동체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건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프로젝트이다. 국제건축가연맹(UIA)의 승인을 얻어 UNESCO의 지원하에 실시되는 이번 설계경기는 1단계 공개설계경기로 특히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건축가협회 강석원 회장이 심사위원에 선정돼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응모자는 12,000㎡에 이르는 설계공간에 기념관과 2개의 박물관(항해박물관 및 노예거래박물관) 그리고 정보·연구센터를 설계해야 하는데 전체 기념단지의 각 부분을 연결하여 관람객들의 이동공간이 될 녹지공간의 설계가 주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프로젝트에는 아프리카 서안지역에 위치한 고레섬이 상징하고 있는 신세계의 발견과 노예무역의 형상화한 건축물들과의 조화를 비롯해 다카르시와 고레섬과의 상호관계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1등에 미화 5만

달러, 2등에 3만달러, 3등에 2만달러가 각각 수여되는 이번 국제현상설계의 참가신청 접수마감은 오는 2월 20일까지로 일정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일 정
 - 질의접수 : '97. 4. 20
 - 질의응답 마감 : '97. 4. 30
 - 작품제출 마감 : '97. 6. 20
 - 작품접수 마감 : '97. 7. 4
 - 심 사 : '97. 7. 22 ~ 27
 - 제출서류
 - 배치도(1/500), 중요 평면도(1/200), 기타 총평 평면도(1/500), 입면도(1/200), 단면도(1/200), 투시도, 설명서(모든 서류는 불어와 영어로 제출)
 - 등록서류
 - 모든 서류는 파리 UIA본부로 보내야 하며, 신청서에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E-mail주소도 함께 기재한다.
 - 제출 대표자의 각국 실무증명서 첨부(건축사 자격증 등)
 - 등록비 : 100 US\$ (또는 550 FF)
 - 송금은행 :
 - Credit Lyonnais 국좌번호 n°8803
 - 66 rue de Passy - 75016 Paris
 - France
- 문의 : 한국건축가협회 사무국(02-744-8050)

건축·건설자재정보 CD롬 출시

자재상품정보 등 2만여건의 정보 수록

국내에서 생산되는 건설관련 자재정보 2만여건을 단번에 찾아볼 수 있고 또한 구매자가 바로 생산업체와 연결해서 구매까지 가능한 「건설자재정보 CD롬」이 나왔다. 이같은 건설자재정보화는 자재유통의 신속성과 함께 국내의 경우 아직 건설자재의 「규격 및 분류 표준화」가 안된 상태에서 이를 촉진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보여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

다. 이번에 이 CD를 제작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술정보센터에 따르면 「건설지체정보를 CD롬뿐만 아니라 연구원이 구축한 건설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 내에도 담아 유니텔·천리안 등 통신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공급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체정보 5천여건(개발상품은 2만여건)을 비롯해 생산업체정보 1천6백여건, 업체소개 사진자료(카다록) 1만여건 등이 들어있는 이 CD롬의 가격은 30만원대로 책정될 예정이며 구매자는 계속해서 추가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통신서비스는 천리안의 경우 초기메뉴에서 GO CIC로, 유니텔은 GO CIC 또는 GO CICU로 접속하면 된다.

「시민문화발전모임」

창립총회 개최

주택·교통·환경 등 시민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 벌여

사회 각분야의 병리현상을 진단하고 비판과 아울러 이를 적극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사회 각 전문분야의 인사들이 힘을 모았다. 문화·건축·교육·환경 등 우리사회 각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시민문화발전모임」은 지난 1월 18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조 순 서울시장과 각계인사, 회원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시민생활의 질적향상과 성숙한 시민사회 건설을 다짐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모임의 목적과 사업내용, 회원자격, 임원선출 등을 골자로한 정관(안)을 승인한데 이어 최형섭(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회장), 유승국(대한민국학술원 회원), 김수학(前 새마을중앙회 회장)씨를 공동대표로, 또 우리 협회 김영수 회장과 오웅석 前회장 그리고 김수복(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임창복(성균관대 교수) 김은영(前과학기술연구원장) 씨 등 30여명을 운영위원으로 선출하였다.

시민문화발전모임은 앞으로 주택, 교통, 환경보존 문제를 비롯해 세계화 추진과 제, 남북통일 및 지역균형발전정책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들을 연구·발전시키고 대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그 실천 과정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사회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현상설계 체계

확립방안 마련

「심사배점 기준과 방식」 등 25가지 각종 서식 제시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서울시가 현상설계 운영에 대한 체계적 지침을 마련해 앞으로 현상설계 시행기관이나 건축설계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월 26일, 서울시는 현상설계의 시행·용모·심사과정 등을 명료화하기 위해 기존의 현상설계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각종 양식과 시행지침을 체계화했다고 밝혔다. 현재 현상설계 실행에 관한 지침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과 건설교통부고시, 한국건축설계경기규준 등의 규정이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시행자들이나 설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양식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혼란이 야기돼 왔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번에 마련한 「현상설계 체계 확립방안」에는 기존의 건축설계 운영지침 등 3개 관련규정을 시행자나 설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과 예시를 통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으며 그동안 많은 문제소지를 안고있던 설계심사위원회의 운영요령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침을 정해 놓고 있다. 또 이 방

안에는 점수제가 아닌 O,X방식의 채점을 해 옴으로써 객관성이나 명료성에서 자주 시비를 불러왔던 1차심사시 채점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심사배점 기준과 방식」을 규정한 양식을 새롭게 제안하고 있으며 이밖에 현상설계 공모공고부터 응모신청에 이르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각종 서식 25가지를 새로 마련해 제시하고 있다.

강동구, 건축민원 처리결과 통신서비스 실시

하이텔 통신서비스망 이용해
자료 열람

강동구청이 올해부터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건축민원서류의 처리결과를 하이텔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 1월 3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이 통신서비스는 건축허가나 건축심의, 사용승인의 처리과정 및 결과를 하이텔 통신서비스망을 이용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원거리의 민원인이나 건축민원관련 기관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비용절감 효과와 함께 민원서류 처리에 있어 신속을 기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하이텔(01410번)에 접속해 초기메뉴에서 GO KDGU를 입력한 후 강동구청 메뉴에서 12번「공지 및 게시판」을 이용해 열람하면 된다.

대림콘크리트, ISO9001

품질인증 획득

제품경쟁력 향상 기대

대림그룹 계열사인 대림콘크리트공업(주)는 현재 제조, 판매중인 4개품목(PHC파일, PC전주, 레미콘, 미라톤)에

대해 설계, 개발, 생산, 판매 및 서비스 등 전단계에 걸쳐 ISO9001 품질시스템 인증서를 획득했다. 이번 ISO 인증획득은 본사를 비롯 순천·용인·안양·조치원·칠서 등 5개 공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대림콘크리트측은 이번 ISO9001 품질인증 획득을 계기로 경쟁업체들과 차별화된 고품질의 제품을 고객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제품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임산물협회, 목재·목구조주택건축 소개

2월 22일부터 KOEX에서 열리는 「경향하우징페어」에서

미국임산물협회(American Forest & Paper Association) 한국사무소(대표 안경호)는 오는 2월 22일부터 27일까지 서울 KOEX에서 개최되는 경향하우징페어에 협회 전시관을 개설하고 미국의 목재 및 목구조 건축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건축 및 인테리어 관련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목재·목구조건축 관련 도서 및 간행물을 비롯해 미서부지역 목재협회(WWPA)가 제시하는 목재표준등급과 실제 목재류 샘플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1:1 스케일의 모델로 선보일 주요 구조물들은 목구조주택의 주요 부위인 벽, 바닥, 창들에 대한 내·외부 구조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고안되어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건축신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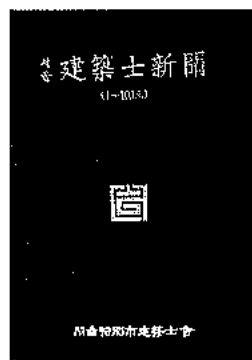
한국인테리어연감 5
서울건축사신문 축쇄판
천년의 도시 천년의 건축

◇ 1997 한국인테리어연감 5

1995년 한해동안의 실내디자인분야에 대한 모든 것을 체계화해 수록한 '97한국인테리어연감 5가 발간되었다. 이 연감은 실내디자인분야를 보다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플러스문화사가 지난 93년에 첫번째 연감을 낸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 것으로 논고와 작품, 제품, 등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논고편에서는 업계의 동향을 비롯해 건축과 일반디자인이 실내디자인분야와 공유할 수 있는 작업의 체계성과 변별성, 재료활용, 조명디자인, 컴퓨터 활용 등에 대한 관계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작품편에서는 95년 한해동안 발표되었던 주거, 판매, 업무 등 각종 시설물들이 소개돼 있다. 또 제품편에서는 품목별로 다양한 제품들이 사진설명과 함께 수록되어 있으며 인테리어 관련 학위 논문을 비롯해 유명 디자이너의 프로필, 디자인계 동정 등이 자료편에 수록돼 있다. (플러스문화사 판/02-563-4322)

◇ 서울건축사신문 축쇄판 발행

서울특별시건축사회가 발행하는 서울건축사신문 축쇄판이 나왔다. 이번 축쇄판은 지난 92년 6월 16일자 창간호부터 1백호까지를 한데 묶은 것으로 목차에 주제나 사안별로 각 기사를 분류해 놓아 쉽게 기사를 찾아볼 수 있도록 돼있다. 현재 격주 타블로이드판으로 발행되고 있



는 서울건축사신문은 정기구독자수의 꾸준한 증가와 더불어 건축전문지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잡아가고 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판/5만원/581-5715~8)

◇ 천년의 도시, 천년의 건축

김석철(종합건축사사무소 아카반 대표) 회원이 건축에세이 「천년의 도시...」를 펴냈다. 이 책은 저자가 건축에 입문해 건축가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와 건축물을 둘러본 후 쓴 기행문, 국내 건축계의 오늘을 진단한 글들을 한데 모아 엮은 것으로 30여년 동안 서구문화와 전통문화의 고리를 건축적 시각에서 엮고 풀어낸 저자의 건축철학을 함께 담고 있다.

책에 수록된 「천년의 도시」는 그리스문명의 기반이었던 크노소스궁전, 성령의 도시 예루살렘, 1000년 동안 세계문명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이스탄불, 베수비오화산 폭발로 폼페이와 함께 화산재에 묻혔던 에르콜라노, 최초의 기업도시 맨해튼 등 각국의 고도(古都)를 여행한 후 쓴 글이다. 저자는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알면 성경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이스탄불을 알면 비잔틴 문명의 정수를 깨닫게 된다』며 『세계 각국의 고도에는 역사와 문명이 살아 숨쉬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해냄판/8천원)



◇ 정정합니다.

지난호(9701) 회원등록변경 현황 중 145p 신창현 : 고졸→수도공고졸, 김수덕 : 건물건축사사무소→건우건축사사무소, 146p 황종원 : 건우건축사사무소→태인건축사사무소, 주응식→폐업